# 책을 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의 정서교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다방면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나라 혁명소설과 함께 다른 나라의 고전작품들을 잘 배합하여 출판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과 청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문학작품과 함께 수많은 외국문학작품들을 출판하여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편집부는 외국문학작품들에 대한 리해를 깊이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계문학작품해설집》(전10권)을 내보낸다.

《세계문학작품해설집》 1, 2, 3권에서는 이전 쏘련의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비롯한 로씨야의 문학작품들을, 4, 5권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문학작품들을, 6, 7, 8, 9권에서는 유럽의 문학작품들을, 10권에서는 아메리카의 문학작품들을 해설하였다.

해설집에서는 매 작품의 주요내용과 주인공들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적의의와 함께 제한성을 밝혀주었다. 또한 해설집에서는 작가소개와 작가일화, 유모아, 상식, 작품의 발취문들을 편집하여 세계문학에 대한 리해와 상식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편집부

# 차 례

# 우데게족의 마지막사람

장편소설 《우데게족의 마지막사람》은 이전 쏘련의 작가 알렉싼드르 알렉싼드로비츠 파제예브가 1929－1940년에 창작한 다부작미완성작품이다.

소설은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원동지방에 조성되였던 복잡한 정치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치렬하게 벌어진 계급투쟁의 력사를 반영하고있다.

소설에는 원동혁명위원회 위원장 쑤르꼬브, 부위원장 마르쩨미야노브, 지하주당위원회 대표 알료샤 말렌끼, 빨찌산부대 대원인 쎄냐 꾸드랴븨, 탄광로동자 야꼬브 부또브, 의사 꼬스쩨네쯔끼와 그의 아들딸들인 쎄료쟈와 레나, 극악한 반동분자이며 악랄한 착취자인 김메르만, 쑤찬탄광주둔 미군사령관 그레헴, 백파군 대좌 란고보이 등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은 원동혁명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쩨미야노브와 쎄료쟈가 지방대회소집을 위한 대표자선발회의를 지도하기 위하여 원동의 소수민족부락들을 찾아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원래 로씨야의 원동지방은 미개척지로서 여기서는 우데게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살고있었다.

짜리정부의 원동개척정책에 의하여 19세기 중엽부터 이곳으로 수많은 로씨야인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였다. 《부식토가 두텁게 깔린 비옥한 땅》에 대한 통치배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넘어간 수많은 땅없는 농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멀고먼 원동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것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황무지였다. 좋은 땅들은 이미 구교도들이 다 차지했고 새로 개발되는 탄광과 광산들도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손에 장악되여있었다. 이주민들은 얼마 안되는 척박한 땅에서 뼈빠지게 일하

였지만 처지를 개선할수가 없었고 로동자들도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짜리군주제도를 뒤집어엎은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은 이 원동땅에도 미쳐온다. 볼쉐비크들에 의하여 이곳에도 쏘베트정권이 일떠선다. 착취받고 억압받던 로동자, 농민은 물론 쎄료쟈의 아버지 끄스쩨네쯔끼의사와 같은 지식인들까지도 쏘베트정권을 적극 지지해나선다.

이 혁명의 바람을 타고 짜리제도하에서 광산, 탄광, 제분소를 틀어쥐고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던 김메르만과 같은 부르죠아지들도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르고 나서서 저들의 시의회를 조직한다.

쏘베트는 부르죠아지들의 이 시의회를 해산해버린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메르만은 쏘베트정권에 《한푼의 돈도 한알의 낟알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쏘베트정권을 허물어버리려고 책동한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외국의 무력간섭자들이 원동에 손을 뻗친다. 이전 체스끄포로병들로 무어진 군대가 도시로 들어오고 미국군함과 왜놈들의 함선들이 련이어 항구에 기여든다. 이 놈들을 등에 업은 꼴챠크백파도당은 가는 곳마다에서 쏘베트정권을 무너뜨린다. 김메르만을 비롯한 착취계급은 때를 만난듯이 날뛰면서 꼴챠크도당을 적극 지지해나선다.

쏘베트정권이 전복된 도시에서 반혁명세력들은 이른바 《민주주의적인 선거》놀음을 벌려놓고 투표결과를 무효화하면서까지 저들의 정부를 세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고 이모부인 김메르만의 집에서 자라던 쎄료쟈의 누이인 레나는 모순과 의혹속에 모대긴다. 그는 처음에는 부르죠아세계에서 자라면서 부정적인 교육을 받고 악질백파장교인 란고보이를 사랑한다. 그는 쏘베트와 인민들의 편에서서 혁명에 참가하고있는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그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이모부를 보면서 과연 누가 옳은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러나 놈들의 위선적인 《선거》놀음과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보면서 점차 부르죠아계급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그 저주로운 세계와 결별한다.

도시들에서 쏘베트정권들이 무너진 후 원동의 농촌지역들에서는 혁명적인 폭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

그 앞장에 선것은 지난날 가난과 멸시속에서 살아오던 로동자출신의 빨찌산대장 쑤르꼬브이다. 그는 반혁명적무장반란으로 도시에서 쏘베트정권이 전복될 때 체포되였다가 탈출하여 농촌지역으로 나가 빨찌산부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 그는 진정한 투사로, 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장한다.

《쏘베트정권을 위하여 투쟁하자!》, 그가 내세운 이 구호에 쑤찬지방의 로동계급과 농민들이 호응해나선다.

그런데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그들은 어려운 문제와 맞다들린다.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이 경작하게 하자는것은 폭동이 제기한 가장 중요한 구호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제때에 바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30%를 차지하는 수많은 어민들과 사냥군들(그들은 나날이 뛰여오르는 낟알값으로 고통을 받고있다.)이 폭동을 반대해나설 우려가 있었다. 또한 보잘것 없는 땅뙈기에 매여 로씨야인지주에게 엄청난 소작료를 물거나 중국인마적들에게 공물을 바치며 살아가는 주민의 20%를 차지하는 어느 한 민족집단과 기타 여러 소수민족들도 자칫하면 로씨야인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돌릴수도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원동지역 혁명운동의 흥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쑤르꼬브는 백파들이 도시를 차지하고있는 조건에서도 쏘베트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주대회를 소집할것을 결심하고 그 준비사업을 밀고나간다.

《혹시 우리가 여기서 진압당한다해도 우리가 제때에 틀어쥘수 있었던 대중에게 쏘베트정권을 맛보게 해야 한다. 한번 찍혀진 자욱은 일생동안 남아있는 법이다!》

바로 그 지방대회에 참가할 대표자선발을 위한 회의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혁명위원회 부위원장 마르쩨미야노브와 꼬스쩨네쯔끼의 아들인 17살난 청년 쎄료쟈가 길을 떠난것이다.

마르쩨미야노브일행은 도중에 이미전부터 잘 알고있는 우데게족 사냥군인 싸를을 만난다. 혁명전 워로네쥬에서 원동으로 이주한 마르쩨미야노브는 악착한 경찰놈을 때려눕히고 수림속으로 달아나 방황하다가 사냥으로 살아가는 우데게족에 의하여 구원된적이 있다. 그때 몸이 완쾌되자 그는 자기를 몹시 따르던 싸를소년을 데리고 넓은 세상으로 나왔었다. 싸를은 쑤찬탄광에서 로동을 하는 과정에 점차 계급적으로 눈을 뜨게 되였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는 빨찌산부대에 들어가 정찰도 하고 전투에도 참가하였었다.

그러한 인연이 있는 싸를을 만난 후 우데게족의 마을을 찾아간 마르쩨미야노브는 그들에게서 지방대회소집의 목적과 의의를 알기 쉽게 해설해준다. 우데게족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좌상인 마쎈다로인과 싸를이 지방대회대표로 선출된다.

한편 드넓은 농촌지역을 장악하고 저들의 철도수송을 방해하는 빨찌산들의 활동에 불안을 느낀 백파들은 대병력을 집결하여 빨찌산부대를 소멸하려고 한다.

이에 대처하여 쑤르꼬브는 빨찌산부대들을 집결하여 놈들의 전략적거점인 쑤찬탄광을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탄광을 장악하면 놈들의 철도수송에 필요되는 석탄을 통제할수 있다는것을 타산한것이다.

빨찌산부대들이 한창 무력을 집결하고있을 때 도시로부터 새로 조직된 지하주당위원회 대표인 알료샤 말렌끼가 그들을 찾아온다.

그는 쑤르꼬브에게 지방대회소집을 중지하고 빨찌산부대들이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지하주당위원회의 지시를 전달한다. 그 리유는 도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에서의 정권수립, 《농민공화국》의 출현을 허용할수 없으며 적들의 대규모적인 공세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하여야 빨찌산부대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쑤르꼬브는 알료샤 말렌끼와 가까운 친우이고 전우였으나 이 문제를 놓고서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쑤르꼬브는 혁명군중의 절박한 요구와 쑤찬탄광공격의 의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 결국 이 문제는 혁명위원회 토론에 제기된다.

혁명위원회 회의에서는 참가자의 대다수가 지방대회소집과 쑤찬탄광공격을 지지해나선다.

쑤르꼬브는 어느 한 민족의 대표자선출회의들을 직접 지도하고 소수민족들을 못살게 구는 중국인마적단의 책동을 짓부시는 등 대회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 그는 쑤찬공격을 눈앞에 둔 때에도 《혁명군》으로 자처하면서 소수종족들을 략탈하는 마적단을 소탕하는 전투에 적지 않은 부대들을 동원시킨다.

빨찌산의 쑤찬공격이 준비되고있을 때 쑤찬탄광에 주둔하고있던 미군부대에서 쑤르꼬브에게 회담을 요구해온다.

쑤찬탄광주둔 미군사령관인 그레헴은 쑤르꼬브에게 쑤찬탄광의 미군이 깐가우즈－슈꼬또보－우골리나야지구로 이동하게 되니 앞으로 이 지역에서 빨찌산이 미군과 《성실한 관계》를 가지자고 제의하면서 얼마 안되는 피복과 군화로 그를 얼려보려고 시도한다.

쑤르꼬브는 대번에 미군측의 속심을 간파한다. 그는 쑤찬탄광에서 미군의 철수는 왜놈군대의 탄광에로의 이동으로 이어질것이며 깐가우즈－슈꼬또보－우골리나야지구에서 미군과의 《성실한 관계》는 이 지역에서 빨찌산활동의 중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슈꼬또보는 이미 빨찌산부대들에 의하여 해방되여있었다.)

쑤르꼬브는 그레헴의 면전에서 이른바 《중립》을 표방하는 미군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하여 낱낱이 폭로한다. 그는 미군이 꼴챠크백파도당에게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적 및 재정적지원과 의료상의 지원 그리고 백파들과 왜놈군대들이 미군관할하의 철도를 마음대로 리용하는데 대하여 까밝히면서 미군이 진실로 빨찌산과 좋은 관계를 가질 용의가 있다면 빨찌산부대에 필요한 무장장비들을 제공할것을 요구한다. 미군대표가 이를 회피함으로써 회담은 파탄된다. 그후 쑤찬탄광에는 미군을 대신하여 왜놈들이 기여든다.

백파들은 쑤찬탄광의 수비대를 한개 련대로 증강하며 그 우두머리로는 한때 레나의 애인이였던 란고보이가 파견되여온다.

짜리시대 오랜 군인가문의 자손인 란고보이는 자기의 조상들처럼 짜리에 대한 《충성심》이 골수에 배긴자이다. 그자는 짜

리제도를 뒤집어엎은 볼쉐비크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도시에서 쏘베트주권을 전복하는데 앞장서 날뛰였으며 수많은 혁명가들의 피로 손을 물들인것으로 하여 일찌기 대좌로 승급하였다.

쑤찬에 도착한 란고보이는 자기들이 계속 탄광에만 박혀있는다면 결코 폭동군을 소멸할수 없다는것을 깨닫는다. 이곳의 나무 한그루, 돌 하나에 이르기까지 알고있고 주민들과의 련계밑에 백파군의 력량상태와 이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알고있는 빨찌산은 임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질수 있지만 백파들의 《토벌》부대들은 큰길로 낮에만, 그것도 비교적 대부대로만 이동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세한 무장장비의 우점을 다 리용할수 없는것이다. 란고보이는 부대를 넓은 분지로 끌어낸다면 기관총과 대포의 우세를 리용하여 비록 수적으로는 많지만 비조직적이고 무장이 좋지 못한 폭동자들을 능히 소멸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란고보이는 즉시 련대의 주력을 동원하여 뻬랴찌노마을에 집결된 폭동군들을 소멸하고 활동의 중심인 스꼬베예브까마을을 점령할것을 결심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백파들은 전체 분지에 대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것이며 폭동군은 부대편성과 공급기지들을 잃게 될것이라고 타산한것이다.

이 계획은 즉시 실행된다.

탄광수비대의 주력이 《토벌》에 나가고 탄광에는 2～3개 중대의 백파군과 한개 중대의 왜놈군대만이 남아있다는 통지를 받은 쑤르꼬브는 적들의 뻬랴찌노공격을 앉아 기다릴것이 아니라 쑤찬부대전체로써 탄광을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1 500여명의 빨찌산부대들은 뻬랴찌노를 떠나 백파들보다 먼저 빠라모놉스끼마을에 도착하여 매복한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란고보이는 빠라모놉스끼부락에 있는 《얼마 안되는 빨찌산부대》를 소멸할 목적으로 3개 중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마을로 달려든다.

빨찌산의 맹렬한 사격을 받고 포위될 위험에 처해서야 란고보이는 자기의 실책을 깨닫는다. 이제는 뻬랴찌노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부대와 탄광을 구원하는것이 문제임을 알게 된 란고보이는 즉

시 퇴각명령을 내리고 앞서떠난 주력부대에 탄광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보낸다.

빨찌산부대들은 퇴각하는 백파들을 뒤쫓아 탄광으로 진격한다.

그러나 탄광입구에서 빨찌산들은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는다. 백파군과 합세한 왜놈군대들이 탄광앞의 언덕을 차지하고 기관총과 대포로 맹렬한 사격을 퍼붓는다. 빨찌산들의 여러차례의 돌격시도는 그때마다 저지당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빨찌산들은 지치고 탄알도 떨어져간다. 더우기 되돌아오는 백파군주력에 의하여 빨찌산들이 포위될 위험이 조성된다.

쑤르꼬브는 적의 《토벌》작전을 파탄시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것만큼 부대들에 철수명령을 내린다.

쑤찬탄광공격전투가 있은 후 쑤르꼬브와 알료샤 말렌끼사이의 의견상이는 더욱 커진다.

알료샤 말렌끼는 쑤찬전투를 대부대작전의 실패라고 하면서 빨

## 작가의 말

《예술은 질서이며 조형성이며 통일성이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서와 기분을 자아낼수 있는 그런 리듬, 그런 어휘, 그런 구성을 발견할줄 아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소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허한 대화와 작가의 설화속의 오물은 서투른 배우의 불필요한 동작과도 같은것이다.》

《섬세한 관찰력, 촉감, 상상력, 지혜, 분석과 일반화의 능력, 언어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수완, 이런것들이 작가에게 필요하다.》

《항상 자각속에 사는 사람은 결함과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찌산부대들이 지하주당위원회의 지시대로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하여 쑤찬탄광을 떠나 우쑤리철도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쑤르꼬브 역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

폭동군지휘부대에서의 이러한 의견상이는 그들중 누구도 동서남북으로 쏘베트로씨야를 포위한 전선들의 형편이 어떠하며 세계정세와 앞으로 제국주의렬강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겠는가를 알지 못하고있는데로부터 생겨난것이다. 사태를 알고있으며 그로부터의 결론을 찾을수 있는 사람들은 씨비리밀림과 우랄산줄기를 넘어 1만㎞나 떨어진 곳에 있고 이 사태들을 대강이나마 짐작할수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있다.

이러한 때 쑤찬탄광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로동안전대책이 전혀 세워져있지 않은 갱안에서 두명의 로동자가 사고로 죽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파업은 온 탄광에 퍼져나간다.

오랜 로동자들이며 지하조직성원들인 야꼬브 부또브와 필랴는 군

《어떤 사상이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열가지, 열다섯가지, 스무가지 말들이 떠오를수 있는데 그중에서 최대의 진실을 표현하는 한가지 말을 선택하는것이 작가의 언어작업이다.》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요구하는것은 언어에 대한 작업 즉 당신이 본것과 당신의 의식속에 응고된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지향이다.》

《당성과 계급성을 떠난 제3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옳은 사상을 가지지 않고서는 생활의 이러저러한 현상을 당적인 안목으로 정확히 투시할수 없으며 계급의 리익을 반영한 문학을 창조할수 없다.》

《참다운 작가는 생활속에서 태여나 혁명적실천속에서 성장한다.》

《지식의 다방면성이야말로 작가들의 귀중한 창작적재부이다.》

《작가는 생활의 관찰자, 판단자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여야 한다.》

중집회를 열고 전체 탄광마을을 폭동에로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탄광관리측과 란고보이는 로동자들의 요구조건을 무시하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갱들을 봉쇄하고 폭동자들을 탄압한다. 왜놈군대들도 백파군대와 야합하여 핵심적인 로동자들을 체포하고 학살하며 날뛴다.

혁명위원회는 조성된 정세로부터 탄광의 핵심들과 무기, 폭약을 빨찌산들이 활동하고있는 지역으로 빼내오기 위한 사업들을 조직한다.

드디여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주당위원회 일군들과의 련계가 맺어진다. 빨찌산부대로 보내온 편지에서 지하주당위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왜놈군대가 이곳으로 밀려든다는것과 서쪽에서 쏘베트붉은군대가 꼴차크백파군대를 성과적으로 쳐부시며 공격해온다

○ 작가일화 ○

## 차라리 죽음을!

파제예브는 1956년 5월 13일 55살에 사망하였다.

당시 그는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였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이였으며 미완성장편소설 《우데게족의 마지막사람》을 한창 쓰고있던중이였다. 하다면 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던 작가가 한창나이에 왜 그렇게 갑자기 사망하였는가?

당시 사회주의쏘련에서는 집권당내에 수정주의조류가 발생하고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음모적방법으로 최고지도권을 탈취한 다음 지난날의 혁명적문화유산을 거부하는 찬바람을 세차게 일구고있었다. 수령을 헐뜯고 당의 령도를 부정하며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전통을 쓸어버리기 위한 대선풍이 일어났다. 작가동

는 소식을 알린다. 그러면서 주당위원회는 혁명위원회의 당면과업은 로동자들의 지도밑에 농민들의 무장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화하고 붉은군대의 진격에 때를 맞추어 그것을 씨비리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무장봉기에로까지 발전시키며 백파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운수수단과 통치기구, 군사 및 산업기구들을 파괴하는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방대회소집을 지지한다. 그리고 탄광의 기계설비들을 파괴하고 로동자들을 폭동대렬에 합류시키며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잘 배합할데 대하여 지시한다.

쑤르꼬브와 알료샤 말렌끼는 드디여 자기들의 당면한 투쟁목표와 수행방도를 명확히 알게 된다. 그들사이의 론쟁도 이것으로 끝이 난다.

맹안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적지 않은 작가들이 수정주의의 진창속에 빠져들어가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과 염전사상, 부르죠아평화주의와 계급협조를 설교하는 반동작품들을 써내기 시작했다.

파제예브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수정주의적당지도부의 압력에 굴종하여 자기가 그렇게도 한생에 정력을 다 바쳐 찬양했던 당과 수령을 헐뜯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부정해야 할것인가. 그것은 곧 자기의 지난 시기 창작을 전부 포기하고 자기의 신념과 사상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것이 아닌가.

자기가 소설들에서 애정을 가지고 묘사하였던 모로스까 (《괴멸》) 와 올레그 (《청년근위대》) 를 비롯한 주인공들의 준엄한 눈길이 자기의 량심을 지켜보며 묻고있는듯싶었다.

아니, 차라리 죽음을!

그는 자살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것만이 쏘베트작가의 량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던것이다. 살아서 싸우는것이 더욱 영광스러울것이였으나 수령을 잃은 작가의 운명은 이렇게 끝났다.

낮과 밤을 이어 탄부들은 탄광마을을 떠나 빨찌산부대들을 찾아간다.

쑤르꼬브는 야꼬브 부또브와 토론하고 탄광의 명맥인 3대의 미국제대형권양기를 파괴해버리기로 한다.

부또브의 안내밑에 빨찌산대원인 쎄냐는 권양기폭파계획을 알아차리고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있는 왜놈군대와의 격전끝에 끝내 정거장부근의 권양기를 폭파해버린다. 그것을 신호로 로동자들은 다른 2대의 권양기도 일제히 폭파한다. 그 폭음은 폭동부대의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인듯 크게 울린다. …

초기에 총 6부작으로 구상되였던 장편소설 《우데게족의 마지막사람》은 뜻밖의 《사고》로 인한 작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하여 더이상 완성되지 못하였다.

원동의 쑤찬지역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작가는 자기의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짜리제도와 낡은 씨족관념하에서 불행과 고통,

○ 인물소개 ○

## 쎄르게이 게오르기예비츠 라조

로씨야의 공민전쟁시기(1918－1920)의 영웅인 라조는 1894년 빠뜨릐마을에서 태여났다.

모스크바종합대학 물리수학부 재학당시에 그는 혁명적인 대학생소조활동에 참가하였다. 1916년 12월 군대에 징모되여 알렉쎄예브보병학교를 졸업하고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제15씨비리예비보병련대에 배치되였다.

1917년 12월 이르꾸쯔크에서 일어난 반혁명무장반란을 진압하는데 참가하였으며 이르꾸쯔크수비대 대장,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였다. 1918년 2월 자바이깔전선군 사령관으로 된 라조는 쎄묘노

무지와 몽매속에 헤매이던 우데게족이 사회주의를 위한 벅찬 투쟁속에서 자기들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력사적과정을 소설에 담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집필과정에 초기의 우데게족에 대한 구상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고 1917－1919년의 연해주생활, 전제제도의 전복과 원동에서의 쏘베트주권의 탄생, 외국무력간섭자들의 침입과 원동빨찌산활동의 시작과 장성과정이 주도적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특히 원동빨찌산들의 위훈,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빨찌산영웅 쎄르게이 라조의 활동과 투쟁위훈은 작가의 심장을 세차게 틀어잡았으며 그것은 작품에서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굴할줄 모르고 오직 혁명승리를 위해 싸워나가는 혁명위원회 위원장 쑤르꼬브의 형상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였다. 쑤르꼬브는 외국무력간섭자들의 사촉과 지원을 받는 꼴챠크백파도당과의 힘겨운 싸움과 도시들에서 쏘베트정권의 전복, 중앙과의 련계단절과 새로 조직된 지

브백파도당을 격멸하는 전투들을 조직지휘하였다. 1918년 가을 볼쉐비크당 원동지역지하위원회 위원으로 되였다. 1919년 봄 혁명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된 그는 폭동준비사업을 지도하였다.

1920년 1월 30일 쁘리모리야에서 백파군정권이 전복된 후 그는 혁명군사위원회 위원, 볼쉐비크당 중앙위원회 원동지역위원회 성원으로 되였다. 1920년 4월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쏘베트정권을 전복한 일본무력간섭자들은 라조를 비롯한 혁명군사위원회 성원들을 체포하였으며 그해 5월말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원동에서 백파도당과 외국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눈부신 위훈을 세운 그는 인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으며 영웅으로 떠받들리웠다. 그의 영웅적투쟁모습은 장편소설 《우데게족의 마지막사람》에서 혁명위원회 위원장 쑤르꼬브의 원형으로 되였다.

하주당위원회와의 의견상이, 농민문제와 빨찌산활동의 발전방향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아나서지만 언제나 주저를 모르고 오직 혁명의 리익을 앞자리에 놓고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나간다. 작가는 원동빨찌산들의 투쟁과 위훈을 통하여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인민대중의 력사적흐름은 그 어떤 힘으로도 결코 막을수 없다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였다.

작품에서 작가가 특별히 주의를 돌린것은 끄스쩨네쯔끼일가, 특히 레나의 형상이다. 지식인출신의 레나는 혁명과 반혁명, 모순과 의혹속에서 방황하다가 끝내는 혁명의 편으로 넘어오며 용감한 빨찌산청년 쎄냐를 사랑하게 된다. 작가는 레나의 형상을 통하여 량심적인 지식인들이 나갈 참된 삶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또한 작품에서 작가는 미국의 량면적이고 위선적인 행위와 백파들과 야합하여 원동에서의 혁명운동탄압에 직접 참가하는 왜놈군대의 죄행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교활성, 계급투쟁의 국제적성격들도 보여주고있다.

그러면 작품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우데게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것인가.

작가는 초기의 이야기줄거리구상에서 이렇게 예견하였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데게족이 원쑤와의 싸움에서 전멸되여가는 때, 전투에서 싸를이 전사하였을 때 그의 안해는 죽은듯이 가장하고 자기 어린 아들을 몸으로 가리운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우데게족의 마지막병사를 안고 비낀과 호르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간다. 구원된 아들은 싸를의 모습을 신통히도 닮았다. 그 아이는 행복의 별아래서 자라나게 될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그는 자유의 〈그늘〉 아래서 자기 인민의 생활의 혁신자로 될것이다.》

장편소설 《우데게족의 마지막사람》은 비록 4부까지밖에 더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장편소설 《괴멸》과 함께 공민전쟁시기 쏘베트주권을 위해 꼴챠크백파도당과 외국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원동빨찌산들의 투쟁과 위훈을 보여준 작가의 대표적작품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 ❖

유목하는 씨족들의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청명한 늦은 가을을 만나는것이였다. 그것은 결혼의 시절이였다. 겨울철사냥을 앞두고 사냥놀이와 춤이 벌어진다. 여름내 많은 기적을 보았고 힘내기를 해볼것을 몹시 갈망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군 하여 사람들은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를 듣고 부산스럽게 뛰여다니며 노는 모습이며 화살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장면이며 아이들이 우등불을 피워놓고 그 두리에 모여 어른들을 흉내내며 이야기판을 벌려놓는것 등을 보고는 속이 후련해하군 하였다.

웃동을 홀렁 벗은 마쎈다는 바다가에 피운 우등불곁에 앉은 다른 소년들사이에 끼여 유까미까씨족의 소년이 붉은 승냥이를 만난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왔다. 아버지는 요새 며칠을 두고 만든 큰 활을 메고 칼과 화살들을 넣은 가죽갑을 허리에 차고 작살을 들고있었다.

《가자.》하고 아버지가 말하였다.

마쎈다는 공손히 일어섰다.

그들은 어린 조밥나무들이 무성한 좁은 골짜기로 해서 말없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마쎈다를 이끼낀 바위들로 둘러싸인 시꺼먼 동굴로 데려갔다.

《너는 여기서 7일동안 살아라. 동굴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노래는 불러도 좋다.》

아버지는 마쎈다에게 작살, 칼, 활을 주고 어둠속을 소리도 없이 가만히 내려갔다.

마쎈다는 자기가 사냥군과 군인이 되기 전에 시험을 치르어야 한다는것을 깨닫고 동굴로 들어갔다.

시험을 치를 때 제일 무서운것은 캄캄한 밤에 짐승과 맞다들

리는것이였다. 암바라는 암범이 시험을 치르는 총각들을 물어간 일도 있었다고 하였다.

…

그는 동굴안에서 7일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냈다.

마쎈다가 아버지처럼 무기를 몸에 지니고 한손에 작살을 축 늘어지게 들고 분지로 내려갔을 때는 붉은 해빛이 나무꼭대기까지 내려앉고 저 아래에는 벌써 재빛저녁안개가 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천막들사이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 그를 바라다보지 않았다. 아버지와 형들도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그를 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천막안으로 들어가더니 마쎈다에게 모피장화와 저고리와 이쥬브리사슴가죽으로 지은 긴옷 세벌과 다람쥐꼬리가 달린 모자를 내다주었다. 그것들을 몸에 걸치고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마쎈다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그렇게 앉아있었다.

비록 그는 목이 타는듯이 말랐으나 식사전에 나이순으로 아버지와 형들이 물을 마신 다음에야 비로소 몇모금 마시였다. 아침에 아버지는 자기의 담배대를 그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마쎈다는 사냥군과 군인으로 되였다.

장편소설 《우데게족의 마지막사람》중에서

# 먼 나라들

중편소설 《먼 나라들》은 이전 쏘련의 작가 아르까지 가이다르가 1932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씨비리로 가는 도중에 있는 한 궁벽한 간이역에서 살고있는 두 소년의 시점을 통하여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투쟁과 그 과정에 벌어지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간이역마을 소년들인 와시까와 뻬찌까, 농촌쏘베트위원장 예고르아저씨, 와시까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완 미하일로비츠, 꿀라크인 다닐라령감, 술주정뱅이 예르몰라이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은 간이역마을 아이들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된다.

이 마을에는 아이들이 몇이 안된다. 철길감시원네 집에 와시까가 있고 기관사네 집에 뻬찌까가 있고 전신수네 집에 쎄료즈까가 있다. 나머지 아이들은 보잘것 없는 꼬마들이다.

뻬찌까와 와시까는 친하게 지낸다. 그러나 쎄료즈까는 심술쟁이이고 싸움하기를 좋아한다.

어느날 와시까는 목을 앓는다. 그래서 밖에 나가놀지 못하고 창문가에 앉아있던 와시까는 문득 겨드랑이에 무슨 보따리를 끼고 여느때보다 점잖게 걸어가는 뻬찌까를 본다. 어데로 가는지, 종이에 싸든건 뭔지 물어보고싶지만 어머니가 문도 못열게 한다.

다음날 뻬찌까는 또 무엇인지 신문지에 싸들고 지나간다. 호기심이 부쩍 동한 와시까는 어머니가 자기의 목이 다 나았음을 알게 하려고 비발치듯 퍼붓는 총탄속에서 꼼무나부대가 영웅적으로 잘 싸웠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런데 꼼무나원들이 저주로운 장군놈의 죄악을 날날이 까밝히는 가장 엄숙한 대목에 이르렀을 때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이 못난 녀석, 정신나간게 아니냐? 가만 듣고만 있자니까. … 길잃고 맹맹 울어대는 염소새끼처럼 소릴 지르구.》

와시까는 공연히 애쓴것이 분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따뜻한 뻬치까우로 올라간다.

(갑갑도 하다. 학교도 없지, 삐오네르들도 없지, 급행렬차는 멎지도 않고 지나가버리지, 겨울은 길지, 정말 갑갑하구나. 여름이라도 어서 와주었으면! 여름이면 물고기, 산딸기, 버섯, 호두가 있지 않은가.)

공민전쟁은 승리적으로 끝났으나 혁명은 여전히 간고하고 내외원쑤들의 준동이 심하다. 그러나 와시까는 아직 그런것을 알수 없다.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누구와 한바탕 싸워보거나 즐겁게 놀 생각밖에 없다.

다음날에야 와시까는 목이 다 나아 밖으로 나온다. 뻬찌까를 만나자마자 와시까는 따져묻는다.

《뻬찌까야, 너 요새 어딜 싸다니니? 그리구 왜 한번도 우리 집에 들리지 않았니?》

뻬찌까는 대답한다.

《가긴 갔댔어. 너의 집앞까지 갔는데 글쎄 요전에 우리가 너의 집 드레박을 우물에 빠뜨린 일이 생각나질 않겠니? 그래서… 그냥 돌아오구말았어.》

그러면서 그는 벌써 사흘째 이완 미하일로비츠선생에게 글을 배우러 다닌다고 자랑한다. 와시까도 다음날부터 함께 공부하러 간다.

공부하러 가는 길에 뻬찌까는 사람은 나이가 많을수록 꾀가 많아진다고 한다.

《우리 마을 다닐라를 보렴. 그 령감은 쉰살인데 그 령감보다 꾀많은 사람은 없단다. 그 령감은 곡식 200뿌드를 나라에 바쳐야 할텐데 농민들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 무슨 종이장에 도장을 찍게 했단다. 그리구는 그 종이장을 가지구 구역에 가더니 150뿌드나 줄여가지고 왔거든.》

와시까는 반박한다.

《그 령감은 늙었기때문에 꾀가 많은게 아니라 꿀라크(부농)

이기때문에 남을 잘 속인다는거야. 뻬찌까, 꿀라크란게 뭘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령감태기보고는 왜 꿀라크라고 할가?》

아직은 8살, 어린 그들의 작은 눈동자에도 마을의 치렬한 계급투쟁의 모습이 비껴들기 시작한것이다.

뻬찌까가 자기 식대로 설명한다.

《아무튼 너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들도 모두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다닐라령감은 지난 여름에 품파는 녀자 네명을 데려다가 밭일을 시켰고 또 웬 조카인지 뭔지 된다는 사람과 또 무슨 사돈이라는 사람을 부려먹었고 또 술주정뱅이 예르몰라이를 과수원 지키는 머슴으로 두고있지 않니. 우리가 거기에 사과따러 갔다가 네가 예르몰라이한테 붙잡혀서 엉정퀴가지로 얻어맞던 일이 생각나니?…》

그들의 선생 이완 미하일로비츠는 오래전에 한때는 기관사로 있던 사람이다. 혁명전까지는 보통기관차의 기관사였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고 공민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보통기관차에서 장갑기관차로 자리를 옮겼다. 가렬한 전투의 나날 적의 포탄파편에 팔 하나를 잃은 이완 미하일로비츠는 와시까와 뻬찌까에게 어렵던 전투에 대한 이야기며 붉은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끝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

어느날 공부가 끝나자 이완 미하일로비츠는 아이들에게 부탁한다.

《얘들아, 알레쉬노마을까지 뛰여갔다오지 않으련? 예고르 미하일로브한테 쪽지편지를 전해야겠는데. 이 쪽지와 위임장을 가져다주면 그 아저씨가 나대신 도시에 가서 내 돈을 타다줄텐데.》

알레쉬노마을로 심부름가는 두 소년은 즐겁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한 숲속길을 따라 언덕을 몇개씩 넘고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며 외나무다리를 놓은 개울을 건너 가까운 오솔길로 씩씩하게 뛰여간다.

질러가는 오솔길이 큰길과 잇닿은 곳, 알레쉬노에서 1㎞쯤 떨어진 곳에 다닐라령감네 큰집이 있다.

그곳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로 가던 두 소

년은 다닐라령감을 만난다. 령감은 두 소년에게 어디서 오며 무슨 일로 알레쉬노에 뛰여가느냐고 묻는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과 알레쉬노의 농촌쏘베트위원장 예고르아저씨한테 무엇때문에 가는가를 서슴지 않고 말한다. 사람들이 꿀라크라고 뒤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고싶은 호기심에서 다닐라령감과 더 이야기를 했으면 하던 그들은 령감을 찾아오는 알레쉬노마을의 농민 셋과 얼굴을 사납게 찡그리고 뒤따라오는 예르몰라이를 보게 된다. 엉겅퀴가지로 때리던 예르몰라이를 보자 두 소년은 얼른 뺑소니치고만다.

이윽고 그들은 무슨 회의가 열리는지 사람들이 한창 모여드는 알레쉬노마을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 닿는다. 그들은 빽빽이 모인 사람들속으로 뚫고들어간다. 들리는건 그저 꼴호즈, 꼴호즈 하는 말뿐이다. 어떤 사람은 꼴호즈를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꼴호즈가 없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예고르아저씨는 통나무더미곁의 책상에 마주앉아있다. 뻬찌까가 내미는 위임장과 쪽지편지를 받아든 예고르아저씨는 한사람이 통나무더미우에 올라서는바람에 쪽지편지를 미처 읽지 못한다. 두 아이는 통나무더미우에 올라선 그 사람이 다닐라네 우물가에서 만났던 세 농민중의 한사람이라는것을 인차 알아본다.

그 농민은 꼴호즈에 들겠다고 신청한 사람들끼리 꼴호즈에서 일하게 하자고, 그래서 그들의 일이 잘되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것이며 일이 잘 안되면 꼴호즈에 들 필요없이 이전대로 일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이 꿀라크의 앞잡이같으니!》하고 예고르아저씨는 받아쥐였던 편지를 거머쥐면서 증오에 찬 목소리로 웨친다.

와시까가 예고르아저씨의 소매를 슬그머니 잡아당기자 예고르아저씨는 편지를 재빨리 훑어보고나서 아이들에게 편지에 부탁한것은 한주일후에 도시에 갔다올 때 다 해가지고 오며 그동안 한번 꼭 이완 미하일로비츠한테 들리겠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마친 예고르아저씨는 격자직모자를 움켜쥐고 통나무더미우에 뛰여올라가더니 빠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한다.

와시까가 집에 돌아오니 집에서도 역시 꼴호즈이야기이다.

지난 겨울부터 다닐라령감네 한살먹은 송아지를 점찍어두고있는 와시까의 어머니는 령감이 꼴호즈에 들면 그 송아지도 꼴호즈에 넘어가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어디서 그런 좋은 송아지를 구하겠는가고 걱정한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다닐라령감은 꿀라크이기때문에 송아지를 가졌건 안가졌건 꼴호즈의 백발자국앞에도 얼씬거릴수 없다고 말한다. 원래 꼴호즈란 가난한 농민들이 잘살기 위하여 뭇는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꼴호즈에 들어가는 날엔 다닐라령감이나 방아간주인 뻬뚜닌이나 쎄푠 자그레빈따위는 모두 끝장이 나고만다. 다시말해서 꿀라크들의 살림살이는 망해버린다는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난해에 구역에서도 다닐라령감네 현물세를 줄여주었고 농민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며 웬일인지 모두들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다닐라령감의 부유한 살림살이가 망해버린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어머니는 알레쉬노마을은 숲과 진펄로 둘러싸인 벽촌인데다가 누구 하나 꼴호즈를 꾸려나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도움을 받을만한 이웃사람들도 없기때문에 도리여 꼴호즈가 잘못될지 모른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현물세문제에는 깨끗치 못한 구석이 꼭 있을것이며 다닐라령감이 무슨 작간을 피운게 틀림없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런짓은 결코 무사치 못하며 오래지 않아 단단히 걸려들 때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다툼을 듣다가 잠든 와시까는 아버지가 무슨 새로운 공장과 건설에 대하여 그리고 골짜기와 숲속에서 무엇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잠결에 듣는다.

알레쉬노에 갔다온지 닷새후에 고기를 잡으려고 찌히강으로 나갔던 와시까와 뻬찌까는 힘세고 아름다운 비행기가 재주를 피우듯이 량쪽날개를 기우뚱거리며 수림과 알레쉬노의 초원과 눈이 휘둥그래서 기뻐하는 자기들이 서있는 찌히강우에서 빙빙 여러바퀴 도는것을 보게 된다.

《넌… 너는 비행기가 먼 나라에만 간다고 했지. 그럼 우리 고

장이 먼 나라란 말이야?》

빼찌까가 가슴이 울렁거려 떠듬떠듬 말한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본것을 빨리 알리려고 간이역마을로 급히 뛰여간다. 비행기가 무엇하러 날아왔고 무엇을 보고 갔을가 하는 수수께끼풀이에 골똘하였던 그들은 어딘지 뒤에서 웅글게 울린 한방의 총소리에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못한다.

와시까가 집에 와보니 가난한 농민인 쎄라핌아저씨가 아버지에게 알레쉬노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있다. 꼴호즈에는 마을의 절반이 들어갔다. 쎄라핌아저씨도 꼴호즈에 들었다. 들지 않은 나머지 절반사람들은 꼴호즈의 일이 어떻게 되여가는지를 엿보고있다. 꼴호즈에 든 사람들은 가입금을 냈으며 뜨락또르임경소에 낼 3천루블의 출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꼴호즈의 땅을 아직 따로 떼여받지 못하였기때문에 올봄에는 제각기 자기 땅에서 씨붙임을 하게 될것이다.

찌히강 왼쪽언덕의 풀밭만을 꼴호즈의 땅으로 떼여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 방아간주인 빼뚜닌의 뚝이 터지는바람에 물이 그 풀밭에 닿지 못하고 죄다 헛되이 빠지고말았다. …

《예고르 미하일로브는 어떻소?》

아버지가 묻는다.

쎄라핌아저씨는 어떤 놈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많이 돌리고있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예고르아저씨가 이태동안 다른 고장에 나가있었는데 거기서 나쁜짓을 해서 쫓겨났다느니, 하마트면 재판을 받을번 했다느니, 돈을 훔쳤다느니, 도회지에 약혼녀가 있다느니 좌우간 말이 많다는것이다.

쎄라핌아저씨가 돌아가자 와시까는 새벽에 지렁이로 잉어잡이를 하자고 빼찌까와 약속한것을 생각하며 일찍 잠자리에 눕는다. 깨우는것은 빼찌까가 하기로 되여있다. 그런데 와시까가 잠을 깨여보니 벌써 9시가 되였는데도 빼찌까는 오지 않았다. 그의 집에 찾아갔으나 빼찌까는 없다. 이완 미하일로비츠도 빼찌까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완 미하일로비츠는 와시까에게 신문에

난 새 소식들을 전해준다. 간이역근처에 커다란 알루미니움공장을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식, 그 금속을 이 고장 진흙속에서 파내게 된다는 소식, 찌히강에 뚝을 막아 발전소를 세우고 전기로 공장을 돌리게 된다는 소식…

와시까는 이 놀라운 소식들을 뻬찌까에게 알려주고싶어 안달아한다.

《에이 바보!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 어딜 싸다닐가?》

그런데 이완 미하일로비츠가 너희들이 알레쉬노에 갔다온지 한주일이 지났는데 예고르 미하일로브가 왜 아직도 들리지 않을가 하고 말한다.

《예고르요? 그 아저씨는 도시로 가셨다나봐요. 엊저녁에 알레쉬노에서 쎄라핌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예고르아저씨가 도시로 갔다고 하던데요.》

와시까의 대답에 이완 미하일로비츠는 머리를 기웃거린다.

《그럼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들리지 않았을가? 들리겠다고 약속하고 들리지 않다니…》

이완 미하일로비츠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와시까는 다시 뻬찌까를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한편 뻬찌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는 남새밭뒤에 숨어서 와시까가 자기를 찾아다니는것을 보면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는 지금 와시까를 만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새벽에 약속대로 와시까를 깨우러 가던 그는 심술쟁이 쎄료즈까가 살통을 건지려 강으로 나가는것을 보게 된다. 언제인가 와시까와 자기가 쳐놓은 살통을 몰래 건져가진 쎄료즈까를 골탕먹일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한 뻬찌까는 그의 뒤를 밟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뜻밖에도 숲속에서 천막을 보게 된다. 호기심에 끌려 사람이 없는 그 천막안에 들어가 라침판을 가지고 장난하던 뻬찌까는 털이 북실북실한 커다란 개 한마리가 갑자기 달려드는바람에 라침판을 쥔채 줄행랑을 놓는다.

물론 개만 아니였다면 라침판은 가져오지 않았을것이지만 어쨌든 그는 라침판을 훔친셈이 되였다. 뻬찌까는 첫째로는 자기

에게 죄가 없고 둘째로는 개밖에 아무도 자기를 본것이 없으며 셋째로는 라침판을 감춰두었다가 가을이나 겨울쯤 천막이 없어진 다음 어디서 주었다고 말하고 제것으로 만들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위안한다. 그러나 와시까를 당장 떳떳이 마주볼것 같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며 자기를 찾아다니는 와시까를 보고도 숨어서 나오지 않았던것이다. 저녁때가 되여서야 뻬찌까는 와시까를 만난다.

《얘, 뻬찌까! 넌 하루종일 어데 가있었니? 어델 갔댔길래 종일 찾아다녀두 만날수 없었니?》

와시까는 하루동안에 모은 새 소식들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첫째로, 간이역부근에 공장이 선다는것이다. 둘째로, 숲속에 천막이 있는데 거기엔 참 좋은 사람들이 살고있고 벌써 그들과 사귀였다는것이다. 셋째로, 오늘 쎄료즈까의 아버지가 쎄료즈까를 때렸는데 그가 얼마나 크게 죽는 소리를 질렀던지 온 동네가 들썩하였다는 소식이다.

뻬찌까는 천막의 주인들이 지질학자들이며 자기가 집어온 라침판때문에 천막가까이에서 살통을 친 쎄료즈까가 의심을 받고 경을 쳤다는것을 알게 된다.

뻬찌까가 얼굴을 찡그리자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 와시까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없었던것이 분하니? 그까짓거 일없어. 래일 우리 둘이서 같이 가자꾸나. 내가 뻬찌까란 동무와 같이 가겠다고 그 사람한테 말했어.》

그리하여 뻬찌까도 천막에 있는 사람들과 인차 친해진다. 그러나 웨르늬이라고 하는 털이 북실북실한 개만은 뻬찌까를 보면 으르렁거린다. 뻬찌까는 개가 왜 그러는지 잘 알고있다.

어느날 와시까보다 먼저 천막에 온 뻬찌까는 라침판소리가 나자 그만 당황해한다. 한 지질학자가 무엇인가 짐작하고 말한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라침판을 천막에 둔것이 아니라 가지고 떠났다가 씨네예호수가의 진대나무옆에 떨군것 같애. 거기 앉아서 쉬였댔으니까. …》

뻬찌까는 반색을 하며 말한다.

《그런 일이 흔히 있는걸요 뭐. 와시까도 한번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 조금도 이상할게 없어요.》

아저씨들은 서로 뜻있게 눈을 맞추며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찾아보라고 부탁한다.

사기가 난 뻬찌까는 급한 일이 생겨 집에 갔다오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막 달려간다. 오솔길에서 그는 쎄라핌아저씨를 비롯한 알레쉬노부락의 농민들을 만난다. 쎄라핌아저씨는 우울해있고 다른 사람들은 팔을 휘두르며 누군가를 욕하면서 걸어간다.

뻬찌까는 쎄라핌아저씨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부다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은 쎄라핌아저씨한테만 생긴것이 아니라 전체 알레쉬노촌에, 꼴호즈에 생겼다. 꼴호즈의 조직자이고 농촌쏘베트위원장인 예고르아저씨가 뜨락또르임경소 대부자금으로 모은 농민들의 3천루블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진것이다. 한주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사람을 띄워보냈더니 예고르는 구역꼴호즈련맹에 가지도 않았으며 은행에도 돈을 넣지 않았다는것이다.

알레쉬노마을에서는 야단법석이 일어난다. 구역에서 새 위원장이 파견되여오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으며 꼴호즈는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쎄라핌아저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복한 결과 열다섯집만이 꼴호즈에 뭉친다.

이런 사건들때문에 며칠간 천막에 대하여 감감 잊고있던 뻬찌까는 라침판이 생각나 어느날 그것을 가지고 씨네예호수가로 향한다. 그는 라침판을 호수가의 진대나무옆에 감춰두었다가 래일 다시 와시까와 같이 가서 그것을 찾아내는 연극을 꾸미려고 생각한다.

그런데 뻬찌까는 그만 길을 잃고만다. 한참 헤매던 뻬찌까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아무 뜻도 없는 쓸쓸한 노래는 붉은군대도피자이며 다닐라의 과수원지기인 예르몰라이가 부르는 노래이다.

얼른 몸을 숨기고 이상한 노래가 울리는 이 무시무시한 숲을 어서 벗어나 집으로 달아날 기회를 노리던 뻬찌까는 뜻밖에도 피

묻은 격자직모자를 발견하게 된다. 피묻은 격자직모자, 그것은 다름아닌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렸다는 예고르아저씨의 모자였다!

그럼 예고르아저씨는? 저 술주정뱅이 예르몰라이는 이 무시무시한 숲속에서 과연 무엇을 찾아 헤매고있는가!

무서운 예감에 소스라치듯 놀란 뻬찌까는 그만 라침판을 풀숲에 떨구어버린채 정신없이 도망쳐버린다. 저녁늦게야 너무 울어 두눈이 퉁퉁 붓고 빨갛게 되여가지고 집에 돌아온 뻬찌까는 온밤 잠꼬대를 하고 앓음소리를 낸다.

그날부터 뻬찌까는 늘 우울해다닌다. 지질학자들은 끝내 라침판을 찾지 못한채 철수해간다.

간이역마을주변에서는 새로운 공장과 발전소건설이 힘차게 진행된다. 초라하던 와시까의 집도 새집으로 옮겨지고 그자리에는 새로운 철길들과 공장건물들이 일떠선다. 와시까를 비롯한 아이들은 머나먼 나라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도시와 공장들이 자기들의 마을에도 일떠서고있는데 대해 긍지를 느끼면서 건설장을 찾아가 건설자아저씨들의 일손을 적극 도와나선다.

와시까를 비롯한 마을소년들의 생활은 더욱 활기를 띠지만 뻬찌까만이 의기소침해있다.

구멍이 뚫리고 피가 말라붙어 어지러워진 예고르아저씨의 모자, 그것만이 뻬찌까의 눈앞에 얼른거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고르아저씨를 도적놈이라고 욕을 한다. 그러나 뻬찌까는 라침판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후에 그는 우선 그 얄미운 라침판을 찾아 진펄에 처넣은 다음 예고르아저씨의 모자를 얻었다고 이야기할 작정으로 여러번 숲속으로 남몰래 들어가군 하나 매번 공포에 사로잡혀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다. 라침판이 총알이 뚫린 예고르아저씨의 격자직모자옆에 있었기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어느날 이완 미하일로비츠가 뻬찌까에게 묻는다.

《누가 너를 때리던? 음, 그렇지 않다고? 그럼 누가 욕하던? 그렇지도 않다?… 그럼 넌 왜 그렇게 눈이 퉁퉁 부었니?》

이때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면서 비칠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온다.

뻬찌까는 그만 얼굴이 해쓱해져서 이완 미하일로비츠의 팔소매를 와락 붙잡는다.

에―헤라! 가는구나 에헤라…
간다 간다 에헤라
얼씨구 왔구나 에헤라…

아무 뜻도 없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예르몰라이가 지나간다.

《왜 그러니? 뻬찌까야, 일없다. 술주정뱅이야. 무서워말아.》

이완 미하일로비츠가 이렇게 말하니 뻬찌까는 잠자코 있다가 드디여 결심한듯 갑자기 얼굴에 이상한 웃음을 짓는다.

《이완 미하일로비츠할아버지.》 그는 늙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쟁쟁한 목소리로 말한다. 《저 예르몰라이란 놈이 예고르 미하일로브를 죽였어요.》

이리하여 사연은 밝혀진다.

예고르가 알레쉬노에서 도시로 가던 길에 공민전쟁시기 함께 싸운 전우인 이완 미하일로비츠의 집에 들리려고 간이역마을로 통하는 오솔길로 가다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은 삽시에 온 마을에 전해진다.

다닐라의 지령으로 예고르를 죽인 예르몰라이는 그만 죽은 사람의 모자를 숲속에 떨어뜨렸다. 그후 그는 흔적을 없애려고 숲속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모자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씨네예호수가로 가다가 길을 잃고 그쪽으로 잘못 들어간 뻬찌까가 그 피묻은 모자를 발견했던것이다.

다닐라를 비롯한 혁명의 원쑤들은 체포된다.

그날 이완 미하일로비츠에게 사실그대로를 처음부터 하나도 숨기지 않고 죄다 이야기한 뻬찌까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든다.

이틀후에 건설장에서는 공장기본건설의 착공식이 진행되며 알레쉬노부락에서는 예고르아저씨의 장례식이 진행된다. 또한 그날에 자그마한 간이역의 이름이 《비행기의 날개》라는 이름으로 바뀌여진다.

예고르아저씨의 장례식에서 연설자는 억세고 꾸준한 노력과 굴할줄 모르고 타협없는 투쟁이 없이는 새로운 생활을 꾸릴수도 건설할

수도 없으며 투쟁에서는 때로 실패도 희생도 있을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공장건설장에서도 연설자는 착공식을 위한 경축모임이지만 이 순간도 모든 곳에서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고 하면서 모든 경축모임참가자들이 피살된 이웃꼴호즈위원장을 추모하여 모두 일어서서 모자를 벗자고 이야기한다.
알레쉬노에서도 공장에서도 연설자들이 다 이렇게 말한것은 공장이나 꼴호즈가 다 크나큰 덩어리의 한 부분이기때문이라고 와시까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비행기의 날개》역으로 불리우게 된 간이역도 알레쉬노도 새로운 공장도 무덤옆에 서있는 이 사람들도 그리고 자기들도 모두가 다 쏘베트나라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의 크고 억센 덩어리를 이루는 쪼각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단순하고 뚜렷한 생각은 흥분된 와시까의 가슴속깊이에 아로새겨져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삐찌까야, 정말이지 삐찌까야, 너나나나 예고르아저씨처럼 죽

○ 작가일화 ○

## 《정열적인 독서가 소설을 낳는다》

아르까지 가이다르는 독학으로 문학수업을 한 작가이다. 가이다르는 벽에 《정열적인 독서가 소설을 낳는다》는 글을 써붙이고 불타는 독서열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탐독하였으며 형상적인 어휘들, 자연묘사와 인물묘사 등 명문장과 명대사들을 발취하였다. 그런 책은 백여권이나 되였으며 가이다르는 이것을 창작의 귀중한 밑천으로 여기고 생애의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해왔다고 한다. 그는 작가는 언어의 능수가 되여야 한다고 한 어느 이름난 소설가의 말을 명심하고 어휘 하나하나의 뜻을 깊이 파고들었으며 체

거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대도 좋겠지?… 우린 죽어도 아깝지 않아!》

늘 그러하듯이 급행렬차가 기적을 울리며 머나먼 쏘베트씨비리에로 곧장 달려간다.

소설은 아이들이 기차를 보고 반가이 손을 저으며 낯모를 손님들에게 《안녕히들 가세요.》하고 웨치는것으로 끝난다.

중편소설 《먼 나라들》에서 작가는 어느 한 산간마을에서 벌어지는 건설투쟁과 계급투쟁과정을 통하여 쏘베트로씨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사회주의건설과 그 과정에 벌어지던 치렬한 계급투쟁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쏘련에서 농촌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꼴호즈조직, 그 과정에는 시련도 있고 실패와 우여곡절도 있었으며 희생도 있었다. 아동소설가인 작가는 이것을 단순히 어른들의 생활과 성격으로 펼쳐보이는

호브의 단편소설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작품들을 원문그대로 외울 정도로 연구하였다. 마침내는 《로씨야말사전》을 죄다 통달하기까지 하였다.

가이다르는 한편 문학리론의 초보로부터 시작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체득하기 위해 문예리론도서들과 벨린스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는 로씨야평론가들의 글들을 빠짐없이 열독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당시 발간되는 문학잡지들을 자그마한 글까지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읽어보았다.

가이다르는 이처럼 진지하고도 피타는 노력을 바쳐 문학적수련을 한 결과 자서전적인 장편소설 《학교》와 중편소설 《혁명군사위원》, 《먼 나라들》, 《고수의 운명》, 《찌무르와 그의 부대》, 《츄끄와 게끄》 등 많은 아동소설들을 창작하여 광범한 쏘련청소년들의 환영을 받는 이름난 아동문학작가로 될수 있었다.

데 그치지 않고 그 모든것을 목격하면서 쏘베트나라의 참다운 계승자로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밀착시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와시까와 뻬찌까의 각이한 성격은 눈에 보이는듯이 방불하고 생동하다. 모든것에 주동적이며 싸움과 장난을 즐기는 와시까와 소심하고 겁이 많으면서도 능청스럽고 엉뚱한 뻬찌까의 모습은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그러한 아이들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꼴호즈조직을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원쑤가 누구들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들도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는 쏘베트나라의 나어린 공민들이라는 자각과 자부심을 간직하게 되는 과정을 작가는 생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게 무리가 없이 형상하고있다.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용감하기도 하고 겁이 많기도 하며 적적해하기도 하고 무엇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이따금 하기도 한 뻬찌까, 자기의 자그마한 잘못이 드러날가봐 겁이 나서 큰일을 오래동안 숨겨오는 뻬찌까의 형상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그러면 작가가 왜 소설의 제목을 《먼 나라들》이라고 달았겠는가?

《비행기는 늘 먼데로만 날아가. 그럼 가까운덴? 가까운데야 말을 타고 갈수 있으니까. 비행기는 먼 나라에 갈 때 타는 물건이야. 뻬찌까야, 우리도 크면 먼 나라에 가보자. 거기에는 으리으리한 도시도 있고 굉장한 공장도 있고 정거장도 있겠지. 우리 마을엔 그런것이 없어.》

《응, 없어. 우리 고장은 간이역과 알레쉬노마을뿐이야.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어. …》

와시까와 뻬찌까가 주고받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먼 나라들》, 그것은 그들이 사는 궁벽한 산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것이였고 그저 동경의 대상이였다. 그러나 그러한 동경의 대상인 도시와 공장들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농촌들에서는 꼴호즈들이 성과적으로 조직된다. 그들이 《먼 나라》로만 생각하여오던 공장도 있고 도시도 있는 나라, 벅찬 투쟁과 불타는 노력이 약동하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가 그들의 눈앞에서 일떠선다.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여가는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러한 나라를 위해 한목숨 서

슴없이 바쳐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결의까지 가다듬게 된다. 이것을 깨달은 아이들이기에 그들은 소설의 마감장면에서 머나먼 씨비리로 달려가는 렬차의 낮모를 손님들에게 한집안식구를 바래듯이 《안녕히들 가세요.》하고 웨치는것이다.

중편소설 《먼 나라들》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특히 동심에 맞는 생동한 생활화폭과 성격형상으로 하여 작가 아르까지 가이다르의 대표작들중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 ❖ ——— ❖ ———

《와시까.》하고 뻬찌까는 주근깨가 점점이 박힌 둥근 얼굴에 내리쪼이는 해빛을 손으로 가리우면서 누운채로 물었다. 《삐오네르란게 뭐야? 그들은 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언제나 함께 다니니? 우리 아버지가 한번은 책을 읽어주던데 삐오네르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남을 욕하지도 때리지도 않고 또 아무 나쁜짓도 하지 않는다면서? 삐오네르들은 그렇게 하느님같은 애들일가?》

《웬걸… 하느님같을게 뭐야?》하고 와시까는 부정하고나서 말하였다. 《난 지난해에 우리 삼촌네 집에 갔댔어. 그 집엔 보리까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삐오네르야. 그런데 그 아이는 두번이나 내 목덜미를 쥐박더라. 난 아픈걸 겨우 참았어. 너는 삐오네르들이 남을 때리지 않는다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 우리와 꼭같은 애들이야. 그들이 크면 공청원이 되고 다음엔 붉은군대에 들어간대. 나도 크면 붉은군대에 들어갈테야. 총을 메고 지키겠어.》

《누굴 지킨단 말이냐?》 뻬찌까는 의아한듯이 물었다.

《누구를 지키느냐구? 모든 사람들을 지키지! 지키지 않으면 백파놈들이 몰려와 우리 나라를 죽탕을 만들거야. 백파놈들이 어떤것들인지 이완 미하일로비츠한테서 난 다 들었어. 백파놈들이란 짜리들과 장사군들과 꿀라크들이야.》

———— ❖ ———— ❖ ————

…소식이 전해지자 모여든 농민들앞에 마치 밝은 불빛이 번쩍 켜진것 같았다. 그때에야 비로소 많은 문제들이 똑똑히 알려졌다. 그 믿음직하고 좋은 벗인 예고르 미하일로브가 수치스럽게도 꼴호즈의 돈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쳤다는 헛소문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만은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때 예고르가 도망쳤다는 말이 나올적마다 늘 외면하고 가버리군 하던 바로 그 절름발이 씨도르가 갈린 목소리로 문가에 앉은 군중들속에서 웨쳤다.

《예르몰라이만 그랬을게 뭐요? 총이 누구것이겠소? 뒤에서 작간한 놈들이 있소! 그놈들은 사람을 죽이는데만 그치지 않았소. … 멀쩡한분을 모독하였소. 그분이 돈을 가지고 갈 때 총으로 쏘아죽이고는 도망쳤다, 도적놈이다 하고 소문을 퍼뜨렸소. 그러면 꼴호즈원들이 돈때문에 격분할것이고 꼴호즈는 망할것이니… 풀밭을 도로 찾아가지자는것이였소. 예르몰라이가 대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작간이요!》

원한과 분노는 열어젖힌 창문과 대문밖으로 터져나갔다.

《장본인은 다닐라요!》 누가 소리쳤다.

《그건 그놈들이 한짓이야!》 노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리였다.

그때 교회당에서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떨리는듯한 종소리는 증오와 분노로 몸부림치는것만 같았다. 예고르가 애매한 죄를 벗게 된데 대한 기쁨과 놈들에 대한 원한이 뒤섞이여 앞뒤를 가리지 못하게 된 절름발이 씨도르가 제마음대로 종루에 기여올라가서 미친듯이 종을 쳤던것이다.

《그냥 치라고 내버려둡시다. 말리지 마시오.》 쎄라핌아저씨가 웨쳤다. 《온 마을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할 때는 왔습니다!》

중편소설 《먼 나라들》중에서

# 고수의 운명

중편소설 《고수의 운명》은 이전 쏘련의 작가 아르까지 가이다르가 1938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뜻하지 않게 조직과 동무들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간첩들에게 리용되기까지 하는 삐오네르분단의 고수였던 한 소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 쎄료쟈와 그의 아버지, 쎄료쟈의 동무 니나, 슬라브까, 쎄료쟈의 이붓어머니 왈렌찌나와 그의 오빠로 가장한 《아저씨》, 야꼬브령감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은 주인공 쎄료쟈의 가정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된다.

쎄료쟈의 아버지는 한때 백파놈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여 포로가 된 일이 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도망쳐나와 그후 붉은군대 공병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상처가 도지는바람에 제대된다.

쎄료쟈의 어머니는 그가 8살때 볼가강에서 미역을 감다가 그만 물에 빠져 돌아가신다.

아버지와 쎄료쟈는 이 커다란 슬픔을 잊으려고 모스크바로 이사해온다. 2년후 아버지는 예쁘게 생긴 왈렌찌나 돌군쪼바라는 처녀에게 다시 장가를 든다.

그들은 처음에 소박하고 조용하게 산다.

왈렌찌나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나마 늘 알뜰하게 거두고 아버지공대도 잘한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큰 직물상점 지배인이 된다. 왈렌찌나의 태도는 돌변한다. 아버지는 두어번인가 왈렌찌나를 무슨 연회에 데리고가는데 그후부터 왈렌찌나는 왜 그런지 신경질을 내고 점점 독살을 피운다.

그는 아버지의 상급들을 칭찬하는가 하면 그들의 안해들을 욕하며 듬직하고 키가 후리후리한 아버지를 얼뜨기이니 무골충이니 하고 비난한다.

아버지네 상점에는 여러가지 고급천들이 많다. 어찌된 판인지 쎄료자네는 갑자기 흥청거리며 잘살게 된다.

그러나 봄이 되자 아버지는 재판을 받게 된다. 그날은 바로 12살난 쎄료쟈가 학교에서 제4분단 고수로 임명되여 아주 뻐기며 돌아온 날이다.

쎄료쟈가 책가방을 북삼아 자막대기로 우렁찬 행진곡을 장단맞춰 두드리면서 집으로 오는데 와— 하고 무리지어 달려온 동네애들이 방금 쎄료쟈네 집을 수색하고 아버지를 붙잡아 실어갔다고 알려준다. 아버지는 탐오랑비죄로 5년징역형을 받는다.

오래도록 울던 쎄료쟈는 밤이 깊어 잠에 절반 취한채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작별을 한다.

《안녕히! 북이 행진곡을 쳐요. 분단들마다 제가 갈 길이 있고 치욕과 영예도 제각기 기다리고있어요. 자, 우리는 헤여졌어요. 발자국소리는 멎고 들판은 텅 비였어요.》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니 동무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였는가고 묻는다.

쎄료쟈는 랭정한 어조로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아버지가 도적질을 하고 협잡을 한탓으로 잡혀갔다고 바른대로 말한다.

두해라는 세월이 잠간 흘러간다.

아버지가 간지 3년째 되는 해 봄에 왈렌찌나는 로바체브라는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가며 그해 6월이 되자 한달 생활비로 쎄료쟈에게 150루블을 내놓고는 남편과 함께 깝까즈로 떠나간다.

왈렌찌나가 떠나갔다는것을 안 분단지도원 바리쉐브가 쎄료쟈를 이붓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삐오네르야영소에 보내려고 몇번이나 집에 찾아오지만 그를 만나지 못한다.

쎄료쟈는 어느새 협잡군이며 좀도적인 유르까라는 애한테 말려들었던것이다.

쎄료쟈에게 150루블의 돈이 있다는것을 안 유르까는 자기 패

거리들과 짜고 쓰지 못할 구식사진기를 75루블에 사게 하며 그것을 대충 쓸수 있게 고쳐주고는 또 돈을 빨아낸다.

유르까는 쎄료자를 제 패거리들속에 점점 깊이 끌어넣는다.

《자, 서로 알고들 지내. 이애들은 제18중학교 애들이야. 모두 불덩어리같은 소년들이고 신통히도 골라낸것처럼 최우등생들이야.》

쎄료자는 곧 이 《불덩어리소년들》속에 휘말려든다. 이따금 그들한테 어른들도 다가오군 하는데 그중 껍질이 좀 벗겨진 매부리코사나이가 쎄료자의 기억에 새겨진다. 유르까도 그 매부리코를 무서워한다.

그날밤 《불덩어리소년들》과 맥주를 마시는 쎄료자의 곁에 매부리코가 와서 앉는다. 그는 쎄료자의 생활형편이며 아버지의 일이며 왈렌찌나에 대해서 묻는다. 쎄료자는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다음날 아침 쎄료자는 오늘부터 달리 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저녁이 되여 또다시 유르까네를 찾아가던 쎄료자는 가면무도회에 참가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저도모르게 이끌리여 반대방향인 문화공원으로 가게 된다. 거기서 그는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옛친구의 딸인 니나를 만난다.

《얘, 쎄료젠까, 이거 야단났다! 난 애들을 잃어버렸어. … 그런데 넌 왜 혼자냐? 너도 너희 패를 잃었니?》

그들은 함께 즐겁게 논다. 헤여지기 전에 니나는 쎄료쟈에게 달라진 자기 집 전화번호를 써준다.

《전화해. 우리 아버지는 왈렌찌나를 싫어하시지만 네 이야기는 언제나 물어보신단다.》

그날밤을 즐겁게 놀고 돌아왔으나 다음날부터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 돈이 없었던것이다.

마당지기할아버지한테서 줄칼을 빌려온 쎄료쟈는 오래동안 낡은 열쇠를 쓸어가지고 책상빼랍에 잠근 자물쇠를 연다.

그러나 그안에는 돈이라고는 그림자도 없고 뚱딴지같이 기름칠한 권총이 있다.

하는수없이 쎄료쟈는 왈렌찌나의 털목도리를 비롯한 집안의 이런저런것들을 넝마장사군에게 팔고 81루블을 받는다.

어느날 쎄료쟈가 밖에 나갔다오니 집에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와있다가 그를 맞아준다.

《너 이 집에 사는 애냐? 난 왈렌찌나의 친오빠다.》

왈렌찌나가 깝까즈로 떠났다는 소리에 몹시 서운해하던 그는 자기한테 전우라든가 죽마고우들이 찾아올수 있으니 집을 잘 거두라고 하면서 용돈으로 30루블을 준다. 그가 나가자 방을 깨끗이 정돈한 쎄료쟈는 《아저씨》가 돌아올동안 심심풀이로 왈렌찌나에게 편지를 쓴다.

《…지금 우리 집에 당신 오빠가 오셨어요. 그이는 아주 명랑하고 좋은분이예요. …》

그런데 잠시후 자기의 젊었을적의 친구와 함께 들어온 《아저씨》는 편지를 보더니 대단히 불쾌해하며 편지를 구겨서 재털이에 집어던진다.

《야꼬브령감님, 저 친구를 좀 봐요. 무사태평하고 게으르고 경솔한 저 녀석을… 저 녀석이 글쎄 이붓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군요. 쓰고싶으면 쓰라지요. 그렇다고 일이 뒤틀려질것도 아니니까. 저 녀석이 친오빠가 왔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군요. 그런데 그 글쓴 꼴이란 참! 〈이야기〉라는 단어를 〈이아기〉라고 쓰고… 이러구도 우리 청년이란 말인가요? 이러구도 우리의 광명한 미래란 말인가요? 아니 그래 령감님께 좀 묻겠소만 령감님은 이런 꼴을 보려고 그렇게 싸우고 고생했단 말이시우? 족쇄를 차기도 하고 챠빠예브의 장검을 휘두르기도 하시였소?…》

《학자》이며 《챠빠예브의 로빨찌산》인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웨친 《아저씨》는 쎄료쟈가 쓴 편지를 태워버린다.

밤에 잘 때 《아저씨》가 야꼬브령감님이 몸이 편치 않아한다면서 집에 암모니아수가 없는가고 묻는다. 잠시후 문짬으로 무슨 약냄새가 스며들어와 코를 찌른다. 쎄료쟈는 《아저씨》가 약을 모르고 쏟은게라고 단정한다.

한주일이 지나간다. 《아저씨》와 야꼬브령감은 낮에는 나갔

다가 저녁녘에야 집에 들어오군 한다.

어느날 자기의 사진기술을 시위하고싶어 살금살금 그들을 따라갔던 쎄료쟈는 그만 깜짝 놀란다. 자그마한 공원에서 《아저씨》와 야꼬브령감이 등이 구부정하고 어깨가 넓은 어떤 사람과 만나고있었는데 그가 바로 《불덩어리소년들》과 밀려다닐 때 만났던 매부리코였던것이다.

여느때없이 집에 일찍 돌아온 《아저씨》는 쎄료쟈가 왈렌찌나의 빼람을 열 때 만들었던 열쇠쪼각을 내들고 그가 정신을 차릴새없이 협잡군이니 바보니 도적놈이니 욕을 퍼붓고는 야꼬브령감과 무엇인가 오래동안 의논한다.

이윽고 방에서 나온 《아저씨》는 휴가가 끝나기 전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고향땅사람들이 모두들 어떻게 살며 지내는가를 보고싶어서 오늘저녁에 야꼬브령감과 같이 떠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한다.

《너를 바른 길에 들어서게 하자면 드센 손아귀가 있어야겠다. 너를 데리고갈테니 뭐나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알겠니?》

자기가 저지른 일때문에 은근히 속이 켕겨나고 왈렌찌나가 돌아오면 퍼부어댈 욕설이 끔찍해난 쎄료쟈는 선뜻 응해나선다. 급히 서두르는통에 쎄료쟈는 《아저씨》와 야꼬브령감을 찍은 사진필림을 그냥 왈렌찌나의 빼람에 두고 나온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꾸르스크로 가는 도중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 이른다. 그 도시에서 이틀간 머무르는데 그토록 고향사람들을 보고싶어하던 《아저씨》는 집옆에 있는 공원외에 더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는다. 그러더니 한번은 전보를 받고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한시간후에 정거장으로 나가자고 말한다.

렬차안에서 쎄료쟈는 또다시 매부리코를 보게 된다. 그는 《아저씨》와 만났다가 인차 헤여진다.

우연한 일치일가? 하고 쎄료쟈가 생각하는데 《아저씨》는 묘한 방법으로 승객들과 차장을 속여넘기고 야꼬브령감을 연석 5호칸에 옮겨태운다.

《아저씨》와 야꼬브령감사이를 오가면서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

쎄료쟈는 그들이 대단한 협잡군들임을 알아차린다.

《몸이 상당히 불편한 챠빠예브의 로빨찌산》인 야꼬브령감이 자주 갈아대는 더운물찜질주머니에는 물이 아니라 빠각거리는 종이같은것이 꽉 차있다.

《아저씨》는 식당칸에 갔다오는척 하다가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제동기를 슬쩍 잡아당겨 렬차를 멈춰세우며 야꼬브령감은 승객들이 야단법석할 때 연석 5호칸에 함께 탄 손님의 누런 가방을 감쪽같이 바꿔들고 도망친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난 그들은 한 반년이나 서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러안고 돌아가며 다음날에는 얼굴이 흐려져 냅다 말다툼을 한다. 그다음 그들은 다방에 마주앉아 오래동안 무슨 이야기를 활기있게 주고받으며 쎄료쟈를 자꾸 힐끔힐끔 바라본다. 쎄료쟈는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린다.

그후 야꼬브령감은 정거장에 그냥 남고 《아저씨》는 쎄료쟈만 데리고 기차를 타고 끼예브로 간다. 어느 한 별장에 든 《아저씨》는 쎄료쟈가 자기들을 의심하고있다는것을 눈치채고 이젠 집으로 돌아가고싶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것은 쎄료쟈의 약한 고리였다. 이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랴. …

《아저씨》는 싱긋 웃으며 만일 집에 돌아가고싶은 마음이 없다면 자기가 직접 오데싸에 데리고가서 미츠만학교에 넣어주겠노라고 말한다. 오데싸에 열너덧살나는 소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소년들은 그 학교에서 합숙을 하며 공부를 하는 한편 처음에는 보통선원으로서 배를 타지만 나중에는 능력에 따라 선장으로도 될수 있다는것이다.

(무엇때문에 이 알수 없는 사람, 지어는 다소 수상한 이 사람이 내 앞날을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다지 좋은 일을 해주려는가?) 하고 생각하던 쎄료쟈는 다음 순간 미츠만학교에 가면 모든것을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리라 속다짐한다.

쎄료쟈가 자기의 앞날을 두고 공상에 잠겨있는데 어디론가 나갔

다가 들어온 《아저씨》는 며칠간 자기는 일이 바쁘니 방해되지 않도록 어느 애든지 사귀라고 한다. 그리고는 쎄료쟈를 정원 한끝으로 데리고나가 보리수나무밑 작업대에서 무엇인가 만들고있는 한 은발머리소년을 가리켜보인다.

《어때, 저애가 좋지 않니?》

쎄료쟈는 슬라브까라는 그애와 인차 친해진다. 《아저씨》는 만족해하며 당부한다.

《애가 무던해. 이붓어머니의 빼람이나 뒤지는 그런 망나니애와는 비할수가 없지. … 넌 그앨 단단히 친해둬라. 그애 집에도 자주 가보구… 그애가 어떻게 살고 무얼 하는지, 그애의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봐둬라. …》

그러던 어느날 쎄료쟈는 신문에서 우연히 자기를 찾는 광고를 보게 된다.

《14살의 소년, 쎄르게이 쎄르바쵸브를 찾고있음. 갈색머리, 왼쪽눈옆 관자노리에 김이 있음. 모스크바, 전화번호 〈Г0－48－64〉에 알려줄것. 》

왈렌찌나가 돌아온게다 하고 생각하던 쎄료쟈는 전화번호가 자기 집의것이 아니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흠칫 놀란다. 그러니 내무서에서?…

《우리는 그 쎄르게이 쎄르바쵸브라는 14살나는 갈색머리에 김이 있는 소년을, 남의 빼람을 뒤지고 남의 물건을 넝마장사에게 팔아먹은 그 소년을 꼭 찾아내고야말겠습니다. … 그애만 그런 녀석이 아니라 그애의 애비도 재판을 받은자입니다. 》

침착하고 진중한 내무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다.

한참 울다가 눈물을 깨끗이 훔치고 밖으로 나온 쎄료쟈는 약국에 가서 쥬브약 하나를 산다. 그다음에는 리발관으로 간다.

어떻게 깎으라는가고 쌀쌀하게 묻는 리발사에게 쎄료쟈는 《면도로 다 빤빤히 밀어주세요. 》하고 말한다.

암갈색머리칼이 새하얀 샤쯔우에 소리없이 떨어진다. 귀가 더 빨쭉해지고 머리는 빤빤하고 동그래진다.

밖에 나온 쎄료쟈는 쥬브약을 조금 짜서 관자노리에 있는 김

에 바른다. 눈섭은 해별에 타서 빛이 날아버렸다. 자, 이젠 내 머리가 갈색인지 빨간색인지 어디 분간해보라지. …

누누한 산들바람이 불어 머리칼이 하나도 없이 빤빤한 쎄료쟈의 머리는 선뜩선뜩하다. 마주오던 사람들이 그를 비켜지나간다. 그러나 그들중에는 아무도 이날저녁 쎄료쟈가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인제는 솔직하고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한것을 알지 못한다.

별장에 돌아오니 언제 왔는지 《아저씨》가 웬 낯모를 사람과 함께 무슨 짐을 포장하며 쑥덕거리고있다.

《…그런데 그애 에미는 누군가요?》

낯선 사람의 물음에 《아저씨》가 대답한다.

《알게 뭔가. 이붓에미래. 우린 그 집에 우리네 사람들의 안내로 우연히 들어가게 됐더랬소. 그 녀자는 깝까즈에 가있었고 그애가 혼자 있더군. 빈 집이 돼서 다른 려관보다 좋았지. 이제 그애는 내게 또 한가지 일을 도와주게 될거요.》

쎄료쟈는 깜짝 놀란다.

(아니, 자기 누이를 알게 뭐라니? 그럼 당신은 내 외삼촌이 아니였나요?!)

그날밤 쎄료쟈는 오래동안 잠들지 못한다. 《아저씨》가 있는 방안에서 또 무슨 약냄새가 풍겨온다.

(아저씨는 대체 무슨 사람일가? 나를 먹여살리고 옷도 해입히고 또 미츠만학교에도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면서도 왈렌찌나는 아예 알지도 못한다니… 혹시 아저씨는 정말 학자나 화학자일수도 있다. …)

며칠동안 그들은 조용하게 지낸다. 쎄료쟈는 아침마다 슬라브까와 만나군 한다. 그의 아버지와도 알게 된다.

어느날 《아저씨》는 쎄료쟈가 슬라브까네 집에 놀러 갈 때 데려다주겠다고 한다.

슬라브까와 할머니가 그들을 맞이한다.

《아저씨》는 슬라브까의 아버지가 집에 없는것을 자못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요다음 다시 놀러 오겠노라고 약속하고는 반시간

가량 있다가 가버린다.

함께 기념품도 주고받으며 재미나게 놀다가 헤여질 때 쎄료쟈와 슬라브까는 작별인사를 한다. 왜냐하면 다음날부터 이틀동안 슬라브까는 병원으로 약수목욕을 하러 가야 하기때문이다.

슬라브까가 래일 떠나간다는 말을 듣자 쎄료쟈는 자기도 오데싸에 빨리 가고싶어 집에 돌아와 심심풀이로 용감한 오데싸선장에 대한 시를 짓기 시작한다. 《아저씨》의 침대머리맡에 있는 신문지로 싼 종이뭉치에서 종이 몇장을 꺼내 정서하던 쎄료쟈는 그만 자기 눈을 의심한다. 방금 써놓은 시줄들이 마치 요술이라도 부리듯이 눈앞에서 차츰 사라져버리는것이 아닌가!

다음순간 억센 두손이 어깨를 내리누르는바람에 쎄료쟈는 하마트면 걸상에서 떨어질번 한다. 《아저씨》였다.

《이 망종놈아, 뭘 하고있어? 이 종이는 어디서 났어?》

《아저씨》는 독살스럽게 내뱉으며 종이장을 빼앗아 조심스레 손으로 반듯이 펴서는 침대끝의 종이뭉치에 도로 집어넣는다.

영문모를 그의 욕설과 무엇이라 설명할수 없는 그의 린색한 마음에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쎄료쟈는 드디여 분노를 터뜨린다.

《왜 날 못살게 굴어요? 난 당신과 지금까지 그저 함께 지내고있어요. 무엇때문인지도 모르고말이예요! 당신은 지금 종이석장이 아까와서 그 야단이지만 차칸에선… 남의것은 아깝지 않았나요? 내가 그래 당신것을 략탈했나요? 훔쳤나요? 글쎄 어떻게 했다고 날 욕하는거예요?》

정원으로 달려나간 쎄료쟈는 사람이 없는 으슥한 빈터에 나가 풀밭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다.

《아저씨》가 이내 좀 안됐던 모양인지 다가와서 쎄료쟈를 달랜다. 그리고는 묻는다.

《자, 그래서 넌 슬라브까네 집에서 뭘 했니?》

쎄료쟈는 슬라브까와 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곧 슬라브까가 아버지와 함께 떠나기때문에 퍽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저씨》는 별안간 안절부절한다.

의아해서 쳐다보는 쎄료쟈를 그러안은 《아저씨》는 빡빡 깎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한다.

《… 이제 얼마 안있어 우린 오데싸로 가게 된다. 미츠만학교 교장은 내 친구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네겐 좋을게다. …》

《아저씨》는 아주 싹싹하고 순해져서 15루블을 용돈으로 쓰라고 주고는 긴급한 일이 있노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나가버린다.

오데싸, 미츠만학교!

저으기 흥분되여 상점에 가서 콤파스를 산 쎄료쟈가 한참후에 돌아와보니 언제 왔는지 야꼬브령감이 《아저씨》와 정원에서 이야기하고있다.

그 령감이 보기 싫어 옆으로 슬쩍 에돌아 자기 방이 있는 2층에 올라가니 야꼬브령감의 가방이 눈에 띄운다. 그런데 가방을 살며시 열어보던 쎄료쟈는 그만 비명을 지를번 한다. 가방 한쪽 구석에 왈렌찌나의 빼람에서 본 그 권총이 있었던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층계로 올라오는 소리가 난다. 쎄료쟈는 고양이처럼 살짝 로대로 뛰여나가 숨는다.

정원을 관리하는 로파가 들어와 《아저씨》의 옷과 야꼬브령감의 가방을 뒤져 이것저것 훔쳐가지고 사라진다. 로파가 나가자 부리나케 방에 뛰여들어온 쎄료쟈는 가방속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나와 무너진 정자의 돌틈에다 감춘다. 그리고는 밖에서 금방 돌아오는것처럼 《아저씨》앞에 나타난다. 《아저씨》는 야꼬브령감이 병중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 체르니고브로 떠나게 되였다고 하면서 래일아침 부두까지 바래주자고 말한다.

잠시후에 잃어진 권총때문에 소동이 일어난다. 《아저씨》와 야꼬브령감이 로파를 족쳐댔으나 그에게서는 양말따위의 물건짝들과 돈밖에 나오는것이 없다. 어쩌는수없이 그들은 다음날 그냥 부두로 나간다.

야꼬브령감은 급히 배우에 올라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부두에서 쎄료쟈는 슬라브까를 만난다.

《아니, 너두 이 방향으로 가니?》

쎄료쟈가 놀라서 묻자 슬라브까는 그렇다고 하며 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 쎄료쟈가 대답한다.

《우린 지금 아는 사람 한분을 바래주러 나왔어.》

이튿날 아침 권총을 과자곽에 감춘 쎄료쟈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곳》으로 찾아간다. 거기에다 맡기고 가버리면 왈렌찌나가 아무때건 권총을 찾아가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 《찾아주는 곳》에 막상 가보니 쎄료쟈가 제일 꺼려하는 내무서이다. 실망에 잠긴 쎄료쟈는 무슨 딴궁리를 해봐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권총을 그전 자리에 도로 감춰둔다.

저녁녘에 슬라브까의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던 쎄료쟈는 각 학교 입학조건들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주는 안내소와 맞다들린다. 쎄료쟈는 오데싸의 미츠만학교에 대한 질문을 종이에 써낸다. 반시간후에 가보니 대답이 나왔는데 오데싸에는 현재 미츠만학교라고는 없으며 또 과거에도 있어본적이 없다는것이다.

쎄료쟈는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다만 그 빌어먹을 《아저씨》인지 한것이 생벼락이라도 맞아죽거나 발을 헛디디여 절벽에서 드네쁘르강물로 곤두박질해서 죽기나 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그는 당장 래일 《아저씨》집을 뒤지여 돈을 100～200루블쯤 훔쳐가지고 발길이 닿는대로 아무데로나 떠나리라 결심한다. 그러나 다음날 트렁크를 뒤져보니 돈이 없다.

집을 나선 쎄료쟈는 생각에 잠겨 어딘지도 모르고 걸어간다. 어느 밤나무밑 걸상에 앉아 잠들었던 그는 웬 사람이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깨여난다. 순간 그는 겁에 질려 다시 눈을 감는다. 전번 차칸에서 자기들에게 가방을 도적맞힌 바로 그 사람이 코앞에 서 있는것이 아닌가!

머리를 빤빤히 깎아서 그랬는지 쎄료쟈를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은 저 집 할머니를 못봤는가고 물어보고는 차를 타고 가버린다.

그제야 쎄료쟈는 자기가 슬라브까네 집 근방에 있는 걸상에 앉아있다는것을 깨닫는다. 거리이름과 집번호가 씌여진 문패를 본 그는 아무때고 슬라브까한테 편지를 쓰리라고 생각하며 주소를 적어

두려고 주머니를 뒤진다.

종이쪽지를 꺼낸 쎄료쟈는 그만 놀라서 연필을 떨군다. 종이쪽지는 니나가 가면무도회날 저의 집 전화번호를 적어준것인데 그 번호가 바로 자기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Г0—48—64》였던것이다. 그러니 나를 찾은건 내무서가 아니였구나. 그럼 누가? 무엇때문에?

슬라브까의 할머니가 누구에게 부축되여온다. 쎄료쟈가 차를 탄 사람이 찾아왔댔다고 하자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한다.

《차가 다 뭐냐! 난 벌써 다 알고있다.》

할머니는 슬라브까의 아버지가 집으로 오던 도중 어떤 놈의 칼에 등을 찔려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고 알려준다.

분노와 공포에 찬 의심이 쎄료쟈의 가슴을 옥죄인다. 집에 와보니 침대우에 야끄브령감의 맥고모자가 놓여있다. 《병든 할머니》를 찾아갔던 야끄브령감이 웬일인지 아주 빨리 돌아온것이다.

《살인자들!》

쎄료쟈는 새파랗게 질린 입술로 속삭인다.

○ 작가일화 ○

## 메쐐라숲속에서 있은 일

아르까지 가이다르가 소설가 까. 빠우스똡스끼와 함께 메쐐라숲속의 마을에서 함께 소설창작을 할 때 있은 일이다.

어느날 가이다르는 중편소설 《고수의 운명》을 탈고하고 유쾌한 기분으로 빠우스똡스끼를 찾아왔다.

《여전히 수고하누만. 내가 쓴 중편소설을 읽어줄가?》

《어때, 저 애가 좋지 않니?》

슬라브까와 친하라고 하던 《아저씨》의 말이 생각난다.

《강도들!》

쎄료쟈는 공포에 싸여 모든것을 깨닫는다. 어쩌면 간첩들인지도 모른다.

《오냐, 그래서 내가 네놈들에게 필요했댔구나!》

《아저씨》가 야꼬브령감과 함께 돌아와 도망칠 차비를 서두른다. 마음을 다잡은 쎄료쟈는 감춰두었던 권총으로 놈들을 쏴갈긴다. 야꼬브령감이 보기 흉하게 나자빠진다. 그러나 쎄료쟈도 《아저씨》가 쏜 총탄에 맞고 쓰러진다.

날이 흘러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쎄료쟈는 내무인민위원부 소좌와 슬라브까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

《아저씨》는 간첩이였다. 군사부문에서 중요한 연구사업을 하는 슬라브까의 아버지를 노린 놈은 야꼬브령감과 같은 늙은 강도, 매부리코, 유르까와 같은 협잡군, 도적놈들을 매수리용하였던 것이다.

연석 5호칸에서 슬라브까네 아버지 조수의 가방을 훔쳤으나 필

빠우스똡스끼가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하자 《그럼 들어보게.》 하고 그는 방가운데에 두손을 바지주머니에 지르고 서서 감정을 잡았다.

《원고는 어데 있나?》

《내게 원고가 무슨 소용인가? 그건 책상우에서 쉬고있네. 듣기만 할게지. 괜히 트집이군. 듣겠나, 안듣겠나?》

가이다르는 짐짓 노여운듯한 표정을 짓다가 정색하여 중편소설의 첫줄부터 마지막줄까지 감정을 살려가며 외워바쳤다.

놀라운 눈길로 가이다르를 바라보던 빠우스똡스끼는 《원고를 봐야지 모르겠소. 원고와 대조를 해봐야 알겠네.》라고

요한것을 손에 넣지 못한 놈들은 연구사인 슬라브까의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만사가 다 해결되리라고 타산했던것이다.

쎄료쟈도 결국은 놈들에게 리용당하였던것이다.

《…아저씨생각엔 전 무슨 사람이예요?》하고 그는 내무인민위원부 소좌에게 묻는다.

《언제말이냐. 지금말이냐, 이전말이냐? 지금은 네가 정신을 차렸다. 암, 그렇구말구!… 그러나 이전에는 네가 그놈들앞에서 순전한 바보노릇을 했다. 성은 내지 말아라. 눈섭은 찌프리지 말아. 넌 아직 어리니까. 그런 승냥이같은 놈들이야 너같은 애들이 다 뭐냐. 어른들까지 속여넘긴단다.》

소좌는 쎄료쟈가 왈렌찌나의 빼람에 넣어두었던 필림을 현상하여 만든 사진을 꺼내보인다. 그 《아저씨》란 놈과 야꼬브령감을 찍은 사진이다.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를 차리고있었단다. 하지만 그걸 다 알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쎄료쟈는 자기가 총을 쏘기 전에 이미 별장이 내무원들에게 포위되여있었음을 알게 된다.

말하였다.

《동문 역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구만. 좋아. 그럼 내기하세! 틀린데가 열곳이 넘지 않을거네. 만약 자네가 지면 래일 랴잔고물시장에 가서 나에게 구식청우계를 사주겠나?》

《예! 얼마든지.》

가이다르는 번개같이 달려가 원고를 가져다가는 빠우스똡스끼앞에 바치고 두번째로 소설을 외워나갔다. 틀린 곳은 정말 얼마되지 않았고 그나마 하찮은것들이였다.

《동무 암기력이 비상하구만! 행복이요.》

《약속만 지켜주시우.》

아버지가 찾아온다. 쎄료쟈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 그것은 바로 아무 설명도 말도 변명도 필요없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스스로 알고 리해할 그러한 때에 찾아오는 것이다.

쎄료쟈는 신문에 광고를 내여 자기를 찾던 사람이 처음에는 니나의 아버지였고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쎄료쟈가 집을 나간지 한주일만에 형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던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지친 얼굴에는 용감성이 아로새겨져있다.

소설은 그들을 마중나온 니나의 아버지를 비롯한 사람들이 친근한 미소를 던지며 다정하게 하는 말로 끝난다.

《먼길에 수고를 했소!》

중편소설 《고수의 운명》에서 작가는 순간의 유혹에 빠져 한번 걸음을 잘못 내짚으면 저도모르게 무서운 범죄의 구렁텅이로 줄달음치게 된다는것을 10대의 어린 소년 쎄료쟈의 운명을 통하여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아무렴. 래일 랴잔의 고물시장에 가서 구식청우계를 당장 사다 올리지.》

결국 빠우스똡스끼는 가이다르에게 청우계를 사서 진정하였고 그들은 그 청우계의 예보에 따라 개인날을 골라 호수와 강가에 낚시질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치렬한 문학론쟁도 벌리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군 하였다.

가이다르가 자기의 작품을 정확히 외울수 있은것은 단순히 비상한 암기력때문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한자한자를 끌로 돌을 파내는 석공의 심정으로 매 글자, 매 문장을 다듬고 세련시키는 피타는 노력과 진지한 탐구심, 불타는 정열의 결과였던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나름대로의 희망과 행복을 안고산다. 그러나 그 희망과 행복은 조직과 집단을 떠나서는 성취될수 없으며 조국의 품속에서 진정한 삶을 누릴 때 꽃피고 열매맺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한번 걸음을 잘못 내디딘 사람도 자기를 자각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재생의 길을 걸을수 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것을 느끼면서도 있지도 않는 미츠만학교에 허망한 기대를 걸고 항상 조마조마해서 사는 쎄료쟈, 자기를 찾는것이 아버지와 친근한 동무들이라는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머리를 빤빤히 밀어버리는 쎄료쟈, 내무원이 찾으면 속이 한줌만 해서 바라보는 그의 형상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어느날 나는 로대에 앉아서 털이 푸시시한 왕벌이 맑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려고 대가리를 막 유리창에 들이박는것을 보았다. 그때마다 그놈은 볼품없이 떨어지군 하면서 애를 박박 쓰고있었다. 그 벌은 바로 옆에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데도 들어오지 못할 유리창에 대고 왜 애를 박박 쓰고있는지 알수 없었고 또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으면 좋을지도 몰랐다.》

그 왕벌은 다름아닌 쎄료쟈의 이전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자신을 자각하고 자기를 리용해온 가증스러운 원쑤들에게 영원한 결별의 총탄을 안기며 사람들을 똑바로 떳떳하게 꺼리낌없이 바라볼수 있게 되는것이다.

중편소설 《고수의 운명》은 의의있는 문제성과 높은 형상수준으로 하여 작가 아르까지 가이다르의 대표작들중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내외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다.

———— ❖ ———— ❖ ————

내무원은 순식간에 노란불을 파란불로 조절판을 바꿔꽂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저쪽으로 건너가서 마당지기한테 들어가는 대문옆의 초인종을 눌러다우. 내가 가야 할텐데 잠시도 자리를 뜰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가 이 말을 다시 되풀이해서야 비로소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수 있었다.

나는 제정신없이 길을 건너가서 초인종스위치를 눌러주었다. 나는 곧 내가 갈 길로 조용히 걸음을 떼긴 했으나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아 첫눈에 뜨인 대문간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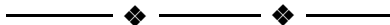
굵다란 눈물이 화끈 달아오른 두뺨으로 흘러내리고 목구멍이 떨리였다.

나는 수채통을 꽉 움켜쥐였다.

《에익, 빌어먹을 놈의것!》 나는 분통이 터져 부르짖으며 회색벽을 힘껏 걷어찼다.

《에이, 망할 놈의 생활!》하며 나는 중얼거렸다. 《집토끼나 산토끼나 겁많은 쥐처럼 남의 눈치만 보고 떨면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 살기가 싫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라브까처럼 살고싶다. 그애는 어떤 초인종이든지 마음놓고 누를수 있고 어떤 질문에도 태연하게 대답할수 있으며 나처럼 남이 한마디 묻거나 몸을 움직여도 그만 질겁해서 내빼거나 땅바닥에 코를 박고 넘어질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얼굴을 곧바로 떳떳이 쳐다볼수 있지 않는가!》

나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여전히 울며 서있었다. 눈물이 방울방울 뺨을 흘러 석회가 뽀얗게 묻은 신발우에 떨어졌다. 울고나자 마음이 한결 거뿐해졌다.

웬 사람이 내 팔을 건드렸다.
《얘야.》하고 낯모를 젊은 녀자가 동정하듯 물었다.
《왜 우느냐? 누가 뭐라더냐?》
《아니예요.》 나는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다.
《그저 괜히 내가 날 섧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젠 됐다! 이 무서운 놈들아. 어서 갈테면 가라! 나는 혼자 살테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테다!》
《아니, 갈테면 가라니?》 누군가의 목소리인가 가슴속에서 엄하게 물었다.
《아니, 그래 강도며 간첩인 그놈들을 네 눈앞에서 제마음대로 곱게 도망치게 내버려둔단 말이냐?》
나는 어쩔줄을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돌짬에서 권총을 싼 누런 우웡잎새를 보았다.
《일어서라! 고수야!》 아까 그 누구의 목소리가 되뇌였다.
《늦기 전에 일어서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지금 곧…》 나는 죄송한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일어서기가 싫었다. 나는 이렇게 여기 이 눅눅하고 차거운 돌뒤에 그냥 누워있는것이 좋았다. 바로 그놈들이 나온다. 트렁크는 내버리고 어깨에 들가방만 멨다. 로파에게 뭐라고 고함을 지른다. … 로파는 창문으로 그들에게 혀바닥을 쑥 내밀어 보인다. 그들은 멈춰섰다. … 다시 걷는다.
그들은 웬일인지 쪽대문으로 나가 거리로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있는쪽으로 온다. 그들은 정자옆을 지나 담장구멍으로 빠져 으슥한 오솔길로 나가려고 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불붙는 비행기가 내 눈앞에 이상하게도 뚜렷

이 보인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듯 내 친구 은발머리 슬라브까가 날아떨어진다.

나는 눈을 뜨고 권총쪽으로 손을 뻗쳤다.

내 손이 권총에 가닿자 주위는 쥐죽은듯이 고요해졌다. 땅도 숨을 죽인듯 하였다. 그러자 마치 어떤 사람이 굵은 악기줄을 다쳐놓은듯 맑고 고르로운 소리가 울린다. 오래동안 버림을 받던 그 줄은 기쁨에 떨며 놀랄만큼 맑은 자기의 선률로써 온 세상을 경탄케 하면서 울리는것 같았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세차졌다. 따라서 내 마음도 그 소리와 함께 커지고 억세졌다.

《고수야, 일어서라!》 이번에도 따뜻하고 상냥하게, 역시 같은 목소리가 속삭이였다.

《꿋꿋이 일어서라. 때는 왔다!》

그리하여 나는 권총을 꽉 쥐고 일어서서 자세를 취했다.

마치 백사장앞에 천길만길의 심연이 가로놓인듯 깜짝 놀란 두사람은 일시에 발길을 멈췄다.

중편소설 《고수의 운명》중에서

# 연 필 화

단편소설 《연필화》는 이전 쏘련의 작가 쎄르게이 리보브가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쏘도전쟁시기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한 녀병사의 대학시절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발휘된 쏘베트청춘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위훈의 뿌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들인 리다와 또까레브 그리고 동창생들과 대학교원들이 나온다.

소설은 쏘도전쟁시기의 어느 이른 가을날 려객선을 타고가던 한 붉은군대중위가 선창안의 벽에 붙은 선전화를 보면서 대학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쾌한 청년대학생들이 대학생구락부의 미술실에서 그림공부를 하고있다. 지도교원은 예술에 무한히 충실한 드미뜨리엡스끼이다.

습작때면 그는 대학생들이 별장에서 휴식하는 사람들처럼 자연을 본다고 소리지르군 한다. 뜨레찌야꼬브미술박물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설명할 때면 흡사 자기가 그 그림을 새로 그리기나 하는듯 그의 두손은 화폭우를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어느날 드미뜨리엡스끼는 매 개인이 자유제목으로 풍경화건 초상화건 풍속화건 마음에 드는것을 유화나 연필화, 수채화, 선화 등 그 무엇으로건 마음에 맞는대로 그려오라고 하며 그 작품들을 구락부에 전시하겠다고 한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반대하자 드미뜨리엡스끼는 성을 내면서 말한다.

《어린 중학생들도 자유제목으로 작문을 짓습니다. … 동무들

은 기교로써는 나를 놀래우지 못할것입니다. 나도 그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무들에게 자신들의 사고, 사고와 감정을 요구할수야 있지 않습니까?》

드디여 전람회를 열기로 정한 날자가 닥쳐와 대학생들은 자기 작품들을 내걸기 시작한다. 그런데 2학년생인 또까레브만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다.

《동무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군. 또까레브, 동무는 이날을 빈손으로 맞이했습니까?》

초청한 손님들이 오기 전에 먼저 전람회장을 돌아본 드미뜨리옙스끼가 엄하게 묻는다.

《빈손이 아닙니다. 아직 다 되지 않았을뿐입니다.》하고 또까레브는 자기의 그림첩을 주저하면서 내민다.

드미뜨리옙스끼는 그것을 펼쳐서 그림장을 넘기기 시작한다. 장마다 급히 휘갈긴 연필속사들이 나타난다.

대학생들은 놀란다. 속사한것이 그 전부가 다 한대학의 처녀 리다 꼰뜨라찌예바를 그린것이기때문이다.

또까레브는 음악대학의 음악회에서 환희에 넘쳐 여념없이 연주를 듣고있는 리다의 모습도 그리였다. 그때 리다와 함께 앉았던 유리 뽀뽀브의 모습은 그리지 않고 다만 리다의 손과 나란히 놓인 느른하고 묵직한 유리의 손만 그렸는데 참말로 그 손은 음악회에는 관심이 없는 손이라는것이 확연하다.

마지막 한장, 그것은 리다가 벌판을 걸어가는 그림이다. 그것을 그림첩에서 뽑아내여 오래동안 들여다보던 드미뜨리옙스끼는 긴 숨을 내쉬고는 또까레브를 껴안고 입을 맞추더니 고함을 친다.

《동무들은 어째서 서있기만 하오? 이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나서서 그림들을 걸기 시작한다.

전람회가 시작되자 또까레브의 그림은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집중시킨다. 처녀들은 소곤거리며 또까레브를 이상야릇한 눈길로 바라본다.

리다가 전람회장을 찾아온다. 처녀들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것이다. 구락부 온벽에 리다의 초상화들이 가득 나붙었으며 드미

뜨리옙스끼선생이 이에 대하여 장황한 연설을 하였는데 심지어 그중 한 그림, 바로 리다가 어째선지 파헤쳐진 벌판을 군인외투를 입고 걸어가는 그 그림은 영웅적충격을 전하는것으로서 승리의 녀신의 형상이 담긴것이라 했다고 하면서 코웃음을 쳤던것이다. 그리고는 리다더러 전람회가 곧 끝나니 속히 오라고, 구락부로 바삐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던것이다.

리다는 곧바로 또까레브의 그림쪽으로 걸어간다. 놀라움과 노여움이 가득차서 돌진하듯 걸어간다.

《비슷한데.》하고 누군가가 말한다.

…파헤쳐진 벌판, 곤두선 땅, 비구름이 무겁게 비낀 하늘, 이 벌판으로, 이 하늘밑으로 군인외투를 입은 한 처녀가 걸어간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흩날리고 외투자락을 불어젖힌다. 그러나 처녀는 앞으로 간다. 완강하게 걸어간다. 그림에 그려진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림을 보며 리다는 놀란다.

(과연 내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러나 또까레브에게 딱딱하게 묻는다.

《동무는 어쩌려고 이런짓을 했어요?》

또까레브는 힘들게 대답한다.

《나는 완전한 작품을 그리려 했습니다. … 이것은 습작품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는 완전한 작품을 그리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요? 또 어째서 군인외투를 입었는가요?》

자기가 생전 걸어보지 못한 벌판과 생전 입어보지 못한 군인외투를 힐끗 보며 리다는 묻는다. 그러나 다시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입을 다물고만다.

대학에는 상스러운 소문이 떠돈다. 유리 뽀뽀브가 내돌린 말들이다. 이 모든것은 또까레브와 리다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또까레브는 대학에 화첩을 가져오지도 못하게 된다.

또까레브가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짝사랑에 빠져 리다를 그린것인가? 아니였다.

공민전쟁시기의 공청원들을 회상하면서 군인외투를 입고 행군의 길을 걸어간 용감한 처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새 세대 청춘들의 미래에 대하여, 헤쳐나가야 할 앞길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면서 그들이 그려본 모든것, 그 모든것이 또까레브의 상상속에서는 사랑하는 처녀의 형상과 융합된것이다. 때문에 그는 리다를 단순히 바람을 맞받아서가 아니라 무서운 시련을 맞받아나가는것으로 그리기로 한것이다. 그가 탐구하려고 한것이 바로 그것이였고 그가 작품에 표현하고저 한것이 바로 그것이였다.

그러나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리다는 그가 처음에 속사로 그리던 때보다 그에게서 더 멀어져간다.

어느날 리다는 강의가 끝나자 또까레브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고대사를 발취한 학습장을 얻으려 들리겠노라고 한다.

그런데 또까레브는 그 학습장을 다른 동무에게 빌려준 상태이다. 그는 주머니를 죄다 뒤져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전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알렉쎄옙스끼대학생기숙사에 있는 그 동무를 찾아간다.

학습장을 찾아쥔 후 그 동무에게 택시값을 꿔달라고 하자 동무는 깜짝 놀란다.

《이 멋쟁이를 보지? 웬일이야? 공부를 너무 해서 정신이 나갔나?》

그가 옆친구들한테서 돈을 모아주어  또까레브는 약속한 시간을 10분 앞두고 집에 돌아온다.

불시에 6월의 소나기가 쏟아지자 또까레브는 리다가 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책상우에는 그가 도시의 한끝까지 가서 가져온 학습장이 놓여있다.

그러나 리다는 온다. 고대사를 발취한 학습장때문이 아니다. 또까레브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알아보려고 온것도 아니다.

전람회가 있은 후로 날이 갈수록 리다는 또까레브의 속사에 특히 마지막속사에 그려진것과 같은 그런 자기에 대하여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된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였으며 모르기는 해도 거대한 운명에 대한, 거대한 사랑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였다.

《싸샤, 난 동무의 속사집을 봤으면 해요.》하고 리다는 단호하게 부탁한다.

또까레브는 그림첩을 꺼내준다. 그러면서 몸둘바를 몰라한다.

《싸샤, 왜 그러세요? 난 동무가 내게 한장한장 보여줄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까레브가 두려워하면서도 바라던것이다. 또까레브는 리다와 가지런히 앉아서 그림을 번지고 리다는 그것을 들여다본다.

돌아가는 리다를 또까레브가 바래워준다. 리다의 집대문앞에 이르렀을 때 또까레브는 그때까지 내내 들고있던 고대사를 발취한 학습장에 자기의 그림, 리다가 벌판을 걸어가는 그 그림을 끼워서 준다.

1941년 8월, 또까레브는 전선으로 떠난다. 차량곁에서 드미뜨리옙스끼와 또까레브의 친구가 그를 바래운다.

또까레브가 차칸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역홈끝에서 리다가 달려온다.

《싸샤, 또까레브!》

또까레브의 얼굴이 환해진다.

《그래도 늦지 않아서… 난 늦을가봐 겁이 났어요.》하고 리다는 말한다.

그때 렬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리다는 또까레브를 안고 입을 맞춘다. 렬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또까레브를 바랜다.

두달후에 간호원단기강습을 마친 리다도 전선으로 떠나간다.…

대학시절에 대한 추억에서 깨여난 중위는 다시 선전화를 본다. 그때 또까레브가 리다를 그린 연필화, 바로 그 연필화가 선전화가 되여 붙어있는것이다. 어떻게 되여 그 그림이 선전화로 되였을가? 가까이 다가선 중위는 그림밑에 받쳐쓴 글을 보게 된다. 몇줄은 찢어져 달아났는데 남은 글줄만으로도 리다가 위훈을 세우고 전사했다는것을 넉넉히 알수 있다.

그 녀자의 위훈이 또까레브가 상상했던 그것과 비슷하였는지…

지휘관이 전사하고 중대가 포화속에 있을 때 그 녀자가 선참으로 일어나 앞장서 나간것인지, 혹은 그 녀자가 비오듯 하는 사

격을 무릅쓰고 부상병들을 끌어낸것인지, 혹은 정찰을 나갔다가 희생된것은 아닌지 중위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것은 알고있다. 리다는 또까레브의 눈, 그의 사랑의 눈을 빌어서 본 자기, 바로 그러한 녀자가 되려고 원했던것이다.

중위는 상상한다. 리다가 한 일에 대한 소식이 지휘부에 전해지고 그의 위훈이 죽은 후에도 표창할만한것으로 인정되였으리라. 그리하여 기자들이 그의 사진이 없는가고 전투가 멎은 짬에 그의 녀동무들에게 물었으리라. 아마도 처녀들은 배낭을 뒤졌을것이고 사진대신 편지들가운데서 또까레브의 그림을 찾아내자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들여보다가 그것을 넘겨주었을것이다. 이렇게 되여 속사는 선전화로 되였을것이다. 파헤쳐진 벌판, 곤두선 땅, 비구름 무겁게 비낀 하늘, 이 벌판으로, 이 하늘밑으로 군인외투를 입은 한 처녀가 걸어간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흩날리고 외투자락을 불어젖힌다. 그러나 처녀는 앞으로 간다. 완강하게 걸어간다. 자기의 충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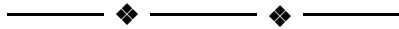
소설의 내용은 이상과 같다.

단편소설 《연필화》에서 작가는 처녀총각들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쏘베트청춘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참답고 열렬한 사랑을 그리고있다.

생활과 투쟁에 대한 참다운 사랑, 그것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위훈과 용감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뿌리이다.

소설은 이처럼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명을 또까레브와 리다의 대학시절 생활을 통하여 펼쳐보임으로써 준엄한 결전의 시각에 발휘되는 청춘들의 영웅적행동은 평범한 시기에 벌써 가슴속에 뿌리를 박고있는것임을 예술적으로 잘 확증하였다.

단편소설 《연필화》는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형상과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쏘도전쟁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이채로운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 ❖ ———— ❖ ————

그림에 그린 리다는 우리가 매일같이 보아온 그 리다였고 그런가 하면 그 리다가 아니기도 하였다.

또까레브는 1년반전에 대학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리다를 알고있었고 많은 동무들이 은근히 그 녀자를 사랑하고있었다. 그러나 또까레브는 그 녀자의 얼굴, 그 녀자의 동작, 그 녀자의 미소를 다시 그리고 또다시 그리지 않을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그 녀자에게서 발견한것이였다. 우리들 역시 느끼고 사랑하고는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던 그 남다른 표정을 그는 찾아냈던것이다. 실로 우리들은 그 표정을 말로 형용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려는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가? 얌전한 처녀인가? 좋은 처녀는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 아름다운 처녀인가? 모르겠다! …다만 그냥 지나쳐버릴수 없으며 눈여겨보지 않을수 없는 그런 처녀였다.

《리다를 맨앞에 앉히시오.》하고 배구경기를 앞두고 학부의 한 찌보가 말하였다.

《그러면 선수들이 죽을 기를 써가며 경기를 할거요. …》

이 모든것이 또까레브의 속사들에 담겨있었다. 그림들을 보면서 나는 자기가 말없는 비상한 사랑의 고백을 목격하고있는듯이 느꼈다.

마지막 한장, 바로 그것이 그 처녀가 벌판을 걸어가는 그림이였다.

단편소설 《연필화》중에서

# 침 입

희곡 《침입》은 이전 쏘련의 작가 엘. 레오노브가 1942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희곡은 위대한 조국전쟁시기 로씨야의 한 자그마한 도시에서 있은 일을 통하여 파쑈도이췰란드강점하에서의 쏘련인민의 애국적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총 4막으로 구성되여있는 희곡 《침입》에는 의사인 딸라노브와 그의 안해 안나 니꼴라예브나, 아들 표도르와 딸 올가를 비롯하여 제미지예브나, 아니스까, 꼴레스니꼬브, 파유닌, 꼬끄리슈낀 등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희곡은 의사 딸라노브의 살림방에서 안나 니꼴라예브나가 아들 표도르에게 편지를 쓰고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벽에는 여러개의 사진액틀이 걸려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우는것은 해병옷을 입은 여윈 소년의 사진이 있는 큰 액틀이다. 이 사진은 아들 표도르의 어릴 때 모습이다.

딸라노브의 집에서 사는 유모 제미지예브나가 식탁을 차리며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준다.

어느어느 집이 후퇴해갔다는 소리, 롬쩨보라는 곳에서 손녀 아니스까가 도이췰란드놈들을 피해서 도망쳐왔다는 소리…

안나 니꼴라예브나가 한숨을 내쉰다. 롬쩨보, 남편 딸라노브가 병원일을 시작한 곳도 거기고 아들 표도르가 태여난 곳도 거기였던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다니…

안나 니꼴라예브나의 아픈 마음을 느낀 제미지예브나가 표도르의 어릴적사진을 올려다보며 엽서라도 한장 보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한다. 안나는 편지를 봉하면서 이게 마지막편지이다, 이번에도 회답이 없으면 단념할수밖에 없지 하고 말한다.

그의 아들 표도르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 가있길래 소식 한장 없는것인가. 집을 떠난지 3년 하고 아흐레째이다.

딸 올가가 집에 들어온다. 그런데 왜서인지 어머니의 눈길을 피한다. 안나 니꼴라예브나가 따져묻자 올가는 방금 오빠를 보았다고, 몹시 상했더라고 이야기한다. 죄를 짓고 교화소에 갔던 오빠, 올가는 그를 만나지 않고 집으로 온것이다.

안나 니꼴라예브나는 제미지예브나에게 빨리 과일술도 꺼내고 식탁을 차리라고 말하고는 아들을 찾아나서려고 한다. 제미지예브나와 올가가 만류한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그 녀자에 대해 그만큼 말해주었는데도 오빠는 우리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으니 오겠으면 제발로 돌아오게 놔두세요.》

그런데 이때 아들 표도르가 집에 찾아온다. 채 자라지 못한 죄수머리, 멋으로 자래운 가느다란 입수염이 그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 낡은 가죽외투는 짯짯하고 어깨에는 회가루가 묻어있다. 흙탕묻은 장화는 어지럽다. 입에 문 담배대에서 연기가 피여오른다.

《난 말이야. … 오다가 감기에 걸렸어. 다가서지 마.》

올가에게 이렇게 말한 표도르는 갑자기 무섭게 기침을 하더니 손수건을 입에 가져다댔다가 소매안에 감춘다.

올가가 형기를 마쳤는가고 묻자 표도르는 그렇다고, 내 할바는 내가 다 알고있다고 쌀쌀하게 대답한다.

제미지예브나가 타이른다.

《이 불쌍한 사람아, 자네는 무엇보다도 바로 병사의 외투를 입어야 해. 그건 수많은 수달피를 몸에 걸친것보다 자네의 가슴을 더 덥혀줄거야. 그걸 입고 화선에 뛰여들면 더 뜨뜻해질거네.》

그러나 군대에서는 전과자인데다가 폐병환자인 표도르를 받아줄리 만무하다.

아니스까가 들어와 롬쩨보에서 있은 일을 재잘거린다.

《…그 따바꼬브란 사람을 아주머니와 함께 교수대로 끌고갈 때 그 집 샤보츠까(개)가 도이췰란드놈들의 손을 물었어요. 그래서 샤보츠까도 아주머니와 함께 나란히 매달았어요. 보세요. 이젠 개들

까지 싸우고있어요.》

그 말에 표도르는 침울해진다. 개들까지 싸우고있는데 전파자인 나는?…

아버지인 딸라노브의사가 돌아와 아들을 진찰한다.

《너는 불안해하고있다. 어떤 출로를 찾고있어. 그건 좋은 일이다. 눈을 바로 뜨고 주위를 살펴봐라. 어떤 불행이 우리 나라에 들이닥쳤니. 고생많은 로씨야의 아낙네들이 너무나도 큰 재난앞에서 통곡을 하고있다. 그옆에는 재난의 불길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 그 광경은 그들의 머리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을게다. … 표도르, 네 병은 고칠수 있는 병이다.》

표도르가 처방을 알려달라고 하자 딸라노브는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공정성이라고 대답한다.

구역집행위원회 위원장 쁠레스니꼬브가 차를 가지고 딸라노브를 후퇴시키려고 찾아온다. 그러나 딸라노브는 도시에 그냥 남아있겠다고 한다. 쁠레스니꼬브가 그의 결심을 지지하면서 자기도 시내에 남아 싸울 결심이라고 말한다. 올가도 남아있게 된다.

칸막이뒤에 숨어서 엿듣고있던 표도르가 불쑥 나서며 말을 건다.

《그 소조에… 교화받은 사람 하나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잔뜩 속이 뒤틀린 소리만 하는 표도르에게 쁠레스니꼬브는 동무가 생활에서 옳은 길을 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이야기하고는 집을 나선다.

딸라노브가 어서 그를 따라가서 용서를 빌라고 하자 표도르는

《아버진 지금도 그가 두려워요? 그러나 포로 말한다면 그는 벌써 쓰지 못할 포나 다름없어요.》라고 한다.

딸라노브는 비칠거리면서 걸상에 쓰러지듯 앉으며 말한다.

《이제야 난 네 병이 무언지 알겠다. 표도르야, 네 병은 탈저(몸의 일부에 영양공급장애가 생기여 색이 변하고 썩는 병)이다.》

멀리에서 공습경보소리가 나더니 점점 크게 들려온다. 표도르는 머리를 쳐들고 그 소리를 듣다가 나간다. 그러나 누구도 바래주지 않는다.

폭격이 시작된다. 불이 꺼져 등불을 켠 딸라노브네 식구들은 방문결

에 놓인 걸상에 빙그레 웃으며 앉아있는 웬 로인을 보고 깜짝 놀란다.

로인은 방안에 놓여있는 푹신푹신한 긴 걸상이 옛날 상인 파유닌네 집에서 몰수한것임을 제꺽 알아본다. 딸라노브의 집에 일을 보러 왔던 처세술이 능한 기회주의분자 꼬꼬리슈낀이 그 늙은이가 바로 파유닌임을 알아보고 발라맞춘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날을 기다리시느라구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로인은 갑자기 엄엄해진 목소리로 전화를 건다.

《교환! 파유닌시장이 전화를 건다. 떨건 없어. 잡아먹진 않을테니까. …》

송수화기를 놓으면서 그는 정중히 십자를 긋는다.

《새세상이, 우리 세상이 왔습니다. 주여, 축복해주옵소서.》

이제는 벌써 두터운 벽돌담벽을 통해서도 기관총련발사격소리, 사람들의 고함소리, 육중한 쇠물체가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파유닌이 목소리를 높인다.

《주여, 님의 뜻으로 이 몸이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되였나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있나이다.》

침략으로 인한 불행이 도시의 하늘을 뒤덮는다.

어느날 제미지예브나가 큰 비밀이나 알리는듯이 이야기한다. 밤에 또 도이췰란드놈 네놈이 녹아났는데 매 놈들에게 꼭같은 글쪽지가 꽂혀있었다는것, 글쪽지엔 《어서 오십시오.》라고 써있었다는것, 안드레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데 우리 도시에만도 안드레이가 서른은 더 된다는것…

이야기를 들은 안나 니꼴라예브나는 겁이 나서 딸 올가를 집에서 못나가게 한다. 올가가 한사코 나가려고 하자 하는수없이 승낙하면서도 걱정스러워 머리수건도 찢어진걸 쓰고 거리로 갈 때는 등을 병신처럼 구부리고 가라고 일러준다. 놈들이 찾고있는 그 안드레이가 바로 올가의 애인인 구역집행위원회 위원장 꼴레스니꼬브이며 올가도 그 안드레이의 소조에서 활동하고있다는것을 안나 니꼴라예브나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것인가.

파유닌이 찾아온다. 딸라노브의 집이 가장집물과 함께 몽땅 도

이췰란드군사령부에 이관되였다는것을 전해주고난 파유닌은 꼬꼬리슈낀이 하는 말이 안드레이란 사람의 주소를 당신이 알거라고 하던데 급한 일이 있으니 좀 왔다가라고 편지를 쓰라고 한다.

딸라노브는 교형리의 직책에서 일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한다.

아니스까가 놀란 얼굴로 현관에서 뛰여들어오더니 장관나으리가 왔다고 말하고는 바삐 휘장뒤에 가 숨는다.

시도이췰란드군 사령관 비뻴과 부관 쿤쯔, 해외로 망명한 백계로씨야출신인 모쌀스끼가 나타난다. 집을 보러 온것이다.

파유닌은 딸라노브의 집이 비뻴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야 제가 그 집을 차지할수 있기때문이다. 쿤쯔가 이전에 자기한테서 도망쳐간 처녀애 아니스까를 휘장뒤에서 발견하고 쫓아간다. 옆방에서 나온 비뻴이 방금 여기서 《악!》하고 소리지른것이 누구인가고 묻자 파유닌은 이렇게 대답한다.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그저 쥐새끼가 뛰쳐나와 처녀애치마자락밑으로 기여들어…》

쥐를 몹시 싫어하는 비뻴은 몸서리를 치면서 딸라노브의 집을 위수사령부로 정하기를 거절하고 가버린다.

파유닌은 너무도 사기가 나서 딸라노브를 막 그러안으려고까지 하며 이 방을 자기가 쓰겠다고, 집들이도 하고 이제 큰 상점을 모스크바에 차리겠다고 말한다.

올가가 돌아온다. 교원인 그는 학교에 갔다왔다고 말한다. 교실은 텅 비고 창문이 깨져 벽에 걸린 아프리카지도만이 바람에 흔들거리더라고 한다.

딸라노브는 올가가 거짓말을 한다는것을 제꺽 알아차린다. 학교가 불타버렸는데 무슨 아프리카지도란 말인가. 사연을 따져묻자 올가는 대답한다.

《아버지, 전 다르게 행동할수가 없었어요. 전 말할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두 그놈들과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 말씀은 안하셨지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았나요. 누구를 보내겠나요. 표도르를 싸우러 보낼수야 없지 않나요. 그리고 아버지, 이젠 제

가 아버지의 딸만이 아니랍니다.》
  딸라노브는 장한 딸을 칭찬해주며 파유닌이 저녁에 가택수색을 한다고 했으니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올가는 아버지의 보호밑에 찾아온 동지들과 만난다.
  《언제나 끊임없이 행동해야 한다는것을 잊어선 안돼요. 놈들이 우리가 있다는것을 계속 알게끔 해야 해요. 한사람이 떨어져나가면 즉시 같은 이름으로 딴사람이 그자리에 들어서야 해요. 빨찌산은 죽지 않아요. … 그것은 인민의 분노를 안고 싸우기때문이예요!》
  올가가 말하는데 별안간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안나 니꼴라예브나가 누가 있는것도 모르고 막 달려들어온다.
  《빨리빨리! 뭣이든 뜨뜻한걸 가져오너라. 치마든지, 모포든지 아무것도 좋다!》
  창고에서 도이췰란드놈들에게 겁탈당하고 기척없이 쓰러져있는 아니스까를 발견했던것이다. 제미지예브나가 통곡한다.
  그들의 불행에는 아랑곳없이 파유닌이 차지한 방에서는 꼬꼬리슈낀의 주동하에 이사가 한창이다. 꼬꼬리슈낀은 10월혁명이후 몰수당했던 파유닌의 집 가구들을 죄다 찾아온다. 책상은 집행위원회사무실에서, 찬장은 유치원에서…
  밖에 나갔던 올가가 뜻밖에도 총상을 입은 꼴레스니꼬브를 데리고 들어온다. 칸막이뒤에다 그를 숨긴 딸라노브가 처치를 끝내고 어데다 이 사람을 재우겠는가고 묻는다.
  이때 누가 창문틀을 요란스럽게 두드린다. 방안에서는 잠시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뜻밖에도 나타난것은 표도르이다. 마을들은 어데를 가봐도 불타고있고 순찰병들은 가택수색을 하면서 미친듯이 사람잡이를 벌리고있다고 말한 표도르는 술을 찾는다. 안나 니꼴라예브나가 격분해서 부르짖는다.
  《비겁한 자식! 그래, 부끄럽지도 않느냐! 승냥이들, 살인자들이 너의 집에 뛰여들어 처녀애를 못살게 굴고 늙은이들을 교수대로 끌어가는데 넌 술에 취해 곤드레만드레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와? 이 류랑걸식하는 부랑배야!》
  그러자 표도르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속이 화끈 달게 하는 약

을 달라고 한다. 딸라노브는 세상에서 제일 효과가 있는 약을 주겠다고 하면서 도이췰란드놈들에게 릉욕당한 어린 아니스까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옆방에 갔던 올가가 발끝걸음으로 돌아오다가 미처 치우지 못한 꼴레스니꼬브의 피묻은 붕대가 담긴 대야를 보게 된다. 올가가 그것을 얼른 치우려는데 어느새 눈치를 챈 표도르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옆으로 다가가 칸막이를 힘껏 잡아당긴다. 거기에는 꼴레스니꼬브가 있다.

《칸막이뒤에 숨어있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꼴레스니꼬브선생, 당신의 목엔 큰 상금이 걸려있소. … 이제 난 이 집에서 나가겠소. 아예 내쫓기 전에 말이요. 그런데 나한테 무슨 부탁이라두 없소?》

꼴레스니꼬브가 없다고 하자 표도르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면서 《넌 뭣하러 이 점잖은 집에 와서 야단이야? 썩 나가라!》하더니 밖으로 나간다. 모두가 불안한 시선으로 그를 바래운다.

딸라노브가 꼴레스니꼬브에게 빨리 이 집에서 떠나야 할것 같다고 말하는데 안나 니꼴라예브나가 밖에 누군지 중절모자를 쓴 사람이 서성거리고있다고 하면서 반대해나선다.

그런데 이때 문이 활짝 열리더니 파유닌이 우쭐해서 들어온다. 그뒤로 꼬꼬리슈낀이 술을 부은 잔들을 담은 쟁반을 들고 종종걸음으로 들어온다.

《이거 안됐습니다. 집들이기념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손님이 오신게 아닙니까?》

위기일발의 순간 안나 니꼴라예브나가 꼴레스니꼬브를 가리키면서 말한다.

《손님도 기쁜 손님이지요. 아들이 불쑥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파유닌은 감쪽같이 속아넘어가지만 꼬꼬리슈낀은 안드레이 꼴레스니꼬브를 알아본다. 손이 떨리여 쟁반이 흔들리자 꼬꼬리슈낀은 아들이 돌아온것을 축하한다는듯 몸을 꼬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혹시 이것은 그가 속으로 기뻐할 때 추는 춤일지도 모른다. …

강한 출세욕이 북받쳐오른 꼬꼬리슈낀은 파유닌에게 경찰서장이 되고싶은 자기의 의향을 슬쩍 내비친다. 들었는지 말았는지 파

유닌은 그 《안드레이란 개자식》을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꼬꼬리슈낀은 조용하면서도 똑똑하게 《그것은 할수 있습니다.》하고 말한다. 파유닌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있던 문서를 떨구기까지 한다.

파유닌이 실마리만이라도 대달라고 하자 꼬꼬리슈낀은 딸라노브네 방문쪽을 피끗 흘겨보고는 《올가 이와노브나!》하고 가만히 튕겨준다.

《그자는 여기서 먼데 있소?》

《보통걸음으로… 그저 엎디면 코닿을만한데 있지요.》

파유닌은 꼬꼬리슈낀을 경찰서장이 될수 있게 게스타포장교 슈프레에게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한다.

파유닌은 혼자 남게 되자 곧장 딸라노브의 방문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딸라노브가 먼저 문을 열고 파유닌을 찾아온다.

《당신도 알고계시지만 아들녀석이 돌아왔지요. 얼마동안 집에 있자구요. 먼길의 때라도 벗기려고 이제 목욕탕으로 가려는데…》

딸라노브가 말하는데 파유닌은 왕청같이 편지에 대한 소리를 한다.

《아니, 편지란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딸라노브가 묻자 파유닌이 노래부르듯 대답한다.

《내 생각엔 선생님이 편지를 쓰시고 댁의 따님인 올가 이와노브나가 그것을 전해줬으면 해서 그러는겁니다. 따님이야 그와 만날게 아닙니까? 안드레이와 말입니다!… 아, 손님들이 오시는군요.》

파유닌의 집들이에 초청된 손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딸라노브가 인사를 하고 물러가는데 파유닌이 그를 바래우며 말한다.

《표도르 이와노비츠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야간통행증을 내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밤에도 목욕탕에 갈수 있게 말입니다.》

꼬꼬리슈낀이 불을 켠다. 각양각색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여있다. 현관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 꼬꼬리슈낀이 그쪽을 바라보더니 온몸을 움츠린다.

《정숙하십시오. 여러분, 슈프레씨가 오셨습니다!》

모쌀스끼를 앞세우고 게스타포악당 슈프레가 들어온다. 꼬꼬리슈낀이 챙챙하게 웨친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
이 말은 사람들에게 폐부를 찌르는듯이 들려온다. 날씬한 몸매의 녀인이 악! 소리를 지른다.
처단된 도이췰란드놈들의 시체마다에 꽂혀있던 글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은 놈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전주곡, 공포의 대명사였던것이다.
슈프레가 무서운 기상으로 꼬끄리슈낀에게 육박해간다.
《개자식! 안드레이이지? 안드레이 꼴레스니꼬브이지?》
총소리와 함께 꼬끄리슈낀은 개죽음을 당한다.
연회가 시작된다. 모쌀스끼가 이제 15분후에 사령관 비뻴이 여기로 온다고 알려주고나서 그의 위임에 의하여 연설하겠다고 말한다.
《…천년동안 동방의 대문에 걸려있던 녹쓴 자물쇠가 드디여 부서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방금 모스크바가 함락되였습니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요란히 울리더니 시도이췰란드군 사령관 비뻴이 여기로 오던중 살해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함께 오던 5명의 장교들도 모두 즉살했다고 한다.
도이취어를 모르는 파유닌이 영문을 몰라 모쌀스끼에게 묻는다.
《모스크바대사원이 아직 무사하답니까?》
《비뻴이 피살됐소. 여섯명이나 피살됐소. 범인은 한놈인데 여섯발을 쐈다우.》
그 범인이 체포되였다고 한다. 슈프레는 범인을 당장 여기로 끌어오라고 지시한다.
이때 사연을 전혀 모르는 딸라노브부부가 연회에 참가하기 위해 나타난다.
《매우 늦었는데 일없겠는지요. 붕대를 감아놔서 표도르는 좀 늦어 올겁니다.》
파유닌이 비뻴과 범인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딸라노브부부는 돌아가려고 하나 파유닌이 그들을 제지시킨다.
범인이 끌려들어온다. 뜻밖에도 그는 딸라노브부부의 아들 표도르이다. 모쌀스끼가 표도르를 심문한다.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안드레이 꼴레스니꼬브요.》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이름에 모두가 최면술에 걸린듯 멍하니 서있다. 안나 니꼴라예브나가 《아니예요. 아니예요.》라고 하면서 손을 쳐들었다가 이내 자제한다.
《당신의 직위, 신분, 직업을 말하시오.》
《나는 로씨야사람이요. 조국을 지키는 사람이요.》
표도르는 림시구류장인 지하창고로 끌려간다. 파유닌이 미묘한 웃음을 짓고 친절하게 딸라노브부부를 바래워준다.
《안드레이》를 잡은 기쁨에 슈푸레는 휘파람을 분다. 이때 불안한 기색의 모쌀스끼가 통신병과 함께 들어온다. 통신병이 주는 쪽지를 펼친 슈푸레와 어깨너머로 몰래 들여다보는 모쌀스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어린다.
《나으리, 저… 무슨 새 소식이라도?》
파유닌이 묻자 모쌀스끼가 서둘러 소매단추를 채우면서 대답한다.
《파유닌, 당신도 아마 시궁창 어디로 집들이를 하게 될지 모르겠소. 모스크바근방의 정세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도망을? 나으리, 그럼 우린 어떻게 됩니까?》
모쌀스끼와 슈푸레가 가버리자 파유닌은 자기의 운명을 두고 고민에 빠진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모피상의를 한팔에 걸치고 한쪽팔에 붕대를 동여맨 꼴레스니꼬브가 그앞에 서서 호기심에 차서 들여다보고있다.
《이 사람, 목욕탕으로 가는 길인가?》하고 표독스럽게 묻던 파유닌은 갑자기 그에게 덥석 매달린다. 당신을 놓아주겠으니 대신 쏘련군대가 들어오면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걸한다. 꼴레스니꼬브가 단호히 거절하고 나가버리자 멍하니 그뒤를 바라보던 파유닌은 흐느껴울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전화통에 매달린다.
《슈푸레나으립니까? 파유닌이 말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얼른 군대를 몇사람 보내주시오. 나으리께 좋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
지하창고에는 올가와 그의 동지들인 따따로브, 예고로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갇혀있다. 먼데서 아군의 고사포소리가 들려온다.
빗장을 뽑는 소리가 나더니 호송병들이 표도르를 데리고온다. 올

가가 그를 벽쪽에 있는 자기 자리로 데려다 눕히고 소매가 찢어진 옷을 기워준다. 표도르가 이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만류하자 올가는 정색해서 말한다.

《꼴레스니꼬브는 언제나 단정해야 해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

올가와 그의 동지들은 모임을 열고 최후의 시각을 눈앞에 둔 표도르를 자기들의 습격소조에 받아들일것을 엄숙히 결정한다.

표도르는 따따로브, 예고로브와 함께 제일먼저 놈들의 교수대에 끌려나간다. 헤여지기 전에 그는 올가에게 말한다.

《어머니를 만나거든 내가 그날밤에 술에 취해있지 않았다고 전해다오. 난 그때 이틀밤을 꼬박 자지 못했어. 잘데가 없어서…》

쏘련군대의 락하산이 도시에 수없이 내린다. 꼴레스니꼬브와 그의 동지들이 지하창고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한다. 꼴레스니꼬브는 표도르부터 찾지만 그는 이미 희생된 뒤이다.

쥐새끼처럼 숨어있던 파유닌이 체포되며 처단된다.

딸라노브부부가 딸을 찾아온다. 아들의 희생을 눈앞에서 목격한 안나 니꼴라예브나는 가슴이 메인듯이 《올가야!》하고 부르고는 딸의 어깨에 기대인채 아무말도 못한다.

올가가 그를 격려한다.

《어머니, 그러면 안돼요. … 오빠는 가버렸지만 다시 돌아온것이나 다름없어요. 오빤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어머니! 오빠는 어머니의 아들이예요.》

말없이 있던 안나 니꼴라예브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어린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긍지높이 웨친다.

《그애는 돌아왔다. 그애는 내 아들이다. 그애는 우리와 함께 있다.》

여기서 막이 내리며 희곡은 끝난다.

희곡 《침입》은 비록 방랑하던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들로 여기지 않던 부모가 파쑈강점자들과의 싸움에서 그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자 더없이 귀중한 아들로 여기게 되였다는 이야기로서 사실주의

적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희곡의 강한 사실주의적성격은 주로 작품이 오랜 의사인 딸라노브와 언제나 조용하고 생활에 성실한 그의 안해, 열정적인 딸과 불량청년인 아들이 파쑈도이췰란드군대의 강점하에서 어떻게 강의한 의지와 애국주의적인 자기희생성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을 해명하는데로 극을 집중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작품은 파쑈도이췰란드군대의 강점이라는 비상사태에서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쏘베트사회주의제도에 자기 생활의 뿌리를 깊숙이 내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자기의 신념을 지켜나가는가 하는것을 분석해부하고있다. 때문에 작품은 작가 레오노브의 특징인 생활적이면서도 동시에 보다 철학심리적인 양상을 띠게 되였으며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게 된것이다.

작품의 사실주의적이며 철학심리적인 특징은 작품에서의 생활세부—소도구의 리용과 딸라노브네 집장면의 반복설정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일찌기 허튼 녀자와 정분이 나서 탈가하였으며 3년간의 교화생활을 하였고 딸라노브부부자신이 이제는 자기네 아들이 아니라고 선포한 아들과 어린시절의 선량한 아들의 초상사진, 그것은 많은것을 암시해준다. 그 초상사진액틀은 극이 발전함에 따라 파쑈도이췰란드군대의 침입으로 겪게 되는 가지가지 불행과 고통을 말해주듯이 떨어져 깨지고 다른 방에 옮겨져 방 한구석에 세워지기도 한다.

그처럼 추억과 념원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이 뜻밖에 영웅적으로 희생되자 추억과 념원속에 있던 그 아들이 아니라 지금의 아들을 자랑스럽게 부르며 어머니는 《그애는 돌아왔다. 그애는 내 아들이다. 그애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뜨겁게 긍지높이 웨치는것이다.

희곡 《침입》은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1943년에 국가상을 받았으며 까. 씨모노브의 《로씨야사람들》, 꼬르네이츄크의 《전선》과 함께 이전 쏘련에서 1942년에 나온 전쟁주제희곡의 대표적인 3부작이라고 평가되였다.

——— ❖ ——— ❖ ———

파유닌 : 문은 내가 열어주겠소. … 그리고 그 외투입은 젊은 병사가 돌아오면 당신은 이 늙은이를 돌봐주오. 이젠 나에게 상점같은것은 생기지도 않소. 그럴 경황이 못되니까. 목숨이나 부지해서 살기나 하면 그만이요. 이젠 말몰이군이나 창고지기라도 마다하지 않겠소. 나갈 곳은 이 문밖에 없소.

꼴레스니꼬브 : 그러니까 당신네 사람들이 모스크바부근에서 녹아나고있단 말이군. … 쏘련군대가 이젠?

파유닌 : 봄과 함께 당신은 살길이 열렸소. 좀 냄새를 맡아보오. 얼마나 향기로운가! 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얼른. 값은 받지 않겠소. 이런 야밤이니 누구도 우리 말을 듣는 놈은 없소.

꼴레스니꼬브 : 당신이 만난 그 젊은이는 꼭 돌아올거요. 니꼴라이 쎄르게예비츠, 당신이 받아안을 총알은 벌써 탄창에 재워져있소. 반역자는 포로로 잡지 않으니까. … 당신은 졸장부요. 전쟁의 더러운 바람은 당신같이 고약하고 너절한 자들을 길러냈소. 당신은 이 도시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주인은 나요. 보시오. 난 무기도 없이 당신에게 붙잡힌 몸으로서 이렇게 떳떳이 서있소. 내 어깬 쑤시오. 난 부상당한 몸이요. 그런데두 당신은 나를 무서워하오. 당신은 겁쟁이요. 하는수 없으니 이젠 적에게서 자비를 바라고있단 말이요. 자, 난 가겠소. 그래두 당신은 도이췰란드보초병이 내 잔등을 쏘라고 감히 소리치지 못할거요. 파유닌, 당신들은 우리가 죽어두 무서워할거요. 자, 그럼 난 가겠소. 당신과 지내 오래 지체하였소.

——— ❖ ——— ❖ ———

로인: …너는 비록 어려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설 자격이 있다. 너두 바로 로씨야땅을 지켰기때문이다. 넌 푸르른 꿈두 수포로 돌아가구 이 몸이 되였지만 네 일에 대해선 쓰딸린동지께서 벌써 다 알구계신다. 그분앞에는 외국의 대사들이 줄지어 서있구 수많은 군대가 정렬해있구 또 장령들이 명령을 기다리구있다. …

때문에 바쁘신 그이께서는 여기에 오실수 없단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구계실게다. 여기 루끄야노브의 지하실에 열세살난 쏘련병사 스따뜨노브 쁘로끄피가 갇혀 고통을 받고있으며 죽음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다 아실게다.

쁘로끄피: 할아버지, 그분께 전화로 알리나요, 무전으로 알리나요? 무전이 더 빠르지요?

로인: 아니다. 사람이 알린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것으로 알린다.

예고로브: 이애가 손자입니까?

로인: 그 녀석이 전엔 내게 다만 손자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이지요.

희곡 《침입》중에서

## 작가소개

# 레오니드 레오노브

레오니드 막씨모비츠 레오노브는 1899년 5월 19일 모스크바의 시인가정에서 출생하여 소상인인 할아버지한테서 자랐다.

아버지가 류형살이를 했던 아르한겔스크의 신문들에 1915년부터 글을 내기 시작하고 공민전쟁시기에 붉은군대 전사로, 군대신문 통신원으로 있었다.

1922년부터 작가생활을 시작하여 1924년에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을 반영한 첫 장편소설 《오소리》를 발표하고 고리끼와 루나챠르스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후 《도적》(1927), 《쏘치》(1930), 《스꾸따렙스끼》(1932), 《대양에로의 길》(1935) 등의 장편소설을 창작하였다. 1930년대말～1940년대초에 극문학에 관심을 넣어 《승냥이》(1938), 《눈보라》(1939), 《평범한 사람》(1941)과 같은 극문학을 내놓았다.

쏘도전쟁시기에는 희곡 《침입》(1942), 《료누슈까》(1943)를 썼다. 또한 중편소설 《웰리끄슘스크의 점령》(1944)과 같은 소설창작도 계속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희곡 《침입》과 전후 쏘베트문학의 특출한 성과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로씨야의 숲》(1953)이다.

1950년대 후반기와 1960년대초에는 지난날에 창작하였던 작품들을 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회활동도 적극 벌려 평화옹호운동, 자연보호사업, 력사 및 문화유물보호사업 등에도 이바지하였다.

그는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사회주의로력영웅, 쏘련과학원 원사였다.

# 레오노브의 장편소설 《로씨야의 숲》

장편소설 《로씨야의 숲》은 작가 엘. 레오노브가 1953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사회주의10월혁명때부터 쏘도전쟁시기에 이르는 기간 로씨야 인민의 력사를 시대적배경으로 로씨야의 숲을 잘 가꾸어 조국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애쓰는 과학자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형상하고있다.

짜리로씨야때 산림관리소에서 천대와 모욕을 받으며 살아온 이완 위흐로브는 사회주의10월혁명후에 공부를 하고 모스크바의 림업대학에서 교수로 사업하고있다. 그는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며 그 과정에 가치있는 연구론문을 많이 써낸다.

그러나 같은 대학의 교수 그라찌안스끼는 개인주의와 공명출세욕에 눈이 어두워 위흐로브를 시비중상한다. 이로 하여 위흐로브는 딸 뽈랴의 오해까지 산다. 조국전쟁이 일어나자 뽈랴는 전선에 나가며 적후투쟁에서 공을 세운다.

위흐로브는 온갖 비난과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면서도 과학적지조를 끝까지 고수하며 과학탐구를 위해 현지에 내려간다. 그 과정에 고향에서 헤여져 살던 안해 레노츠까의 오해도 풀리고 그의 가정에 화목이 찾아든다. 그라찌안스끼는 비렬하고 사기적인 행동이 폭로되여 자살하고 만다.

소설은 주인공 이완 위흐로브교수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의 큰 자연부원인 숲을 사랑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는 쏘베트과학자들의 애국정신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 로씨야사람들

희곡 《로씨야사람들》은 이전 쏘련의 작가 꼰스딴찐 미하일로비츠 씨모노브가 1942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작품은 1941년 가을 남부전선의 크지 않은 강을 사이에 둔 적강점지역과 아직은 놈들이 침범하지 못한 지역의 인민들이 도이췰란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용감히 싸웠는가를 인상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3막 9장으로 구성되여있는 희곡에는 운수중대장 대위 싸포노브와 그의 어머니 마르파 뻬뜨로브나, 19살 처녀운전사 왈랴, 짜리군대 장교출신의 로병 와씬, 의사 글로바, 중앙신문 기자 빠닌, 적강점지역 시장관으로 임명된 하리또노브와 그의 안해 마리야 니꼴라예브나, 배신자 꼬를롭스끼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희곡은 적강점지역에 있는 마르파 뻬뜨로브나의 집에서 그와 마리야 니꼴라예브나가 멀리 흘러가버린 처녀시절을 추억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마리야, 우리가 신랑감을 고르던 때가 생각나?… 어떤 멋쟁이들이 차례지겠는가 공상들을 했지? 그런데 모두 거꾸로 되였어. 내 남편은 덜커덕 가고말았으니 살아볼새두 없었구 네 남편은 무서운 독사로 변신했구! 내 말을 용서해.》

《마르파 뻬뜨로브나…》

이제는 55살의 로년기에 이른 그들, 그들의 아들들은 조국을 위하여 꼭같이 붉은군대에 입대하여 싸우고있으나 마리야 니꼴라예브나의 남편인 성병전문의사 하리또노브는 제 한목숨과 재산이 아까와 도이췰란드놈들의 지시에 따라 적강점지역 시장관노릇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마르파 뻬뜨로브나의 집에는 적강점지역에 정찰임무를 받고 온 처녀 왈랴가 숨어있다.

배신자 끄를롭스끼가 도이췰란드놈들과 함께 집을 수색하러 오지만 시장관의 안해인 마리야 니꼴라예브나를 보고는 그냥 돌아간다.

잠시후 마리야도 돌아가자 마르파 뻬뜨로브나는 숨어있던 왈랴를 불러내여 아들의 안부를 묻는다.

그의 아들 싸포노브대위는 강건너지역에 수비대를 조직하고 대대장으로 싸우고있었다. 그런데 전투와 적후정찰에서 지휘관들이 희생되여 싸포노브는 로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공민전쟁 참가자인 짜리군대 장교출신 와씬을 참모장으로 임명하며 중앙신문 기자 빠닌을 특수부장으로 임명한다.

마르파 뻬뜨로브나의 도움으로 왈랴는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강을 건너 돌아온다.

뒤이어 배신자 끄를롭스끼가 도이췰란드강점자들의 지령에 따라 수비대에 침투되여온다.

그를 본 왈랴는 생각한다.

(저 사람을 본적이 없지만 목소린 분명 들은적이 있다. 어디서 저 목소릴 들었을가?)

그 목소리가 마르파 뻬뜨로브나의 집에 숨어있을 때 들은 목소리, 《여기 계집년 하나 뛰여들었지?》하던 배신자의 목소리임을 왈랴는 종내 생각해내지 못한다.

한편 끄를롭스끼는 수비대 참모장 와씬이 자기가 15살때 헤여진후 30살이 된 오늘까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외삼촌이라는것을 제꺽 알아본다. 반대로 62살의 늙은 참모장 와씬은 전혀 끄를롭스끼를 몰라본다.

초급정치지도원으로 임명된 끄를롭스끼는 자의대로 규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사람을 총살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쐐기를 박고 소란을 피운다.

그러한 때 붉은군대지휘부에 련락을 갔던 의사 글로바가 아군이 공격을 준비하고있다는 소식과 적강점지역이 해방될 때까지 수

비대가 적들의 포위공격을 제지시킬데 대한 명령을 가지고온다.
싸포노브는 글로바에게 적강점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도이췰란드후방에 있는 강어구다리를 폭파할 결심을 이야기하며 래일밤 왈랴를 다시 그쪽에 보내야겠다고 말한다.
싸포노브와 왈랴가 서로 사랑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 글로바가 한사코 반대해나서자 싸포노브는 말한다.
《우리는 지휘관들이 아니요. 우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해서는 안되오. 만일 우리가 한번 그걸 허용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허용할것이고 그다음엔 우리가 두번 다시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은 두번세번 계속 허용할거란 말이요. …》
한편 적강점지역에서 파쑈놈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있다.
마르파 뻬뜨로브나의 옆집녀성이 해산방조를 받으려고 성병전문의사였던 시장관의 집으로 오던중 통행금지시간을 어겼다고 순찰병들의 총에 맞아죽는다.
함께 오던 마르파 뻬뜨로브나가 격분을 금치 못하며 시장관 하리또노브의 집에 있는 도이췰란드장교 로젠버그에게 항의하자 놈은 이렇게 말한다.
《5시이후에 다니는 사람은 녀자건 녀자가 아니건 관계없이 누구든 사격했다면 그건 아주 좋은 처사요. 당신두 5시이후에 싸다녔으니 마땅히 체포하여 재판해야겠소.》
계속하여 놈은 하리또노브에게 묻는다.
《저년의 집에서 누가 군대에 나갔겠지? 남편이요? 아들이요?》
하리또노브가 우물거리는데 마르파 뻬뜨로브나가 당당히 웨친다.
《남편두 아들두 다 군대에서 싸운다.》
《교수형에 처해야겠소!》
그러자 하리또노브의 안해 마리야 니꼴라예브나가 별안간 마르파에게 달려가 그를 힘껏 포옹하고 나란히 선다.
《내 아들두 역시 군대에 있다. 나두 달아매라! 난 너희들을 증오한다. 저주한단 말이다!》
당황해난 하리또노브가 싹싹 빈 덕인지 로젠버그는 마르파만 끌

어가게 한다. 마르파 뻬뜨로브나는 끌려나가는 순간 하리또노브의 면상에 침을 뱉으며 마리야 니꼴라예브나는 남편에 대한 저주와 원망에 눈물을 흘린다.

그날 모진 마음을 먹은 마리야 니꼴라예브나는 로젠버그를 독살해버리며 누가 이렇게 했는가고 묻는 도이췰란드장교 웨르너에게 떳떳이 대답한다.

《우리들, 우리들이 독살했다. 나와 남편이 했다.》

하리또노브가 무릎을 꿇고 아니라고 빌자 마리야는 그를 잡아 일으켜세우며 웨친다.

《일어나라요. 싸샤, 일어서라니까요. 이건 우리 부부가 한거요. 우린 당신들을 증오해요. 우리들이 했어요. 우리 두사람이… 저이와 내가.》

최후의 순간에도 남편의 치욕을 조금이라도 씻어주고싶어, 후날 력사앞에 떳떳한 로씨야사람으로 함께 당당히 나서고싶어 마리야 니꼴라예브나는 공포에 질려 까무라친 하리또노브를 가까스로 끌어당겨 벽에 기대여세우며 목청껏 웨친다.

《자, 달아매라! 달아매란 말이다!》

원한에 찬 이 지역을 하루빨리 해방하기 위해 처녀정찰병 왈랴가 또다시 강을 건느게 된다.

싸포노브가 그를 바래준다. 왈랴를 사랑하면서도 끝내 고백을 못하는 싸포노브, 그는 다만 살아서 돌아오라고 절절히 당부할뿐이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끄를롭스끼가 한 정체불명자에게 다급히 말한다.

《대위님한테 전하오. 첫째로, 이놈들이 도시에서 폭파음모나 또한 그와 류사한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걸. 둘째로, 한시간후에 남쪽 골짜기근방에서 당신이 본 이제 그 녀자가 강을 건너가는데 그의 성은 아노쉔꼬이고 이름은 왈렌찌나이라는것.》

정체불명자가 어둠속으로 사라지자 슬그머니 빠지려고 하던 끄를롭스끼는 자진하여 당직을 서던 참모장 와씬에게 꼬리를 밟히고만다.

때는 이미 왈랴가 강을 넘어간 후이다.

끄를롭스끼는 처단된다. 처형장에 끌려갈 때 와씬의 곁을 지나면서 놈은 이렇게 씨벌거린다.

《난 죽는다. 그러나 네놈은 저주를 받을거다. 넌, 넌 내 외삼촌이 아니다.》

싸포노브가 대답한다.

《그렇다. 저 사람은 네 외삼촌이 아니다. 누가 너같은 더러운 놈의 외삼촌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아군항공기에서 통신함이 떨어진다. 명령서를 읽은 싸포노브는 즉시 지휘관들을 부른다.

사령부의 명령은 강어구다리를 폭파할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아군부대가 도착하기 두시간전까지 다리를 탈취하라는것이다. 리유는 시급히 공격해오고있는 붉은군대가 그 다리를 통과해야 하기때문이다.

싸포노브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와씬, 빠닌 등에게 임무를 주며 글로바를 적구에 파견한다.

싸포노브의 지령대로 적강점지역에 들어가 다리폭파를 중지시킨 글로바는 다음작전대로 탈주병으로 가장하고 도이췰란드장교 웨르너를 찾아간다.

놈들을 기만하여 다리쪽에서 떼내기 위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글로바는 감방에서 체포된 왈랴를 만나게 되며 자기를 진짜탈주병으로 생각하는 왈랴의 오해로 인한 심리적고충과 놈들의 간교한 검토를 꿋꿋이 이겨낸다.

드디여 아군의 총공격이 진행되고 이에 당황한 놈들이 그들이 갇힌 감방에 대고 마구 총질을 할 때 글로바는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왈랴를 구원하며 싸포노브가 동무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말을 남기고 희생된다.

한편 기만동작으로 다리를 탈취하는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던 62살의 참모장 와씬도 희생된다.

《…살아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소. 로씨야군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내 말을 듣소. 붉은군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대위동

무한테 전하시오. 대위한테 전하시오. 그것은…》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말이다.

붉은군대가 도시를 완전히 점령한다. 강점군사령부에 들어선 싸포노브가 래일 도이췰란드놈들의 교수대에서 희생된 동지들과의 영결식을 거행하자고 말하며 그들의 이름을 알아냈는가고 묻는다.

한 군관이 명단을 읽는다.

《…마리야 니끌라예브나, 니끌라이 와씰리, 마르파 뻬뜨로브나… 아니, 왜 그러십니까?》

방금 부른 그 이름, 마르파 뻬뜨로브나가 바로 싸포노브의 사랑하는 어머니임을 그 군관이 어이 알수 있었으랴.

군관의 손에서 희생자명단을 받아 거머쥐고 싸포노브가 웨치는 말로 희곡은 막을 내린다.

《난… 오래오래 살고싶소. 이따위짓을 한 악마들을 마지막 한

○ 상 식 ○

## 할힌골사건

일제가 쏘련과 몽골을 반대하여 감행한 대규모의 무력침공사건. 노몬한사건이라고도 한다.

하싼호사건(1938년 7～8월에 일제가 하싼호지역에서 감행한 무력침공사건)의 실패후 일제는 1938년 가을부터 반쏘무력침공의 주되는 전투장을 만주의 서북부로 정하고 홀로바일방면으로부터 단숨에 바이깔호로 나가 씨비리철도를 차단하여 원동지방을 쏘련에서 떼낼것을 노린 《8호작전계획》을 조작하고 그 실현에 미쳐날뛰였다.

놈까지 죽여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살겠소! 바로 마지막 한놈이 죽어넘어질 때까지, 바로 여기, 여기 내 발밑에서 말이요!》

희곡 《로씨야사람들》에서 작가 꼰스딴찐 씨모노브는 로씨야사람들이 어떠한 정신도덕적인 풍모를 지닌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다.

작가는 이와 같은 철학적문제를 몇몇 주요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해명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주로 주인공들의 꿈과 리상, 죽음을 초월한 랑만적인 성격에 대한 례찬을 통하여 시적으로 천명하고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완 니끼찌치 싸포노브와 참모장 와씐과의 다음의 대화에서 단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이완 니끼찌치, 당신은 환상가요.》

이러한 침략목적을 달성하려고 일제는 미리 《만주군》을 사촉하여 1939년 5월 28일 할힌골지역의 몽골경비대를 공격케 하였으며 그것이 실패하자 대대적인 무력침공에 나섰다.

6월말 일제는 25사를 비롯한 륙군 및 기병대, 공군, 기계화부대 등 관동군 3만 8천명을 공격에로 내몰았으나 실패하였으며 7월초와 말에 감행한 침략에서도 또다시 실패하자 8월에는 관동군 7사, 23사를 선두로 7만 5천명의 병력을 할힌골지역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쏘련군은 8월 20일부터 강력한 반공격을 진행하여 8월 31일까지 몽골령토에 기여든 일제침략군을 전멸시켰다.

이 전투기간에 일제는 6만 1 000여명의 유생력량과 막대한 군사장비를 잃었다.

《물론이지요. 다를수야 없지 않습니까? 당신 역시 환상가이지요. 우리 로씨야사람들은 모두가 환상가이지요. 그래서 싸움도 용감하게 하지요.》

작품의 이 랑만적이며 시적인 특성은 작가가 체현하고있는 시인으로서의 기질과 관련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그 어떤 사건에 의한 극적기대보다 주요인물들사이에 오고가는 약속—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꼭 할 이야기가 있다는것, 즉 사랑을 고백하겠다는 등의 랑만적인 이야기에 더 기대를 가지게 하고있다.

작품은 극의 중심에 운수중대장이며 수비대 대대장인 싸포노브를 비롯하여 몇몇 주요인물들을 등장시키고있으며 갈등관계도 싸포노브를 중심으로 하는 쏘련인민을 한편으로 하고 도이췰란드 점령군 장교 웨르너 등 적들을 다른편으로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인공적인 작품이라는데 또하나의 특성이 있다.

작품은 마치도 쏘련의 평범한 사람들, 그것도 각계각층의 인간들—그전날의 짜리군대 장교출신의 로병은 물론 전쟁전까지 총 한번 쥐여보지 못했던 신문기자, 의사, 운전사, 지어는 가정에 들고앉아있던 늙은 부인들까지 조국에 위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용맹하였는가 하는것을 과시하려는듯 하나하나 성격을 살려나가고 있는것이다.

싸포노브와 그의 어머니, 와씬과 글로바, 마리야 니꼴라예브나 등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창조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작품은 레오노브의 희곡 《침입》, 꼬르네이츄크의 희곡 《전선》과 함께 이전 쏘련에서 1942년도에 나온 전쟁주제의 대표적인 3부작이라고 평가되였다.

작품은 1943년에 국가상을 수여받았다.

——— ❖ ——— ❖ ———

싸포노브: 동문 와씰리한테 가서 다리를 파괴하란다고 말해야 하오. 그리구 구체적인걸 토론해보오.

왈 랴: 좋습니다.

싸포노브: 좋건나쁘건 그렇게 해야 하오. 동무는 두번 갔다왔는데 세번째로 또 가야 하겠소. 조국이 요구하기때문이요. 내가 동무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알겠소?

왈 랴: 저, 이완 니끼찌치, 많은 사람들이 조국, 조국 하구 말하는데 뭔가 큰것만 생각하는것 같아요. 전 그렇지 않아요. 내 고향 노보니꼴라예브까마을에는 작은 집이 있고 곁에 시내가 흐르고 두그루의 봇나무가 서있답니다. 전 그 나무에 그네를 맸지요. 저한테 조국에 대하여 말할 땐 언제나 전 두그루의 봇나무를 생각해왔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걸가요?

싸포노브: 아니, 그건 훌륭한 생각이요.

왈 랴: 봇나무를 생각하느라면 그곁에 서계시는 어머니, 오빠가 생각나요. 아, 오빠가 못내 그리워지는군요. 재작년 오빠가 모스크바로 공부하러 갈 때 바래주던 일이며 모스크바로 가는 정거장이며 모스크바 그리고 지나간 모든 일들이 삼삼히 떠올라요. 그런데 추억의 시작은 어딜가요? 역시 봇나무이지요. 그래 제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을가요? 네, 이완 니끼찌치.

싸포노브: 아니, 아니요. 그건 옳은 생각이요.

웨르너: 지금 시간은 2분전 7시이다. 정각 7시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목을 매달테다. 그러면 끝장이다.

마르파 뻬뜨로브나: 내 대답하지요. 장교나리, 시간이 2분밖에 없다면 내 당신에게 대답하지요.

웨르너: 그래?

마르파 뻬뜨로브나: 장교나리, 난 당신이 슈테찐시에서 왔다구 알구있는데.

웨르너: 그래서?

마르파 뻬뜨로브나: 내 당신네 슈테찐시에 소리없이 날아가서 당신네 에미들의 목덜미를 잡아 이고장에까지 끌고와서 그네들의 자식들이 무슨짓을 하는지 보여주고싶단 말이요. 그리고 내 그네들에게 말하리오. 이 더러운 암개같은 년들아, 네년들이 어떤 새끼들을 낳았는가를 똑똑히 봐라. 어떤 두꺼비들이 세상에 게바라나왔는가. 네년들이 어떤 살모사를 설어서 낳았는가를 보라고 말이다. 만약 그년들이 치떨리는 만행을 보구서두 네놈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년들을 네놈들과 함께 쳐죽일테다!

웨르너: 닥치지 못해!

마르파 뻬뜨로브나: 말하지 않겠다. 난 너한테 할 말을 다했다. 이젠 2분이 지났을것이다. 날 어서 목매달아라.

웨르너: 아직 10초전이다. 난 그때까지 기다릴테다.

마르파 뻬뜨로브나: 네놈들에게 할 말이 더 없다.

희곡 《로씨야사람들》 중에서

## 작가소개

# 꼰스딴찐 씨모노브

꼰스딴찐 미하일로비츠 씨모노브(1915－1979)는 현대쏘련문학사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이름난 작가의 한사람이다.

뻬쩨르부르그(당시)의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난 씨모노브는 중학교졸업후 선반공으로 일하다가 1934년 고리끼문학대학에 입학하여 1938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1934년에 첫 시를 발표하였고 1938년에는 첫 시집을 출판하였다.

쏘도전쟁시기 여러 전선에서 싸우며 작품을 창작한 그는 매우 다방면적인 작가로서 재능있는 시인, 소설가였으며 이름난 극작가이기도 하였다.

시집 《그대와 함께, 그대없이》(1942), 《벗과 원쑤》(1948, 쓰딸린상), 희곡 《도시에서 온 청년》(1940, 쓰딸린상), 《로씨야사람들》(1942, 쓰딸린상, 국가상), 《로씨야문제》(1946, 쓰딸린상) 등 그의 시와 극작품들은 쏘련인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되였다.

씨모노브의 창작적재능이 가장 높이 발휘된것은 소설작품 특히 전쟁주제의 소설작품에서였다.

자신이 직접 종군기자로 참전한 할힌골전투와 쏘도전쟁에 대한 체험과 취재는 그의 전쟁주제소설창작의 큰 밑천으로 되였다.

소설로서 그의 첫 작품은 중편소설 《낮과 밤》(1944)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가렬처절했던 쓰딸린그라드방위전의 한 단면을 파고들어 쏘도전쟁의 준엄한 현실과 쏘베트군인들의 위훈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재현하였다.

씨모노브의 창작적재능은 그후 할힌골사건을 취급한 장편소설 《전우들》(1953)과 쏘도전쟁행정을 폭넓게 반영한 레닌상수상작품인 3부작 장편소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제1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1954—1959, 제2부 《타고난 병사는 없다》 1960—1964, 제3부 《마지막 여름》 1965—1971)에서 더 높이 발휘되였다.

씨모노브의 창작은 쏘베트문학발전과 쏘련인민의 애국주의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그는 사회주의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였다.

# 낮과 밤

중편소설 《낮과 밤》은 이전 쏘련의 작가 꼰스딴찐 씨모노브가 1944년에 창작발표한 소설이다.

소설은 쓰딸린그라드방위전의 력사적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적들의 공격이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계속되고 폭탄과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속에서도 쓰딸린그라드의 한 방어구역을 맡아 굴함없이 지켜낸 쏘련군대 한 대대장병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대대장 싸부로브대위와 간호원처녀 아냐, 사단장 쁘로쩬꼬, 대대참모장 마슬렌니꼬브, 분대장 꼬뉴꼬브 등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는 가렬한 전투의 불길속에서 맺어지는 쏘베트인간들의 고상한 인간관계와 평화롭던 시기에는 수수하던 사람들이 발휘하는 위훈에 대하여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2년 9월 어느날 싸부로브대위가 속한 사단은 쓰딸린그라드로부터 얼마간 떨어져있는 엘똔이라는 자그마한 역에 도착한다. 사단은 정세가 어려워진 쓰딸린그라드지역으로 급히 파견되여가고있는중이다.

이 마을에서 싸부로브대위는 쓰딸린그라드로부터 피난해오는 한 녀인을 보게 된다. 발에 화상을 입고 지칠대로 지친 그 녀인은 사람들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불타버린 쓰딸린그라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볼가강류역의 무연한 초원에서 그 녀인의 이야기를 듣는 싸부로브의 가슴은 쓰리고 아프다.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쫓겨왔는가?!)

싸부로브는 이곳이 더는 물러설수 없는 계선이며 자기들의 운명도 도시의 운명과 함께 결정되리라는것을 깨닫는다.
대대는 곧 볼가강으로 행군한다.
쓰딸린그라드의 정세는 매우 긴박하다. 파쑈놈들은 쓰딸린그라드를 먹어보려고 수천대의 비행기를 비롯한 수많은 병력을 동원한다. 놈들의 맹폭격으로 도시는 낮에도 밤에도 불탄다. 파쑈군대는 북쪽에서 볼가강까지 진출하며 남쪽에서도 도시를 바싹 압박한다. 이제는 전투가 구역이 아니라 건물 한채한채를 놓고 치렬하게 벌어진다.
볼가강을 도하한 사단은 그길로 적의 주타격방향에 배치된다.
싸부로브의 대대는 그날밤중으로 적들이 차지한 광장옆의 건물 세채를 탈환할데 대한 명령을 받는다. 싸부로브는 어둠을 리용하여 직접 돌격조를 이끌고 불의의 공격을 들이대여 치렬한 격전끝에 건물을 탈환한다. 악에 받친 적들은 날이 밝자마자 맹렬한 폭격과 포격을 들이댄 후 땅크까지 앞세우고 달려든다. 그러나 대대장병들은 완강하게 적의 공격을 물리친다.
여러차례의 공방전끝에 날이 저물었으나 밤은 밤대로 끊임없는 맞불질속에 지나간다.
다음날 아침 적들은 끝내 광장변두리를 돌파하여 대대를 포위한다.
싸부로브는 포위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확고하게 알고있다. 그것은 세채의 건물과 파괴된 살림방들, 자기자신과 병사들, 희생된 사람들과 산 사람들—이 모든것이 합쳐져 로씨야를 이루고있으며 자기 싸부로브는 바로 그것을 수호하고있다는것이다.
적의 포위는 나흘째 되는 날에야 풀린다. 이 나흘간의 전투에서 53명이 전사하고 145명이 부상을 당한다. 가렬한 전투는 그후에도 나흘동안 계속된다.
아흐레째 되는 날에야 사단의 방어구역에는 상대적인 고요가 깃들게 된다. 파쑈놈들은 쁘로쩬꼬사단의 남쪽에서 볼가강으로 진출하여 쓰딸린그라드를 두토막으로 잘라버리기 위하여 거기에 력

량을 집중한다. 일부 포사격과 돌격시도들이 있으나 그것은 남쪽을 방위하는 부대를 구원하기 위해 단 한명의 병사도 떼여보내지 못하게 하려는것이다.

며칠동안 대대에는 독특한 생활이 자리잡는다. 우편물을 관리하는 병사는 페허속에서 진짜우체통을 얻어다가 거기에 《중앙우편국》이라는 글을 써놓는다. 과거 오데싸의 이름난 시계수리공이였던 경비중대의 한 전사는 그 본을 따서 토굴에 시계수리소 비슷한것을 차려놓고 《〈정확한 시간〉시계수리소》라는 간판까지 내건다. 그런가 하면 련락병 삐짜는 공병들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까지 꾸려놓는다.

싸부로브대대에 간호원 아냐가 나타난다. 볼가강도하시에 싸부로브에 의해 구원된적이 있는 아냐는 총포탄이 우박치는 속에서도 근 백명의 부상자들을 구원한다. 아냐와 사귀는 과정에 싸부로브는 처녀의 순진함과 희생성에 마음이 끌리며 아냐도 용감한 싸부로브에게 련정을 품게 된다.

드디여 적들은 사단의 남쪽을 돌파하고 볼가강으로 진출하며 사단은 군단과 련계가 끊어진다. 사단장의 명령으로 련락을 갔던 싸부로브는 군단지휘부가 적들로부터 불과 300보밖에 안되는 이전의 자리에 그냥 있는것을 보고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한다.

사단에 대한 적의 공격이 다시 강화된다. 놈들은 포화력과 땅크의 엄호하에 악착스럽게 달려든다. 대대장병들은 모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적의 공격을 희생적으로 막아낸다. 꼬뉴꼬브는 탄우속을 뚫고 여러차례나 련락임무를 수행하여 전투지휘를 보장하는 위훈을 세우며 땅크에 깔려 짓뭉개진 동무의 죽음에서 충격을 받고 달아난것으로 하여 예심을 받던 전사도 총을 들고 스스로 육박전에 뛰여든다.

그날저녁 싸부로브도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다.

남쪽너머의 빈 통로를 리용하여 적을 족칠수 있다는 대대정찰병의 보고를 직접 확인하려고 나갔던 그는 그만 눈먼 포탄에 맞아 벽돌무지에 묻혀 정신을 잃었던것이다.

아냐는 병원원장의 승낙을 받고 싸부로브를 자기 어머니가 피난

해있는 친척집에 옮겨다 정성껏 간호한다. 그의 노력으로 건강이 완쾌된 싸부로브는 불타는 쓰딸린그라드에서 결혼할것을 약속하고 또다시 대대를 찾아 전선으로 떠난다.

18일만에 다시 대대로 돌아와보니 그사이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적들은 많은 지역에서 전진하여 적과 강사이의 거리가 수백m밖에 안된다. 방어력량도 심히 약화되여 쁘로젠꼬사단은 후방일군들까지 총동원하여 겨우 1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싸부로브대대가 차지한 건물은 놈들의 미친듯한 포격과 폭격으로 기초만이 남아있을뿐이다.

싸부로브가 돌아온지 며칠후 사단 전지역에 대한 적의 공격이 진행된다. 치렬한 전투는 4시간동안 계속된다. 적의 공격은 점차 이웃련대와의 린접부분에 가해진다. 싸부로브는 적이 린접부분을 뚫고 볼가강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는것을 간파하고 대대의 화력을 가능한껏 이곳에 돌린다. 참모장 마슬렌니꼬브는 추위속에서도 군복상의를 열어제끼고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건물담벽에 기여올라 놈들에게 기관총련발사격을 들이댄다. 그러나 적들은 끝내 이웃련대를 떼여내고 볼가강에 진출한다.

저녁에 지친 몸으로 우연히 모스크바에 라지오파장을 맞추던 싸부로브와 정치지도원은 그날이 11월 6일, 바로 10월혁명기념일 전날이라는것을 깨닫는다. 모스크바에서는 모스크바시 대의원쏘베트와 당 및 쏘베트기관들의 합동회의가 진행되고있다. 회의에서는 쓰딸린이 보고를 한다. 라지오를 통하여 울려나오는 쓰딸린의 조용하고도 침착한 음성을 들으면서 싸부로브와 정치지도원은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 굳게 가진다.

그날밤 싸부로브는 련계가 끊어진 이웃련대로 간다. 사단장이 적들에게 빼앗긴 400m의 구간을 탈환하기 위하여 련대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올것을 명령한것이다. 싸부로브는 적의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속을 뚫고 임무를 수행한다.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세워지며 그는 또다시 그것을 이웃련대에 전달한다.

강력한 포화력의 지원하에 사단은 적의 량익측에서 반공격을 들

이대여 빼앗겼던 지역을 되찾는다. 싸부로브도 이웃련대의 한개 대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여 적들을 몰아내고 차지한 계선을 완강하게 고수한다.

그러나 이 전투를 위하여 련대들에서 전투원들을 떼여낸것으로 하여 사단은 볼가강기슭으로 더욱 압축되게 된다. 싸부로브대대에서도 건물 한채를 적들에게 빼앗긴다.

사단장은 락심한 싸부로브에게 말한다.

《온 사단이 함께 있게 되였다는것이 더 중요하오. 이것이 동무네 그 집 건물 한채보다 더 귀중한거요.》

사단장은 아냐를 싸부로브대대의 군의로 보내준다.(그는 정치지도원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안것이다.)

대대로 돌아온 싸부로브는 대대의 배치정형을 료해한다.

대대는 종전처럼 앞으로 돌출부를 이루고있는것이 아니라 《ㄱ》자형의 9호동 집을 잃어버린 후로는 파괴된 거리의 우측을 따라 다른 대대와 함께 일직선을 이루고있다. 7호동 집 한채만이 혀모양으로 앞으로 쑥 나와있다. 사실상 적들에게 포위되여있는것이나 같은 이 7호동 집이 앞으로 전진을 위한 좋은 전초기지로 될수 있다는것을 싸부로브는 직감한다.

《그걸 지켜내야겠소.》

그곳에는 분대장 꼬뉴꼬브를 비롯한 15명의 전사들이 있다. 소대장과 중대장이 전사하고 적에게 포위된 속에서도 그들은 꼬뉴꼬브의 지휘밑에 3주일째나 건물을 고수하고있다.

싸부로브는 적들의 교차사격구역을 뚫고 직접 그곳에 나가 전투원들을 고무하고 함께 전투도 진행한다.

11월의 어느날 밤 군단군사위원 마뜨베예브가 쁘로쩬꼬의 사단을 찾아온다.

사단에 내려오기 전에 마뜨베예브는 증원문제로 전선사령부에 간다. 그때 전선군사위원은 그에게 《우리는 동무스스로가 자기의 요청을 포기할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않소. 동무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것인가에 대해서 리해는 못해도 감촉이라도 해야 할것이요.》라고 말하면서 지도우에서 두손을 쓰딸린그라드의 북쪽

과 남쪽으로 쭉 내밀었다가 단호히 합쳐보인다. 마뜨베예브는 대번에 그 의미를 알아차린다.

뻐로쩬꼬와 만난 마뜨베예브는 불쑥 《우리의 거리에도 명절이 올것》이라는 쓰딸린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뻐로쩬꼬는 군사위원의 눈에서 아직은 말못하지만 그 어떤 매우 좋은 중요한것을 알고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활기와 흥분을 포착한다. 그는 흥분하여 그것은 곧 실현될것이며 그것도 적어도 2월전이라고 확신성있게 대답한다.

군사위원이 돌아간 후 뻐로쩬꼬는 두달째나 보지 않던 전선지도를 찾아 들여다본다. 그의 두손은 저도모르게 전선군사위원의 손이 움직인것과 꼭같이 움직이다가 쓰딸린그라드를 지나 서쪽에서 합쳐진다. 그는 즉시 련대장들과 대대장들을 모이도록 한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차림으로 군관들앞에 나선 뻐

○ 작가일화 ○

## 선배작가의 고무를 받고

쏘도전쟁시기인 1943년 12월 어느날 28살의 젊은 시인 꼰스딴찐 씨모노브는 60살의 알렉쎄이 똘스또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꼰스딴찐 미하일로비츠, 요즘은 어떤 시들을 쓰고있소?》

똘스또이가 씨모노브에게 물었다.

《침묵》을 비롯한 서정시를 써내여 쏘베트시단에 널리 알려진 씨모노브의 시들을 사랑하는 똘스또이는 그를 전도양양한 시인으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였으며 그의 시들을 외

로젠꼬는 엄숙한 어조로 말한다.

《난 오늘 동무들을 회의에 부른것이 아니라 그저 만나보고 서로 얼굴을 더 익히자고 불렀소. 혹시 우리는 그 〈휘황찬란한 시각〉까지 살아남지 못할수 있소. 그래서 나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얼굴을 더 잘 익히고 우리 매 사람이 끝까지 자기 초소를 고수하며 우리는 그렇게 못될수 있어도 사단은 그 〈휘황찬란한 시각〉까지 살아남게 하자는것을 약속하자는것이요. 우리 이 첫잔을 우리 거리에도 명절이 다가오도록 하기 위하여 마십시다!》

군관들도 모두 일어나 엄숙히 축배를 든다.

이날 싸부로브는 사단장의 말과 행동에서 그가 무엇인가를 말하고싶지만 애써 참고있다는것을 감촉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리라는 확신을 가진다.

쁘로쩬꼬와의 저녁식사가 있은 후부터 싸부로브에게는 적의 맹렬한 공격이 죽어가는 짐승의 마지막발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

우고있었다.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츠, 저는 요새 쓰딸린그라드격전에서 붉은군대가 보여준 영웅적인 위훈을 형상한 소설을 쓰고있습니다.》

그의 뜻밖의 대답에 놀라며 똘스또이는 말하였다.

《좋은 일이요.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쓰딸린그라드격전을 소설로 잘 써놓으면 후날에 사람들이 피흘리며 싸운 쓰딸린그라드의 승리자들을 잊지 않을거요. 작가들은 예리한 시각으로 시대의 대사변, 력사의 대사변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자기의 작품에 예술적으로 재현할줄 알아야 하오. 동무는 아주 의의있는 소재를 쥐였거든. 기념비적작품이 되도록 잘 써보시오.》

그 이듬해인 1944년에 씨모노브는 중편소설 《낮과 밤》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아 쓰딸린그라드의 위훈을 력사에 기록하였다.

는다.

11월 18일, 생일날에도 적과 치렬한 전투를 치르고 깜박 잠이 든 싸부로브를 새벽에 사단장이 전화로 찾는다.

《아직 자고있소? 빨리 일어나 밖에 나가 소리를 듣소!》

전화기에서는 사단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싸부로브는 내의바람으로 바삐 밖으로 뛰쳐나간다. 멀리 북쪽에서 련속적으로 울리는 우르릉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포사격의 불도가니가 펼쳐지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린다.

그만아니라 온 대대가 떨쳐나 그 소리를 듣는다.

반시간후 사단장은 쏘련군대가 쓰딸린그라드북쪽에서 공격에로 넘어갔다는 공식통보를 받는다. 대대는 명절기분에 휩싸인다.

이 뜻깊은 날에 싸부로브는 이전에 적에게 빼앗겼던 《ㄱ》자형

○ 상 식 ○

## 왜 10월혁명이라고 하는가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날은 11월 7일인데 왜 10월혁명이라고 말하는가.

원래 유럽에서는 16세기전까지는 율리우스력서를 써왔다.

그런데 이 력서는 128년동안에 하루의 오차가 생기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 오차로 하여 16세기 후반기에는 3월 21일에 오게 되는 춘분날이 3월 11일에 오게 되였다.

9호동 건물을 탈환할것을 결심한다. 련대와 사단에서도 그들을 지원한다. 대대는 면밀한 준비밑에 야밤에 적들이 주동적인 공격을 전혀 예견치 못했던 고립된 끄뉴끄브의 그 7호동 집으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들이대여 끝내 건물을 탈환해낸다. 이 전투에서 참모장 마슬렌니끄브는 싸부로브를 위험에서 구원하고 희생된다. 마슬렌니끄브의 시신은 싸부로브의 명령으로 피로써 되찾은 9호동 건물의 기초밑에 안장된다.

한편 심한 중상을 입은 아냐는 쓰딸린그라드에서 50㎞나 떨어진 중부아흐뚜바마을에서 두번째 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대로 다가온 외과의사는 우리 군대가 총공격에로 넘어갔으며 깔라치를 벌써 탈환하고 쓰딸린그라드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을 포위하고있다는 소식부터 전한다.

총공격의 이틀째 낮과 밤이 흘러간다. 볼가강과 돈강사이의 굽이진 곳에서 11월의 캄캄한 야밤을 뚫고 기계화부대가 절그락소리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교가 지배하고있던 유럽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왜냐하면 《부활절》날이 춘분날에 의해서 결정되기때문이였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법왕 그리고리8세는 1582년에 불론종합대학의 천문학교수인 이그나찌야단찌를 책임자로 하는 력서개혁위원회를 내왔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딸리아의 수학자인 루이쥐 릴리오가 작성한 력서개혁안을 받아들여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력서로 하도록 하였다.

1582년 2월 24일에 법왕은 특별칙령을 발표하여 1582년 10월 4일부터 날자를 10일 앞당기게 하였다.

즉 10월 4일 목요일 다음날인 금요일을 10월 5일이 아니라 10월 15일로 하도록 하였다.

를 요란히 내면서 눈속을 헤치고 굴러간다. 자동차들이 천천히 달리고있다.

털모자를 내려쓰고 손으로 바람을 막으면서 보병들이 눈속에 빠지면서 눈덮인 벌판으로 걸어가고있다. 손으로 포를 끌고 밀고가며 고간을 허물어 나무판자와 통나무로 골짜기에 찌걱거리는 다리를 놓는다.

이 겨울밤에 두개 전선이 마치도 지도우에 펼쳐진 두손처럼 움직여 서로 접근하면서 쓰딸린그라드의 뒤쪽, 먼 돈강초원에서 결합할 차비를 하고있다.

두 전선이 포괄하고있는 공간속에, 그의 억센 포위속에 수십만명의 도이췰란드병사들이 들어있으며 려단과 사단의 참모부, 장령, 규률, 포, 땅크, 착륙장과 비행기가 함께 들어있다.

아직은 사람들이 다는 모르는 거대한 승리가 각일각 다가오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는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릴리오는 율리우스력서의 부족점을 고려하여 4년에 한번씩 윤년을 넣되 400년에 3번은 윤년을 넣지 않도록 하였다. 즉 년의 수자가 4로 나누어지는 해를 윤년으로 하되 세기년 즉 100의 완수배되는 해에 대해서는 4로 나누어질뿐아니라 400으로도 나누어지는 해를 윤년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달의 구분과 날자배렬을 율리우스력서와 같이하였다.

이 새로운 력서를 법왕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리력 또는 신력이라 하였는데 로씨야에서는 신력을 1918년 1월 31일에 받아들였기때문에 11월 7일이 이전의 율리우스력서로 하면 10월 25일이였던 것이다.

여기로부터 11월 7일 사회주의혁명을 10월혁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중편소설 《낮과 밤》은 지난 쏘도전쟁시기 가장 치렬한 전투의 하나였던 쓰딸린그라드방위전의 가렬처절성을 생동하게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모든것이 불타버리고 재더미만 남은 쓰딸린그라드에서 력량상 대비할수없이 우세한 적들과 싸워 끝끝내 도시를 지켜내고 파쑈놈들의 패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도시방어자들의 영웅적위훈의 밑바탕에 깔려있은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귀중한 조국과 정든 고향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적에게 빼앗길수 없다는 각오였다. 이러한 각오를 지녔기에 그들은 조국의 한치땅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것이며 그처럼 불사신같이 싸우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쓰딸린그라드방위자들의 이러한 정신세계와 그들이 세운 위훈을 대대장 싸부로브의 형상을 통하여 더욱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무연한 볼가강변의 초원 한끝 엘똔에서의 그의 생각, 놈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차지한 건물이 곧 조국 로씨야라는것을 자각하는 내면심리장면들이 그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작품에서는 또한 싸부로브와 아냐, 사단장 쁘로쩬꼬와 대대참모장 마슬렌니꼬브 등의 형상을 통하여 전우들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쓰딸린그라드방위전의 간고한 나날들을 집약화하여 생동하게 반영하였으며 개성적이고 인상깊은 성격창조와 세련된 묘사 등 사상예술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쏘도전쟁주제의 성과작으로, 작가 씨모노브의 대표작들중의 하나로 평가되고있다.

———— ❖ ———— ❖ ————

뻐로쩬꼬는 그 어떤 곡조에 장단이나 맞추듯 부상당한 손가락을 계속 놀리면서 앞으로 걸어갔으며 싸부로브에게가 아니라 허공에 대고 말을 하였다. 이것은 그의 기분이 상한 징조였다.

《기관총이 어데를 겨누어야 하는가? 하늘인가 땅인가 하는것을 사단장이 일깨워준다. … 이건 참 좋은 일이요. 이런 일을 하자고 사단장은 총참모부직속 군사대학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요. … 그런데 동무는 언제 가면 나한테서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되겠소?》 얼굴을 홱 돌리면서 그는 싸부로브에게 소리질렀다.

《언제 가면 동무는 나한테서 창피를 당하지 않겠나 말이요?》

싸부로브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대좌의 말이 백번 옳았기때문이다. 규정을 적용한다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이제 사단장이 동무네한테 가서 기관총좌지를 바로잡아주지 않게 될 때 그리고 동무가 나한테서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될 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전쟁을 이길수 있소. 그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우. 이것을 명심하시오.》

그들이 대대본부 지하실로 돌아오기가 바쁘게 도이췰란드놈들이 공격을 앞둔 포와 박격포준비사격을 시작하였다.

《대체로 봐서 동무는 괜찮게 자리잡았소. 견딜수 있게 자리잡았다고 할수 있소.》 뻐로쩬꼬는 결론을 짓고 약간 머리를 기웃하면서 폭발소리를 귀담아들었다.

《견딜수 있단 말이요. 그러나 사람들을 계속 가르쳐줘야 하오. … 밤이고 낮이고 가르쳐줘야 하오. … 왜냐하면 동무가 오늘 그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래일에 가서 그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요. 그저 죽이는것이 아니라 맹랑하게 죽게 만든단 말이요. 어찌겠소. 전쟁이란 바로 그런것이요.》

❖ ❖

《장령이라, … 어려운 칭호요. 싸부로브, 왜 어려운지 알겠소? 왜냐면 말이요. 지금은 괜찮게 혹은 잘 싸우는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지금은 후날까지 되도록 오래동안 싸우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싸워야 한단 말이요. 싸부로브, 난 이번이 세상에서 마지막전쟁이라는 말공부를 믿지 않소. 지난번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고 그전에도 여러번 그렇게 말해왔소. 이것은 력사를 읽어보아도 알수 있소. 이 전쟁이 끝나면 또 전쟁이 있을것이요. 30년후 혹은 50년후에 말이요. … 그러나 그 전쟁이 되도록 곧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래도 일어난다면 그것이 승리적인것으로 끝나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군대라는것이 존재하는것이요. 물론 지금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것이요. 동무도 그렇지 않소?》

《반대하고싶습니다.》 싸부로브가 솔직히 말하였다.

《먼 후날에 전쟁이, 또 전쟁이 일어날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싶지 않다는것은 옳소.》 쁘로쩬꼬는 말하였다.

《나도 생각하고싶지 않소. 생각하고싶지 않단 말이요. 그러나 생각해야 하고 또 해야 한단 말이요. 그래야 혹시 전쟁이 없게 할수도 있는것이요.》

중편소설 《낮과 밤》중에서

# 우리는 돌아오리라

장편실화소설 《우리는 돌아오리라》는 이전 쏘련의 작가 쎄묜 쯔비군이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쏘도전쟁초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적후에 떨어졌어도 굴함없이 싸운 쏘련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인 부대장 플린스끼소좌와 해병출신의 정찰병 와꿀렌츄크, 본다렌꼬중사, 마뜨베이로인, 지하공작원 오흐림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설은 마가을의 락엽들이 찬바람에 흩날리는 수림속으로 붉은군대의 한 행렬이 동쪽을 향하여 행군해가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어느 한 자그마한 도시에서 방어전투를 벌리다가 도이췰란드군이 익측을 돌파하여 포위될 위험이 조성되자 부득불 후퇴의 길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 대오속에는 자기 부대에서 떨어진 보병, 기병, 포병, 땅크병 지어는 흑해의 해병들도 있다.

대오의 맨앞에는 중년의 소좌가 걷고있다. 사단특수부장인 플린스끼소좌이다. 그는 전사한 사단장을 대신하여 부대를 이끌고 적의 포위를 뚫고나와 집단군주력을 찾아가고있다.

멀리 앞쪽에서 들리여오는 포성은 전선이 이미 동쪽으로 멀리 이동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처에서 모여든 후퇴대렬, 규률과 질서가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를 가지고서는 적의 포위를 뚫고 전선을 넘어갈수 없다.

수림속의 공지에 이르자 플린스끼는 전체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조성된 정세를 알려주고 대렬을 정비한다. 대오를 중대와 소대들로 재편성하고 지휘관들도 새로 임명한다.

붉은군대의 한개 전투부대로서의 면모를 또다시 갖춘 700여명의 대오는 숲속공지에서 열병식을 진행한 다음 새로운 행군을 시작한다.

부대장으로 된 플린스끼는 집단군참모부와의 련계를 맺을 목적으로 정찰병 본다렌꼬와 이와노브를 전선너머에로 파견하는 한편 사방에 정찰조들을 파견한다.

정찰병들의 보고를 통하여 그들은 전선이 이미 멀리 동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곳곳에서 파쑈놈들이 부대를 찾아 미친듯이 돌아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조성된 정황하에서 당장 전선을 돌파하여 주력부대와 합세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부대장 플린스끼는 계획했던 전선돌파를 일시 미루고 적후에서 유격활동을 벌리기로 결심한다.

부대에서는 이를 위한 지휘관들의 회의가 소집된다.

적후에서의 전투행동계획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상위 뻬뜨렌꼬가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회의분위기를 흐려놓는다.

오래동안 반탐사업을 해온 플린스끼는 자기의 경험으로 뻬뜨렌꼬가 견실치 못한자라는것을 간파한다. 플린스끼는 뻬뜨렌꼬가 있는 자리에서 우정 부대의 숙영지를 파쑈놈들이 싫어하는 수림속의 소택지에 정한다.

사람들의 눈길에서 자기에 대한 의심과 분노, 증오심을 감촉한 뻬뜨렌꼬는 그날밤중으로 적들에게 도망친다.

청산된 착취계급의 자식으로서 자기의 리력을 기만하고 언제나 쏘베트제도에 앙심을 품고있던 뻬뜨렌꼬는 파쑈놈들에게 플린스끼부대의 인원과 무장장비, 행군로정과 활동계획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한다.

한편 호흔장령이 지휘하는 도이췰란드군 집단군참모부에서는 자기 부대의 후방에 남아있는 플린스끼소좌의 붉은군대 정규부대를 소멸하기 위하여 《강철고리》작전을 준비한다. 이 작전에는 수많은 비행기와 땅크 및 보병구분대들, 에쓰에쓰부대들이 동원된다.

놈들은 변절자 뻬뜨렌꼬의 진술에 기초하여 플린스끼부대가 있

다고 짐작되는 수림속의 진펄구역을 포위한 다음 비행기와 땅크를 앞세우고 달려든다.

그러나 놈들의 공격을 미리 예견하고있던 플린스끼부대는 적들이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있던 곳에서 나타나 섬멸적인 타격을 안긴다.

파쑈놈들은 붉은군대의 타격앞에 여러대의 땅크와 적지 않은 유생력량을 잃었으나 재차 력량을 수습하여 악착스럽게 달려든다.

플린스끼부대는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불의적인 공격으로 적을 소멸하고 쵸르늬이숲속으로 철수한다.

파쑈놈들은 수림속의 길목들을 차단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플린스끼부대를 포위섬멸하려고 미쳐날뛰나 그 야망은 수포로 돌아가고만다.

파쑈놈들과의 첫 전투를 성과적으로 치른 플린스끼부대는 지방빨찌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앞으로의 전투행동을 더욱 적극화하기로 한다.

지방빨찌산과의 련계를 취하는데서는 림산사업소에서 입대한 마뜨베이로인이 큰 역할을 한다. 늙은 몸으로도 파쑈침략자들과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선 마뜨베이로인은 적들이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있는 시내로 뚫고들어가 끝끝내 지하조직과의 련계를 맺는데 성공한다.

지방빨찌산의 도움으로 부상자들을 후송하고 식량도 보충한 플린스끼부대는 적극적인 전투행동을 진행한다. 그들은 적들의 수비대병영들을 습격하고 수많은 교량들과 군용렬차들을 파괴함으로써 적들의 군사행동에 장애를 조성한다.

《강철고리》작전의 실패후 적극화되는 플린스끼부대의 군사활동에 커다란 불안을 느낀 파쑈놈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비밀공작을 추진시킨다.

점령지대의 안전을 담당한 게스타포사령관 옷토 크란츠는 뻬뜨렌꼬의 밀고로 끌어온 플린스끼의 안해와 어린 아들을 리용하여 플린스끼부대를 와해시켜보려고 한다. 놈들은 플린스끼의 안해에게 편지를 쓰도록 강요하고 그 편지를 리용하여 플린스끼를 시

내에 유인해올 음모를 꾸민다. 만약 그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 첩자들을 침투시켜 지휘관들을 살해하고 부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킬 보충안도 세워놓는다.

플린스끼 안해의 편지를 가지고 시경찰서의 예심원인 오흐림이 산으로 들어간다. 놈들은 오흐림을 위해 플린스끼부대출신의 본다렌꼬를 비롯한 쏘련군포로들의 《탈주소동》을 조직한다. 오흐림일행은 곧 플린스끼의 부대를 만나게 된다.

플린스끼와 만나자 오흐림은 자기가 게스타포의 임무를 받고 산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플린스끼부대와 련계를 맺을데 대한 지하당조직의 지시를 가지고왔다고 말한다. 오흐림은 지하당조직의 지시를 받고 적통치기관에 잠입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유능한 지하공작원이였던것이다.

오흐림은 플린스끼에게 시당비서가 보내는 편지를 전달한다. 또한 그는 적들이 플린스끼부대를 반대하여 꾸미는 모략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알려준다.

플린스끼는 오흐림이 게스타포에서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척 하면서 부대내에 잠입한 도이췰란드간첩들을 적발해내도록 한다.

한편 정찰병 이와노브가 가져온 플린스끼의 편지를 받은 쏘련군대 집단군참모부에서는 아파나씨예브대위를 조장으로 하는 《불길》이라는 대호를 가진 전투정찰조를 적후로 파견한다. 그들의 임무는 플린스끼부대와 련계를 취하고 그들에게 무전기와 무전암호를 전달하며 시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적후공작원과 접선하여 정찰자료를 제때에 무전으로 본부에 알리는것이다.

깊은 밤 적후에 락하한 《불길》정찰조는 수림속 깊은 곳에 기지를 꾸려놓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찰병들은 지방주민들의 방조를 받아가면서 적들의 배치정형과 탄약창고들의 위치를 알아내여 본부에 무전으로 알린다. 그에 따라 밤마다 쏘련폭격기들이 날아와 파쑈놈들의 소굴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군 한다.

그러나 《불길》정찰조의 이러한 활동은 커다란 위험을 동반하고있다. 게스타포가 밤낮으로 무전감시차들을 동원하여 무전

기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발광하고있었던것이다.
정찰병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무전을 중단하지 않는다.
어느날 정찰조는 본부에서 보내오는 긴급무전을 받는다.
본부에서는 정찰조에 플린스끼부대를 될수록 빨리 찾아내여 그와의 련락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과 비밀장소를 통하여 호른집단군의 참모부산하에서 활동하는 쏘련망책 《옷토》와 련계를 취하고 그가 수집한 자료들을 넘겨받을것을 지시한다.
도이췰란드군장교로 가장한 아파나씨예브는 녀성정찰병 아냐(그들은 도이취어를 자유롭게 활용할줄 알았다.)와 함께 시내로 떠나간다.
시내로 향한 렬차에서 정찰병들은 게스타포중좌놈과 사귀게 된다. 아냐의 미모에 홀린 그자는 저도모르게 정찰병들을 도와준다.
아파나씨예브와 아냐는 그놈의 지위를 리용하여 자기들의 뒤를 따르는 밀정놈들을 따돌리고 비밀련락함에서 《옷토》가 보내는 문건들을 찾아가지고 무사히 기지로 돌아온다.
아파나씨예브의 정찰조는 아냐를 또다시 시내로 침투시키고 플린스끼부대를 찾아간다.
플린스끼의 부대와 만난 아파나씨예브는 그들에게 무전수와 무전기를 넘겨주고 자기들이 입수한 부대내의 적간첩들에 대한 자료도 알려준다.
오흐림의 활동과 아파나씨예브가 가져온 정보에 기초하여 플린스끼를 살해할 임무를 받고 부대내에 기여들었던 간첩망책 《이완》과 그 졸개들은 모두 체포된다. 이때 오흐림은 칼을 빼들고 플린스끼에게로 덤벼드는 《이완》을 막고 중상을 당한다.
아파나씨예브가 온것으로 하여 플린스끼부대는 집단군과의 무전련락을 가질수 있게 되며 다른 임무도 훌륭하게 수행할수 있게 된다.
그들은 무전기로 부대의 숙영지가까이에 새로 건설된 파쑈놈

들의 군용비행장의 위치를 본부에 알려준다. 그날밤중으로 수많은 쏘련폭격기들이 날아와 수십대의 적 대형폭격기들과 폭탄창고들을 하늘로 날려보낸다.

쏘련정부는 믈린스끼와 아파나씨예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적기훈장을 수여한다.

적후에서의 활동을 더욱 적극화하기 위하여 믈린스끼는 오흐림을 비롯하여 까르싸노브중위와 특무상사 와꿀렌츄크, 마뜨베이로인으로 정찰조를 무어 시내로 파견한다.

이틀후 시게스타포사령관 옷토 크란츠앞에는 바싹 여위고 텁석부리가 된 오흐림이 나타난다. 포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옷토였지만 믈린스끼를 살해하려다가 칼에 찔리웠다는 오흐림의 말을 믿지 않을수 없다.

그리하여 오흐림과 정찰병들은 적들속에 든든히 뿌리를 박고 부대의 적후활동에 필요한 정보활동을 맹렬히 벌리기 시작한다.

믈린스끼부대를 비롯한 빨찌산부대들과 시내지하조직망을 없애버리려는 게스타포의 발악은 절정에 달한다. 놈들은 매일과 같이 시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고문, 학살하며 빨찌산부대들의 행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밀정들을 총동원한다.

여기서는 변절자 뻬뜨렌꼬가 《맹활약》을 벌린다.

믈린스끼부대에서 도망쳐 파쑈놈들에게로 넘어간 후 뻬뜨렌꼬는 놈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여 날뛴다. 시경찰서 예심원으로 임명된 뻬뜨렌꼬는 직접 팔을 걷고 나서서 체포된 애국자들과 빨찌산들을 고문학살하는데 앞장서며 시내의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 빨찌산대원들의 가족친척들을 전면적으로 체포숙청할 계획도 고안해낸다. 뻬뜨렌꼬가 얼마나 혈안이 되여 날뛰였던지 같은 경찰들까지도 그자를 《미친 사냥개》라고 하면서 두려워한다.

저들의 주구의 《충성심》에 만족한 게스타포는 뻬뜨렌꼬를 시경찰서장으로 임명한다.

놈들의 야만적인 학살만행과 《토벌》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

놈들은 많은 병력을 내몰아 마뜨베이로인네 림산마을을 비롯한 수림속의 주민부락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한다.

뮬린스끼부대의 적지 않은 전투원들(그들은 미처 몸을 피할수 없었던 부상병들이였다.)도 놈들의 《토벌》에 의해 희생된다.

아파나씨예브가 뮬린스끼부대를 찾아떠난 후 기지에 남아있던 《불길》정찰조의 성원들도 놈들의 《토벌》에 걸려든다.

어느날 기지부근에 한 사나이가 아이와 함께 나무를 하려고 나타났을 때 정찰병들은 그가 쏘련사람이라고 방심을 하고 돌려보낸다. 뻬뜨렌꼬의 졸개였던 그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사실을 놈들에게 알린다.

정찰병들은 기지부근을 완전히 포위하고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게스타포놈들과 경찰들을 상대로 완강히 싸웠으나 끝내는 모두 희생된다.

놈들의 발악적인 책동에 대처하여 시내에 파견된 공작원들도 맹렬히 활동한다. 그들의 활동에 의해 호른집단군의 배치정형을 그린 지도와 문건들을 비롯한 귀중한 정보들이 입수되고 반역자 뻬뜨렌꼬도 처단된다.

전선참모부로부터 《토벌대》와의 전투를 피하고 동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뮬린스끼부대에 날아온다.

그 명령에 따라 부대는 비상소집하여 안전지대로 철수한다.

와꿀렌츄크를 비롯한 기관총수들이 숙영지에 남아 부대의 철수를 보장한다.

그들은 숙영지로 통하는 길목들에 지뢰를 묻고 대기하고있다가 달려드는 《토벌대》놈들과 경찰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다.

놈들에게 학살당한 로친의 복수를 천백배로 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던 마뜨베이로인도 그들과 함께 남아 용감하게 잘 싸운다. 로인의 명중탄에 《토벌대》장교놈을 비롯한 수많은 게스타포놈들이 너부러진다.

이 시기 모스크바부근에서의 전선상황이 급변한다.

빠른 시일내에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열병식을 진행하려던 히틀러의 야망은 부서지고 파쑈군대들은 붉은군대의 강력한 반공격앞에서 퇴각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전선에서의 붉은군대의 반공격에 발을 맞추어 블린스끼부대에서도 적들이 집결되여있는 구역소재지에 대한 습격전투를 조직한다. 그곳에는 적의 위수사령부와 헌병중대 그리고 군수창고들을 경비하는 소부대들이 주둔하고있었다.

블린스끼부대의 습격이 얼마나 불의적이였던지 그들이 위수사령부로 쳐들어갔을 때에도 장교놈들은 꿈나라에서 헤매고있었다.

헌병놈들과 경비병놈들은 발악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전멸당하고 위수사령관놈은 포로가 된다.

블린스끼부대의 병사들은 헌병놈들이 정치범들을 가두었던 지하감방을 해방하고 수많은 쏘련군인들과 애국자들을 구원한다.

구역소재지가 붉은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였다는것을 안 많은 주민들이 시중심의 광장으로 모여든다. 그들은 위수사령부건물우에 힘있게 나붓기는 붉은 기발을 자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블린스끼는 적들의 창고를 헤쳐 부대의 무기와 식량을 보충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한다.

놈들의 학정밑에서 오래동안 고통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이 그자리에서 붉은군대입대를 청원한다.

목적을 달성한 블린스끼부대는 유유히 대렬을 지어 구역소재지에서 철수한다.

로인들과 녀인들, 아이들이 모두 길가에 떨쳐나와 눈물어린 얼굴로 떠나가는 그들을 바래운다.

그들을 바라보는 블린스끼의 가슴은 칼로 에이는듯이 아프다.

그는 사람들에게 힘주어 웨친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한테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들의 심장은 기쁨과 희망으로 높뛴다. 자기들의 군대를 보았고 로씨야는 굴하지 않고 싸우고있다는것을 확신하였기때문

이다.
부대는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을 헤치며 수림속에 위치한 림산사업소를 향하여 행군해간다.
행군도중에 뜰린스끼는 본부에서 보내온 비행기를 맞이한다.
본부에서는 비행기를 통하여 신문들과 외투, 털장화, 털모자를 비롯한 겨울옷들과 새로 만든 기관단총을 비롯한 무기도 보내준다.
비행기편으로 전선사령부에서 보내는 편지도 전달된다. 전선사령부는 편지에서 뜰린스끼부대의 전투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부대가 전선을 돌파할데 대하여 명령한다. 전선을 돌파할 지점과 시간, 약속신호들도 밝혀져있다.
림산사업소에 도착한 뜰린스끼는 곧 지휘관들과 돌파지역에로 접근하는 문제를 토의한다.
그들이 한창 문제토의를 하고있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울린다.
보초소에서 지휘부로 접근하는 수상한자들을 발견하고 사격한것이다. 한놈은 그자리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한놈은 체포된다.
체포된자는 자기는 적의 포위를 뚫고나온 붉은군대라고 우겨댄다.
그러나 오흐림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여 그자가 뜰린스끼부대를 해칠 임무를 받고 침투한 로련한 간첩이라는것이 밝혀진다.
질베르트라고 하는 그자는 구역소재지에서 철수하는 뜰린스끼부대의 행군방향을 추적하여 림산사업소부근에서 부대에 침투한후 기회를 보아 음식에 특수독약을 쳐서 부대를 소멸할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있었다.
뜰린스끼는 사나운 날씨와 타협하고 승리에 도취되여 적후투쟁원칙을 어기고 탕개를 늦추었던 자신을 책망한다.
그런데 간첩이 숨겨놓았던 특수독약병에는 독약이 없었다. 오흐림이 몰래 독약을 없애치웠던것이다. 부대앞에 닥쳐왔던 위기는 지하공작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가셔진것이다.
부대는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면밀히 갖춘다.
부대에서는 파쑈놈들이 그들을 소멸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

는것을 고려하여 돌파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찰을 진행하기로 한다.

돌파지역은 전연지대였던것만큼 파쑈놈들은 일반사람들의 왕래를 엄격히 통제하고있었다.

플린스끼는 적들이 주둔하고있는 뽀뻴냐마을의 정보원인 목사에게서 적정자료를 가져오는 어려운 임무를 구역소재지전투후에 입대한 열여섯살난 총각 알료슈까와 자기의 양아들인 미슈뜨까에게 맡긴다. 아이들만이 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빠져나갈수 있었던것이다.

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사히 목사에게서 적들의 배치정형이 밝혀진 지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던 소년들은 도중에 경찰놈들에게 붙잡힌다.

경찰놈들은 소년들이 빨찌산련락원이라고 하면서 무서운 고문을 들이댄다. 소년들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놈들은 알료슈까는 때려죽이고 미슈뜨까는 얼어죽으라고 알몸으로 수림속에 쫓아보낸다.

미슈뜨까는 겨우 정찰병들에게 구원된다.

정찰병 본다렌꼬도 정찰임무를 받고 떠난다. 그는 체포된 적간첩이 가지고있던 게스타포사령관의 명함장을 가지고 대담하게 게스타포첩자처럼 행동하면서 적정을 낱낱이 알아낸다.

이 자료들에 기초하여 플린스끼부대는 놈들의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사히 수림을 빠져나온다.

플린스끼는 집단군참모부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돌파작전을 진행한다.

플린스끼의 부대는 깊은 밤 은밀히 돌파지역의 요충지인 231고지를 탈취하고 본부와의 상봉지점인 뽀뽀브까마을로 진격한다.

이와 동시에 쏘련군 주력부대에서도 강력한 포병일제사격으로 적진지들을 불바다로 만든다. 정면과 배후로부터 강한 타격을 받은 파쑈놈들은 땅크와 새로운 부대들을 들이밀어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하나 도로들은 플린스끼부대의 활동에 의하여 완전히 차단된다.

쏘련땅크들은 전선을 돌파하여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면서 성

과를 확대해나간다.

드디여 플린스끼부대의 장병들은 그처럼 고대하던 집단군주력과 합류하게 된다.

전선을 뚫고 돌아온 플린스끼를 만나려고 쏘련최고쏘베트 위원장인 깔리닌이 직접 집단군을 찾아온다.

플린스끼를 만난 깔리닌은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면서 묻는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뜻밖의 질문이다.

가슴속에 쌓인 사연, 하고싶은 말이 많고많았지만 플린스끼의 대답은 한마디뿐이다.

《저는 로씨야사람입니다.》

깔리닌은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위훈을 세운 부대장 플린스끼와 정치지도원 알리예브, 해병 와꿀렌츄크에게 쏘련영웅칭호가 수여되였음을 알려준다.

집단군사령부에서는 플린스끼부대 장병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집회가 열린다.

집회에서 플린스끼는 자기들을 축하하는 각 병종 대표들의 연설에 답례하며 이렇게 말한다.

《…원쑤들의 후방깊이에서 우리가 동쪽을 향하여 진군할 때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왜 우리들을 버리고 가오.〉하고 우리를 원망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들을 다시는 불행속에 남겨두지 않기 위하여 붉은군대와 더불어 돌아오겠습니다.〉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동지들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들은 돌아오리라. 우리들은 우리의 신성한 조국땅을 해방하며 우리 인민을 노예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리라고.》

병사들도 총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며 저저마다 굳은 맹세를 다진다.

《우리는 돌아오리라!》

이 맹세소리는 우렁찬 만세의 합성과 함께 하늘가 멀리로 울려퍼진다. 소설은 이렇게 끝난다.

장편실화소설 《우리는 돌아오리라》는 적후에 떨어진 플린스끼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지난 쏘도전쟁시기 준엄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비관을 모르고 굴함없이 싸워 승리한 쏘련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사방에 적들이 욱실거리고 아무러한 익측도 없는 적후에서 그들이 동요를 모르고 승리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은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조국앞에 지닌 의무에 대한 충실성과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있었기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사상감정을 지니였기에 그들은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적후에서도 동요하거나 자기 살 구멍을 찾은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오를 뭇고 원쑤와의 싸움에 떨쳐나선것이다.

우리는 돌아오리라!

플린스끼와 그의 전사들의 이 웨침속에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이 깃들어있고 기어이 사랑하는 동포들을 파쑈의 기반에서 해방하고야말 확고한 결의가 깃들어있으며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담겨져있다.

작품에서는 이와 함께 플린스끼부대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적후투쟁에서의 귀중한 경험과 교훈도 예술적으로 잘 일반화하고있다.

장편실화소설 《우리는 돌아오리라》는 의의있는 문제설정과 예술적성과로 하여 쏘베트문학발전과 쏘련인민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익측없는 전선》이라는 제목의 예술영화로도 옮겨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 ❖ ———— ❖ ————

《해군륙전대는 또 어디서 나타났소?》하고 플린스끼가 물었다.

와꿀렌츄크는 호주머니에서 유지로 싼 봉투를 꺼냈다. 그속에는 오데싸항에서 편성되여 서남전선사령부휘하에 배속된 해군륙전대에 내린 전투명령서가 들어있었다. 해병은 도이췰란드땅크들이 불의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가 속했던 대대는 주력부대와의 련계를 잃게 되였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포위속을 뚫고 북쪽으로 오게 되였고 보병려단에 속해서 도시방어전에 참가했다는 것이였다. …

지친 병사들은 숲속공지에서도 휴식할수가 없었다.

도이췰란드폭격기 아홉대가 수림우를 지나갔다.

그것들은 폭탄을 가득 싣고 동쪽으로 날아갔다. …

몇분후에 플린스끼는 대오를 중대, 소대별로 정렬시키라고 명령하였다.

대오는 면모가 달라졌다. 격파당했던 부대들이 당장에 전투집단으로 전변되였다.

저녁해살이 가을나무잎사이로 공지에 비쳐들어 총끝에 꽂힌 날창들에 반사되여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독안에 든 쥐가 될수는 없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뚫고나갑시다! 이것은 우리의 군사적의무인 동시에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지금 우리 동무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것은 침착성이요. … 우리들이 포위되였다고 누가 말했소? 우리는 조국땅에 서있소. … 조국땅에 발을 붙이고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포위란 있을수 없소.

오늘 적들이 우리 땅에 깊이 침입하면 할수록 놈들은 더욱더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될것이요.》

———— ❖ ———— ❖ ————

《령감, 정신 나가지 않았수? 령감이 무슨 군대라고 그러시우? 이전에 령감이 적게 싸웠수?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를 더 살겠다구. 그런데도 령감은 휴가를 받고 왔수? 젊은것들이 싸우지 않을라구. 령감은 그저 뻬치까에 올라가 쉬기나 하시우.》 와씰리예브나는 근심섞인 어조로 야단법석을 하였다.

《무슨 말이 이렇게 많소? 그저 기관총 한가지라니까. 이건 녀편네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고 마뜨베이로인은 대답하였다.

《그래 녀편네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면 동삼에 땔나무는 누가 하우? 감자는 밭에 그냥 있구 지붕은 다 낡았는데도 령감은 휴가가 끝났다는 소리만 하니!》

와씰리예브나는 성난 눈초리로 령감을 힐끗 쳐다보고 뻬치까우에 올라가 누웠다.

마뜨베이로인은 젖은 내의를 새것으로 갈아입고 식탁에 마주앉아 만두를 집어들었다.

로인은 자기의 거동을 살피고있는 마누라를 보며 만족해서 입을 쩝쩝 다시기까지 하였다.

만두가 어찌나 잘 구워졌던지 손가락을 빨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보 마누라, 성이 났군그래. 지금 도이췰란드놈들이 힘이 뻗쳐서 살판을 치거든.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야 그것들을 요정낼수 있는거야. 그래, 대장이 얼마전에 한 말을 잊었수? 대장도 말

했지만 우린 도이칠란드놈들을 이기든가 아니면 죽든가 그저 길이야 하나지.》

마뜨베이로인은 뒤통수를 긁으면서 계속하였다.

《내 소견에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거요. 그렇다믄야 도이칠란드놈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마누라, 이 령감이 로친 치마자락을 붙잡고 앉아있을수 없다는거요. 내가 가있을 자리는 전쟁마당이요.》

와씰리예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뻬치까에 내리드리우고 근심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령감이 앓는 몸으로 어떻게 싸우겠수?》

《다른 사람들처럼 싸우지.》 로인은 원기있게 대답하고는 허리를 쭉 펴며 코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그래, 기마병같지 않소?》

장편실화소설 《우리는 돌아오리라》중에서

# 무 지 개

중편소설 《무지개》는 이전 쏘련의 녀류작가 완다 리보브나 와씰렙스까야가 1942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에게 강점된 우크라이나의 한 농촌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히틀러침략자들의 온갖 야수적만행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는 평범한 녀성들과 로인들의 정신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는 올료나, 페도씨야, 말류치하 등 농촌마을녀성들과 예브도낌할아버지, 도이췰란드군 수비대장 쿠르트와 배신자 뿌쌰, 촌장 가쁠리크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은 도이췰란드놈들에게 강점된 마을의 페도씨야녀인이 물을 긷다가 희생된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골짜기로 남몰래 찾아들어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들아, …》

꽛꽛하게 얼어 굳어진 아들의 시체앞에서 페도씨야는 울지 않는다. 다만 메마른 눈으로 이 모든것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듯 날날이 여겨볼뿐이다.

평온하던 이 마을에 피묻은 군화발을 들여놓은 놈들은 매일같이 살륙과 략탈을 일삼으며 저들의 《새 질서》를 세우려고 미쳐날뛴다.

도이췰란드군 수비대장인 쿠르트대위는 마을주변의 전투장에서 희생된 쏘련군병사들의 시체를 묻지 못하게 하고 마을 한복판에는 한 청년을 한달동안이나 목매단채 놓아둠으로써 사람들속에 도이췰란드군대에 대한 공포심과 《무적의 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여 저들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

페도씨야도 바로 그래서 오래동안 아들의 시체를 묻어주지 못하

고있는것이다. 그의 집에는 쿠르트놈이 도사리고있다.
페도씨야가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오니 새털이불을 몸에 감고 있던 뿌쌰라는 년이 종알댄다.
《왜 그리 오래 있었어? 고뿌에다 물 좀 떠와.》
평시에 일에 몸을 잠그기 싫어하던 년은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쿠르트의 첩이 되였던것이다. 놈들의 품에 개처럼 기여든 배신자는 뿌쌰뿐이 아니다. 청산된 꿀라크출신으로서 쏘베트제도에 앙심을 품고있던 가쁠리크는 놈들의 촌장이 되여 날친다.
그러나 놈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을 빼앗긴 페도씨야와 좌상로인 예브도낌할아버지를 비롯한 대다수의 마을사람들은 놈들의 만행에 겁을 먹은것이 아니라 원쑤에 대한 증오로 가슴 불태우면서 붉은군대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들은 붉은군대에 미처 보내지 못한 식량을 땅속에 묻고 한알의 낟알도 적들에게 내주지 않는다. 이 마을출신의 청년 꾸드랴비가 이끄는 빨찌산부대는 도처에서 적을 불의에 습격함으로써 놈들을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는다.
어느날 마을의 녀성꼴호즈원이며 용감한 빨찌산대원인 올료나가 해산을 하려고 마을로 내려온다.
촌장의 밀고로 올료나를 체포한 놈들은 그에게서 빨찌산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다.
올료나를 심문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여 돌아오던 길에 쿠르트는 겨울하늘에 비낀 때아닌 무지개를 보게 된다.
《무지개는 좋은 징조라고 하던데.》
쿠르트의 말에 뿌쌰는 《무지개야 무지개지 별것이겠어요?》라고 말했지만 페도씨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옳수다. 무지개는 길할 징조라고들 하지요.》
쿠르트는 가혹한 심문으로 올료나의 의지를 굽혀보려고 한다.
그러나 올료나는 놈들에게 경멸의 눈길을 보낼뿐 빨찌산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는다. 4시간동안 계속된 심문에서 놈들이 얻어들은것은 《부대에 대한건 아무것도 모르

오.》라는 한마디뿐이다.
악에 받친 놈들은 그에게 무서운 육체적고통을 가한다. 놈들은 임신부인 올료나의 옷과 신발을 벗기고 온밤 눈바람부는 거리로 내몬다. 놈들은 얼고 지쳐 쓰러지는 올료나의 잔등을 총창으로 사정없이 찔러댄다.
몸은 찢어지고 피가 흐르지만 올료나는 모든 고통을 끗끗이 이겨낸다.
마을사람들은 집집의 창문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에게 깊은 동정을 보내는것과 함께 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을 금치 못한다.
올료나가 체포된지 이틀째 되는 날 밤에 그에게 빵을 가져다주려고 몰래 창고로 다가가던 8살난 마을소년 미샤가 보초놈들의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놈들은 죽은 소년의 시체를 도랑창에 끌어다 버린다. 소년의 어머니인 말류치하가 아들의 시체를 몰래 안아다 피눈물을 삼키면서 현관바닥에 묻는다.
소년의 시체가 감쪽같이 없어진것을 안 놈들은 더욱 미쳐날뛴다.
놈들은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3일내로 도이췰란드군대에 공급할 량곡을 전부 바칠것과 소년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을 내놓을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며 악한을 잡아낼 때까지》 올가, 예브도끼, 오씨쁘, 말라샤, 마리야 등 다섯명의 마을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둘것이며 만약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그들을 모두 교수대에 매달것이라고 공포한다. 놈들은 자기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가슴아파하는 이들의 심리를 리용하려고 한것이다.
인질로 지명된 예브도끼과 마리야는 소년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말류치하라는것을 알고있으면서도 놈들에게 밀고하지 않는다.
잡혀간 오씨쁘의 안해는 사연을 터놓으며 자수하겠다고 하는 말류치하를 호되게 꾸짖기까지 한다.
《그럼, 애 어민 죄가 있나? 그래, 아일 거기다 그냥 둬야 옳았

겠나? 별사람 다 보겠군!… 촌장이 좋아하겠다. 인질로 한 댓사람 가두자마자 찾던 놈이 제꺽 나타났다구 말이야. 그래, 이 코막고 답답한 사람아. 그다음엔 어떻게 될지 알기나 하나? 그놈들한테 우릴 못살게 굴 길을 가르쳐주구 방법을 대주자는건가? 오늘 그 집이 나타나보게! 래일부턴 무슨 일이 생기면 다섯사람이 아니라 쉰사람을 가둘게란 말이야! 한심하구만! 우리 마을엔 아직까지 아무도 그놈들한테 나드는 놈이 없다 했더니 이제야 나타났구려.》

뿐만아니라 마을사람들은 누구도 놈들에게 량곡을 가져다 바치지 않는다.

한편 올료나는 찬바람 부는 창고에서 아이를 낳는다. 마흔이 넘어서야 보게 되는 첫 아이이다. 애기를 씻어줄 한방울의 물도, 알몸을 가리워줄 한쪼박의 천도 없지만 올료나는 행복을 느낀다. 놈들의 모진 악행을 이겨내고 끝내 아이가 세상에 태여난것이다.

올료나가 해산한 다음날 쿠르트는 또다시 그를 심문장으로 끌어낸다.

올료나의 기쁨과 행복, 생의 전부와도 같은 애기를 상우에 올려놓은 쿠르트는 올료나를 위협한다.

《이제는 문제가 너 혼자에게만 관계되는게 아니다. 지금 너는 아들을 살릴수도 있고 죽일수도 있단 말이다. 어제밤 누가 너에게 빵을 가져다주려고 했는가? 꾸드랴븨가 지금 어디 있어?》

놈은 권총아구리를 애기의 머리에 가져다댄다.

올료나는 심장의 피가 모두 얼어드는것만 같았으나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는다.

악에 받친 쿠르트놈은 총으로 갓난아이를 무참하게 쏘아죽이고 올료나마저 총창으로 찔러 얼음구멍에 처넣는다.

쿠르트는 첩년인 뿌쌰를 마을 학교교원인 언니에게 보내여 비밀을 내탐해보려고 하나 그년은 오히려 귀쌈만 얻어맞고 쫓겨온다.

상관들은 빨리 빨찌산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쿠르트에게 불같은 독촉을 들이댄다.

절망상태에 빠진 쿠르트는 마을사람들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

하고 빌고라도 싶은 심정에 휩싸인다.
　파쑈도배들이 악에 받쳐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놈들의 멸망의 날은 다가오고있다.
　마을사람들모두가 그것을 굳게 믿고있으며 또 느끼고있다.
　올료나가 살해된 날 밤 쏘련정찰병들이 페도씨야의 집에 나타난다.
　마당에서 그들을 만난 페도씨야의 기쁨은 형언할수없이 크다. 붉은군대에 나갔던 아들이 마을근방의 전투장에서 전사한지 1년만에 보게 되는 붉은군대이다. 꼭 아들이 다시 살아돌아온것만 같다.
　정찰병들은 페도씨야에게서 마을의 적정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돌아간다.
　그밤 페도씨야는 잠들지 못한다. 그의 가슴은 붉은군대가 멀지 않아 돌아온다는 신심으로 가득차있다.
　그날밤 잠들지 않은것은 페도씨야 한사람뿐이 아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마을농민들에게서 빼앗아낼 량곡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촌장 가쁠리크는 마을농민들에게 잡혀간다.
　마을의 한 농가에서는 그날밤 배신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절름발이 알렉싼드르, 오씨쁘의 딸 프로쌰, 쩨르벨리하아주머니등 마을농민들이 검사이고 판사이다.
　그들의 눈은 불타는 증오로 이글거리고있다.
　가쁠리크는 그들의 발치에 엎드려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꿀라크이며 전과자이며 도이췰란드당국 촌장인 피고 뾰뜨르 가쁠리크를 사형에 처할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배신자를 단호히 처단해버린다.
　다음날 아침 촌장이 없어진것을 안 놈들은 당황해한다.
　그러지 않아도 모든 일이 뒤틀린 상태에서 자기들의 앞잡이인 촌장까지 사라져버리자 쿠르트는 안절부절한다.
　이때 마을상공에 한대의 비행기가 나타난다.
　파쑈놈들이 마을을 강점한 후 오래간만에 나타난 비행기여서 마

을사람들과 도이췰란드병졸들모두가 하늘을 쳐다본다.
비행기의 날개밑에는 붉은 오각별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우리 비행기다! 우리 비행기가 왔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달려나와 기뻐서 떠들어댄다.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눈물을 모르던 녀인들의 엄숙한 얼굴마다에서는 맑은것이 흘러내린다.
붉은별을 그린 비행기는 마을상공을 선회하면서 먼곳에서 보내오는 형제적인사와 안부를 마을에 전한다.
파쑈놈들의 고사포들은 갑자기 벌어진 사태에 어안이 벙벙해져 사격할념도 못한다.
악에 받친 쿠르트는 마을사람들을 향해 총을 마구 쏘아댄다.
마을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져버리지만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해방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이 확고하게 자리잡는다. 그들은 붉은군대가 돌아올 그날을 그려본다. 또다시 삶의 희열이 넘쳐날 마을의 래일을 그려본다.
그날저녁 붉은군대가 마을을 습격한다.
세명의 정찰병들이 쿠르트가 자고있을 페도씨야의 집에 온다. 그들속에는 뿌쌰의 남편인 쎄료쟈도 있다.
쿠르트가 돌아오지 않아 혼자 잠을 자던 뿌쌰년은 정찰병들속에서 남편의 모습을 알아본다.
쎄료쟈는 배신자의 가슴에 증오의 총탄을 쏘아박는다.
마을의 여기저기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붉은군대는 놈들의 포진지를 요정내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수비대본부를 습격한다.
악몽속에 시달리던 쿠르트놈은 요란한 총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난다. 놈들은 수비대본부건물에 의지하여 마지막발악을 한다.
놈들의 수비대본부는 쎄료쟈가 던진 수류탄에 의하여 박산난다.
요행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정신없이 달아나던 쿠르트는 마을처녀 말라샤가 휘두르는 총탁에 맞아 대갈통이 박산난다.
꺼져가는 정신속에 그자는 마지막으로 무지개를 본다. 몽롱해진 머리속에 한가지 회상이 떠오른다. 대체 어디서 저런 무

지개를 보았던가? 옳지. 그 눈보라가 일기 전이였지. … 그때 그 아낙네는 뭐라고 했던가? 그는 무지개가 길할 징조라고 확신하듯 말했었다. …

쿠르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여나온다. 무지개는 길할 징조였다. 그러나 그를 위한것이 아니였다. 무지개는 기쁨에 넘쳐 빛나고있으나 이미 명이 끊어진 쿠르트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마을은 해방된다. 온 마을이 환희에 휩싸인다. 마을사람들은 저저마다 붉은군대병사들을 집으로 청하며 벌판에 묻어놓았던 식량들을 파내여 그들을 성의껏 대접한다.

붉은군대는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마을을 떠난다. 그들의 앞길에 또다시 밝고 또렷한 무지개가 비끼는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중편소설 《무지개》에서 작가 완다 와씰렙스까야는 쏘련인민의 반파쑈투쟁정신과 불굴의 의지, 승리에 대한 신심을 보여주기 위한데 큰 힘을 넣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빨찌산녀대원 올료나, 예브도낌할아버지, 페도씨야를 비롯한 마을사람들, 지어 말류치하의 아들들인 미샤나 싸샤와 같은 어린 소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모두는 놈들의 야수적만행에도 굴함없이 붉은군대가 돌아올 날을 확신하며 용감히 싸운다.

평시에 일반적으로 감때사납고 아귀다툼이나 하고 고아대기를 좋아하여 아무에게도 살뜰한 말을 할줄 모르는 녀자로 알려져있던 오씨쁘의 안해, 그는 다섯명의 마을사람들이 잡혀간것때문에 고민하는 말류치하를 자기 식의 말로 뜨겁게 고무해준다.

《이놈들이 아무리 못살게 굴구, 목매달구, 총살하구 해두 우릴 어쩌지는 못해. 한사람, 두사람 더러 죽기는 하겠지만 전체를 먹으려다가야 이발이 부러지지. 우리 사람들이 올 때까지 버텨내야 해. 어떻게 악을 써서라도 버텨내야 해.》

마을처녀들가운데서 아름답기로 첫째가던 말라샤, 예상치 않았던 불행으로 마음속고충도 컸지만 처녀는 자기를 이겨내며 총구앞에도 주저없이 뛰여들어 쿠르트의 대갈통을 단매에 박산낸다.

하다면 그처럼 연약하던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놈들과 끝까지 싸워이길수 있은 힘의 원천은 무엇이였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원쑤놈들에게 아들을 잃고도 크나큰 슬픔을 강잉히 이겨나가는 레보뉴크의 어머니의 말에서 찾아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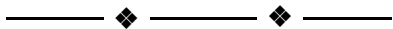
《우리 인민은 땅속에 뿌리박은것처럼 끄떡없다오. 배나무를 찍어보라구. 눈깜짝할새에 또 땅밑에서 새싹이 돋아나 해빛을 바라고 쭉쭉 자라지 않나. 미쨔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땅은 남아있고 인민은 남아있소. … 이날을 보기 전에 우릴 다 죽여버리지나 않을가 하고 생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지. …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을 보지 않았나! 인민은 다 견디여낸다니… 아무렴, 파쑈놈들에게 거저 먹힐 인민이 아니야.》

소박하고 침착한 농민투의 이 말속에는 그 어떤 강적도 자기를 자각한 인민을 정복하거나 소멸할수 없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지난날 머슴군, 빈농으로 모진 착취와 학대속에 살아온 그들, 쏘베트주권하에서 비로소 보람찬 삶과 로동의 기쁨을 맛본 인민이였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목숨보다 더 귀중하였던것이다.

자기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 조국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믿음, 바로 이것이 횡포무도한 파쑈놈들과 싸워이길수 있게 한 힘의 원천임을 각이한 성격의 녀성들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에 대한 인상깊은 생활형상으로 훌륭히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소설은 일관한 이야기줄거리도 엮어지지 않고 이렇다할 중심주인공이 설정되여있지도 않지만 시종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읽히우는것이다.

중편소설 《무지개》는 높은 사상예술성과 커다란 감화력으로 하여 쓰딸린상을 수여받았다.

——— ❖ ——— ❖ ———

《나더러 어쩌라는거야? 나라구 무슨 수가 있어? 굶어죽으라는거야? 그럼 기다리란 말이야? 뭘 기다려? 이 사람들은 여길 아주 차지하구 앉았어! 그러니 나두 무슨 마련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 쎄료쟈는 보나마나 죽은지가 옛날일거구. … 그리구 쿠르트는 사람이 괜찮아, 괜찮구말구. 또 나로 말하더라두 더는 여기서 살고싶지 않거든. 그만큼 겪었으면 무던하지 뭐야! 그 사람두 날 자기네 드레즈덴에 데려가겠다니까 거기 가면 여기보다 낫겠지. 여기서야 내가 어디 사는것같이 살았어? 뭘 좀 입고싶어도 있어야 입지. 긴양말 한켤레 구하재도 애간장을 태우구. 그런걸 얻어신기가 어디 쉬웠어?》

년은 게거품을 물고 엮어댔다. 페도씨야는 감자와 칼을 쥔채 일손을 멈추고 년을 쏘아보았다.

《오냐. 넌 그런 년이다. 긴양말이 뭐냐. … 너의 언닌 사람이 착실하구 선생노릇두 하구 흠잡을데 없어. 그런데 넌 양말이 뭐게… 너같은 년은 뭐랬으면 좋겠는지. 내 입이 더러워 그만둔다. … 그리구 쿠르트라는 놈은 널 절대루 데려가지 않을게다. 차던져. 너같은 갈보년들은 다 그렇게 되더구나. 그놈은 아무때구 도망치게 될게다만 그때가 되기 전에 널 차던질게다! 어찌겠니. 실컷 잘 살아라. 도이칠란드놈을 끼구서 털이불을 덮구 자려무나. 너희 년놈은 여기서 오래 못갈테니까. 오래 못가구말구! 우리 사람들이 온다. 그 사람들이 오면 네게 본때를 보여줄게다!》

뿌쌰는 벽결상우에서 몸을 움츠렸다. 녀인의 침착한 말마디들이 그를 채찍처럼 후려쳤던것이다.

——— ❖ ——— ❖ ———

올료나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허연 속눈섭에 둘러싸인 흐리멍텅한 장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난 아무것도 말 못하겠소. 아무것도.》

권총아가리가 어린애의 얼굴에 가까이 갔다. 그는 보지 않고도 그것을 알수 있었다.

《네겐 이애 하나뿐이지？》 쿠르트가 물었다.

올료나는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아니요. …》

권총을 쥔 장교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졌다.

《뭐라구? 아이들이 또 있단 말인가? 그건 아들인가? 딸인가? 어디 있어?》

올료나의 부르트고 갈라지고 까실까실 마른 입술에 문득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들들이요. … 모두 아들이요. … 숱한 아들이 있소. … 저기 숲속에… 꾸드랴비랑… 모두 저기 숲속에 있소. …》

총소리가 울렸다. 어린애의 조그만 얼굴을 면바로 쏜것이였다. 화약내와 피비린내가 확 퍼졌다. …

《이래도 어머니야?… 네가 아이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쿠르트의 말이였다. 그러나 올료나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

《말할수 없었단다. 아들아.》 그는 죽은 아이가 듣기라도 할것처럼 속삭였다.

중편소설 《무지개》중에서

작가소개

## 완다 와씰렙스까야

완다 리보브나 와씰렙스까야(1905－1964)는 뽈스까의 꾸라꼬브에서 학자의 딸로 태여났다.

1927년 꾸라꼬브종합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 그는 교원생활을 하면서 뽈스까에서의 혁명운동에 참가하였고 파쑈도이췰란드의 뽈스까침공이 박두한 1939년에 쏘련으로 넘어가 쏘베트공민권을 얻었다.

뽈스까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34년에 발표한 중편소설 《낮의 모습》에서 작가는 뽈스까로동계급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그들의 혁명의식의 장성과정을 묘사하였으며 장편소설 《조국》(1935)과 중편소설 《속박된 땅》(1938)에서는 뽈스까근로대중의 암담한 생활과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쏘도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1942년에 작가는 대표작인 중편소설 《무지개》(쓰딸린상)를 창작발표하여 파쑈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싸움에 일떠선 쏘련군대와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작가는 큰 형식의 작품창작에 더욱 큰 힘을 넣어 3부작 장편소설 《물우의 노래》를 창작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의 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제1부 《늪의 불길》(1940), 제2부 《호수의 별》(1945－1946), 제3부 《강은 불탄다》(1951, 쓰딸린상)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시기 뽈스까를 강점한 우크라이나 귀족들의 전횡과 그를 반대하는 뽈스까인민들의 투쟁, 전후 해방된 서부우크라이나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새로운 뽈스까의 탄생 그리고 뽈스까인민들과 쏘련인민들간의 친선의 감정을 잘 보여주었다.

작가는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이였으며 세계평화리사회 리사였다.

# 로씨야성격

단편소설 《로씨야성격》은 이전 쏘련의 이름난 작가 알렉쎄이 똘스또이가 1944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파쑈침략자들과의 가렬한 싸움에서 영웅이 된 붉은군대의 한 땅크병과 고향에 있는 그의 부모들, 사랑하는 처녀의 형상을 통하여 쏘련인민의 열렬한 조국애를 깊은 감명속에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인 예고르 드로모브중위와 어머니 마리야 뽈리까르뽀브나, 아버지 예고르 예고로비츠, 마을처녀 까쨔 말릐쉐바가 나온다.

소설은 로씨야성격에 대한 작가의 다음과 같은 말로부터 시작된다.

《로씨야성격! 이 크지 않은 단편의 제목으로서는 뜻이 너무나도 크다. 허나 어찌하랴. 나는 로씨야성격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싶은것을…

로씨야성격! 그것을 이야기한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영웅적공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것인가. 허나 그런 공적은 하도 많아 어느것을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침 나의 한 친구가 들려준 일신상의 짤막한 이야기가 나를 구원해주었다. …》

그 친구란 바로 소설의 주인공인 싸라또브주 볼가강연안의 어느 한 마을 소박하고 평범한 꼴호즈원이였던 땅크병 예고르 드로모브중위이다.

그는 전투공적에 대해서 수다스레 늘어놓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의 땅크가 세운 전투위훈에 대해서는 운전수 츄윌로브를 비롯한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야 알수 있다. 그것은 실로 경탄할만한것이다.

불행을 당하기 전까지 예고르 드로모브중위는 그렇게 싸운다.

도이췰란드군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퇴각한 꾸르스크대전투시에 그의 땅크는 밀발등성이에서 적포탄에 명중되여 승무원중 두명이 희생되고 두번째 포탄에는 땅크가 불탄다. 앞문으로 뛰여내린 운전수 츄월로브가 땅크로 다시 기여올라 중위를 끌어내오지만 중위는 의식을 잃은 상태이고 그의 전투복은 불에 타고있다. 땅크는 곧 폭발하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세찼던지 포탑이 50m나 날아가 떨어진다.

심한 화상을 입은 그의 얼굴은 8개월동안이나 정형수술을 받았지만 미남자였던 본래모습을 도저히 찾아볼수 없게 된다.

군의심사위원회는 그에게 예비역복무가능자로 감정을 내린다. 그러자 그는 장령을 찾아가 말한다.

《련대에 돌아가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허지만 당신은 불구자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얼굴이 볼꼴사나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투에 방해되지는 않을겁니다. 전투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장령이 일부러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는것을 감촉한 예고르 드로모브는 틈사리처럼 일직선으로 패인 분홍빛 입술로 빙긋이 웃었을뿐이다. 그는 완전회복을 위해 20일간의 휴가를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떠난다.

땅거미가 졌을 때 집에 도착한 그는 창문을 통해 희미한 등불밑에서 식탁에 저녁을 차리는 어머니를 본다. 퍽 늙으셨다. 홀쭉해진 두어깨가 앙상하다.

예고르 드로모브는 어머니를 놀래울수 없다는것, 늙으신 어머니의 얼굴이 절망에 차서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깨닫는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나온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며 목소리조차 가려듣지 못한다. 여러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예고르 드로모브는 목소리마저 달라졌던것이다.

《에그, 무슨 일로 오셨수?》

《마리야 뽈리까르뽀브나에게 자제분인 드로모브중위의 안부

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에게로 달려와 손을 그러쥔다.

《그래, 우리 예고르가 살아있단 말이우? 몸도 성하구요? 여보시우, 아니, 어서 들어가기나 합시다.》

예고르 드로모브는 전쟁전 자기가 늘 앉군 하던 식탁앞 그자리에 앉는다. 그는 이 집 아들, 자기자신에 대하여 자세히, 그가 음식을 어떻게 먹고있으며 부족한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나 명랑하며 건강하다는것을 말하고 간단히 그가 땅크를 타고 참가했던 전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아버지 예고르 예고로비츠가 돌아온다. 그 역시 아들을 몰라본다.

드로모브중위는 몰라보게 변한 자기가 자기자신에 대해 오래 이야기하면 할수록 불쑥 일어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 불구자가 아들인줄 정말 몰라보십니까?》하고 고백을 하기가 점점 난

## 작가의 말

《언어, 이는 사유의 도구이다. 언어를 되는대로 다룬다는것은 되는대로 사유한다는것을 말한다.》

《인민은 예술의 재판관이다. 평론가의 과업은 인민의 높은 예술적요구의 표현자로 되는것이다.》

《행복이란 자기의 정신적힘과 육체적힘을 사회를 위하여 유감없이 바쳤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보람인것이다.》

《력사에 이름을 떨친 위인들에게는 여느 사람들처럼 두개의 날자 즉 태여난 날과 죽은 날이 있는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날, 태여난 날만이 있을뿐이다.》

처해진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와 음식상에 마주앉은것이 반갑기도 하고 애타기도 하여 괴로와한다.

《여보, 그럼 저녁들을 하지. 여보, 뭘 좀 가져오구려. 손님을 위해서…》

여전히 부모들은 그를 《손님》이라고 부른다.

저녁식사를 할 때에야 비로소 드로모브중위는 어머니가 숟가락을 쥔 자기의 손을 유심히 살피고있음을 느낀다. 눈길을 쳐드니 어머니의 얼굴은 병적으로 바르르 떨린다.

드로모브중위는 아버지에게 말을 건다.

《예고르 예고로비츠, 당신은 올해 여름안으로 전쟁이 끝나리라는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죽음을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는 당해낼 놈이 없을거요. 그러니 도이췰란드군이야 이젠 끝장두 났지요.》하고 아버지는 대답

《작가는 자기 작품에 한페지라도 고친데가 없고 그은데가 없으면 고민할줄 알아야 한다. 뿌슈낀이나 레브 똘스또이처럼 원고를 고친 사람은 일찌기 없었다.》

《문장을 소리내여 읽는것은 창작사업에서 아주 효과적이며 본질적인것이다.》

《로동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것은 범죄이다.》

《땅에서 뽑아 모래불에 내동댕이친 식물이 살수 없듯이 사회밖에서 개인의 행복이란 있을수 없다.》

《애국주의란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있다. 애국주의는 조국과 떨어져 살수 없다는 자각이며 조국과 고락을 같이하며 느끼는 감정이다.》

《모든것에 만족하고 좋은것을 더 좋은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모든것을 잃게 된다.》

《위대하고 진정한 사업은 언제나 단순하고 소박하다.》

한다.
어머니가 묻는다.
《저, 알수 없을가요? 그애가 언제쯤 휴가를 얻어 집으로 오겠는지? 3년이나 그앨 못봤는데… 아마 어른이 돼서 수염도 자랐을걸요. 참, 매일같이 사선을 넘나든다니 목소리도 퍼그나 툭해졌겠지?》
《그러믄요. 아드님이 오셔도 아마 알아보지 못하실겁니다.》
그날밤 그는 너무도 낯익은 뻬치까에 누워 두손에 얼굴을 파묻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게도 못알아보셨어요? 정말 못알아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
새벽에 일어나보니 줄에는 깨끗이 빤 그의 발싸개가 걸려있고 문가에는 말끔히 닦은 장화가 놓여있다.
《밀지짐을 자시겠수?》
어머니가 묻는다.
그는 한참만에 대답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저, 이 마을에 까쨔 말릐쉐바라고… 당신의 아드님이 그 녀자에게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까쨔 말릐쉐바는 중위가 채 신을 신기 전에 달려온다. 처녀가 머리에 쓴 털수건을 어깨우로 밀어젖힐 때 중위는 이 따뜻한 금발머리에 입을 맞췄으면!… 하고 가슴속으로 신음소리를 낸다.
《예고르의 안부를 전해오신분이세요? 저는 그이를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있어요. 그이에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해빛을 등지고 서서 머리만 끄덕이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힐끔 쳐다본 까쨔는 가볍게 가슴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흠칠 놀란다.
이때 중위는 그날안으로 떠나갈것을 굳게 결심한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정거장까지 걸어서 떠난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두손으로 얼굴을 두드리며 《아, 이젠 어떻게 한담?!》하고 몇번이고 목메인 소리로 되뇌인다.
그는 깊은 후방에 와있는 자기 련대로 돌아온다.
전우들이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어 그는 모든 괴로움을 잊는다.

그는 결심한다.

어머니에겐 나의 불행이 하루라도 늦게 알려지게 하자. 까쨔에 대해서는 잊고말자.

두어주일이 지나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온다.

《나의 귀한 아들아, 예고류슈까야. 제발 편지를 써보내다우. 무슨 영문인지 나를 깨우쳐주렴. …》

어머니는 집에 다녀간 사람, 얼굴이 흉한 그 사람이 다름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였다는것을 죄다 짐작하고있었던것이다.

예고르 드로모브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로 어머니에게 회답을 쓴다. 바로 제가 다녀왔다고, 당신의 아들이 집을 다녀왔다고. …

며칠후 사격련습장에 있는 예고르 드로모브에게 한 전사가 달려와 보고한다.

《대위동지!(그는 대위가 되였다.) 면회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온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온것이다.

《어머니 오셨어요? 접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에 파묻힌다. 그런데 그뒤에는 또 한 녀인이 서있다. 까쨔이다.

《까쨔!》하고 그는 말한다. 《까쨔, 동무는 왜 왔소? 동무가 기다리겠다고 한것은 그전의 나였지 지금의 나는 아니지 않소.》

아름다운 까쨔는 그에게 대답한다.

《예고르, 나는 당신과 일생을 같이하기로 한 몸이예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지극히 사랑하겠어요. 저를 제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

소설은 작가의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난다.

《바로 이것이 로씨야성격이란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소박해보이지만 준엄한 불행이 닥쳐올 때면 그에게서는 위대한 힘, 인간미가 나타나는것이다.》

단편소설 《로씨야성격》에서 작가 아. 똘스또이는 쏘련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참다운 사랑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요란한 전투정황과 거기에서 발휘되는 빛나는 위훈을 통해서가 아니라

극히 작은 평범한 생활속에서 사말사적인것이라고도 할수 있는 소박한 이야기를 통하여 훌륭히 펼쳐보이고있다.

로씨야성격!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작가가 소설의 첫머리에 썼듯이 그것은 크지 않은 단편의 제목으로서는 너무나도 뜻이 큰것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소박하고 짧은 이야기에서 이 크나큰 뜻을 도출해냈다는데 이 작가와 작품의 주되는 성과가 있는것이다.

주인공 예고르 드로모브중위, 그는 더없이 조용하고 소박한 사람이다. 자기 자랑을 전혀 할줄 모르는 그이지만 원쑤에게는 언제나 무자비하며 나서자란 고향과 정든 집, 아버지,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한다.

《우리 아버진 듬직한분이지요. 무엇보다도 조국을 사랑하는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하셨지요. 〈얘야, 너는 세상에 많은걸 구경하고 또 외국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로씨야의 이름만은 자랑하거라.〉 이렇게요.》

드로모브의 이 길지 않은 말속에는 태여난 고향과 낳아키워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이 말속에는 또한 평범한 농촌늙은이들인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다함없는 애정,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웅심깊은 마음이 담겨져있다.

이런 향토애, 혈육과 동무들에 대한 이런 따뜻한 정이 아름다운 인간미를 이루며 위대한 조국애로 승화된다. 이런 사람들이 준엄한 날에 조국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용감히 싸우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것이다.

작가는 평범한 날에는 물론 준엄한 날에도 변함없이 간직된 쏘련인민들의 소박하면서도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바로 전쟁에서 쏘베트군인들이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발휘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는 사상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로씨야성격》은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그 규모는 작아도 쏘도전쟁주제의 소설작품창작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 ❖ ——— ❖ ———

《나의 귀한 아들아, 잘 있니! 너에게 편지를 하기조차 겁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한테 너의 련대에서 사람이 하나 왔다갔다. 얼굴은 흉했으나 사람은 무척 훌륭하더라. 얼마간 묵고 가겠다더니 별안간 떠나버렸다. 그때부터 얘야, 밤마다 잠을 이룰수 없구나. 나는 꼭 네가 왔다간것만 같다. 아버지는 날 꾸짖누나. 〈여보, 로친네, 당신은 정신이 나갔구려. 그가 우리 애였다면야 어째서 말을 안했겠소? 그애가 감출 리유가 어디 있소? 만약에 그가 확실히 그애였다고 해도 우리한테 왔다간 그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는 오히려 자랑을 해얄게 아니겠소.〉하며 아버지는 나를 설복시키려고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그저 우리 애였다. 우리 애가 왔다갔다 하는 생각뿐이다. 그 사람이 뻬치까에서 잘 때 나는 외투를 털어주려고 뜰로 가지고 나갔다가 그속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우리 애다, 그애의 외투다 하고. 예고류슈까야, 제발 편지를 써보내다우. 무슨 영문인지 나를 깨우쳐주렴. 혹 내가 정신이 나갔다는게 정말이냐. …》

예고르 드로모브는 이 편지를 나에게 보여주고 그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팔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거 참, 무슨 성격들이 그렇담! 자넨 바볼세. 바보야. 어머니한테 어서 편지를 쓰라구. 용서를 빌게. 공연히 어머니를 상심케 하지 말고… 자네의 그 모습은 어머니에게 아주 귀중하네. 그러한 자네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걸세. …》

그날로 그는 편지를 썼다.

《나의 존경하는 어머니 마리야 뽈리까르뽀브나와 아버지 예고르 예고로비츠, 저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하여주십시오. 실로 당신의 아들, 제가 다녀왔습니다. …》하는 등등 깨알같은 글씨로 넉장을 꽉꽉 박아썼다. 그는 스무장을 쓰래도 쓸수 있었을것이다.

단편소설 《로씨야성격》중에서

# 월로꼴람스크대로

중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는 이전 쏘련의 작가 알렉싼드르 알프레도비츠 베크가 1944년에 창작발표한 소설이다.

작가는 그후 이 소설의 속편들인 중편소설 《며칠간》과 《빤필로브장군의 예비대》를 창작하였고 이 세편의 중편소설들을 하나의 장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로 묶어 내놓았다.

이리하여 중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는 같은 제목의 장편소설의 첫부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되였다.

소설은 1941년 6월 22일 도이췰란드침략군이 720만의 대군으로 쏘련을 불의에 침공하여 불과 몇달만에 수도 모스크바부근에까지 쳐들어왔던 준엄한 환경속에서 쏘련군인들이 발휘한 애국적인 투쟁정신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에는 모스크바로 통하는 기본도로인 월로꼴람스크대로를 지키게 된 붉은군대 제316사단의 한 대대군인들이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모습이 생동하게 부각되여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단장 빤필로브소장이나 대대장 모믜쉬―울릐는 다 실재한 인물들이다. 소설에는 이밖에도 대대참모장 라히모브, 련대선전원 똘스뚜노브, 소대장 부르나쉐브, 중대당비서인 전사 부께예브, 분대장 바람바예브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은 쏘도전쟁시기 가장 간고하였던 모스크바방위전투에 대대장으로 참가하였던 바우르드쟌 모믜쉬―울릐가 그 나날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에게 들려주는 식으로 구성되여있다.

…쏘련의 끼르기즈스딴가맹공화국 군사위원인 소장 빤필로브가 까자흐스딴의 알마띠에서 새로운 사단을 편성할데 대한 명령을 받

은것은 모스크바방위전투가 시작되기 석달전인 1941년 7월 중순이다.

까자흐스딴 군사위원부에서 사업하던 모믜쉬—울릐상위는 자신이 요청하여 빤필로브사단의 보병대대장으로 임명된다.

그가 맡게 된 대대는 로동자, 꼴호즈원, 사무원들로 방금 편성된 부대이다.

대대참모장도 어제날까지는 농산기사였던 사람이다. 그는 규정대로 차렷자세를 취할줄도 모르고 보고할줄도 모른다. 대대장이 나타났는데도 누구도 《차렷!》구령을 치지 않는다. 그에게 경례를 붙이는 사람도 없다. 옷차림도 각양각색이다.

모믜쉬—울릐는 저도모르게 한숨을 내쉰다.

그는 바로 이러한 대대를 하루빨리 규률있고 전투력이 강한 대오로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대대전원을 집합시킨 그는 첫 연설을 한다. 그는 연설에서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은 곧 법이며 병사에게는 복종할 의무만이 있음을 못박는다. 그리고 조국과 정부, 지휘관앞에서의 성실성은 군인의 최고품성이며 참다운 량심인만이 성실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한다.

대대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모믜쉬—울릐는 훈련에서 자기자신과 대원들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대원들스스로가 규정의 중요성을 실천을 통하여 체득하도록 이끈다.

어느날 대대는 100㎞의 먼거리를 행군하게 된다.

그러나 행군을 하려고 나선 대원들의 장구류들은 축 늘어져 데룽거린다.

모믜쉬—울릐는 대원들에게 행군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 대오를 출발시킨다. 얼마 못가서 병사들은 왜 행군준비를 규정의 요구대로 해야 하는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대원들은 지치고 대렬은 길게 늘어진다. 모믜쉬—울릐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중대장들을 부단히 불러다 대렬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숙영지에 도착하자 대원들은 그자리에 되는대로 쓰러져 저녁식사를 기다린다. 그러나 모믜쉬－울릐는 매 대원들에게 규정량의 쌀과 부식물을 나누어주어 자체로 밥을 지어먹도록 명령한다.

이 과정에 전사들은 전선에서는 제손으로 밥을 지어먹어야 할 때도 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병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대장은 우정 포장도로를 버리고 험한 길로 행군하도록 한다. 대원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며 총을 잃은 대원까지 나타난다.

대렬을 도로에 정렬시킨 모믜쉬－울릐는 중대별로 정보행진을 진행하게 하고 합격이 될 때까지 반복시킨다.

드디여 대렬의 면모가 회복된다. 대대는 마중나온 사단장의 앞을 씩씩하게 정보로 행진해간다.

사단장은 만족하여 대대에 감사를 준다.

《쏘련을 위하여 복무함!》

대원들의 대답소리는 온 들판에 울려퍼진다.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첫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던것이다.

훈련을 끝마친 빤필로브소장의 사단은 월로꼴람스크－모스크바도로를 방어할 임무를 받고 10월초에 월로꼴람스크근방에 도착한다.

모믜쉬－울릐의 대대는 루자강계선의 7㎞ 구간을 맡게 된다. 그들은 지정된 계선을 차지하고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다.

그런데 전선에서 병사들에게 처음으로 닥쳐든것은 파쑈놈들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후퇴해오는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에서 공포를 느낀 대원들은 진지도 규정대로 만들지 않으며 그중 일부는 전투가 벌어지면 도망칠 궁리까지 한다.

실지로 모믜쉬－울릐가 갑자기 기관총을 쏘면서 비상소집구령을 내리자 일부 대원들은 수림속으로 달아난다.

즉시 대대를 집합시킨 모믜쉬－울릐는 맨 선참 전호에서 달아났으며 비겁하게 자기의 손을 총으로 쏜 한고장출신의 분대장 바

람바예브를 조국반역자로 락인하고 단호히 처단한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병사들에게서 공포가 사라진것은 아니다. 전사들은 여전히 우울해있는다. 정치일군들의 정치사업도 그들의 심장에까지 전달되지 못한다.

모믜쉬—울릐는 대원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자리를 같이한다.

《동무는 조국이란 무엇인지 알고있소?》

《동무는 살고싶소?》

《안해와 자식들을 사랑하오?》

병사들은 대대장의 격식없는 이야기에 저도모르게 끌려들어간다.

《조국이란 동무자신이고 우리모두이며 우리들의 가정이요. 우리의 어머니들이고 안해들이며 자식들이지. 조국이란 우리 인민이요. 물론 총에 맞을수도 있소. 그러나 먼저 적을 죽여야 하오.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소멸해야 하오. 그러면 여기 한전호에서 총으로 맺어진 동지들을 살릴수 있는거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하여 싸워야 하오.》

소박한 이 말은 병사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는다.

다음날 대대를 찾아온 사단장이 모믜쉬—울릐에게 파쑈놈들을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대원들이 놈들을 직접 보게 하여 용감성을 키워주라고 충고한다.

대대에서는 일람표를 작성하고 한개 분대씩 적들에 대한 정찰에 내보낸다.

직접 파쑈놈들을 제눈으로 보고 돌아온 많은 대원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며 원쑤들을 족치고싶은 욕망에 가슴 불태운다.

모믜쉬—울릐는 이번에는 대담하게 적을 한번 족치기로 결심한다.

정찰조에 의한 세밀한 사전정찰에 기초하여 놈들의 후방거점을 들이칠 계획을 세운 그는 전투에 나가는 대원들에게 말한다.

《동무들, 어서 가서 적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물건인가 한번 알

아보시오. 총탄에 너부러진 놈들의 몸뚱이에서 피가 흐르는가? 총창에 찔리운 놈들이 비명을 지르는가? 어서 가서 놈들이 비명을 지르고 땅을 허비게 하시오.》

습격전에 나갔던 대원들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다.

대대안에는 웃음이 그칠줄 모르며 그것으로 병사들의 공포증도 사라진다.

제일 무서운 적이였던 공포심은 일단 사라졌으나 모믜쉬－울릐의 심중은 여전히 복잡하다.

파쑈놈들은 막대한 병력과 강한 포화력으로 우리의 방어선을 단숨에 돌파하려고 할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채 모믜쉬－울릐는 사단장의 호출을 받고 사단지휘부로 올라간다.

습격전투에 대해 듣고난 빤필로브는 그와 함께 대대방어진을 연구한다.

사단장은 대대와 적들사이에 있는 16㎞의 중간지대에 배치된 전초기지들을 증강할데 대하여 툉겨준다.

《동무는 〈사슴이 다니는 곳이면 병사가 다닐수 있고 병사가 다닐수 있는 곳이면 군단이 다닐수 있다.〉고 생각하오? 아니요. 그놈들은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라야 군단이 지난단 말이요.》

빤필로브는 전초기지에서 도로를 장악하고 놈들을 두들겨패다가 필요한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 빠져나오는 전술로 싸울것을 지시한다.

《모믜쉬－울릐동무, 지금 우리의 과업은 시간을 쟁취하는것이며 적에게서 시간을 앗아내는것이요.》라고 그는 강조한다.

대대로 돌아온 모믜쉬－울릐는 즉시 돈스끼흐중위와 부르드늬중위를 책임자로 하는 두개의 강력한 소대들을 전초기지로 떠나보낸다.

그들의 임무는 도로를 따라 전진하는 적을 공격하여 놈들이 자주 분산되도록 하는것이다.

10월 20일 드디여 적들은 그들앞에 나타난다.

전초기지는 적의 척후들을 통과시킨 다음 뒤따라오는 화물

자동차종대에 강한 불벼락을 안긴다. 불의의 타격에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던 파쑈놈들은 점차 정신을 수습하고 그들을 공격해온다.

전초기지는 저녁무렵까지 적들을 견제하다가 어둠을 리용하여 다음진지로 빠져나온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놈들의 전진을 지체시킨다.

10월 23일에야 적들은 중간지대를 통과하여 대대방어선앞에 나타난다.

적들은 아침부터 수백문의 포를 동원하여 강기슭의 방어진지들에 맹렬한 포화력을 들이댄다. 그러나 놈들의 그 숱한 포탄들은 대대가 만들어놓은 허위진지들에 쏟아진다.

오랜 포사격끝에 돌격을 시도하던 적들은 출발진지에서 대대포병들의 집중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적들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돌격해온다. 가렬한 전투끝에 10월 23일 밤 대대의 익측이 돌파당한다.

파쑈놈들은 무방비상태의 들판으로 해서 대대의 옆과 뒤로 접근한다. 대대앞에 위험이 닥쳐온다.

어떻게 할것인가. 적들이 그렇게도 노리는 큰길이 있는 노블랸스꼬예마을을 내여주어야 한단 말인가.

마을을 내주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대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대를 보존할수가 없다.

(좋다! 우선 대대를 보존하자. 그다음에 길이 누구의것이 되겠는지는 두고보자!)

모믜쉬―울릐는 자기의 결심을 참모장에게 알려주고 포들을 새로운 방어선으로 될 수림으로 옮기도록 한다. 그는 중기사수들에게 대대의 익측을 엄호할것을 명령하고 마을로 달려간다.

마을에서 싸우고있는 전투원들은 배후에서 울리는 총소리에 당황하였지만 누구도 달아나지 않고있다. 련대선전원과 중대당비서를 비롯한 핵심들이 그들을 뭉치게 하고있었던것이다.

모믜쉬―울릐는 직접 소대를 이끌고 수림속으로 이동하는 대대를 엄호한다.

파쑈놈들은 쓰러지면서도 그들을 포위해보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든다.
사람들을 반돌격에로 일떠세울 순간이 왔음을 느낀 소대장 부르나쉐브중위가 벌떡 일어선다.
《조국을 위하여! 쓰딸린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던 그는 그만 적탄에 쓰러진다. 중대당비서인 전사 부께예브가 뒤를 이어 뛰쳐일어나지만 그 역시 피흘리며 쓰러진다.
긴장한 1분1초가 흐를 때 분노에 찬 고함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퍼진다.
《공산주의자들! 조국을 위하여! 쓰딸린을 위하여! 만세—에!》
련대선전원 똘스뚜노브의 이 부름은 전사들을 일으켜세운다. 그들은 사나운 함성과 격노로 이그러진 얼굴로 파쑈놈들을 향해 돌격한다.
적의 공격은 좌절되였으나 대대는 놈들의 포위속에 있게 된다.
사방에서 적들의 신호탄이 어두운 밤하늘에 련속 날아오른다.
대대참모장 라히모브가 이미 대대의 완전철수준비를 해놓고있었지만 대대는 철수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명령이 없이는 철수할수 없다!)
이렇게 결심한 모믜쉬—울릐는 대대에 있는 다른 부대성원들이 전부 사단을 찾아 떠날것을 명령한다. 사단에서는 한명의 전투원도 귀중한것이다. 그들과 함께 정찰병들도 보낸다.
대대는 수림속에 들어가 방어선을 펼것이다.
모믜쉬—울릐는 마을에 들어온 적들에게 직접조준으로 포사격을 들이댈것을 명령한다.
그 포성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웨치듯 힘있게 울린다.
우리를 공격하라! 우리한테로 돌아서라! 우리한테 포신을 돌리고 보병을 돌리라!
대대는 수림변두리를 따라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들과 싸울 준비를 갖춘다.
다음날 아침 드디여 정찰병들이 련대장의 철수명령을 가지고 돌아온다.

대대는 약속한 장소에서 마중나온 련대의 참모군관과 상봉한다.
그런데 그들이 숨겨두고온 포와 포탄들을 날라오는 사이에 정황이 급변한다. 적들이 또다시 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한것이다.
포운반대렬이 도착하였을 때 대대는 이미 적의 배후에 있게 된다.
대오내에 혼란이 일어난다. 주모자는 즉시 처단된다.
대대는 적의 삼각형포위속에 들어있는 상태이다.
포장도로를 따라 적땅크들이 지나간다. 그뒤로 놈들의 공격부대들과 보조부대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간다.
모믜쉬－울릐는 강한 포화력으로 적의 행군종대들을 타격할것을 명령한다.
도로에서의 교통이 마비된다.
포들은 갈팡질팡하는 적의 무리를 향해 계속 불을 토한다. 수림반대쪽에 배치된 포들도 수림속 길이 있는 마을에 강한 불벼락을 안긴다.
놈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옴짝 못하게 된다. 파쑈놈들은 할수없이 전선으로 향하였던 많은 포와 보병들을 대대를 제압하는데로 돌린다.
그러나 대대는 수림에 의거하여 여전히 포화력으로 도로를 장악한다.
밤에 사단장이 파견한 련락군관이 철수명령을 가지고 찾아온다.
대대는 마지막으로 적들에게 강한 포사격을 안긴 후 수림속을 따라 철수한다.
아침녘에 대대는 커다란 숲속의 공지에 이른다.
그런데 너비가 1㎞가량 되는 공지로 통한 길로는 파쑈놈들을 가득 태운 자동차행렬이 지나가고있다. 그 행렬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전투를 진행할것인가? 그러나 포탄도 거의 떨어지고 탄약도 모자란다. 밤을 기다릴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필경 적들은 대대가 철수한것을 알아차리고 뒤쫓아올것이다. 대대는 적들과 오랜 시

간 화력으로 대응할수 없다.

모믜쉬-울리는 행군종대의 적들이 아직 자기들을 발견하지 못한 틈을 리용하여 공지를 돌파할것을 결심한다.

그의 계획은 이러하다.

대대는 반원형으로 렬을 짓고 그안에 수레들과 포들을 넣는다. 대대는 대형을 유지하면서 평보로 전진한다. 보총들은 명령에 따라서만 일제사격을 진행한다.

모믜쉬-울리는 즉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긴다. 자신과 군관들이 대렬의 맨 선두와 끝에 선다.

대대는 수림속에서 공지로 나온다.

파쑈놈들은 그들을 보는 첫순간 어리둥절해진다. 수림속에서 나타난 수백명의 붉은군대병사들이 총창을 비껴들고 달려오는것도 아니였고 그렇다고 하여 투항하러 오는것도 아니였던것이다.

드디여 놈들도 정신을 차리고 헤덤비기 시작한다.

이때 《쏴!》 하는 사격구령이 내린다.

700정의 보총의 일제사격소리는 수림속공지를 뒤흔든다.

넋을 잃은 놈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도 쳐들지 못한다.

대대는 규칙적으로 일제사격을 진행하면서 공지를 통과한다. 맞은켠 수림에 가닿았을 때에야 적의 땅크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놈들은 포사격을 받자 도망치고만다.

드디여 대대는 월로꼴람스크에 들어선다.

사단장을 만나서야 모믜쉬-울리는 자기들이 한 일 즉 수림속의 도로교차점에서 적들을 타격한것이 사단의 방어작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가를 알게 된다. 대대의 공격으로 하여 병력을 제때에 보충받지 못한 적들은 며칠동안 공격을 제대로 진행할수 없었던것이다.

파쑈군대는 앞으로 전진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패배하고있다. 월로꼴람스크부근의 전투들에서 적들은 약 15만명의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더 중요하게는 두주일이라는 시간을 잃은것이다.

빤필로브사단을 비롯한 방위자들이 쟁취한 그 두주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에 쏘련은 원동의 새로운 부대들을 모스크바방어전에 인입할수 있었던것이다. …

가렬한 모스크바방위전투의 한 토막을 보여준 중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에서 작가가 주요하게 이야기하고있는것은 지휘관들의 정치도덕적풍모와 군사적자질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가는 대대장 모믜쉬－울릐와 사단장 빤필로브의 형상에 각별히 힘을 넣고있다.

그러면 작가가 보여주자고 한 혁명군대 지휘관의 풍모와 자질은 어떤것인가.

모믜쉬－울릐와 빤필로브의 형상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그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높은 충실성, 병사들에 대한 강한 요구성과 무한한 사랑,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성과 능란한 전투조직능력이다.

특히 모믜쉬－울릐의 성격형상을 통해 작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이야기하고있다.

직접 손에 총을 잡고 원쑤와의 싸움에 나선 병사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충실성은 무엇보다 중요한것이다.

모믜쉬－울릐는 바로 이것을 병사들의 심장속에 심어주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며 자신의 실천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준다.

어제날의 평범한 로동자, 꼴호즈원, 사무원들이였던 병사들에게 그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총을 잡았는가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였을지라도 조국을 반역한자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철추를 내린다.

조국에 대한 충실성, 혁명군대의 모든 정신도덕적우월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기초이며 전제인 열렬한 조국애, 바로 이것이 모믜쉬－울릐의 성격적매력이며 중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의 사상예술적특성이라고 볼수 있다.

——— ❖ ——— ❖ ———

《안됩니다.》 바우르드쟌 모믜쉬－울릐는 딱 잘라 말하는것이였다.

《난 당신께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이야기나 들어가지고 전쟁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참지를 못합니다.》

《어째서요?》

그는 물음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당신은 사랑이란 어떤것인지 압니까?》

《알고있습니다.》

《전쟁전까지는 나도 알고있다고 생각했지요. 나는 녀자도 사랑해봤고 애정으로 속태운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투마당에서 생겨나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습니다. 가장 강한 사랑, 가장 격렬한 증오는 전쟁에서, 싸움터에서 생겨나는것입니다.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상상도 못하지요. 그럼 내부투쟁이 어떤것인지, 량심이 어떤것인지 당신은 안다고 생각합니까?》

《알지요.》

나는 좀 자신이 없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공포와 량심, 이 두개 감정이 어떻게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지를 당신은 알지 못할것입니다. 가장 사나운 짐승도 이 두개 감정처럼 무섭게 싸우지는 못할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량심이나 남편의 량심 같은것은 알수도 있겠지만 병사의 량심은 모를것입니다. 당신은 적의 화점에 수류탄을 던져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그러면서 어떻게 량심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까? 중대와 함께 공격전에 나선 병사가 있다고칩시다. 적들은 기관총으로 마

구 갈겨댑니다. 옆에서는 전우들이 쓰러집니다. 그래도 병사는 줄곧 기여나갑니다. 한시간, 60분이 흘러갑니다. 1분, 60초가 흘러갑니다. 이 매초마다에 그는 백번도 죽을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여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병사의 량심이지요. 그럼 기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기쁨이란 무엇인지 알고있습니까?》

《아마 그것도 모른다고 하는편이 옳겠지요.》

나는 대답하였다.

《옳습니다. 사랑의 기쁨 그리고 아마 창작의 기쁨은 당신도 알것입니다. 당신의 안해는 모성의 기쁨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을 때려부신 기쁨, 전투위훈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가장 강하고 가장 뜨거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를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런것들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꾸며댈 작정입니까?》

탁상에는 빤필로브사단 전투원들에 대한, 바우르드쟌 모믜쉬－울릐가 지휘한 바로 그 전투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잡지가 놓여있었다.

그는 성난듯이 잡지를 잡아채서는 등잔불결에 가져다대고 벌컥벌컥 몇장 번져 펼쳐진 페지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팽개치고말았다.

《못읽겠습니다!》그는 부르짖듯이 말하는것이였다.

《전쟁판에서 나는 잉크가 아니라 피로써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책을 읽은 다음부터는 꾸며낸 이야기를 읽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글을 써낼수 있습니까?》

나는 론쟁을 걸려 하였으나 바우르드쟌 모믜쉬－울릐는 고집불통이였다.

——— ❖ ——— ❖ ———

《그렇습니다. 전투에서는 희생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전투원으로서 희생되는 사람은 고향에서도 잊지 않을것입니다. 아들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조국전쟁의 영웅이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다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군인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을 죽이기 위하여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가하여 군인의 의무를 다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역시 조국전쟁의 영웅으로 불리울것입니다. 영웅! 얼마나 자랑스럽고 값높은 부름입니까! 우리 정직한 전사들은 그 영광의 진가를 맛보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너는(나는 또다시 바람바예브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명예도 량심도 없이 짐승의 주검처럼 여기에 나딩굴게 될것이다. 너의 아이들은 너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것이다.》

《용서하십시오. …》

바람바예브가 까자흐말로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그래, 아이들 생각이 나느냐? 그들은 변절자의 자식이 되였다. 그들은 너때문에 얼굴을 못들게 되였고 네가 아버지였다는것을 숨기지 않을수 없게 되였단 말이다! 너의 처는 대렬앞에서 총살된 비겁분자, 변절자의 과부로 될것이다. 그리고 너의 처로 된 그 불행한 날을 공포속에서 회상하게 될게다. 우리는 너에 대해서 고향에 편지를 써보내겠다. 우리들 손으로 너를 처단하였다는것을 모두가 알게 할테다.》

《용서하십시오. … 나를 전투장으로 보내주십시오. …》

바람바예브는 이 말을 똑똑치 않게 하였으나 모두가 다 그의 말을 알아들은것 같았습니다.

《안된다!》 나는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투장으로 나갈것이다! 전대대가 전투장으로 나갈것이다. 내가 대렬에서 불러낸 이 전사들을 보느냐? 그들을 알

아보느냐?
이것은 네가 지휘하던 분대이다. 그들도 너와 함께 도망쳤댔지만 돌아왔다. 때문에 그들은 싸움터로 나갈 영예를 박탈당하지 않았다. 너는 성실한 병사처럼 그들과 함께 생활했고 한가마밥을 먹었고 한외투를 쓰고 나란히 누워잤다. 그들은 싸움터로 나갈것이다. 블로하도 갈리울린도 도브랴꼬브도 무린도 모두 전투장으로 나갈것이다. 총탄과 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투장으로 나갈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주자인 너를 먼저 총살해버릴것이다!》
그리고나서 나는 구령을 내렸습니다.
《분대, 뒤로 돌앗!》
순식간에 얼굴이 새파래진 전사들이 돌아섰습니다. 나는 내 얼굴도 싸늘해지는것을 느꼈습니다.
《붉은군대병사 블로하! 변절자의 외투를 벗길것!》
블로하는 침울하게 바람바예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바람바예브의 붕대를 감지 않은 바른손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호크를 벗기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생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강한것 같았던 그에게서 생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던 까닭입니다. 그는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것이였습니다.
외투를 벗겼습니다. 블로하는 그것을 내던지고 분대로 돌아갔습니다.
《변절자, 돌아섯!》
마지막으로 애원의 눈길을 나에게 던지면서 바람바예브가 뒤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구령을 내렸습니다.
《비겁분자, 조국반역자, 선서위반자를 향하여… 분대…》

중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중에서

작가소개

# 알렉싼드르 베크

이전 쏘련의 작가 알렉싼드르 알프레도비츠 베크(1903－1972)는 싸라또브의 군의가정에서 태여나 공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1919년부터 문필활동을 시작한 그는 1934년에 첫 중편소설 《꾸라꼬》를 발표하여 작가로서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였다.

그후 그는 로동계급의 창조적로동과정을 그린 소설집 《용해공들》(1946), 장편소설 《젊은이들》(합작, 1954)과 발명가의 형상을 창조한 장편소설 《베레쥬꼬브의 생애》(1956)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중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와 그 속편들을 하나로 묶은 장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이다.

1944년에 중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를 발표한 작가는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60년에 속편들인 중편소설 《며칠간》과 《빤필로브장군의 예비대》를 썼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쏘도전쟁시기 가장 어려웠던 모스크바방위전투의 나날들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도저히 잊을수 없었고 또 그것을 후대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하겠다는 공민적자각때문에 이 작품들을 썼다고 한다.

장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는 등장인물들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성격창조와 다양한 묘사수법의 능숙한 활용, 째인 줄거리구성으로 하여 그리고 전쟁의 진실과 그속에서 발현되는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꾸밈없이 그린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으며 쏘도전쟁주제의 소설문학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 며 칠 간

중편소설 《며칠간》은 장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의 두 번째 부에 해당되는 작품으로서 작가 알렉싼드르 베크가 1960년에 창작한 소설이다. 소설은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온 모믜쉬—울릐의 대대가 1941년 10월 26일부터 11월초까지의 며칠동안에 겪는 생활과 투쟁과정을 펼쳐보이면서 혁명군대의 명예는 과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를 인상깊게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에는 사단장 빤필로브와 대대장 모믜쉬—울릐, 대대참모장 라히모브, 1중대 정치지도원 도르지야, 2중대장 자예브, 련대장 흐릐모브, 군의 벨렌꼬브 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설은 바우르드쟌 모믜쉬—울릐가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쓴 소설초고를 보고나서 작가에게 그후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것으로 시작된다.

…적의 포위를 뚫고 월로꼴람스크에 다달은 대대는 사단의 예비대로 넘어간다.

여러날째 계속된 전투와 행군으로 지칠대로 지친 대원들은 오래간만에 목욕도 하고 뜨뜻한 방안에서 휴식도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대대군관들이 전투성과를 축하하여 축배를 들려고 하는 순간 사단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다.

모믜쉬—울릐가 사단지휘부에 들어서니 군단부사령관이 직접 사단에 내려와 사단장을 호되게 꾸짖고있다.

그날 도이췰란드군의 거듭되는 맹공격으로 빤필로브사단의 우익이 돌파당한것이다. 적들의 앞에는 월로꼴람스크로 가는 곧은 길이 열리게 된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사단에서 그 방향에서의 적들의 움직임

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쥐고있지 못한것이다.
사단장 빤필로브는 모믜쉬－울릐에게 월로꼴람스크전방에 있는 이완꼬보촌과 그 주변 고지들을 차지하고 견지할것을 명령한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나도 모르고있소. 아마 동무자신이 결심을 채택하여야 될거요. 대담하게 처리하시오. 난 동무를 믿소.》
대대는 즉시 비상소집을 하여 이완꼬보마을로 진출한다.
대대는 비에 젖어 질적거리는 촌길을 따라 어둠속으로 행군해간다.
도중에 행군방향을 변경하여 찜꼬보촌으로 가라는 명령이 전달된다. 그때부터 대대는 흐릐모브련대에 일시 배속되여 싸우게 된다.
급히 1중대를 찜꼬보촌으로 파견하였으나 마을은 이미 적들이 차지하고있다.
적들과의 전투에서 1중대장은 전사하고 병사들은 어둠속에서 사방으로 흩어져버린다.
흩어진 병사들을 집결시킨 모믜쉬－울릐는 뒤이어 도착한 2중대와 함께 또다시 마을을 공격하지만 진흙탕에 의해 총들이 못쓰게 된것으로 하여 공격은 실패한다.
대대는 일시 공격을 중지하고 무기소제를 하면서 진지들을 구축한다.
다음날인 10월 27일 날이 밝자 모믜쉬－울릐는 대대가 적들속에 포위되여있다는것을 깨닫는다. 사방에 다 적이다.
그는 즉시 대대를 마을에서 철수시켜 언덕릉선과 강기슭에 방어진을 편다.
이날 오전에 적들은 드디여 월로꼴람스크시내에로 진입한다.
모믜쉬－울릐는 쌍안경으로 파쑈땅크들과 군용화물자동차들이 사단지휘부가 있던 도시의 한쪽 끝으로 몰려가는것을 보게 된다.
그는 자기 대대가 놈들의 길목을 막고 시간을 빼앗아 사단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대는 즉시 원형방어진을 구축하고 파쑈놈들과 전투를 진행

한다.

이때 련대참모부로 련락을 갔던 부르드늬중위가 련대가 이미 철수해버렸다는 뜻밖의 소식을 가지고온다.

모믜쉬－울릐는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떠나가버린 흐릐모브련대장에 대한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대대에 후퇴명령을 내린다.

대대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규정대로 조직적인 철수를 진행한다.

마침내 대대가 수림속에 이르고 휴식구령이 내리자 전사들은 모두 쓰러지듯이 땅에 주저앉아버린다. 비상소집을 한 때로부터 이틀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적들과 싸워왔던것이다.

모믜쉬－울릐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담배곽을 병사들에게 내민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사양하며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 전사들의 뜨거운 존경과 사랑의 정을 느낀 모믜쉬－울릐도 차마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대대는 수림속을 뚫고나와 드디여 흐릐모브련대와 합류한다.

련대부참모장은 대대를 만나자마자 또다시 새로운 방어지점을 지적해준다.

그때 대대의 모든 전투원들은 굶주리고 지치여 쓰러진 상태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엿! 나란히!》하는 구령소리에 다시금 일떠나서며 자기들에게 맡겨진 방어지점을 향하여 행군해간다.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고통을 완강한 의지로 견디여나간다.

대대는 진지를 차지한다.

그러나 련대에서는 약속한 탄약과 식량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련대에서는 겨우 탄약 몇상자와 삶은 고기 두바께쯔를 보내여온다.

그 고기를 몇끼씩이나 굶은 거의 500명의 대대군인들이 나누어먹는다.

10월 28일 대대는 새로운 진지에서 다시 적들과 맞선다.

파쑈놈들은 강력한 포화력의 지원밑에 달려든다. 몰방으로 퍼붓

는 놈들의 자동총사격에 전사들은 머리도 제대로 들수 없는 형편이다.

놈들의 공격을 격퇴하던 대대의 포들은 미처 자리를 옮길 사이도 없이 놈들의 집중포사격에 괴멸된다.

중대들에서도 희생자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러나 대대는 자기의 방어선을 완강히 지켜낸다.

파쑈놈들은 대대의 익측을 우회하여 대대를 포위하기 시작한다. 뒤쪽에도 적들이 나타난다.

놈들은 6신박격포로 대대지휘부를 때린다.

놈들의 포사격에 얼이 나간 대대장의 말이 고삐를 끊고 달아난다.

《대대장이 달아난다!》

일부 대원들이 도망치기 시작한다.

대대의 방어가 무너지는가 하는 순간 모믜쉬-울릐는 비발치듯 하는 총탄속을 뚫고 달려나가 전사들을 멈춰세운다.

대대는 원형방어를 조직하고 날이 어둡기를 기다린다.

날이 어두워지자 대대는 숲이 덮인 골짜기를 따라 포위를 뚫고나온다.

행군도중에 그들은 련대참모부가 자리잡았던 토굴에 들리게 된다.

련대참모부는 서류들까지도 내버리고 등불조차 끄지 못한채 황급히 후퇴한 상태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모믜쉬-울릐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중좌동무, 당신과 다시 만날 날이 있을거요. 과연 그때에도 당신은 나의 눈을 똑바로 볼수 있으리만큼 량심이 떳떳하겠는지.)

대대는 또다시 행군을 계속한다.

포성은 이미 그들이 가야 할 방향에서 울려오고있다.

대원들은 그 포소리를 들으면서 맥없이 걸어간다. 누구도 어깨를 쭉 펴고 걸을념을 못한다. 후퇴의 길을 걷는 병사들의 눈에는 헤아릴수 없는 슬픔이 어려있다.

그러나 그 우울한 얼굴로 걸어가는 병사들이 바로 원쑤놈들을 죽

음과 공포에 몰아넣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등에 진 병사의 배낭뿐아니라 자기들의 기치에 대한 충실성, 혁명전통과 군사적의무, 도덕과 명예, 쏘베트헌법에 대한 충실성을 심장에 지니고 걸어가고있다. 새로운 싸움을 위하여.
점심때가 되여 휴식이 선포되였을 때 기관총중대 정치지도원 보좌노브가 모믜쉬－울릐에게로 급히 달려온다. 선량하던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어려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악싸깔.》(악싸깔－까자흐말로 《흰 턱수염》이라는 뜻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집안의 웃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그는 부상병들을 실은 마차가 대오에서 떨어졌는데 군의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있다고 말한다.
모믜쉬－울릐는 격분한다.
(대대가 이렇게까지 비렬해졌단 말인가? 부상병들까지 내버리고 오게 되였단 말인가?)
그는 즉시 위생소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소리친다.
《벨렌꼬브, 일어섯!》
군의 벨렌꼬브는 대위이고 모믜쉬－울릐는 상위이다. 그러나 격분한 그의 목소리는 벨렌꼬브대위로 하여금 일어서지 않을수 없게 한다.
《부상병들이 어디 있소? 위생마차가 어디 있느냐 말이요?… 수치스럽소. 피를 흘린 동지들을 배반하다니. …》
지쳐 쓰러졌던 병사들이 모여든다. 모두가 모믜쉬－울릐를 바라본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는가, 당신은 왜 우리에게 병사의 의무대로 행동할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하고 묻는것만 같다.
모믜쉬－울릐는 결심한듯 명령을 내린다.
《동무들! 군의 벨렌꼬브대위는 우리 부상병들을 버리고 왔습니다. 위생마차가 어딘지 저뒤 숲속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대대가 다 함께 갑시다.》
대대는 지나온 흔적을 따라 되돌아선다. 입의의 순간에 도이

퀄란드놈들과 맞다들릴수도 있다는것을 모두가 잘 알고있었지만 그들은 가고 또 간다.

한시간반가량 걸었을 때 대대는 드디여 뒤떨어졌던 부상병들과 만난다.

부상병들을 돌보던 준의 끼레예브가 대대장을 보자 기뻐하면서도 죄송스럽게 말한다.

《대대장동지, 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중상자인 1중대 정치지도원 도르지야는 또 이렇게 말한다.

《대대장동지, 전 알고있었습니다. 대대장동지가 꼭 되돌아오리란것을.》

모믜쉬—울릐는 전체 대대를 수림속의 공지에 모이게 하고는 벨렌꼬브군의를 대렬앞으로 불러내여 위생병으로 강직시킨다.

그후 이 사연을 빤필로브에게 보고하면서 모믜쉬—울릐는 이렇게 말한다.

《소장동지, 저는 고등의학교육에 대해서 떠벌이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위생병으로 복무하라, 불속에서 부상병을 끌어내라, 자기 의무를 성실히 집행하라, 그때에는 고등의학교육이 당신의 몸에 밸것이다.— 대위표식을 떼고 병사들속으로 들어가서 고등의학교육을 받으라고 하고는 철직시켰습니다.》

빤필로브는 빙긋이 웃으며 그를 본다.

《모믜쉬—울릐동무, 동무는 아마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인지를 아직 잘 모를거요. 보고를 쓰시오! 나는 그대로 승인해줄것을 나의 립장에서 군단사령관에게 부탁하겠소. …》

이렇게 대대는 적후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면모를 잃지 않고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10월 31일 드디여 사단에 돌아온다.

모믜쉬—울릐는 빤필로브가 구상하는 새로운 작전토의에 참가한다. 작전토의를 마치고 코노래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으로 대대를 향해 말을 달리는 그의 심중의 말로 소설은 끝난다.

《나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대대를 나의 집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중편소설 《며칠간》에서 작가는 세편의 중편소설들로 구성된 장편소설 《월로꼴람스크대로》의 총적주제에 충실하면서도 혁명군대의 명예문제에 력점을 찍고있다.

혁명군대의 명예는 과연 어떻게 지켜지는가?

작가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모믜쉬－울릐의 형상을 통하여 주고있다.

대대를 언제나 《나의 집》이라고 부르는 모믜쉬－울릐, 그는 한 전호에서 싸우는 대원들모두를 피를 나눈 형제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생사를 같이해야 할 귀중한 전우로 여긴다.

이러한 성격은 작품의 모든 요소에서 확연히 드러나며 특히 《벨로모르》담배 마지막곽세부와 뒤떨어진 부상병들을 찾아 행군대오를 되돌려세우는 모습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참다운 동지애가 없다면 그 무슨 혁명군대이랴. 동지애를 떠나선 그 어떤 단결도 승리도 생각할수 없으며 바로 그 단결과 승리에 혁명군대의 참다운 면모가 있고 명예가 있는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주장을 안고있는 모믜쉬－울릐의 성격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의 성격형상에 련대장 흐릐모브와 군의 벨렌꼬브의 형상을 대치시키고있다.

련대장 흐릐모브는 자기 련대에 배속된 모믜쉬－울릐대대의 운명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가렬한 싸움마당에 그의 대대를 내버려둔채 몇차례나 저희끼리 철수를 하며 대대의 생사여부를 알아봄이 없이 괴멸된것으로 속단하고 제멋대로 련대에서 제명해버린다.

군의 벨렌꼬브, 그는 행군도중 자기가 맡은 부상병들을 내버리고 저혼자 부대를 따라오며 부상병들을 실은 위생마차의 행처를 묻는 모믜쉬－울릐에게 《난 마차수가 아니여서… 모릅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자기를 위생병으로 철직시키는 모믜쉬－울릐에게 자기는 고등의학교육을 받았다고, 인민위원부만이 자기를 철직시킬수 있다고 들이대기까지 한다.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며 대대와 전우들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도 않는 이런 인간들을 작가는 모믜쉬—울릐의 입을 빌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량심의 불구자》로 락인하고있다.

훈련의 날에는 눈비를 함께 헤쳤고 싸움의 나날에는 불비를 함께 헤치는 전우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자기 대대, 중대, 소대를 정든 《나의 집》, 《나의 대학》으로 여길 때 혁명군대의 명예는 승리로 더욱 빛나게 됨을 보여준다는데 이 작품의 주되는 의의가 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군의 벨렌꼬브는 비겁하게도 군인의 영예를 더럽혔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부상병들을 내버리고 왔습니다. 이 용서할수 없는 범죄를 범했기때문에 그를 현재직무에서 철직시킵니다.

그는 쏘베트의 군관, 쏘베트군의의 칭호를 지닐 자격이 없습니다. 벨렌꼬브! 령장을 뗄것! 위생가방도 벗어놓고 일체 장구를 벗어놓소.》

그는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당신은…》

《닥쳐! 끼레예브! 이리 나오시오. 보총을 벨렌꼬브에게 넘겨주시오. 끼레예브, 당신이 위생소대를 지휘하시오. 그리고 이 비겁한 인간은 위생병으로서 직접 부상병들을 메여나르게 하시오. 벨렌꼬브! 명령을 집행할것! 령장을 뗄것!》

벨렌꼬브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는… 고등의학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철직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인민위원부만이 나를 철직시킬수 있습니다.》

사실 규정대로, 법대로 한다면 나에게는 그를 철직시킬 권리가 없었습니다. 더우기 벨렌꼬브는 대위였으나 나는 겨우 상위의 령장을 달고있을뿐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차렷자세를 취하고

벨렌꼬브의 눈을, 비겁분자의 불안하게 돌아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소. 우리들, 450명의 쏘베트군인들은 우리 군대로부터 떨어지게 되였소. 우리 대대는 하나의 섬과 같소. 놈들의 점령지대에 있는 쏘베트의 섬이란 말이요. 이 섬에서 최고권력은 나에게 속해있소. 대대장인 나는 지금 여기서 전체 쏘베트국가주권을 대표하고있소. 나는 여기서…》 나는 말을 계속해나갔습니다.

《여기서 나는 쏘베트무력의 최고지휘관이요. 도처에 적들이 욱실거리는 이 한쪼각 땅에서, 나는 여기서…》 나는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다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쏘베트주권이요! 우리 군대로부터 떨어진 대대의 대대장인 나는 바로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가련한 비겁분자인 너는 나에게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가. 나는 너를 철직시킬뿐아니라 선서를 위반한 죄로 총살할수도 있고 갈가리 찢어놓을 권리도 가지고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쏘베트인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왔는가. 그들은 쏘베트사람이란 강요의 압착기에 눌리운 사람들로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명령과 강제수단에만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왔소. 그런데 전쟁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빤필로브는 아마 이런 문제들을 마음속으로 오래동안 생각해온 모양이였습니다. 나는 오늘 소장에게 보고하면서 쏘베트인간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마음에 드는 적당한 표현을 찾아내지 못하여 얼마나 안타까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빤필로브가 이에 대하여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전쟁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도이췰란드놈들은 지금까지

우리 방어선을 여러번 돌파했소. 이런 조건에서 우리 부대들, 개별적인 중대들과 지어 소대들까지도 통신과 지휘체계를 잃어버리고 고립된 상태에 있게 되였소. 간혹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은 무기를 집어던진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그런 조건에서도 도이췰란드놈들을 맞받아 싸웠소! 한편으로 보면 비조직적인듯한 그러한 저항이 놈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주었는지 그것은 헤아릴수 없을것이요. 자기 지휘부와 떨어져있으면서도 당의 교양을 받은 쏘베트사람들은 자기자신이 스스로 결심을 채택하였소. 명령이 없이도 오직 자기자신의 신념에 의하여 행동하였던것이요. 동무네 대대의 례만 보아도 그렇소. 정치지도원 도르지야에게 누가 명령하였는가?》

빤필로브는 내가 쓴 도르지야의 표창내신서를 끌어당기더니 또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장은 벌써 그 대목을 두번째로 조용히 읽었습니다.

《중대장도 없어지고 통신도 끊어지자 자기자신의 결심으로…》

빤필로브는 종이장을 밀어놓고 손가락을 뗐습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말할수도 있지.》하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특별한것이 있느냐고 말이요. 그렇소. 바로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수천수만건이 있었소.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중심고리가 있단 말이요. 혼자서 도이췰란드놈들과 격투를 한 동무네 찌모쉰을 생각해보오! 그리고 떨어진 부상병들과 함께 남았던 동무네 그 준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그런데 무슨 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의 신념, 그들자신의 정신적인 신념때문이였소. 모믜쉬－울릐동무, 동무자신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그렇소.》

빤필로브는 머리를 저으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중편소설 《며칠간》중에서

# 빤필로브장군의 예비대

이전 쏘련의 작가 알렉싼드르 베크가 1960년에 창작한 중편소설 《빤필로브장군의 예비대》는 장편소설 《윌로꼴람스크대로》의 마지막부로서 1941년 11월초부터 11월 23일까지의 모믜쉬－울릐대대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소설은 특히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모믜쉬－울릐의 대대가 5㎞나 되는 넓은 전선구간을 견지할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기본으로 보여주면서 지휘관의 높은 군사적자질 특히 불의의 정황속에서의 지휘관의 창발성과 결단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소설에는 사단장 빤필로브와 대대장 모믜쉬－울릐, 상급정치지도원 똘스뚜노브, 기관총중대 정치지도원 보좌노브, 중대장들인 필리모노브와 자예브, 군단부사령관 즈뱌긴중장, 이전 군의 벨렌꼬브 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소설은 앞선 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믜쉬－울릐가 작중설화자가 되여 자기 대대의 전투담과 사단장 빤필로브에 대하여 작가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여있다.

…1941년 11월초 벌써 이른 추위가 닥쳐온다. 모스크바근방의 전전선에 걸쳐 작전적인 휴식기가 계속된다. 쏘련군의 저항에 길이 막혀 모스크바로 진격할수 없게 되자 도이췰란드놈들은 새로운 진격을 준비하느라고 새 력량을 끌어들인다.

어느날 빤필로브가 전선에서 5～6㎞ 떨어진 제2제대에 배치되여 휴식하고있는 모믜쉬－울릐의 대대에 들린다.

그는 말로는 점심식사를 하려고 들렸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의 예비대 지휘관들을 만나보기 위해 찾아온것이다.

참모장이 중대장들을 데리러 간 사이에 빤필로브는 지도를 앞에

놓고 모믜쉬－울릐와 이야기를 나눈다.
빤필로브사단장은 대대앞에 예견되는 다섯개의 방어구역과 그곳에로의 행군로들을 지적해준다.
그는 지휘관들이 언제나 적의 의도를 파악하며 굳어진 전투수법에서 벗어날줄 알아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하면서 모믜쉬－울릐가 보고있던 전투규정책의 여백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원쑤를 소멸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을 처벌할것이 아니라 책임이 두려워 필요한 순간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승리를 얻기 위한데 리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주저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드디여 중대장들이 도착한다.
병사들의 후방보장상태와 휴식상태에 대해 묻고난 사단장은 중대장들에게 예비대인 대대의 임무를 알려주면서 소박한 전술상학을 진행한다.
그는 중대장들에게 각이한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스스로가 모든 구역을 다 포괄하는 선형방어형식에서 벗어나 중요한 지탱점들만을 견지하는 중점방어형식을 터득하도록 유도한다. 그는 지휘관들이 적들에게 포위된 정황속에서도 자기의 임무를 명확히 리해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날 사단장은 땅크습격조조직문제, 기관총과 대포의 배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고서야 대대를 떠난다.
대대는 2～3일동안 자기의 임무를 충분히 연구한다.
소대별로 다섯개의 행군로들을 다 걸어보면서 행군과 전개에 필요한 시간까지 면밀히 타산한다. 대대는 새로운 인원들로 증강되며 땅크습격조들도 조직된다.
며칠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모믜쉬－울릐는 사단장의 호출을 받는다.
빤필로브는 모믜쉬－울릐를 한동안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말한다.
《래일 11월 16일에 적들이 공격으로 이전하리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소. 모믜쉬－울릐동무, 진출하시오. 다섯번째 길로…》

월로꼴람스크대로에 있는 고류니촌과 다소 한옆으로 치우쳐져 위치하고있는 마뜨레니노촌가까이의 약간 언덕진 곳에 그 다섯번째 도로의 가장 중요한 교차점이 있고 철길도 감시초소가 있는 그곳을 건너가고있다.

빤필로브의 어조는 단호하다.

《나는 이 구역을 장악하려고 하오. 131.5고지도 차지하시오. 이런 식으로 동무는 고류니촌으로 가는 모든 길들을 좌측으로부터 차지하시오. … 놈들은 어디든지 돌파하여 동무네 대대쪽으로 진격해올것이요. 동무의 임무는 우리가 질서를 잡을 때까지 견지하는것이요. 모믜쉬―울릐동무, 20일까지 견지해야 하겠소.》

15일 날이 어둡기 전에 대대는 지적된 방어지점으로 이동한다. 중대들은 중요한 방어거점들인 131.5고지와 마뜨레니노역, 고류니촌을 차지한다.

그날밤 군단부사령관 즈뱌긴이 그들을 찾아와 엄엄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당원으로서 이 계선에서 비록 단 한걸음이라도 물러선다면 그것은 범죄로 될것이요. 반역적범죄란 말이요. 여기서 물러설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아예 버려야 하오. 대대 전체 성원들에게 이곳이 마지막계선이라는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하겠소.》

16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도이췰란드놈들은 전전선에 걸쳐 맹렬한 포사격을 진행한다.

파쑈놈들은 맹렬하고도 전면적인 포사격으로 저들의 주타격방향을 가리우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꾀한다.

그러나 다음날 놈들의 포사격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놈들의 포화력은 대도로가 있는 사단의 방어중심과 좌익에 집중된다. 그곳이 적의 주타격방향인것이다.

대낮이 가까와졌을무렵 드디여 대대의 방어전방에 적들이 나타난다.

놈들은 맹렬한 박격포사격을 가한 다음 공격을 시작한다.

중대들은 파쑈놈들을 바싹 접근시켜놓고 불의적인 일제사격으로 놈들을 쓸어눕힌다.

쫓겨간 놈들은 또다시 맹렬한 박격포사격을 가해온다. 놈들이 쫓겨가면서도 기관총좌지들과 사격좌지들을 정확히 정찰해간것으로 하여 피해는 더욱 크다.

또다시 공격과 후퇴, 박격포사격, 이 과정이 여러차례나 반복된다.

적들은 이전처럼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전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대신 강한 포화력으로 방어진지들을 하나씩 제압하는 전술로 나온다.

놈들의 포화력에 의해 많은 사상자들이 난다. 마뜨레니노역에서는 놈들의 박격포사격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며 131.5고지는 놈들에게 포위되여 련계가 끊어진다.

부상병들이 고류니촌으로 후송되여온다.

그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침통하다.

《만일 그렇게 견지한다면 그것은 견지하지 않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비통한 목소리를 듣는 모믜쉬－울릐의 심정은 복잡해진다.

어느 순간엔가 그의 뇌리에는 아무래도 철도역을 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아니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그의 귀전에는 《이 계선에서 비록 단 한걸음이라도 물러선다면 그것은 범죄로 될것이요. 반역적범죄란 말이요.》라고 하던 군단부사령관 즈뱌긴중장의 목소리가 들리는것만 같다.

(그렇다. 범죄의 길로는 갈수 없다! 비록 대원들을 잃고 진지를 지키지 못한다 해도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명예가 누구에게 필요한것인가. 만일 20일까지 견지하라는 명령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지금은 견지할수 없다! 그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전사들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보존할수 없다.

그는 이전에 빤필로브가 한 말도 생각한다.

《대대와 함께 죽을것이 아니라 전투를 10번, 20번, 아니 30

번을 해서라도 대대를 보존해야 하오.》
모믜쉬-울릐는 드디여 팔짱을 끼고앉아 결말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숲근처에서 화력으로 도로를 차단할것을 결심하고 마뜨레니노역을 방어하는 중대장 필리모노브에게 전화로 철수명령을 내린다.
《대대장동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놈들을 격퇴하고있고 앞으로도 더 견딜 각오인데 대대장동지는 후퇴하란 말입니까? 난… 난 못하…》
공산당원이며 국경경비대원출신인 필리모노브는 이렇게 항변해나선다. 사실 즈뱌긴은 바로 그에게, 그와 똘스뚜노브에게 그 계선에서 물러서는것은 범죄라는것을 상기시켰던것이다.
모믜쉬-울릐의 곁에서 전화내용을 듣고있던 상급정치지도원 똘스뚜노브가 말없이 마뜨레니노역으로 나간다. 명령은 즉시에 집행된다.
철도역을 적들에게 내주었다는것을 알게 된 군단부사령관 즈뱌긴은 대노하여 모믜쉬-울릐에게 대대를 인계하고 사단참모부로 올라오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다. 모믜쉬-울릐는 침착하게 전투를 지휘한다. 다리곁에 집결된 120명의 병사들은 대렬을 정비하면서 공격준비를 갖춘다.
적들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닭, 오리, 돼지를 사냥하기 시작한다. 전화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모믜쉬-울릐는 말한다.
《좀 기다립시다. …주둥이가 시뻘겋게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주둥이가 시뻘겋게 될 때까지!
중앙아시아에서는 맹금을 잡을 때 생고기를 던져주고 그놈이 고기를 찢어내여 욕심스럽게 먹게 놔둔다. 신선한 피에 취한 맹금은 부리를 더 깊이 들이박으며 마침내 코까지 다 그속에 밀어넣는다.
바로 그때 맹금을 덮쳐잡는것이다.
마뜨레니노를 강점한 적들은 점점 부리를 더 깊이 들이박는다.
드디여 돌격명령이 내린다. 마음놓고 략탈에 돌아치던 놈들은 절반이상이나 소탕되며 대대장놈은 나어린 신입병사의 손에 포

로된다. 기관총과 탄약, 모터찌클, 박격포, … 전리품들도 대단하다.

131.5고지의 자예브중대와도 통신이 회복된다. 그들도 불의적인 반공격으로 100여명의 적을 소멸하고 3대의 땅크와 대포, 견인차까지 로획한 상태이다.

대대의 분위기는 일변되며 승리자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모믜쉬－울릐는 자기를 언제나 말없이 도와주고있는 똘스뚜노브에게 극단한 경우 자기대신 대대를 맡아줄것을 부탁하고 전리품과 포로를 끌고 즈뱌긴의 명령대로 사단지휘부로 올라간다.

그를 반갑게 맞이한 사단장 빤필로브는 모스크바방위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사단에 근위칭호가 수여되였음을 알려준다.

모믜쉬－울릐는 사단장에게 전투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생명보다 귀중한 지휘관의 명예를 걸고 모험하기로 결심하였다는것, 명령은 어떻게 내렸고 똘스뚜노브가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었으며 반돌격이 어떻게 성공하였다는것, 즈뱌긴의 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냥은 물러설수가 없었고 또 그대로 견딜수도 없었습니다. 즈뱌긴중장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철직은 되였으나 그대로 저녁때까지 지휘를 했습니다.》

《흠… 그러니까 두개 전선에서 싸웠단 말이지? 한편으로는 적과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상급장관과 싸우고 말이요.》

모믜쉬－울릐는 전투규정책의 여백에 남긴 빤필로브의 글에 대하여 상기시키면서 진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소장동지는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저를 지휘하였습니다.》

빤필로브는 소리내여 웃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당신네 대대에 갔다왔단 말이지?》

그날은 진정 모스크바를 방위하기 위한 두번째 격전의 운명이 사전에 결속되였다고 볼수 있는 대중적영웅주의의 하루였던것이다.

모믜쉬－울릐에게는 여전히 사단이 다음번 방어계선을 차지할 때

까지 즉 11월 20일 새벽까지 5㎞의 전선구간을 견지하여야 할 임무가 남아있다.

저녁늦게야 대대로 돌아온 모믜쉬－울릐는 부대에서 리탈되여 대대의 방어선을 지나다가 자기를 찾아온 유라쏘브소좌와 말리흐대좌를 만난다.

18일 새벽 2시경에 전화를 걸어온 빤필로브가 사연을 알고 고류니에 모인 모든 부대들을 지휘할것이 모믜쉬－울릐에게 위임되였다는 군단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한다.

곁에 있던 기관총중대 정치지도원 보좌노브가 제일처럼 기뻐하나 모믜쉬－울릐의 심정은 복잡하다. 사실 규정대로 하면 지휘권은 상급장관인 말리흐대좌에게 해당되는것이 아닌가.

나이 쉰살에 가까운 대좌앞에 가섰으나 차마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뜻밖에도 보좌노브가 분개한 목소리로 그를 질책한다.

《악싸깔! 명령을 집행하십시오!》

모믜쉬－울릐는 순간이나마 주저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고류니에 있는 전체 부대들을 능숙하게 지휘해나간다.

11월 18일 날이 밝자 적들의 포사격이 시작된다.

숲속에 은폐되여있던 사단의 포들도 적들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한다.

대대의 바로 옆에서 위력한 《까츄샤》포대대가 사단장이 지적해주는 목표들에 무서운 불벼락을 안긴다.

드디여 《까츄샤》들이 철수하자 모믜쉬－울릐의 대대만 남게 된다. 대대는 포와 총의 세찬 화력으로 놈들을 격퇴한다.

치렬한 격전끝에 또 하루가 지나간다. 마침내 고류니방어의 마감날이 온다.

아침부터 긴장한 화력전이 벌어진다. 기관총수들은 말썰매우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마을의 이쪽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긴다.

가렬처절한 싸움끝에 시계는 드디여 자정을 가리킨다. 11월 20일 새날이 시작된다. 임무를 수행한 병사들은 조용히 마을을 벗어난다.

숲속 오솔길에서 그들은 즈뱌긴의 명령으로 자기들을 마중오는 사단 녀준의 와랴와 이전 대대군의였던 벨렌꼬브를 만난다.

자진하여 대대를 마중온다는 벨렌꼬브에게 모믜쉬—울릐는 말한다.

《감사하오. 군의동무! 다시 대대군의로 일해주시오. 나는 빤필로브소장께 이것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묵이 흐른다. 마침내 와랴가 입을 연다.

《빤필로브소장은 전사하셨습니다.》

빤필로브사단장이 직접 《까츄샤》포 지휘관에게 목표를 지적해주던 날 방어선을 뚫고나온 한무리의 적들이 사단지휘소가 있는 마을에 박격포사격을 가하였는데 그때 정황을 살피려 밖에 나왔던 사단장은 그만 포탄파편에 희생된것이다.

사단참모부는 한때 장마당이였던 자리에 위치하고있다. 벌써 참모부의 지휘관들이 대대를 마중하기 위하여 밖에 나와있다. 그들 한가운데 장령모자를 쓴 군단부사령관이 서있다.

《차렷! 우로 봣!》

모믜쉬—울릐가 달려가 보고하려고 하나 먼저 군단부사령관이 현관을 내려선다.

《그만하라구. 모믜쉬—울릐동무, 그런 격식은 차리지 말라구.》

사흘전에 모믜쉬—울릐를 철직시켰던 군단부사령관 즈뱌긴은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를 힘껏 포옹한다.

《쉬엿! 담배를 피워도 좋소!》

대렬을 향해 구령을 친 즈뱌긴은 모믜쉬—울릐에게 담배를 권하고 라이터로 불까지 붙여준다. 그런데 그 라이터는 빤필로브가 애용하던 라이터이다.

즈뱌긴은 빤필로브가 이 라이터를 무슨 뜻에서 그에게 기념으로 주었는지 알고있을가?

모믜쉬—울릐는 자기의 이런 생각을 즈뱌긴에게 내비치지 않는다. 즈뱌긴 역시 생각깊은 눈으로 모믜쉬—울릐를 바라볼뿐이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서로의 의미있는 눈길이 마주쳤다는것으로 작가에게 들려주는 모믜쉬—울릐의 이야기는 드디여 끝을 맺는다.

중편소설 《빤필로브장군의 예비대》에서 작가 알렉싼드르 베크는 준엄한 전쟁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지휘관의 높은 군사적자질, 특히 불의의 정황에 대처한 지휘관의 창발성과 결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진실한 예술적형상속에 이야기하고있다.

쏘도전쟁시기의 명장중의 한사람인 빤필로브는 새로운 쏘베트군사예술의 창조자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군사지휘관이라면 응당 창조적인 사색을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며 전투에서의 승리는 지휘관의 창조적인 사색을 전사들이 자기것으로 만들어 실전에 구현할 때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작가는 실재한 원형인물에 기초한 빤필로브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예상치 않은 정황이 시시각각으로 발생되는 싸움마당에서 경직된 전투규정과 수법에만 매달리는 지휘관은 사실상 참된 지휘관이 아니며 지휘관의 창조적사색이 가져온 승리는 모험이 안아온 우연이 아니라 합법칙적이고 필연적인 승리임을 힘있게 구가하고있다.

모믜쉬－울릐의 대대를 찾아와 그가 보고있는 군사규정책의 여백에 례의 유명한 글을 남기는 빤필로브, 우연히 던지는듯한 말마디들－격언들이나 롱담에까지도 자기의 의도를 담아 지휘관들의 창발성을 키워주는 빤필로브의 영향이 있어 모믜쉬－울릐도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자라날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에서 빤필로브자신도 다 모르는 《신기한 예비대》가 나타나 적들을 족쳐댄다.

련락병과 함께 대대참모부로 가던 한 중대장, 그가 도중에 만난 취사병들을 거느리고 불의의 정황을 맞받아 용감히 싸운것은 그 누구의 명령에 따른것이 아니였다. 빤필로브가 평시에 심어준 지휘관의 량심과 창조적사색으로 그는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을 내렸고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모를 쓴 20명의 취사병들과 함께 적의 불의의 타격을 희생적으로 막아내는것이다.

적들이 덤벼드는 전선의 그 어느곳에서나 불현듯 나타나 용맹하게 싸우는 그런 《신기한 예비대》는 사실상 빤필로브가 키워낸 《빤필로브장군의 예비대》였다.

빤필로브의 형상과 함께 작가가 힘을 넣은것은 모믜쉬―울릐의 성격형상이며 그를 통해 작가는 지휘관의 결단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수백명의 대원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국의 한부분을 맡아나선 지휘관에게 있어서 능란한 전투조직과 단호한 결단성은 필수적인 중요한 품성의 하나로 된다.

작가는 이러한 사상을 마뜨레니노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렬한 싸움에서 취하는 모믜쉬―울릐의 행동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수적, 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의 공격앞에서 수많은 붉은군대 전사들이 쓰러진다.

《만일 그렇게 견지한다면 그것은 견지하지 않는것이나 다름없다.》는 부상병의 피타는 호소, 그것은 바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답습하고있는 대대장에 대한 질책이였다.

물론 모믜쉬―울릐는 《이 계선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는 명령대로 자기의 초소를 지켜 싸우다 죽을수도 있다. 그러면 그에게는 《영웅적희생》이라는 영예가 차례질것이다.

그러나 조국은 어떻게 되는가. 원쑤들은 그의 초소를 넘어 더 깊이 쳐들어올것이다.

조국을 끝까지 수호하자면 대대와 함께 죽을것이 아니라 전투를 10번, 20번, 아니 30번을 해서라도 대대를 보존하여야 한다는것을 자각한 모믜쉬―울릐는 엄중한 처벌을 무릅쓰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것이다.

면밀한 전술적타산과 계획을 가지고 주동적으로 단호히 행동하여 혁혁한 전과를 거두는 모믜쉬―울릐의 결단성있는 모습은 무모한 싸움끝에 부대와 리탈되여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유라쏘브소좌, 말리흐대좌와 대조되여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작가는 이밖에도 모믜쉬―울릐보다 군사직급은 높지만 언제나 성실하게 그를 받들어주는 상급정치지도원 똘스뚜노브, 모믜쉬―울릐의 기쁨과 괴로움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그를 위해 마음을 쓰며 때로는 그의 소심한 태도를 분개한 목소리로 질책

하는 기관총중대 정치지도원 보좌노브 등 인상깊고 매력있는 개성적인 성격형상들을 창조해냈다.

중편소설 《빤필로브장군의 예비대》는 이처럼 등장인물들의 독특한 성격창조, 군더더기가 없고 명백한 구성수법, 생활에 대한 진실한 묘사와 그를 통해 우러나오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는 작품으로 되고있다.

…그날 하루종일 빤필로브는 부대를 지휘할 가능성을 거의나 잃고 쉬슈끼노촌에서 무료히 보냈습니다. 그와 전투의 급변하는 소용돌이속에 들어있던 그의 사단 참모부들을 련결시키는 전화선이 절단되고 산산쪼각났던것입니다. 도이췰란드군의 타격은 사단을, 사단의 전선을 쪼각쪼각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싸우는 소부대들, 심한 타격을 받은 포중대들, 중대들, 소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휘없이 싸운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는 지휘되고있었던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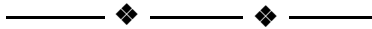
대중적영웅주의—이것은 자연적현상이 아닙니다. 큰소리를 할줄도 모르고 틀을 차릴줄도 모르는 우리 소장은 우리를 그날에로, 그 투쟁에로 준비시켰던것입니다. 그는 그 전투의 성격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내고는 전투임무를 꾸준히 인내성있게 해설해주었으며 자기의 의도를 《손가락으로 문대듯이》 침투시켰던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규정에는 《저항결속점》이니, 《지탱점》이니 하는 말들이 없었다는것을 다시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그 말을 쓰게끔 요구했습니다. 빤필로브의 귀는 이 전쟁의 요구를 포착했던것입니다. 그는 붉은군대에서 지금까지 그 류례가 없었던 이 전쟁의 새로운 암호기법을 능숙하게 정통한 최초의 한사람이였습니다.

자기편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작은 조—이것 역시 전투의 결속

점이며 지탱점이였습니다. 빤필로브는 지휘관들이나 전사들과 잠간이라도 만나는 때가 있으면 어떠한 기회든지 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해설해주고 주입해주기 위해서 리용하였습니다. 그는 사단에서 매우 군중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던진듯한 말마디들—격언들이나 지어 롱담까지도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전사들끼리 무선전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파되였습니다. 일단 전사들이 접수하고 파악하였다면 그것은 이미 지휘인것입니다.

우리는 빤필로브가 례컨대 소대나 중대를 지휘하였다고는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한 실화문학의 필자는 잔재간을 부려서 지어 그의 손에 수류탄까지 잡게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수작입니다! 그러나 빤필로브가 지휘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사단을 교양하였으며 자기의 의도, 계획, 현대방어전투의 귀중한 경험중에서 자기가 파악한것들, 앞날의 임무를 우리모두의 공동재산으로 만들게 하였던것입니다.

그날이 닥쳐왔습니다. 지휘관의 손, 지휘관의 목소리가 이미 산산이 분산된 전투의 단위마다에 이를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들과 전사들에게 파악된 그의 사상이 전투를 지휘한것이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빤필로브사단의 모든 성원들의 공훈은 그의 창조물인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것이 우리가 력사적진실에 충실한것으로 될것입니다.

말리흐대좌는 침대우에서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었습니다.
…

《앉소. 모믜쉬—울릐, 앉소.》하며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쉰살이 다 된 대좌에게 그가 나의 명령을 받게 되였다고 말할수

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니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령관은 물론 급히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앉지도 못하고 좀 어색하게 서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사단장이 군단사령관의 명의로 날 불렀습니다. 거기엔 즈뱌긴동지도 있었습니다. 소장동지는 적들이 밤에 공격할수 있다는것을 경고했습니다. … 대좌동지, 당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아, 그이상 말을 더 못하겠습디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왜 말을 시원하게 못하오?》

《저는, 대좌동지, 동지가 저에게 와있다는것, 당신의 참모부가 질서를 잡고있다는것도 보고드렸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제일 상급장관이라는것도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우물쭈물하면서 말리흐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는데로 이야기를 끌고갔습니다. 사실 규정대로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응당 지휘권은 상급장관에게 속하는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명령하듯 분개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악싸깔!》

보좌노브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악싸깔! 어째서 고삐를 잡지 않습니까? 명령을 집행하십시오.》

그 격렬하고 요구성이 높은 웨침은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의무가 나를 지배하고있다는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의무—이 가장 고귀한 말을 대문자로 써주십시오. 그 의무가 보좌노브의 목소리로 《집행하라!》고 나에게 웨친것이였습니다. 동요와 주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말이 공식적으로 나갔습니다.

《동지들! 사단장동지는 고류니에 있는 전체 부대들을 지휘할것을 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대좌동지, 보고하시오. 싸울수 있는 력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순간의 정적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대좌는 일어섰습니다.

중편소설 《빤필로브장군의 예비대》중에서

# 별

중편소설 《별》은 이전 쏘련의 작가 에. 까자께비츠가 1947년에 창작발표한 작품이다.

소설은 쏘련군대의 반공격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우크라이나를 해방하는 싸움에서 한 쏘련군정찰소대 전투원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는 소박하고 침착한 주인공 뜨랍낀을 비롯하여 순진하고 열정적인 처녀무전수 까쨔, 책임성이 강한 아니까노브상사, 자유주의와 개인영웅주의가 심한 마모츠낀상사, 다심한 사단장 쎄르비첸꼬 등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소설은 뜨랍낀소위의 정찰소대가 속한 사단이 패주하는 도이췰란드군대를 쫓아 서부우크라이나로 진격을 계속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적들이 얼마나 빨리 도망치는지 정찰소대는 해방된 마을농민들에게서 말들을 빌려타지 않으면 안될 정도이다.

사단의 앞장에서 나아가던 정찰소대는 어느날 수림속에서 적의 방어집단을 발견하고 즉시 사단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사단장 쎄르비첸꼬는 적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놈들을 격파할것을 결심한다.

뒤따라오는 포부대가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공격은 적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쳐 실패한다. 오히려 적들은 많은 병력을 집결하여 반공격까지 시도한다.

사단은 할수없이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다음번 공격을 준비한다.

적의 방어력량은 얼마이며 무엇을 기도하고있는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마르첸꼬상사가 책임진 6명의 정찰조가

적후로 떠난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마르첸꼬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

정찰조의 통로를 개척해주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떠났던 공병들도 돌아오지 않는다.

뜨랍낀은 불안에 싸여 날마다 1선참호에 나가 밤을 새운다. 그는 쪽잠에 들어서까지도 마르첸꼬를 찾는다.

《자넨 어째서 이렇게 오래동안 돌아오질 않나? 괴짜같으니라구. 공병들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 자넨 종시 안돌아올 작정인가? 고약한 사람같으니.》

그러는 뜨랍낀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마모츠낀상사는 전선에서 구하기 힘든 음식들을 얻어다가 뜨랍낀의 기분을 돌려보려고 한다.

그는 뜨랍낀이 주인들에게 돌려보내라고 한 말들중에서 두필을 아무도 모르게 다른 농민에게 빌려주고 그 음식들을 얻어오군 한다.

자기 대원들을 아끼는 소박한 뜨랍낀에게 련정을 품고있는 사단통신대 무전수 까쨔도 자주 찾아와 그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모든것이 허사이다.

한편 군단에서는 사단에 빨리 적정을 알아내라고 독촉한다.

사단장은 또다시 정찰조를 파견하기로 결심한다. 정찰조장으로는 뜨랍낀이 임명된다. 사단장은 전쟁만 아니였다면 대학을 나오고 학자가 되였을 령리하고 침착한 뜨랍낀이 반드시 임무를 수행해내리라고 굳게 믿는다.

뜨랍낀은 즉시 정찰조원들을 선발한다. 그의 정찰조는 만족스럽게 구성되지 못한다. 오랜 정찰병들이 전투에서 희생된것으로 하여 마모츠낀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원들은 얼마전에 새로 보충되여온 사람들이다. 보병출신의 쎄묘노브는 전투경험은 있으나 정찰병으로서의 준비가 부족하고 놈들에게 학살된 쏘베트일군의 아들인 17살의 골루비는 복수심밖에는 다른 우점을 찾아볼수 없는 신입병사이다.

지어 어떤 대원은 훈련이 힘에 부치자 우정 비를 맞고 감기에 걸

려 뜨랍낀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뜨랍낀은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실지동작, 완강한 노력으로 그들의 훈련을 지도한다.
드디여 훈련이 끝난다.
정찰조의 대호는 《별》이다.
정찰을 떠나기 전에 부상으로 후방병원에 입원하였던 아니까노브상사가 소대로 돌아온 사실은 뜨랍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아니까노브는 자기의 정든 정찰소대로 돌아오기 위해 파송대렬에서 떨어지는 《실수》를 한것이다.
깊은 밤 사단장이 직접 정찰조를 바래운다. 사단장은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그들에게 하고싶은 말도 많지만 《잘가게!》라는 한마디 말밖에 하지 못한다.
정찰조는 익숙된 솜씨로 재빨리 전선을 넘어 목적한 수림속으로 몸을 감춘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인지경인줄로만 알았던 수림은 도이췰란드군대로 꽉 들어차있다. 숲속의 여기저기에는 놈들의 천막이 널려져있고 순찰병들이 싸다니고있다.
이런 상태에서 날이 밝으면 그들은 발견되고야말것이다.
즉시 정황을 판단한 뜨랍낀은 정찰조에 수림을 벗어날것을 명령한다. 새벽녘 수림을 거의 벗어나게 되였을 때 그들은 고장난 자동차곁에서 밤을 새우고있는 세놈의 적과 맞다든다.
만약 놈들이 소동을 일으킨다면 즉시에 류혈적인 싸움이 벌어질것이고 그들은 임무를 수행할수도 없을것이다.
정찰조는 놈들을 건드리지 않고 한모양새로 천천히 그곁을 지나간다.
도이췰란드병정놈들은 어리벙벙해진다. 놈들은 새벽안개속에서 수림변두리를 따라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곁눈 한번 팔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일곱개의 초록색그림자가 차마 쏘련군정찰병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던것이다.
(유령인가?!)
놈들의 곁을 무사히 통과하자 정찰조는 나는듯이 다른 수림속으

로 자취를 감춘다.

적들이 없는 곳에 이른 정찰조는 수림속에서 발견한 적들의 위치를 무전으로 부대에 알린다.

뜨랍낀은 적종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보기로 결심한다.

적후로 들어갈수록 정찰조는 새로운 정황들과 부닥치게 된다. 수림변두리에서 그들은 일반군복이 아닌 검은 제복을 입은 에쓰에쓰놈들을 발견한다. 수림속에서 금방 도착한 장갑수송차들과 탄약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도 발견한다. 이 수림속에도 도이췰란드군대가 꽉 들어차있고 또 아직도 계속 도착하고있다.

적들이 이 커다란 수림속에 많은 병력을 은밀히 끌어들이면서 그 어떤 흉계를 꾸미고있다는것이 뜨랍낀뿐아니라 모든 정찰병들에게도 명백해진다.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된다.

그들의 걸음걸음은 순간마다 위험을 동반한다. 사방에 도이췰란드군대가 있는데다 놈들은 비밀보장을 위하여 밤에만 기동하고 있기때문이다.

행군도중에 적과 부딪칠번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다. 적을 직접 보게 된 대원들은 적을 족치고싶은 충동을 금치 못해한다. 특히 마모츠낀은 신대원들앞에서 자기의 솜씨를 시위하고싶어 안달아한다.

그러나 뜨랍낀의 명령은 한가지뿐이다.

《그대로 통과시킬것!》

놈들의 신경을 건드렸다가는 임무를 망칠수 있었던것이다.

그들이 2층짜리 벽돌집이 있는 호수가에 도착하여 휴식하고있는데 새벽녘에 그 집에서 비명소리가 울려나온다.

순간 돌아오지 못한 마르첸꼬를 생각한 뜨랍낀은 그 집을 감시한다.

그 집은 적들의 야전군의소였다.

뜨랍낀은 군의소에서 퇴원하는 도이췰란드군병사 한놈을 생포한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놈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을것

이라고 타산한것이다.

뜨랍낀은 생포한 도이췰란드군병사에게서 자기 사단전방에 131보병사단뿐아니라 새로 증강된 에쓰에쓰땅크사단이 나타났다는것을 알아낸다. 그러나 에쓰에쓰땅크사단의 규모와 무장장비, 기도에 대하여서는 그놈도 알지 못한다.

사단앞에 닥쳐오는 위험을 속속들이 알아내기 위해 뜨랍낀은 적들의 정거장에 접근할것을 결심한다.

정거장으로 갈수록 더 많은 놈들과 맞다들게 된다.

뜨랍낀은 다시는 적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결심하였으나 마모츠낀이 자의대로 술에 취한 에쓰에쓰병정을 잡아온다.

뜨랍낀은 에쓰에쓰땅크사단의 기계화련대에서 복무하는 그놈에게서 알아낸 정보를 즉시 사단에 보고한다.

사단에서는 적의 내막을 더 자세히 알아낼것을 명령한다. 무전문은 《몸성히 돌아오세요. 까쨔.》라는 짤막한 인사로 끝을 맺고있다.

정찰조는 목적한 정거장의 대피역에 도착한다. 뜨랍낀은 아니까노브와 골루비를 정거장으로 파견한다. 그러나 적의 화물자동차에 몸을 숨기고 정거장에 접근하려던 그들은 적에게 발견되며 이 전투에서 골루비가 희생된다.

저녁부터 내리는 찬비가 애젊은 청년의 얼굴을 적신다. 그러나 슬픔에만 잠겨있을 때가 아니다.

아니까노브와 마모츠낀이 또다시 정거장으로 떠난다. 그들은 어둠을 리용하여 정거장으로 바싹 접근한다.

땅크를 비롯한 무장장비들을 실은 렬차들이 서있는 정거장에는 놈들이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있다.

아니까노브와 마모츠낀은 정거장안의 창고곁에서 장교 한놈을 발견한다.

그들은 놈들이 욱실거리는 정거장구내로 뚫고들어가 그놈을 생포해가지고 뜨랍낀에게로 돌아온다.

한편 쏘련군대에 의해 포위된 끄벨리시를 불의에 공격함으로써 쏘련군대를 분렬시키고 쏘또호드강과 스띄리강밖으로 강력한 방

어진을 구축할 목적밑에 은밀히 이 수림속으로 집결하고있는 악명높은 《워킹그》땅크사단의 괴수 에쓰에쓰륙군중장은 몹시 불안해한다.

얼마전부터 쏘련군비행기들이 자기들이 비밀리에 집결하고있는 수림지대에 자주 날아와 정찰비행을 강화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가 하면 실종되였던 두 병사가 수림속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정거장에서는 고급장교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수림속에서 사단의 수색조와 정체모를 사람들과의 접전도 있었다.

륙군중장은 이 정체모를 유령들을 무조건 찾아내라고 명령한다.

놈들은 각 대대에서 한개 중대씩 동원하여 수림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알리 없는 뜨랍낀은 그것이 놈들의 흔히 있는 이동이나 훈련인줄로만 생각한다.

적후에서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정찰조는 수림속의 외딴 집에서 쉬면서 부대와 련락을 가지기로 한다.

그들이 한창 부대와 무전련계를 가지는데 수십명의 에쓰에쓰놈들이 집을 포위한다.

몸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정찰조는 불의적인 수류탄벼락으로 놈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리용하여 수림속으로 빠진다.

이 전투에서 또 한명이 희생되고 아니까노브와 쎄묘노브가 중상을 당하며 무전기도 파괴된다.

적들속을 빠져나온 그들은 수림속에서 휴식한다.

수림속은 고요하다.

그러나 정찰병들은 그 고요가 거짓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워킹그》땅크사단의 정찰부대와 후에 보충된 342보병사단의 척후부대들, 131보병사단의 후방부대들이 모두 떨쳐나 그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히고있다.

최후의 시각 정찰병들은 자기들의 지난날을 돌이켜본다. 그들의 가슴은 임무를 수행한 긍지로 가득차있다.

한편 정찰조의 보고는 전파를 타고 사단을 통하여 군단으로, 집단군으로, 전선사령부로, 모스크바의 최고사령부로 전달된다.

쏘련군수뇌부에서는 놈들이 끄벨리시를 타격함으로써 진격하는 쏘련군을 저지시키려고 꾀한다는것을 간파한다.

집단군사령관은 도착하는 증원부대들을 쎄르비첸끄사단에 보내주며 땅크부대와 포병대도 증강해준다. 비행대들이 적군집결처들에 강력한 타격을 안긴다. 그리하여 불의의 공격을 시도하려던 적들의 흉계는 파탄되고 놈들은 또다시 퇴각하게 된다.

온 부대가 승리의 기쁨으로 들끓고있으나 까쨔만은 여전히 무전기앞을 떠나지 않는다.

《별! 별! 대답하라! 대답하라!》

흐느낌이 섞인 처녀의 애타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끝없이 울려퍼진다.

그러나 《별》은 여전히 대답이 없다. 까쨔가 기어코 들으려는 《별》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정녕 승리의 기쁨으로 떠들썩한 저 병사들의 목소리는 아닌지, 크레믈리광장에 기필코 울려퍼지고야말 만세의 우렁찬 함성은 아닌지. …

소설은 여기에서 끝난다.

중편소설 《별》에서 작가 에. 까자께비츠는 지난 쏘도전쟁시기 쏘련군장병들이 전투에서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그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을 요란한 전투행정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한 정찰소대 전투원들의 정찰활동을 통하여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뜨랍낀정찰조의 며칠간의 전투행동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세운 빛나는 위훈의 근본바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귀중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 열렬한 조국애이며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병사의 의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량심이라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해명하고 있다.

뜨랍낀정찰소대전투원들 매 사람은 성격도 취미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의 운명을 책임진 병사였기에,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였기에 하나의 모습으로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투장으로 용감하게 달려나간다. 그들에게 있어서 청춘의 사랑도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였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것은 조국앞에 지닌 병사의 의무와 량심이였다. 전쟁에서 매 전사들의 행동은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사단, 군단 지어 전전선의 전투행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것을 자각하고있는 그들이였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맞받아나갈수 있은것이다.

별은 그 어디서나 빛을 뿌린다.

작품에서는 그러한 별에 대한 상징적인 형상을 통하여 조국을 위해 바친 병사들의 생과 그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은 언제나 조국과 전우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으며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중편소설 《별》은 비록 크지 않은 작품이지만 긴박한 사건조직과 섬세한 심리묘사, 풍부한 정서속에서 자기의 주제사상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밝혀낸것으로 하여 쏘련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냈으며 쏘도전쟁주제작품들가운데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 ❖ ——— ❖ ———

위장복을 입고 발꿈치와 배, 턱밑과 목덜미를 죄다 노끈으로 동여매놓으면 정찰병은 모든 인간살림과는 동떨어진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정찰병은 벌써 자기자신에게도 자기 상관에게도 자기의 추억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는 수류탄과 단도를 허리에 차고 품속에는 권총을 넣는다. 이리하여 그는 온갖 인간규정을 부정하고 이때부터는 오직 자기자신만 믿고 법밖으로 나서게 된다.

그는 특무장에게 자기의 모든 서류라든가, 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훈장이나 메달이라든가를 맡기며 당책임자에게는 당원증이나 공청원증을 맡긴다. 그는 이런 모든것을 자기의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자기의 과거나 미래를 버린다.

그는 산새처럼 이름도 없다. 새소리를 모방하여 동무들에게 보내는 신호의 휘파람만 불면 되는것이니 인간의 언어를 완전히 저버려도 무방한것이다.

그는 들과 숲과 골짜기가 합쳐진 널다란 공간의 요정, 남몰래 살그머니 엿보고 머리속에는 오직 자기의 임무 한가지만을 생각하는 요정이 되여버린다.

이리하여 사람과 죽음이라는 두 등장인물이 출현하던 태고시기의 놀음이 시작되는것이다.

중편소설 《별》중에서

## 작가소개

# 에. 까자께비츠

이전 쏘련의 작가 엠마누일 겐리호비츠 까자께비츠(1913－1962)는 우크라이나의 지방도시 크레멘츄크에서 태여났다. 어려서부터 문학창작에 뜻을 두고있던 그는 1930년대 중엽부터 시와 가사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1941년 파쑈도이췰란드가 쏘련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자 그는 즉시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싸움의 나날에 그는 보통병사로부터 정찰구분대 지휘관으로 성장하였으며 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위훈을 세웠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본격적인 소설창작에 달라붙었다.

작가가 1947년에 발표한 중편소설 《별》은 조국전쟁주제의 그의 대표적작품이다. 1948년 국가상을 수여받은 이 작품은 여러차례 영화로 옮겨져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쏘베트병사들과 인민들을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작가는 조국앞에 지닌 개인의 의무와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중편소설 《초원의 두사람》(1948)과 전쟁의 마지막나날들을 반영한 장편소설 《오데르강반의 봄》(1949, 국가상), 전후 도이췰란드땅에서의 쏘베트행정기관들의 활동을 보여준 장편소설 《광장곁에 서있는 집》(1956) 등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생의 마지막시기인 1961년에 작가는 중편소설들인 《한낮의 태양아래서》와 《푸른 학습장》을 내놓았다.

시종일관 병사의 용감성과 희생성, 조국앞에 지닌 군인의 의무와 량심문제를 취급한 《별》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은 쏘도전쟁주제의 쏘베트문학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 모스크바를 멀리 떨어져서

장편소설 《모스크바를 멀리 떨어져서》는 이전 쏘련의 작가 와씰리 니꼴라예비츠 아좌예브가 1948년에 창작발표한 작품이다.

소설은 쏘도전쟁시기 위대한 조국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원동의 송유관건설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투쟁과 위훈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다주인공작품인 소설에는 새 세대 젊은 기사들인 베리제와 꼽쇼브, 건설소장 바뜨마노브, 당위원장 잘낀드, 처녀공청원 따냐 와씰리첸꼬, 용접공 우하라, 오랜 인테리인 또뿔레브기사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은 원동의 따이씬섬에 있는 원유채취장으로부터 대륙의 노빈스크시에 위치한 원유가공공장까지 원유수송을 위한 송유관을 건설하는 곳에 바뜨마노브가 새 건설소장으로 임명되여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바뜨마노브와 함께 일정한 기간 사업한 경험이 있는 젊은 기사들인 베리제와 꼽쇼브가 그의 보조성원으로 따라온다.

전쟁전에 시작되여 건설기간이 원래 3년으로 되여있던 이 송유관건설은 긴박해지는 전선의 형편으로부터 단 1년동안에 해제껴야 하는 중요한 공사로 된다.

이 과업은 실로 방대하고 아름찬것이다.

송유관은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닿아본적이 없는 밀림지대인 따이가와 12㎞너비의 바다밑을 통과하여 100여㎞의 구간에 건설해야하는것이다. 새로운 계획대로 완공하자면 막대한 자재와 로력, 시간이 요구된다. 게다가 국가가 정해준 1년이라는 기한의 절반이상이 령하 50℃의 강추위가 계속되여 건설공사를 하기 어려운 겨울이다.

바뜨마노브의 일행이 도착할 당시 공사장의 형편은 말이 아니다.
이전 지도부의 무책임한 조직사업으로 하여 건설사업은 얼마 진척되지 못한 상태이다. 송유관부설로에는 도로도 제대로 닦아져있지 않고 건설자들을 위한 숙식조건과 건설자재들도 준비되여있지 않다.

더우기 건설자들중의 많은 사람들이 건설장을 떠나 전선으로 달려나갈것을 갈망하면서 안착되여 일하지 않고있다. 건설공사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해야 할 기사 꼽쇼브마저 파쑈놈들이 모스크바로 다가드는 때에 수도를 떠나 머나먼 원동으로 온것을 몹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사람들속에서는 인차 일본놈들과의 전쟁이 일어날것이라는 억측이 떠돌고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파쑈놈들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게 되면 이 공사도 더는 필요없게 되리라는 소리까지도 나돌아간다. 바뜨마노브는 이 모든것을 바로잡고 공사를 다그칠 결심을 다진다. 건설장에 도착하여 바뜨마노브가 처음으로 달라붙은것은 간부사업이다.

그는 건설지휘부의 성원들과 공사구의 책임자들을 만나 직접 사업을 료해하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철직시키며 필요한 부서들은 새로 내온다. 그에 따라 베리제는 건설장 기사장으로, 꼽쇼브는 새로 조직된 생산기술부 부장으로 임명되며 기본설계안의 작성자들인 이전 기사장 그룹스끼와 또뿔레브기사는 기술부고문, 부책임자로 된다.

대대적인 간부사업에 이어 바뜨마노브는 당위원장 잘낀드와 합심하여 사람들속에서 송유관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그 건설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든다.

결과 많은 건설자들이 비록 수도 모스크바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있으나 송유관건설장도 하나의 전투장이며 자기들이 하는 일이 손에 총을 들고 파쑈놈들을 족치는것에 못지 않게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인식하고 건설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된다.

건설장에 겨울이 닥쳐온다.

건설지휘부에서는 겨울철조건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한다.

바뜨마노브는 도로를 닦는 작업과 건설자들을 위한 숙소, 식당, 목욕탕 등 시설공사와 후방보장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당위원장 잘낀드는 공사에 전체 당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표자회의소집을 준비하는 한편 시내의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공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고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해결한다.

베리제와 꼽쇼브는 기술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달라붙는다.

그들의 임무는 변경된 공사기일과 겨울철조건에 맞게 건설계획을 다시 면밀히 세우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2차적인 건설대상들을 최대한으로 줄임으로써 공사기일을 단축하는것이다.

베리제와 꼽쇼브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송유관이 건설될 로정을 비행하면서 현지를 조사한다.

부설로를 돌아보면서 베리제는 송유관을 종전의 설계안대로 아둔강의 우측강안에 건설하는것보다 좌측강안에 건설하는것이 더 합리적이라는것을 발견한다. 이전의 건설계획에 따르면 송유관은 아둔강을 두번이나 건너야 하고 또 많은 산과 골짜기들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평탄한 지대인 좌측강안에 건설하면 그 길이를 50㎞나 단축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주민지구가 많은 좌측강안의 발전전망에도 부합되는것이다.

그의 착상은 즉시에 바뜨마노브와 잘낀드의 지지를 받는다.

바뜨마노브는 베리제의 주장대로 아둔강 좌측강안에 송유관을 건설하도록 설계를 다시 작성하며 우측강안에 있는 모든 건설력량도 즉시 좌측강안으로 옮겨오도록 명령한다.

그러나 이전 설계안의 작성자들인 그룹스끼와 또뽈레브는 새로운 설계안을 완강히 반대해나선다. 그들은 장마철에 아둔강의 좌측강안이 심하게 침수될것이며 베리제의 착상은 외국의 저명한 송유관건설전문가들의 학설에 배치되는것이라고 반박한다.

기존관념에 포로되여있던 적지 않은 기사들도 새로운 계획을 회

의적으로 대하며 공사구들에서도 조성된 사태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파견하기까지 한다.

건설지휘부는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새 계획을 완강하게 밀고나간다.

온 건설장이 들끓기 시작한다.

건설구에서 온 통신기술자 따냐의 제기로 소집된 공청회의에서는 공청원들에게 전체 부설로에 통신선을 건설하는 작업반에 탄원할것을 호소한다. (그때까지 전체 부설로에 대한 통신망이 건설되여있지 않은것으로 하여 건설공사전반에 대한 지휘와 통제가 보장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따냐를 책임자로 하여 선발된 100여명의 공청원들로 무어진 작업반은 한달반내에 통신선공사를 끝낼것을 결의해나선다.

공청회의에 뒤이어 열린 당대표자회의에서는 운전사들이 아직 도로가 건설되지 않은 해협까지 자동차와 뜨락또르로 철관을 운반할것을 결의해나선다.

이러한 속에서 11월 6일에 사회주의10월혁명기념일을 맞으며 한 쓰딸린의 방송연설은 건설자모두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준다.

건설공사구들마다에서는 쓰딸린의 방송연설을 받들고 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진다.

꼽쇼브가 이끄는 생산기술부에서는 새로운 계획에 기초한 설계들을 작성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진다. 꼽쇼브는 모든 기사, 기수들이 주인된 립장에서 설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인다.

치밀한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설계의 실리가 검증된다. 좌측강안의 송유관건설은 뽐프장을 종전처럼 2개가 아니라 1개로 줄일수 있었고 원유수송에서 원유 1t당 전력을 100kwh 절약할수 있었다.

새로운 설계안작성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대륙과 따이씬섬사이의 바다밑에 송유관을 부설하는것이다. 12㎞너비의 바다밑으로 한개당 길이가 10여m에 무게가 1t이 되는 철관들을 천여

개나 용접으로 련결하여야 한다. 배우에서 철관들을 용접해 붙이려던 시도는 부단한 파도의 방해로 무참히 실패한다. 바다밑에 송유관을 앉힐 도랑을 파는 작업도 겨울철조건에서는 불가능한 문제이다.

베리제와 꼽쇼브는 많은 건설경험을 가지고있는 또뽈레브기사를 동원해보려고 하지만 낡은 인테리인 그는 좀처럼 이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성미가 급한 베리제는 그만 화를 내며 쫓아버리려고 하나 꼽쇼브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마음속문을 열려고 꾸준히 노력한다.

한편 겨울철이 되면서 노빈스크의 원유가공공장이 멎어서는 비상사태가 빚어진다.

따이씬섬에서 배로 실어온 원유를 다시 기차로 운반하여 가공하던 공장에서는 겨울에 바다가 얼어붙어 배가 다닐수 없게 된것으로 하여 원유를 공급받을수 없게 된다. 섬의 원유채취장들에는 원유가 넘쳐나 생산을 줄일 형편이지만 전선으로 보낼 원유를 가공할 공장은 멎어버린다.

이것은 전체 건설일군들과 로동자들로 하여금 송유관건설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도록 한다.

베리제와 꼽쇼브는 스키를 타고 아둔강기슭의 전체 부설로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한다.

그들의 목적은 직접 부설로를 답사하면서 아둔강의 물량과 속도등을 측정하여 새 설계안에 대한 과학적담보를 마련하자는것이다.

그들이 지나는 공사구마다에서는 스따하노브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제5작업구의 벌목공들은 하루계획을 300%로 넘쳐 수행하면서도 작업능률을 2배로 끌어올릴 새로운 벌목방법을 창안한다.

제6작업구의 운전사 마호브는 철관운반도중에 철관이 덧쌓이는것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운반조직을 구상하고 자체로 시험을 진행한다. 통신선을 건설하는 따냐의 작업반에서는 어려운 숙식조건과 자연의 횡포를 이겨내면서 공사를 마지막계선에서 다그치고있다.

베리제와 꼽쇼브는 바쁜 속에서도 그들이 자기들의 혁신적발기를 더욱 완성하고 다른 작업구들에도 일반화하도록 도와준다.

답사과정에 베리제와 꼽쇼브는 원주민인 나나이족 늙은이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아둔강의 범람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으며 새 설계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베리제와 꼽쇼브가 떠난 후 또뽈레브의 심중에서는 커다란 파동이 일어난다.

그는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정열에 넘쳐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베리제와 꼽쇼브를 보면서 낡은 사업태도에 포로되여 건설장의 흐름에서 밀려난 자신을 돌이켜보며 고민한다. 특히 사업소의 각 부서들의 사업을 검열총화하는 회의에서 그가 받은 충격은 크다.

젊은 기사, 기수들은 오랜 기사이고 부장대리인 그가 부서의 사업에 관조적으로 대하고있는데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들이댄다.

《또뽈레브동지는 11월 6일과 7일에 한 쓰딸린동지의 말씀을 들었는가, 못들었는가?》

그날 또뽈레브는 잠들지 못한다.

밤늦게까지 자책감에 싸여 모대기던 또뽈레브는 자기를 찾아온 그룹스끼가 새 설계안의 부당성에 대하여 변강당위원회에 보낸 자기의 신소에 찬동하는 편지를 쓸것을 요구하자 그와의 결별을 단호히 선언한다.

그룹스끼를 쫓아보낸 또뽈레브는 송유관건설에서 가장 난문제인 해협의 송유관부설을 자신이 맡아 해결할것을 결심한다. 그는 자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해저도랑문제를 발파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착상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에 필요한 계산을 진행한다.

다음날 아침 또뽈레브는 본부로 돌아온 꼽쇼브를 만나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자기의 창안품을 내놓는다.

건설지휘부에서는 현지답사에 기초하여 베리제와 꼽쇼브가 작성한 새 설계안에 대한 최종협의회가 진행된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베리제가 새로운 설계안의 우점에 대하여 론

증한다.

새로운 계획은 많은 우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송유관거리를 50㎞나 단축함으로써 현재의 철관으로도 건설이 가능하다는것, 둘째로, 좌측강안은 지면이 훨씬 평탄하므로 공사가 쉽다는것, 셋째로, 제2뽐프장건설이 필요없게 된다는것, 넷째로, 두번씩이나 아둔강을 건느느라 막대한 로력과 자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측강안의 주민지구와 공업의 발전전망에 부합된다는것이다.

베리제는 또한 송유관부설을 제정된 기일안에 다시말하여 다음해 사회주의10월혁명기념일전으로 완공하기 위하여 또뾜레브의 창안에 기초한 겨울철해협의 송유관부설건설을 두단계로 나누어 한줄의 송유관을 우선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문제, 송유관의 균렬을 막기 위해 지하 2m깊이의 도랑을 굴설하는 대신 1m도랑을 파고 그우에 흙을 덮는 방법 등 여러가지 제안들도 내놓는다.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고 제기한내에 송유관을 늘일수 있는 그의 제안은 그룹스끼 한사람을 제외한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

회의에서는 새 계획을 중앙에 보고하여 비준받을것을 결정한다.

바뜨마노브와 잘낀드, 베리제, 꼽쇼브, 그룹스끼는 변강소재지인 루베잔스크로 올라간다.

변강당위원장 두진과 국방위원회 전권위원인 삐싸레브가 그들을 만나 계획에 대하여 료해한다.

바뜨마노브는 그들에게 베리제와 그룹스끼의 충돌에 대하여서와 새 계획과 최근의 회의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상 새 계획의 실천으로 넘어가고있는 건설공사의 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한다.

그룹스끼는 삐싸레브와 두진앞에서까지 새 계획의 불가능에 대해 론증하려다가 결국에는 그자신이 해임되고만다.

새 계획안은 국방위원회에 보고된다.

쓰딸린은 새 계획안에 찬동한다. 그는 전화로 바뜨마노브의 집단이 난관과 희생을 동반하는 건설전투에서 승리하리라는 확신

을 표시한다.

그리하여 새 계획은 비준된다.

변강당위원장은 바뜨마노브에게 해협으로 파견된 용접공 우하라의 신소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빨리 해협으로 나가볼것을 지시한다.

새 계획이 비준되던 날 바뜨마노브일행은 모스크바부근에서 파쑈놈들이 격멸되였다는 기쁜 소식도 접하게 된다.

루베잔스크에서 돌아온 바뜨마노브는 즉시 지휘부성원들을 이끌고 해협으로 떠난다.

부설로의 공사구들에서는 건설자들이 모스크바부근전투의 승리에 고무되여 자기들도 싸우는 전선의 병사들에게 뒤지지 않을 열의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린다. 벌써 많은 부설로들에 철관이 운반되고 통신선도 거의 해협에까지 늘여져있다.

드디여 바뜨마노브일행은 대륙에서의 마지막공사구에 이른다. 그 앞쪽은 해협이 있고 건너쪽은 따이씬섬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뜻밖의 광경에 부닥친다. 도로는 아직 부설되지도 않았고 식량과 철관, 자재설비들을 운반하는것도 볼수 없었던것이다. 길에는 자동차들과 철관들이 마구 내버려져있다.

그들은 당대표자회의에서 자동차를 몰고 해협까지 갈것을 결의해나섰던 운전사 스모르치꼬브를 만난다.

지난날 열정에 넘쳐있던 젊은 운전사는 완전히 딴사람으로 변해있다.

《당신들은 정말 송유관을 부설할 작정이요? 파쑈놈들이 모스크바를 점령했다구 하구 일본놈들은 날마다 이리로 다가온다는데 우리 로력이 대체 누구에게 소용되우? 그보다도 차라리 무얼 할지, 일본놈들과 싸우려면 어데로 가야 하는지 좀 말해주시우!》

바뜨마노브는 스모르치꼬브의 말을 통하여 이곳 공사구의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것을 직감한다.

그들이 만난 로동자들(대다수가 특별히 선발하여 해협으로 파견한 기능공들이다.)도 일감을 주지 않아 안타까와하고있다. 이미전에 지휘부에서 파견하였던 벤꼬브도 행방불명이다.

공사구책임자 메르즐랴꼬브의 태만행위에 격분한 바뜨마노브는 즉시 그를 철직시키고 로고브에게 이곳 공사구를 책임질것을 명령한다.

로고브는 즉시 공사구를 틀어쥐고 사업을 전개해나간다. 작업조를 구성하고 버려진 운수수단들을 모두 정비한다.

공사구에서는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바뜨마노브가 새 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하여, 쓰딸린의 비준에 대하여, 공사구앞에 부과된 과업에 대하여 연설한다. 건설자들은 그의 연설에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그들은 대륙으로부터 따이씬섬까지 바다의 얼음우에 도로를 닦는 사업부터 시작한다. 광란하는 폭풍으로 얼음장들이 깨여져나가 그들이 애써 만들어놓은 빙상도로가 파괴되군 하였으나 그들은 끝내 도로를 완성해놓는다.

그 도로우로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식량과 철관, 건설자재들을 싣고 섬으로 건너간다.

해안에는 철관들을 용접하기 위한 2㎞의 작업장이 닦아지고 이동식발전기도 설치된다.

해협의 얼음우에서는 또뽈레브의 방법대로 해저의 도랑을 파는 시험이 진행된다. 얼음우에 5m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수백개의 폭약꾸레미를 물밑으로 들여보내여 폭파시킨다. 시험은 성공적이다. 바다밑으로 곧바른 홈이 생긴것이다.

이 시험이 성공하는 날 용접공 우하라도 첫 철관용접작업을 진행한다.

새로 발간된 건설장의 신문은 그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한다.

건설자들은 서로 누구네가 자기들의 기록을 따라앞설세라 치렬한 경쟁을 벌린다.

용접공들이 무어내는 길이가 500m나 되는 거대한 철관들은 바다우의 얼음우로 끌려나와 거기서 또다시 련결되여 바다밑에 가라앉는다.

이 거창한 투쟁속에서 베리제와 또뽈레브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볼쉐비크당원의 영예를 지닌다.

해협의 송유관부설과정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광란하는 자연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선다. 태풍으로부터 송유관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거기에 파괴암해분자들의 책동도 우심해진다. 송유관안에 걸레뭉치를 틀어막거나 설계도면이 분실되는 사건들이 련이어 일어난다. 지질학자로 가장한 흐마라와 부기원으로 기여든 꼰드린을 비롯한 암해분자들의 방해책동은 각성된 건설자들에 의해 여지없이 분쇄된다.

해협의 송유관이 절반쯤 뻗어나갔을 때 건설자들은 드디여 따이씬섬정복에 나선다.

수많은 불도젤들이 수백년 자란 아름드리나무들을 쓸어뜨리면서 천고의 밀림에 길을 낸다. 따이씬의 자연은 횡포하지만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자연을 정복해나간다.

건설장에 봄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미 한개의 송유관을 부설한 건설자들은 얼음이 녹기 전에 두번째 송유관을 해협에 부설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다. 또다시 생활의 격류에 뛰여든 또뾜레브도 송유관부설전투에서 젊은 꼽쇼브에게 지지 않으려고 승벽을 부린다.

송유관건설자들의 투쟁소식은 신문을 통하여 전국에 알려지며 건설장으로는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보내오는 축하의 편지들과 사회주의경쟁호소문들이 끊기지 않는다.

드디여 해빙기가 닥쳐온다.

해협에서의 작업은 중단된다. 마치 온 바다의 얼음덩어리들이 다 모인듯 깨여진 얼음덩어리들이 좁은 해협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봄철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벌어진다.

그러나 작업량과 기한에 비하여 로력이 훨씬 부족하다. 공사구마다에서는 수백명씩의 추가로력을 요구한다.

일군들은 로력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뛰여다녔으나 어데서도 해결받지 못한다.

출로는 현재의 로동자들이 자기의 기준량을 2배, 3배로 넘쳐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바뜨마노브는 개별적사람들이 벌리는 스따하노브운동을 전체 건설장에 일반화할것을 결심한다.

《만일 백사람가운데 한사람만이 스따하노브방법을 습득하는것이 스따하노브운동이라면 그 방법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요? 전체 건설자들앞에 문제를 옳게 제기하여 스따하노브운동경험을 널리 퍼뜨릴수 있게 해야 하오. 그래서 절대다수의 동무들이 자기의 로동기준량을 2～3배로 초과완수하게끔 말이요.》

바뜨마노브는 공사구를 따이씬섬과 촌그르의 송유중계소지구, 해협에서 아둔강에 이르는 부설로로 나누고 그 책임자로서 로고브와 필리모노브, 꼽쇼브를 각각 임명한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총화를 하고 순회우승기를 수여한다.

작업장마다에서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진다.

필리모노브는 뽐프기관실에서 여러날째 밤을 밝히면서 뽐프조립을 완성한다. 로고브의 작업구에서는 자기 기한전에 섬의 부설로에 대한 철관운반작업을 끝낸다. 꼽쇼브의 조에서는 숙소를 차로 옮기고 식사시간도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대륙의 첫 30㎞구간의 철관용접을 끝내고 수압시험준비를 한다.

드디여 송유중계소와 첫 30㎞ 송유관이 완성되고 시운전에서 성공한다.

건설자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공사완공의 날들을 상상해본다.

이 시기 전선에서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된다. 모스크바부근에서 패배한 파쑈침략군이 깝까즈의 원유산지를 노리고 자기의 방대한 무력을 집결하였던것이다.

결정적인 시기에 모스크바는 송유관건설에 대한 확신을 위하여 그들을 부른다.

전체 건설장을 대표하여 꼽쇼브가 모스크바로 떠난다. 공사를 기한전에 무조건 완수할 건설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드팀없는 결의를 안고…

소설은 여기에서 끝을 맺는다.

장편소설 《모스크바를 멀리 떨어져서》에서 작가 와씰리 아좌예브는 지난 쏘도전쟁시기 전쟁의 승리를 위한 후방인민들의 영웅적로력투쟁을 생동하게 일반화하였다.

파쑈침략자들이 모스크바의 문앞에까지 기여들어 수도가 위험에 처한 그때 모스크바로부터 수천㎞ 떨어진 원동의 건설장에서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고 국가가 제시한 기한내에 송유관건설을 완성할수 있은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닌 열렬한 조국애였다. 비록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나 원동의 송유관건설장도 조국을 보위하는 전투장으로 생각하였기에, 자기들의 로력투쟁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그들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3년동안 예견되였던 송유관건설을 1년동안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전쟁승리에 이바지할수 있었다.

작품에서는 제시된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다양한 인물형상을 설정하고 그들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잘 그리였다.

작품에서는 기사들인 베리제와 꼽쇼브 그리고 따냐와 우하라를 비롯한 새 세대 쏘베트인간들의 희망과 열정에 넘친 모습들을 통하여 그 어떤 고난과 시련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그들의 완강한 투쟁정신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능숙한 조직지도력과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건설소장 바뜨마노브와 당위원장 잘낀드, 동지들의 비판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생활의 격류에 뛰여드는 오랜 인테리인 또뽈레브 등 다양한 쏘베트인간들의 형상을 생동하게 창조함으로써 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의 전인민적성격을 보여주고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보장하고있다.

뜨거운 조국애와 불타는 열정을 지니고 투쟁하는 사람들앞에는 극복못할 난관이 없다는 생활의 진리를 안겨주는 장편소설 《모스크바를 멀리 떨어져서》는 높은 사상예술성과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로 하여 쓰딸린상을 수여받았다.

——— ❖ ——— ❖ ———

그로부터 여드레만인 11월 4일에 원유는 노빈스크에 와닿았다.
거리전체가 떨쳐나서 원유를 맞이하려고 아둔강으로 내려갔다. 수천의 군중이 원유가공공장앞에 모였다. 모든 사람들이 송유관끝의 호스가 들어가물린 저장탕크로 한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싶어하였다.
《어느 동무에게 원유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렵니까?》
바뜨마노브가 저장탕크곁에 서있는 삐싸레브와 두진에게 물었다.
삐싸레브는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다.
《원유는 우하라 마고메뜨, 쟈뜨꼬브, 까르뽀브, 따냐 와씰리첸꼬, 쩨레호브동무들과 원유가공공장 로동자 까삐찐동무가 받으시오.》
순간 호스의 넓은 구멍에 원유가 보였다. 원유는 처음 가느다란 줄기로 쫄쫄 흘러내렸으나 이윽고 시꺼먼 기둥모양으로 콸콸 쏟아져내렸고 무지개의 광채를 내면서 저장탕크로 넘어들어갔다. 아둔강반의 상공에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울리였다.
쟈뜨꼬브가 군중속에서 걸어나왔다. 그는 모자를 벗고 두손으로 유리병을 받쳐든채 저장탕크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흘러내리는 원유밑에 가져갔다. 유리병이 하나 가득찼다.
쟈뜨꼬브는 그것을 모자로 닦아낸 다음 입을 맞추고 삐싸레브에게 내밀었다.
《쓰딸린동지에게 드리는 우리들의 선물입니다. 비행기로 보내주십시오.》
《동무가 직접 가지고가시오. 쟈뜨꼬브동무, 우하라동무와 바뜨마노브동무와 함께 이 귀중한 선물을 우리의 쓰딸린동지에게 바치십시오.》

삐싸레브가 대답했다.

또다시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울리였다. 나이많은 밀림의 할머니도 여직껏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요란한 박수소리였다.

한편 원유는 계속 저장탕크에 흘러내렸다. 이제는 그것을 멈출수가 없었다. 완전한 원유의 바다가 건설자들과 노빈스크주민들의 눈앞에서 휘황한 빛을 번뜩이며 흘러내렸다.

장편소설 《모스크바를 멀리 떨어져서》중에서

## 작가소개

# 와씰리 아좌예브

이전 쏘련의 소설가 와씰리 니꼴라예비츠 아좌예브(1915－1968)는 모스크바현의 한 농촌마을에서 태여났다.

그는 1935년부터 10여년동안 원동지방에서 화학기사로 사업하였다. 1944년에 고리끼문학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쏘도전쟁시기 원동의 밀림속에서 송유관을 건설한 로동계급의 위훈을 그린 장편소설 《모스크바를 멀리 떨어져서》(1948)를 발표하였다. 쓰딸린상수상작품인 이 작품으로 하여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밖에도 그는 단편소설집 《황금》(1948), 중편소설 《생활의 서문》(1961) 등을 창작하였다.

# 최후의 일제사격

중편소설 《최후의 일제사격》은 이전 쏘련의 작가 유리 본다레브가 1959년에 창작발표한 작품이다.

소설은 1944년말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된 붉은군대의 높은 국제주의정신과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노비꼬브대위와 알레쉰소위, 장탄수 레미슈꼬브, 오브친니꼬브중위, 싸보르낀, 구쎄브, 랴갈로브, 위생병 레나 등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이췰란드침략자들은 슬로벤스꼬의 마리쩨시로 돌입하여 그곳 로동자들의 폭동을 진압함으로써 도시를 되찾고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건지기 위해 최후발악을 한다. 놈들은 마리쩨시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뽈스까—체스꼬슬로벤스꼬국경에 자리잡은 까스노시를 일격에 돌파할 목적밑에 수백대의 땅크를 앞세우고 공격해온다.

그리하여 뽈스까에서 전투를 벌리고있던 주인공 노비꼬브대위가 속한 포중대는 까스노시에 기여드는 적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전을 벌리게 된다.

노비꼬브는 지형정찰을 위해 장탄수 레미슈꼬브를 데리고 나간다.

26살 총각인 레미슈꼬브는 그동안 여섯달동안 고향에서 병치료를 하고 돌아온 병사이다.

레미슈꼬브는 몹시 떤다.

《난 다리가… 이 다리를 가지고는 산으로 오르기가… 대위동지,

다리가 이런 형편이니 다른 사람을…》
《우리 중대에서는 명령을 흥정하지 않소!》
노비꼬브는 겁에 질려있는 레미슈꼬브와 함께 지형정찰을 한 후 대대지휘부로 간다.
대대장이 지도를 앞에 놓고 정황을 설명해준다.
…까스노시로 도이췰란드군이 있는 힘을 다하여 기여들고있다.
리므늬시로 들어가는 북쪽의 대도로로부터 적들이 기여들고있다. 린접한 아군사단들이 놈들을 봉쇄하고있다. 놈들은 땅크가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도로로 해서 포위를 뚫으려 하는것이다.
그 도로는 계곡과 까스노시를 거쳐 마리쩨시로 뻗어있다. 지금 슬로벤스꼬빨찌산들이 이틀동안이나 마리쩨시를 봉쇄하고있는데 도이췰란드놈들은 바로 까스노시를 거쳐 마리쩨시로 돌파해들어가 도이췰란드수비대와 련합하여 폭동을 진압하려 한다. …
대대장은 이어 노비꼬브중대의 포를 지금의 좌지에서 끌어내여 계곡과 대도로를 직접 조준하여 설치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중대좌우의 아군린접에 대하여 알려준다.
중대로 돌아온 노비꼬브는 오브친니꼬브의 포들을 밤사이에 도시북쪽구역인 고지에 설치하도록 한다. 오브친니꼬브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생활경험도 적은 노비꼬브가 중대를 지휘하는데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날밝기 30분전에 포좌지굴설을 끝내고 고지에 통신선도 늘이고 보초도 세우며 명령을 집행한다.
날이 밝자 전투가 시작된다.
어둑시근한 숲속의 안개낀 골짜기에서부터 대도로를 따라 땅크와 화물차들, 장갑수송차들, 승용차들이 밀려나오고 그사이로 보병이 개미떼처럼 공격해온다.
석대의 적 선두땅크가 오브친니꼬브 포좌지가 자리잡은쪽으로 기여든다. 이윽고 그쪽에서 포사격이 시작되자 기여들던 적땅크들이 멈춰서고 장교들이 탄 승용차가 꼬리를 사린다. 그러나 적들은 잠시후 다시 공격을 시작한다. 노비꼬브는 즉시 알레쉰의 포에 사격구령을 내린다. 날아가는 철갑탄은 오브친니꼬브의 포좌지를 공격

하는 적땅크들을 조겨댄다. 그런데 명중률이 적다.
노비꼬브는 화가 나서 소리친다.
《정확히 조준할것! 제기랄, 어디를 쏘고있소?》
노비꼬브는 직접 포좌지로 뛰여가 놈들에게 명중탄을 안긴다.
전투는 시간이 갈수록 가렬해진다. 오브친니꼬브의 포진지가 적들에게 포위된다.
오브친니꼬브는 명령도 없는데 포좌지를 리탈하여 노비꼬브에게 달려온다.
노비꼬브가 그를 꾸짖는데 오브친니꼬브의 좌지에서 두발의 포탄이 적진으로 날아간다.
살아남은 어느 병사가 싸우고있는것이다.
얼굴색이 흙빛이 된 오브친니꼬브는 《고르바쵸브가?!》하고 중얼거리며 자기의 포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는 적들에게 포로된다.
전투는 잠시 뜸해진다.
적들은 저들의 기도대로 체스꼬슬로벤스꼬국경을 뚫고나갈 돌파구를 단번에 열지 못한것이다. 적들은 강력한 포화력과 지뢰원에 걸려 숱한 공격력량을 상실한다.
그러나 전투에서 노비꼬브의 중대도 많은 인원과 두문의 포를 잃는다. 포탄도 거의 떨어져가고 대대, 린접과의 통신도 끊어진다. 엄중한것은 오브친니꼬브의 포성원들이 중상을 당하고 적들의 포위에 든것이다. 거기에는 위생병 레나도 함께 있다.
알레쉰소위가 오브친니꼬브의 포좌지를 가리키며 말한다.
《거기 동무들한테는 포탄마저 적지 않습니까. 리해가 안됩니다. 어째서 중대장동지는 꾸물거리고있는지, 어째서 부상병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노비꼬브는 대답한다.
《우린 알아야 하오. 오브친니꼬브의 포가 파괴되였다는것을 놈들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요. 만일 부상병들을 지금 대낮에 후송하게 되면 그것을 알려주는것으로 될것이요.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것은 곧 포가 살아있다는것을 의미하오. … 포

에 가는 문제는 저녁에 결정합시다.》

그러나 저녁에는 도이췰란드군이 시가지중심을 차지하고 노비꼬브중대는 적들의 완전한 포위에 들게 된다.

이런 정황에서도 노비꼬브는 부상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브친니꼬브의 포좌지로 간다.

그곳에서는 레나가 부상병들을 치료하고있다. 중상당한 랴갈로브가 숨을 거두고 통신병 구쎄브도 부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노비꼬브는 다섯발의 포탄을 적진에 날리고 부상병들을 데리고 포위를 뚫는다. 이 과정에 또 한명의 병사가 희생되고 레나도 가슴에 치명상을 입는다.

날이 밝자 적들이 노비꼬브중대를 향해 총돌격해온다. 결사전의 시각이 다가온것이다.

노비꼬브는 병사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놈들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여기서 피를 헛되이 흘린것으로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난 싫습니다. 우리가 놈들을 통과시킨다면 놈들은 전투를 하지 않고 지나갈것입니다. 조용히 지나가서 전쟁을 계속할수 있도록 놔두면 놈들은 마리쩨시 사람들의 폭동을 진압할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야 무엇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중대의 절반인원을 묻었겠습니까?》

병사들은 노비꼬브의 호소에 응해나선다.

적땅크들은 그들을 포위하고 사격을 하며 조여든다.

이때 이웃린접부대들의 사격이 놈들에게 가해진다. 이것은 통신도 끊어지고 포위에 든 노비꼬브중대 병사들에게 참으로 큰 기쁨으로, 힘으로 된다.

노비꼬브와 대원들은 포를 쏘고 또 쏜다. 13대의 적땅크가 불탄다.

알레쉰과 그의 대원들은 포의 조준경이 파괴되자 포신으로 조준하며 포사격을 계속한다.

오브친니꼬브의 포성원들도 용감히 싸운다.

정찰나가기를 두려워하던 레미슈꼬브는 입을 앙다물고 경기를 쏘

아댄다.

노비꼬브는 저도모르게 자신도 입을 앙다물고 웨친다.

《안되지, 안돼. 아, 안돼!》

대대장이 노비꼬브가 전사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는 파괴된 적 땅크의 무한궤도가 온통 짓이겨지고 그우에 해빛이 내리비치는 포근한 가을 한낮이다. …

병사들이 희생된 노비꼬브중대장과 전우들의 복수를 다짐하며 새로운 싸움터로 떠나는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중편소설 《최후의 일제사격》에서 작가는 가렬한 조국전쟁시기 열렬한 조국애와 국제주의정신을 지닌 붉은군대장병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맹과 자기희생정신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자기 임무에 충실한 주인공 노비꼬브중대장과 함께 언제나 락천적이고 명랑한 알레쉰소위, 전투과정에 억센 병사로 성장해가는 레미슈꼬브와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진지를 떠나지 않는 랴갈로브, 담찬 처녀위생병 레나 등 붉은군대지휘관, 병사들의 개성적인 성격과 영웅적투쟁모습이 훌륭히 그려져있다.

소설에서는 이들과는 반대로 자기의 명예와 목숨만을 생각하면서 불평을 부리고 제멋대로 진지를 리탈하였다가 포로가 되고마는 오브친니꼬브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조국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자들의 필연적인 운명에 대하여 암시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 노비꼬브가 대대장의 명령에 불만을 품은 장면, 병사들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묘사 등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지난 쏘도전쟁시기 발휘된 쏘련군인들의 영웅적희생정신을 훌륭히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교양적의의가 큰 작품으로 되고있다.

❖ ❖

알레쉰은 마주 달려오면서 청높은 소리로 웨쳤다.

《조준기가 파괴되였습니다. 중대장동지! 우리 포말입니다. 두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땅크들이 또다시 지뢰밭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우회하고있습니다. 장갑수송차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조준기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중대장동지! 일부러 파괴한것같이 되였습니다. 어떻게 할가요?… 오브친니꼬브의 조준경을 가지러 갔댔는데 다 깨졌습니다.》

애들처럼 울상을 하고 이발을 앙다문것이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여 당장 울음을 터뜨릴것 같은 인상이였다. 외투소매로 눈을 뻑 문대긴 그는 크롬가죽장화를 신은 가느다란 다리를 비칠거렸다.

《포신으로 조준하오. 위쨔! 포신을 통해 조준하란 말이요! 조준기가 없이! 포앞으로! 자, 위쨔, 그렇게 하오!》 노비꼬브는 이렇게 소리치고 알레쉰의 어깨를 콱 떠밀었다.

《자, 위쨔, 빨리 그렇게 해봅시다!》

자동총련발사격이 그물처럼 엇갈리며 쌩쌩 몰려갔다.

그는 흉장을 훌쩍 뛰여넘어 들어갔다. 포가사이의 연기속에 무릎을 꿇고앉아 손에 포탄을 안고있는 믿음직한 쁘로혼꼬의 모습과 경기를 틀어쥐고 흉장에 엎드려있는 레미슈꼬브의 무섭게 앙다문 이발이 피끗 눈에 띄였다. 경기를 쏘아대는 그의 머리와 어깨는 부르르 떨리고 뒤통수로 미끄러져내리는 모자도 흔들거리고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통이 터져서 우는것 같기도 하고 웃는것 같기도 했다.

《안될걸!… 안돼!…》

고지앞에서는 모든것이 불타고있었다. 줄포탄이 터지면서 짙은 화염이 뒤덮였다. 고지 바로 아래분지에서 몇대의 땅크가 딩굴고있었다. 포탄에 맞은듯한, 이미 불타버린 땅크들이였다. 서로 맞부딪쳐 무한궤도가 엉켜돌아가며 그렇게 불탄것이였다. 반달대형은 붕괴되여 없어지고 고지는 불기둥과 타래쳐오르는 연기로 꽉 차있었다.

중편소설 《최후의 일제사격》중에서

## 작가소개

# 유리 본다레브

이전 쏘련의 이름난 소설가 유리 와씰리예비츠 본다레브(1924—)는 츠깔로브주 오르스크시의 사무원가정에서 태여났다.

중학생때 쏘도전쟁을 맞이한 그는 1942년에 붉은군대에 입대하여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으로서 전쟁말기까지 전선에서 용감히 싸웠다.

부상을 입고 제대된 그는 1951년에 고리끼문학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적인 작가로 되였다.

본다레브는 조국전쟁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졌다.

1949년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한 그는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단편소설집 《큰강에서》(1953)에 이어 중편소설들인 《대대는 화력지원을 요구한다》(1957)와 《최후의 일제사격》(1959)과 같은 특색있는 전쟁물작품들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1960년대에 높은 평가를 받은 장편소설 《뜨거운 백설》(1962, 레닌상)을 발표하여 유명해졌다. 이 작품에서는 전쟁묘사에서 새 경지를 열어놓은 작가의 개성적특징이 뚜렷이 나타났다.

작가는 또한 장편소설 《고요》(1962), 중편소설 《친척들》(1969)에 이어 작가, 미술가, 영화연출가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쏘도전쟁시기와 현시대를 련결시킨 도덕주제작품들인 장편소설 《기슭》(1975, 국가상), 《선택》(1980, 국가상), 《놀음》(1985)을 내놓았으며 영화문학 《해방》(합작, 1970, 레닌상)창작에도 참가하였다.

심각한 문제설정과 독특한 형상수법으로 일관된 그의 창작은 쏘베트사실주의문학발전과 쏘련인민의 사상문화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유리 본다레브는 1984년에 사회주의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였다.

# 뜨거운 백설

장편소설 《뜨거운 백설》은 작가 유리 본다레브가 1962년에 창작한 소설이다.

소설은 1942년 12월 쓰딸린그라드 남쪽교외에서 쏘베트군대에 의하여 포위된 도이췰란드군 집단군의 필사적인 포위돌파시도를 분쇄함으로써 쏘련군대의 승리와 나아가서는 쏘도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이바지한 포병들의 영웅적투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설에는 포병소대장 꾸즈네쪼브중위와 포장 우하노브상사, 집단군사령관 베쏘노브중장, 군사위원 웨스닌, 위생지도원 조야, 2소대장 다블라쨘중위와 포병중대장 드로즈돕스끼중위 등 각이한 성격의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은 1942년 12월 어느날 새벽 갑자기 내린 비상소집명령에 따라 렬차에 오른 포병중위 꾸즈네쪼브가 속한 부대가 쓰딸린그라드부근으로 긴급히 출동해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렬차를 함께 타고가는 중대장 드로즈돕스끼중위와 2소대장 다블라쨘중위, 포장 우하노브상사는 모두 꾸즈네쪼브와 한 포병군관학교 동창생들이다. 그런데 우하노브는 그 어떤 알지 못할 원인으로 상사의 군사칭호를 받고 1소대 포장으로 임명되였는데 이것이 꾸즈네쪼브를 몹시 어색하게 한다.

전선가까이의 어느 한 대피역에 내린 부대는 지체없이 강행군하여 믜쉬꼬바강 북쪽기슭에 진출할데 대한 명령을 받는다.

당시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도이췰란드군 집단군사령관 만슈테인원수는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포위되여 괴멸에 직면한 제6야전군사령관 파울류스장군의 부대를 구출하고 정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이른바 《겨울우뢰》작전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꾸즈네쪼브가 속한 부대의 기동은 바로 놈들의 이 포위돌파시도를 격파하기 위한것이다.

베쏘노브중장이 지휘하는 쏘련군 1개 집단군과 수백대의 땅크를 포함한 13개 사단으로 이루어진 만슈테인의 도이췰란드대병력은 서로 쓰딸린그라드앞의 천연방어선인 믜쉬꼬바강을 목표로 하여 강행군을 한다. 누가 먼저 믜쉬꼬바강에 당도하는가에 작전의 승패가 좌우되기때문이다.

오랜 군사지휘관인 베쏘노브는 얼마전에 입원치료를 마치고 집단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그를 만난 자리에서 쓰딸린은 쓰딸린그라드전투의 의의와 이번 작전에서 그의 집단군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쓰딸린과의 담화에서는 1942년 6월에 파쑈군대에 투항변절한 집단군사령관 블라쏘브장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신념이 약한 어중이떠중이들은 굴복당하기마련이요. 사령관의

○ 인물소개 ○

## 배신자 블라쏘브

블라쏘브는 이전 쏘련 붉은군대 중장으로 있다가 쏘련인민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쏘도전쟁시기 도이췰란드침략군에 투항한 극악한 인간추물로서 오늘까지 변절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놈이다.

1942년 봄부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쏘련군 제2타격집단은 도이췰란드군의 포위에 들게 되였다. 가렬한 전투끝에 7월 1일경에 2만여명의 지휘관, 병사들이 드디여 포위를 뚫고야말

기본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적을 날날이 살피고 연구하며 힘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불의에 타격하는것이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는것이요. …》라고 쓰딸린은 강조한다.

블라쏘브에 대한 이야기는 베쏘노브의 가슴속 아픈 상처를 건드린다.

그의 아들 윅또르가 블라쏘브집단군에서 중대를 지휘하다가 행방불명되였던것이다.

보병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레닌그라드역에서 전선으로 떠나기 3시간전에 어머니와 함께 작별인사를 하러 찾아왔던 아들이다. 딸기색 령장이 빛나고 새 군관혁띠와 어깨띠가 빠드득거리는, 열병식에라도 나가는듯한 차림새의 행복스럽던 얼굴, 그러나 어쩐지 인형처럼 화려해보여 마음놓이지 않던 19살의 햇내기소위…

베쏘노브는 아들이 설사 포로된다 하더라도 변절하지는 않을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베쏘노브중장이 집단군에 도착한지 3일만에 쓰딸린그라드 서

았다.

그러나 블라쏘브는 집단군을 버리고 자진하여 도이췰란드군에 투항변절했다.

블라쏘브의 변절의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없었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쏘련공산당과 쏘베트조국의 믿음으로 1941년에 군단장, 집단군사령관이 되고 쓰딸린도 두번이나 만났으나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결여되여있던탓에 놈은 일시적난관앞에서 자기가 받아안은 그 높은 신임을 헌신짝같이 집어던지고말았으며 앞으로 꼭 《승리》하고야말 도이췰란드와 입을 맞추는데까지 이르렀던것이다.

투항한 놈은 수많은 도이췰란드장교들, 장령들을 만나 비굴

남부의 정세는 급격히 악화된다.

베쏘노브의 집단군은 비상사태에 있는 끄젤리끄브방향으로 긴급 이동할데 대한 명령에 따라 지적된 시간내에 자기 위치들을 차지하지만 린접집단군들에서 대병력으로 이루어진 적의 맹공격을 막아내지 못한것이다.

이제는 적들이 베쏘노브집단군의 우익에 주되는 타격을 가하리라는것이 불보듯 명백해진다.

그곳에서 포위된 파울류스의 부대와 만슈테인의 대병력간의 거리는 기껏해서 40㎞밖에 안된다. 만약 적들이 그곳에서 쏘련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2～3일만에는 포위된 파울류스부대에로 통하는 직통길이 열리게 된다.

만슈테인의 특공대와의 싸움에서 기본은 400여대의 적땅크들을 소멸하는것이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땅크들을 소멸하여야 한다.

베쏘노브는 아군의 땅크와 비행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

하게도 자기의 반쏘적립장을 구구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포로된 쏘련군지휘관들을 매수하여 자기와 같은 추악한 변절자로 만들기 위해 강연, 담화에도 출연하며 분주히 돌아쳤다.

특히 포로수용소들에 나가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유혹하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놈은 변절자들과 뻴스까, 마쟈르 등 강점지들에 조직된 반동적인 《정당》, 조직들과 공모하여 쏘베트를 반대하는 련합전선을 실현하려 했으며 파쑈들의 괴뢰단체인 《로씨야해방군》을 조직하고 그 괴수가 되였다.

블라쏘브는 그후 쏘련군대에 체포되여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되였다.

에서 군단포를 제외한 일체 포무력을 직접 조준사격위치에 배치하도록 하며 정 부득이한 경우에만 땅크들을 전투에 인입시킬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직접 적의 주타격방향이 예견되는 제예브사단에 나간다.

세찬 눈보라속을 강행군하여 새벽 3시에야 미쉬꼬바강 북쪽기슭에 진출한 제예브의 사단은 숨돌릴 사이도 없이 쇠덩이같이 얼어붙은 땅을 까내고 방어선을 구축한다. 직접 조준사격위치에 배치된 드로즈돕스끼의 포중대도 3시간동안의 신고끝에 겨우 보병삽 한기장만한 깊이에 포를 들여앉힌다.

그들이 작업을 마치고 금방 식사를 하고난 이른새벽 갑자기 거대한 무쇠공이 초원을 굴러가는듯한 굉음이 들리더니 잠시후 적폭격기 《융케르스》들의 육중한 륜곽들이 뚜렷이 나타나 마구 폭탄을 퍼붓기 시작한다.

순간 꾸즈네쪼브는 전투준비상태에 있는 자기 소대의 포들에서 조준경들을 떼와야 한다는것을 생각한다. 소대장의 권한으로 병사들에게 시킬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면 후날 절대로 자신을 용서치 못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융케르스》들이 급강하하였다가 다시 솟구쳐오르는 기회를 타서 1포장 우하노브와 함께 포진지로 달려가 조준경들을 떼낸다.

《융케르스》들의 맹폭격으로 다블라쨘의 2소대에서는 포 한문이 파괴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된다.

적땅크들이 나타난다. 놈들은 포도 쏘지 않고 육중한 땅크의 굉음으로 상대에게 위압을 주어 상대가 먼저 자기를 로출시키도록 하자고 꾀한다.

중대장 드로즈돕스끼가 전화로 빨리 사격을 하라고 독촉한다.

그러나 꾸즈네쪼브는 침착하게 땅크들을 700m까지 접근시키려고 한다.

이때 다블라쨘소대에서 끝내 참지 못하고 먼저 사격을 한다. 적땅크들은 기다린듯 다블라쨘소대의 포진지에 화력을 집중한다. 순간 다블라쨘의 포가 폭발의 검붉은 불도가니속에 자취를 감추고 만다.

(어째 그는 그렇게 일찌기 사격을 개시했는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꾸즈네쪼브는 다블라쨘소대의 포들이 그렇게도 빨리, 깡그리 격파되였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더이상 지체할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사격명령을 내린다. 꾸즈네쪼브네 포들에 이어 온 강안에서 린접포중대들이 거의 동시에 사격을 개시한다.

드디여 선두땅크가 꾸즈네쪼브네가 쏜 포탄에 맞아 마치 뭉툭한 타래송곳을 땅에 박을 때처럼 갑자기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돌기 시작한다. 이어 불길이 날쌘 도마뱀마냥 우불구불 땅크를 휘감는다.

두번째 땅크가 사격을 하려는 순간 우하노브의 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그 땅크의 연유통을 명중한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약화되지 않는다.

적땅크들이 우측을 돌파하여 다블라쨘의 포진지에 육박한다. 그런데 그쪽은 조용하다.

꾸즈네쪼브는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난다.

《난 저기 2소대로 가오! 츄바리꼬브, 지휘를 맡아주오! 난 다블라쨘한테로 가오!》

거기로 가보니 포성원들은 모두 희생되였거나 후송되고 위생지도원 조야만이 중태에 빠진 조준수 까씌모브에게 붕대를 감아주고있다.

꾸즈네쪼브는 조야에게 장탄할것을 명령하고 자기는 조준경에 달라붙는다.

10m사이에서 포와 땅크가 거의 동시에 사격을 한다.

꾸즈네쪼브는 몇번이나 폭풍에 날려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포를 쏜다. 적땅크 2대를 소멸하였을 때 포가 파괴된다. 적들의 자동포가 불타는 땅크뒤에 숨어서 포들을 녹여낸다. 중대에는 우하노브의 포 한문만 남는다.

꾸즈네쪼브가 포진지를 뛰쳐나와 우하노브네쪽으로 달려가는데 강뚝에서 드로즈돕스끼가 껑충껑충 뛰여오며 소리친다.

《섯! 꾸즈네쪼브, … 도망치려오? 포를 버리고? 왜 사격을 멈췄

소? 물러서려고? 섯!》
권총을 뽑아든 하얀 얼굴에 쫙 벌린 입이 고함을 치고있다.
꾸즈네쪼브가 자기를 겨눈 권총을 힐끗 쳐다보며 사연을 설명하자 초조감으로 경련이 일고 피기 하나 없는 드로즈돕스끼의 얼굴에 무슨 일이든 결단코 하고야말겠다는 결심이 어린다.
《쎄르구넨꼬브, 수류탄을 가져오오!》
뒤따라온 애어린 마사병이 전호쪽으로 기여가서 흙범벅이 된 두개의 반땅크수류탄을 외투자락으로 문질러 깨끗이 닦아가지고 내놓자 드로즈돕스끼는 흉장우에 몸을 일으키며 그에게 명령한다.
《자, 쎄르구넨꼬브! 동무가 해보오. 영웅이 되든가 아니면… 나의 말이 리해되오?》
적의 자동포까지는 거리가 무척 멀고 그나마 100m되는 개활지대로 기여가야 한다.
성한 포와 포탄 한개만 있다면 될 일인데 하는 생각에 꾸즈네쪼브가 명령의 무모함을 설명하나 드로즈돕스끼는 챙챙한 목소리로 총알처럼 맵짠 구령을 친다.
《포복전진으로 자동포앞으로!》
결국 쎄르구넨꼬브는 맹랑하게 죽고만다.
《견디여내질 못했군. 끝내 못해냈어. 일어나기는 왜 일어난담?…》하고 같은 말만 되씹는 드로즈돕스끼에게 꾸즈네쪼브는 격분해서 내뱉는다.
《못해냈다구? 그래 중대장동무라면 해냈겠소? 저 벽호엔 수류탄이 하나 더 있소. 마지막수류탄이. 알겠소? 내가 중대장의 립장이라면 난 수류탄을 가지고 자동포로 갔겠소. 쎄르구넨꼬브는 못해냈지만 중대장은 해낼거요. 예?…》
드로즈돕스끼는 당황하여 변명한다.
《그래, 내가 그의 죽음을 바라기라도 했단 말이요? 그가 왜 일어났나 말이요, … 동무도 그가 일어나는걸 보지 않았소?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요?…》
《드로즈돕스끼, 난 동무를 차마 눈뜨고 쳐다볼수 없소! 보지 못

하겠단 말이요!…》
경멸에 찬 말을 남기고 꾸즈네쪼브는 우하노브의 포를 찾아간다.
《우하노브, 전체 성원이… 포탄을 가지러 가오! 저쪽 포에 포탄이 남아있소. 그걸 전부 이리로 날라오오! 한알도 남기지 말고. 우하노브, 동무가 살아있는것이 기쁘오!…》
전투는 이날 저녁무렵에 이르러 더 격렬해진다.
도이췰란드군의 땅크들은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베쏘노브집단군과 우익린접부대와의 린접점에 주타격을 가한다. 련속적인 공격으로 남쪽강안을 점령한 적땅크들은 믜쉬꼬바강을 도하하여 북쪽기슭으로 뚫고나가려고 한다. 놈들은 땅크들로 방어선의 종심깊이 쐐기를 박음으로써 방어하는 쏘련군부대들을 분산, 포위하려고 시도한다.
제예브사단장은 자기에게 배속된 독립땅크련대를 전투에 투입하지만 그것은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의 공격앞에서 아무런 긍정적결과도 가져오지 못한다.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베쏘노브의 집단군에 최고사령부예비대에서 땅크군단과 기계화군단이 보충된다.
집단군사령관 베쏘노브중장은 직접 제예브의 사단감시소에까지 나가 전투를 지휘한다. 군사위원인 웨스닌도 그와 함께 온다.
제예브의 감시소에서는 강안에 펼쳐진 전장이 한눈에 안겨온다.
강안의 부락에서는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고 적들의 땅크들은 포와 반땅크총들의 맹렬한 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오고있다. 얼핏 보아도 조성된 정황의 엄중성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뾰드르 알렉싼드로비츠! 만일 놈들이 망상한대로 아군종심을 뚫고들어가 쓰딸린그라드의 집단과 합치게 된다면 그것은 11월반공격의 성과를 백지화한다는것을 의미하며 11월이후부터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 그 전쟁의 전환이 일어날 가망은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기계화군단에서 다문 한개 려단이라도 공격에 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하고 웨스닌은 걱정한다.
그러나 베쏘노브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계화군단이나 땅크군단의 투입이 결코 정세를 호전시킬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이 군단

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정적인 반공격을 위하여 아껴야 하는 것이다.

베쏘노브는 방사포를 포함한 집단군의 모든 포들을 반땅크전에 인입하고 집단군예비대인 305보병사단을 위험에 처한 제예브사단구역에 투입할것을 명령한다. 그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제예브의 감시소에서 떠나지 않고 전투를 지휘한다.

그러한 베쏘노브앞에서 웨스닌은 얼마전 집단군반탐부에서 입수한 포로된 그의 아들소식을 차마 알려주지 못한다.

누거리신문지우에 찍힌 희미한 사진과 《유명한 볼쉐비크군사지휘관의 아들이 도이췰란드군병원에서 완치》라는 글, 사진에는 병에 시달리여 쇠약해진듯한, 머리를 빡빡 깎은 파리한 소년 하나가 찍혀있었는데 소위견장을 단 그의 헤쳐진 목깃에는 새 목달개가 비뚜름하게 달려있었다. 티브스를 앓고난듯 파리한 이 빤빤머리소년이 다름아닌 베쏘노브의 아들이란다. …

베쏘노브는 군사위원인 웨스닌에게 보충되여오는 땅크군단과 기계화군단을 마중하여 거기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해줄것을 부탁한다. 웨스닌은 자기와 베쏘노브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믿음의 정을 느끼면서 감시소로 떠난다.

웨스닌의 일행은 도중에 후방으로 돌파해들어온 적의 땅크집단과 맞다든다. 치렬한 전투끝에 웨스닌은 베쏘노브의 아들소식을 가슴에 묻어둔채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다.

…베쏘노브장령의 아들 윅또르, 그는 다르게는 절대로 될수 없다. 그는 공청과 쏘베트주권에 의하여 교양된 학생, 청년이 아닌가! 아니다. 나는 다르게 되였다고는 믿지 않으며 또 믿을수도 없다!…

한편 중대에 유일한 포인 우하노브의 포는 파괴된 3문의 포들에서 날라온 포탄들마저 깡그리 소비하고 늦은 저녁에야 사격을 멈춘다.

적땅크들은 이미 그들의 중대를 비롯한 강안의 방어부대들을 돌파하고 력량을 증강하면서 후방으로 전과를 확대해나간다.

어둠이 깃든 강기슭에서 꾸즈네쪼브는 살아남은 우하노브와 두

명의 포병들과 함께 전사한 전우들의 시체를 묻어주고 포탄을 수집한다.

《난 이제까지 중위동무를 곱게 자란 인테리로 치부했댔는데…》

우하노브가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으며 꾸즈네쪼브에게 군관칭호를 받지 못한 사연까지 고백한다.

《난 졸업을 앞두고 자유외출을 했댔습니다. 돌아올 때 그만 대대장한테 들켰지요. 요렇게 코를 맞대고말입니다. 왜 그 출입구옆에 있는 첫번째 위생실창문이 기억나지요? 뒤창문을 넘어들어가자마자 글쎄 대대장이 내앞의 변기에 금방 나래를 펴려는 독수리자세를 해가지고 앉아서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고있질 않겠나요. …》

이때 갑자기 한방의 총소리가 울린다.

급히 달려나가보니 10여m 떨어진 뚝우에 총에 맞은 어떤 사람이 쓰러져있다.

쓰러진 사람은 하루전에 적후로 떠나갔던 사단정찰조의 한 성원이다. 정찰병은 가물거리는 의식속에서도 적들이 차지하고있는 벌판의 폭탄구뎅이속에 두명의 정찰병과 포로된 도이췰란드장교놈이 있다고 알려준다.

꾸즈네쪼브는 즉시 우하노브를 데리고 정찰병들을 찾아 떠난다.

그들은 조명탄이 대낮같이 밝히고 적들이 마구 싸다니는 벌판을 500m나 기여 끝내 정찰병들이 있는 폭탄구뎅이를 찾아낸다.

구뎅이안에는 두사람이 서로 붙안고 죽은듯이 누워있다. 부상을 당한 정찰병은 자기의 몸은 꽁꽁 얼면서도 포로한 장교놈이 얼어죽지 않도록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꽉 부둥켜안고있다. 또 다른 정찰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을 후송하는 도중 적과의 총격전에서 위생지도원 조야가 그만 희생된다.

부상당한 정찰병과 포로는 즉시 군단으로 호송된다.

독립땅크련대와 305보병사단을 전투에 인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반땅크습격려단과 두개의 방사포부대의 헌신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날 해질녘까지도 베쏘노브집단군은 도이췰란드군과 그들의 땅크를 북쪽강안교두보에서 격퇴하지 못한다. 그러나 막대

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제예브사단의 량익측을 치명적으로 압박하던 적의 량면포위는 해제된다.

한밤중에 이르러 집단군이 차지한 모든 지역에서 전투는 중지된다.

옹근 하루동안 《성공적》으로 진격하여 타격범위를 넓혀나가던 파쑈군대도 공격을 중지한다.

전투는 중지되였지만 베쏘노브장령의 사색은 계속된다.

적들이 왜 공격을 중지하였을가? 혹시 적들이 이날 전투에 땅크예비대까지 다 들이밀어 맥이 빠진것이 아닌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체없이 반공격을 들이대야 한다.

때마침 제예브사단에서 보내온 포로된 적장교놈이 도착한다.

베쏘노브는 땅크사단참모부 통신장교인 그자의 진술을 통하여 전날 전투에 《돈》련합부대의 예비대인 17땅크사단이 인입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베쏘노브의 집단군은 다음날 새벽 결정적인 반공격전투에로 넘어간다. 베쏘노브의 명령에 따라 공격전투에 진입한 땅크군단과 기계화군단은 북쪽강안을 차지한 적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들이댄다. 도이췰란드군은 도하장으로 퇴각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도이췰란드군의 땅크들이 천천히 물러가는 남쪽강기슭, 적땅크들이 이미 짓뭉개놓은 참호와 형체없이 파괴된 포중대진지에서 도저히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할수 없었던 병사들이 포문을 열고 전투에 진입한다.

《사령관동지, 우리 동무들입니다. 살아있군요. 불사조와 같은 동무들입니다!》

제예브의 목소리가 베쏘노브의 곁에서 울린다. 베쏘노브는 목이 꽉 메여옴을 느낀다.

쏘련군의 반공격은 승리로 끝난다. 쏘련땅크들은 두개의 도하장을 단숨에 점령하고 강을 도하하여 한데 몰킨 적땅크들을 좌우로 포위하여 모조리 짓뭉갠다.

베쏘노브는 적땅크의 주타격을 막아나섰던 그곳으로 가보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얼음을 타고 강을 건너 남쪽기슭에 오른 베쏘노브의 눈앞에 처참한 광경이 펼쳐진다. 땅크의 무한궤도에 전호들이 파헤쳐지고 푹푹 고랑을 이루면서 뒤집힌데다가 폭탄구뎅이들이 숭숭한 그곳에는 납작해진 기관총들과 솜저고리쪼박들, 흙투성이해군샤쯔쪼박들, 부러진 총탁들, 쪼그라진 방독면과 군용밥통, 거무스레해진 탄피무지와 눈에 묻힌 시체들이 널려져있다. 무기의 잔해와 사람의 생명의 흔적은 거창한 보습으로 갈아엎은듯 폭탄구뎅이들과 땅크무한궤도의 수십t무게에 눌리워 여기저기 생겨난 흙무지에 뒤덮여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하기에 이곳에서 꾸즈네쪼브와 우하노브 등을 만난 베쏘노브는 묻고싶은 말도 다 묻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을 씻을념도 않고 부관쪽으로 돌아선 그는 이 네사람에게 자기한테 수만사람들을 지휘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크고도 위험한 임무를 맡겨준 최고주권의 이름으로 적기훈장을 수여하면서 힘겹게 말한다.

《나로서 할수 있는건 이게 전부요. … 내가 할수 있는건 이게 다요. 땅크를 까부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 이게 중요한거요. 놈들의 땅크를 까부신것이… 이게 중요한거요. …》

베쏘노브일행이 돌아가자 우하노브가 말한다.

《여보게들, 어찌겠소. 식대로 훈장을 술에 담그어마십시다.》

그들에게는 방금전 가마마차가 날라다준 술과 빵이 있었던것이다.

《우리 군대가 놈들을 무찌른 턱으로, 놈들이 깨깨 망한 턱으로 말이요! 그렇지요. 중위동무?》

그들은 훈장들을 담근 술을 순차로 마시기 시작한다. 꾸즈네쪼브가 맨 마감으로 술이 든 밥통을 들었으나 인츰 마시지 못한다. 희생된 동지들의 모습, 중대의 사랑이던 조야의 모습이 떠오른다.

《중위동무, 왜 그러우? 어딜 가우?》

자리에서 일어선 꾸즈네쪼브의 등뒤에서 우하노브가 소리친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요. …》

꾸즈네쪼브는 속삭이듯 대답한다.

《인제 가겠소. 잠간 중대를 돌아보고 곧 오겠소.》

소설은 여기에서 끝난다.

장편소설 《뜨거운 백설》에서 전개되는 생활과 사건의 중심에는 포중대지휘관들과 포성원들 그리고 집단군사령관과 군사위원, 상급지휘관들의 각이한 성격들과 운명선, 그들호상간의 뜨거운 사랑과 충돌이 놓여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핵으로 되는것은 모든것이 부서지고 재가 되는 엄혹한 현실의 밑바닥에 흐르는 쏘베트인간들의 뜨거운 조국애이다.

작가가 소설의 제목을 《뜨거운 백설》이라고 이름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물론 소설에는 그 《뜨거운 백설》에 대한 그 어떤 묘사문도 주정토로도 대사도 주어져있지 않다. 그러나 흰 눈마저 뜨겁게 달아오를 불과 불의 대결장에서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것이 병사들의 열렬한 조국애이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12월의 찬눈도 《뜨거운 백설》로 되였음을 독자들은 진실한 생활형상을 통하여 받아안게 된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저마다 성격도 생각도 다르며 생활에서는 서로의 마찰도 있고 자기나름의 개인적인 고민과 슬픔도 있다. 그러나 병사로부터 지휘관, 더 나아가서는 집단군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조국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문제앞에서 일체 사사로운 감정을 묻어버리며 오직 원쑤격멸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것이다.

작가 유리 본다레브의 장편소설 《뜨거운 백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로 하여 레닌상을 수여받았으며 예술영화로도 제작되였다.

——— ❖ ——— ❖ ———

열풍이 얼굴에 확 끼쳤다. 머리우에서는 불찌를 튕기며 파편들이 휘파람소리를 냈다. 허리를 굽히자마자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두개의 포탄구뎅이가 포방순에서 두메터 떨어진 곳에서 연기를 뭉게뭉게 피우고있었다. 포성원들은 흉장앞에서 폭발이 일어날때마다 흠칫흠칫 떨면서 땅에 얼굴을 틀어박고 화력진지에 엎드려있었다. 조준경곁을 떠날 권리가 없는 조준수 예브스찌그네예브만이 희슥희슥한 관자노리를 괴상하게 조준경에 대고 비비면서 방순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엎드려있는 포성원들을 곁눈질하여 보면서 뭣인가 눈짓으로 물으며 소리쳤다.

《하사동무…》

하사 츄바리꼬브는 소대장전호에서 머리를 불쑥 내밀더니 온통 흙을 뒤집어쓴 허리를 구부정하고 뛰쳐나와 포열에서 무릎을 꿇고 예브스찌그네예브한테로 기여왔는데 그의 앞가슴에서는 쌍안경이 데룽거리고있었다. 그는 자기 사람을 깨우려는듯이 예브스찌그네예브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었다.

《예브스찌그네예브! 예브스찌그네예브!…》

《귀가 들리지 않소?》 꾸즈네쪼브는 소리치고 자기도 조준수쪽으로 기여갔다. 《왜 그러오. 예브스찌그네예브? 조준할수 있소?》

《예. 있구…》 머리를 흔들면서 예브스찌그네예브가 말하였다. 《귀가 메였습니다.… 구령을 더 크게 치십시오. 더 크게!》

그리고는 귀에서 흘러내리는 빨간 피를 장갑낀 손으로 뻑 문대고나서 피묻은 장갑은 들여다볼념도 않고 조준경에 달라붙었다.

《일어섯, 모두 포앞으로!》 꾸즈네쪼브는 무엇인가 목이 꽉 메이는것을 느끼면서 성급한 목소리로 구령을 주었다.

——— ❖ ——— ❖ ———

《조야, 장탄하시오!…》

《전 할줄 몰라요. 가만 계셔요. 그저… 끌어오기만 하겠어요. …》

《장탄하라지 않소! 포탄!… 포탄!》

그렇게 말하고는 어쩔 도리가 없어 조준기에서 눈을 떼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조야는 포바퀴에 착 달라붙어있는 까씌모브의 몸뚱이를 떼내여 흉장밑에 눕히고서야 기진맥진하고 초조해하는 꾸즈네쪼브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몸을 일으켰다.

《장탄하라지 않소! 듣소? 포탄, 포탄… 상자에서 포탄…》

《네, 알았어요. 중위동지. …》

조야는 비칠거리며 포가결의 열려진 포탄상자에로 다가가더니 포탄 하나를 꽉 쥐고 뽑았다. 열려진 탄약실에 그것을 밀어넣은 다음 폐쇄장치가 절컥 하고 닫기자 그 녀자는 눈을 사르르 감으면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꾸즈네쪼브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 회전하는 시커먼 큰 무한궤도가 조준기로 기여올라 바로 대물렌즈앞에서 꿈틀거렸다. 땅크발동기의 높은 굉음은 모든걸 짓누르며 그를 포에 꽉 달라붙게 하였고 가슴은 확확 달며 답답해왔고 귀는 멍멍하고 땅덩어리는 드르르 떨렸다. 그는 울퉁불퉁한 땅을 짚고있는 무릎이 떨리고 발사줄을 당기려 하는 손도 떨리고 눈우에 흘러내린 땀방울도 떨리는것처럼 느껴졌다.

처녀는 포에서 5메터 아니면 10메터밖에서 돌파해오는 이 땅크들을 보지 못한듯도 하였고 보려 하지 않는듯도 하였다.

이제는 조준기의 십자눈금을 한점에서 포착할수 없었다. 시커멓고 삐걱거리는 거대한 물체가 모든것을 꽉 뒤덮었다. 온 누리를 덮어버렸다.

그는 발사줄을 당겼다. 그리고 땅크가 정면으로 발사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장편소설 《뜨거운 백설》중에서

## 본다레브의 장편소설 《기슭》

장편소설 《기슭》은 유리 본다레브가 1975년에 창작한 작품으로서 작가의 대표작들중의 하나이다.

작품은 주인공의 회상과 사색, 체험을 통하여 쏘베트조국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 인간의 건전한 륜리도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전쟁참가자인 작가 니끼찐은 전후 26년만에 서부도이췰란드(당시)의 출판업계에서 조직한 《작가와 현대문명》이라는 토론회에 참가할 초청을 받고 함부르그로 가게 된다. 니끼찐은 자기 작품의 열렬한 애독자인 헤르베르트부인의 안내를 받으며 낯선 땅에 들어선 첫 순간부터 친절한 그 녀자의 마음속에 어떤 깊은 사연이 간직되여있는듯한 감촉을 받으면서 아득한 과거시절의 어느때인가를 더듬어 찾게 된다. 그러다가 마침내 녀인의 고백을 통하여 잊을수 없는 젊은 시절의 사랑의 한페지를 감회깊이 회상하게 된다.

하지만 추억에서 벗어나 눈을 뜨고보니 현실세계는 참으로 랭혹하였다.

니끼찐은 함부르그를 방문하는 과정에, 자기 작품을 번역출판하는 업자들인 리쯔만과 케베르, 배우 티텔과의 대화과정에 량립할수 없는 두 사회제도의 모순과 서방지식인들의 회의주의적이며 빈곤한 정신세계, 부화타락한 생활양식을 목격하게 된다.

니끼찐이 젊은 시절에 체험했던 도이췰란드처녀 엠마와의 사랑은 깨끗하고 아름다왔다. 그러나 화합할수 없는 동방과 서방의 모순으로 니끼찐은 끝없는 의혹에 시달리며 수십여년간 아름다운 첫사랑을 간직해온 엠마－헤르베르트부인의 애절한 호소를 외면한다.

작품은 사건을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줄거리가 없으며 현재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과거생활－파쑈도이췰란드의 마지막잔당들을 소탕하는 전투에서 발휘된 주인공을 비롯한 쏘련군대의 인도주의, 인간성의 관점에서 오늘의 모순에 차고 기형화된 서방세계를 다방면적으로 해부하며 비판하고있다.

그러나 작품은 사람들이 모두 인도주의와 인간애를 발휘하면 행복하고 희망에 찬 새세계를 얻어낼수 있는듯이 력설한것이나 전쟁환경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린다고 하여 개별적인 병사들사이의 갈등을 지나치게 첨예화시키고 전개한것과 같은 일련의 사상적인 제한성도 나타내고있다.

# 녀의사 웨라

중편소설 《녀의사 웨라》는 이전 쏘련의 작가 보리스 니꼴라예비츠 뽈레보이가 1966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쏘도전쟁의 초시기 히틀러파쑈군대가 일시적으로 강점한 도시에 떨어진 한 평범한 녀의사의 투쟁을 통하여 쏘베트인간들이 지녔던 조국과 인민, 의무에 대한 헌신성과 성실성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인 녀의사 웨라와 쑤호흘료브대좌, 나쎄뜨낀로인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은 파쑈도이췰란드침략군이 쏘베트군대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웨르흐네볼쥐스크시에 접근해오는 준엄한 정황으로부터 시작된다. 놈들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도시는 불바다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

녀의사 웨라 니꼴라예브나가 일하는 병원의 지하병동으로는 매일 부상당한 군인들과 사민들이 들이닥친다. (병원건물이 적들의 폭격으로 무너졌기때문에 지하실을 수술실로, 입원실로 리용하고있다.) 수술의사가 부족하였기때문에 웨라는 병원에서 침식을 해가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그의 아들인 돔까와 딸 스딸리까도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생활한다.

어느날 붉은군대는 도시에서 철수하기 시작한다.

웨라가 일하고있는 병원도 철수해야 하였으나 환자들을 수송할 자동차를 구해오려고 떠난 두비니츠의사가 돌아오지 않아 철수를 못하고있다.

끝내 웨라는 두비니츠의사를 찾아 병원을 나선다.

시내의 거리들은 후퇴의 길에 나선 수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웨라를 알고있는 사람들은 저저마다 그에게 함께 후퇴하자고 권고하

나 그는 병원지하실에 환자들을 그냥 둬두고는 차마 혼자 후퇴할수가 없었다.

두비니츠의사를 찾아 도시의 교외에까지 나갔던 웨라는 이 도시의 자랑이였던 다리의 폭발을 목격하게 된다. 붉은군대가 후퇴하면서 다리를 폭파한것이다. 자신과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깃든 다리의 란간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것을 보는 순간 웨라는 무서운 고독감에 휩싸인다. 이제는 두비니츠의사도 올수 없었고 자기는 적들속에 홀로 떨어지게 된것이다.

그가 없는 사이에도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계속 들어와 그의 손길을 기다린다.

병원으로 돌아온 웨라는 자신의 슬픔에 잠겨있을새도 없이 부상당한 어린 소년의 수술을 진행한다. 어두운 아세틸렌등의 불빛아래서 수술간호원도 없이 간병원 페냐아주머니와 아들 돔까의 수술방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수술은 매우 힘들게 진행된다.

일부 환자들속에서는 웨라가 자기들을 파쑈놈들에게 넘겨주려고 일부러 교활하게 책동한다고 말다툼까지 벌어진다. 전쟁전에 모해를 받아 억울하게 간첩루명을 쓰고 재판을 받은 시당비서였던 남편의 일까지 이번 일과 련관시킨다. 그러나 웨라는 이를 악물고 모든것을 참아가면서 수술에 전념한다.

도시에 파쑈놈들이 들어온다.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차림에 총을 꼬나들고 수술장에 뛰여든 파쑈놈들을 보는 순간 웨라와 그의 성원들이 느낀것은 공포가 아니라 원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이다.

파쑈놈들이 낯짝을 찡그리며 돌아가자 웨라와 그의 방조자들이 처음으로 벌린 사업은 붉은군대 부상자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사업이다. 경리간호원인 마리야아주머니는 군인들의 군복을 모조리 거두어 불태워버리고 신분을 가려볼수 없게 그들의 머리도 빡빡 깎아준다. 오랜 직포공으로서 년로보장을 받고있던 마리야아주머니는 전쟁이 일어나자 자진하여 간호원강습소를 나오고 병원의 경리간호원이 된 녀인이다. 성미가 드센 그 녀인은 민첩하고 깐진 일솜씨로 병원에서 제기되는 자질구레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

아안고 해나가고있다. 웨라도 그가 자의대로 《원장》으로 승격시켜놓는다.

다음날 아침 공장마을지구에서 의원으로 알려진 나쎄뜨낀로인이 웨라를 찾아와 자기를 병원에 받아달라고 한다. 나쎄뜨낀은 혁명전 큰 장사군집안의 아들로서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준의로 복무한 로인이다. 10월혁명후 나쎄뜨낀일가의 재산은 국유화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쎄뜨낀로인은 평범한 사람들속에서 살면서 치료사업을 하여 점차 명의로 소문이 났다. 그의 출신성분은 그의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군 하였는데 어느해엔가는 한 일군의 편협한 행동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적도 있었다.

《어떻게 적들속에 남기로 작정했는가?》라는 웨라의 질문에 그는 《나는 놈들한테 남은것이 아니라 우리 로씨야사람들한테 남았다.》고 대답한다.

그러지 않아도 의사의 손이 모자랐던 웨라는 기쁘게 그를 병원에 받아들인다.

나쎄뜨낀로인을 병원에 받은 그날 파쑈장교 한놈이 병원에 나타난다.

아이들이 《프루싸크》(바퀴라는 뜻)라고 별명을 붙인 그놈은 웨라에게 일장 훈시를 한다. 그자는 쏘베트는 망했고 새로운 질서에 반항하는자들은 무자비하게 전멸될것이라고 호통을 친다. 《프루싸크》는 위수사령부에서는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것을 승인했다고 하면서 병원성원과 환자들의 명단을 제출할것을 요구한다.

한참동안이나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볼쉐비크가 아닌가, 정치위원이 아닌가 따져묻고난 그자는 웨라에게 병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짯짯한 봉투를 넘겨주고 돌아간다. 《삐펠》이라고 하는 그 명령서봉투의 속지에는 공산당원, 특히 정치위원과 유태인환자가 들어오면 즉시에 신고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시법에 따라 처형된다고 씌여져있다. 웨라는 그것을 누구도 보지 못하게 감추어버린다.

적강점하에서도 병원에는 쏘베트적인 생활질서가 보존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어느날 밤에 병원에 실려들어온

쑤호흘료브대좌이다. 도시방어를 맡은 사단을 지휘하다가 타박상을 입은 그는 사단정찰병인 무드리크와 사단군의소 간호원 안또니나에 의해 이곳으로 후송된것이다. 그는 어딘가모르게 웨라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며 아이들도 그를 곧잘 따른다.

대좌는 자주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과 전선너머의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군 한다.(그 소식들은 이따금 밤에 나타나군 하는 무드리크가 물어오는것들이다.)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열병식을 하려던 파쑈놈들의 계획이 파탄된 소식, 전선에서 얻어맞은 파쑈부상병들이 시내로 수많이 실려온 소식, 정체불명의 사람이 적의 위수사령부에 뛰여들어 사령관놈을 쏘아제낀 소식 등 모두 사람들을 흥분케 하는 소식들이다. 대좌의 이야기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진통제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긴장한 식량사정도 얼마간 풀리게 된다. 쑤호흘료브의 발기로 경환자들로 식량구입조가 무어져 무너진 병원식량창고의 페허에서 쥐똥이 섞인 얼마간의 쌀과 통졸임을 꺼내오며 전투장에서 죽은 말의 고기를 썰어다 소금에 절구어놓기까지 한것이다.

병원을 감시하는 파쑈놈들과의 관계도 그럭저럭 유지되여나간다.

《프루싸크》와 위수사령부의 위생과에 있는 대위(그자에게는 《가분수》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는 매일 정각 11시에 나타나 새로운 입원환자에 대해 묻군 한다.

정치일군과 비행사를 비롯한 군인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는 그럴듯한 《경력》이 붙여지군 한다.

어찌보면 군의인 《가분수》에게는 환자들의 신원이 그닥 흥미를 끌지 않는듯 하다. 《가분수》는 《프루싸크》 몰래 웨라에게 항생제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어느날 아침 나쎄뜨낀의원이 두가지 새 소식을 가져온다.

하나는 도시에 《검댕이부대》(대좌는 그놈들이 에쓰에쓰부대라고 하였다.)가 새로 왔는데 그놈들은 오자마자 사람들을 조사하여 대대적으로 체포해간다는것이다. 병원에도 이틀안으로 위수사령부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거주등록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이 떨

어진다.

다른 하나의 소식은 후퇴해간줄로만 알았던 웨라의 시아버지 니끼찐이 도시에 그냥 남아있다는것이다.

웨라에게는 한생을 철공으로 살아왔으며 언제나 《나는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라고 말하군 하던 시아버지가 놈들밑에서 살겠다고 도시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웨라는 어느날 아이들을 데리고 조만해서는 나서지 않던 병원을 나서 시아버지를 찾아간다. 정말로 시아버지 니끼찐은 놈들의 허가밑에 개인철제영업을 차려놓고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혁명전의 개인수공업자를 방불케 한다. 그의 태도에 아연해진 웨라와 아이들은 그만 그 집을 뛰쳐나오고만다.

시내에서는 파쑈놈들의 체포소동과 학살만행이 계속된다.

어느날 병원에 나온 《가분수》는 《프루싸크》가 모르게 웨라에게 귀띔한다.

《웨라부인, 저… 질서…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웨라는 무엇인가 중요하고도 위험한 일이 닥쳐오고있다는것을 직감한다.

웨라는 거주등록증을 받으려고 시위수사령부로 간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죽었다고 소문이 났던 시립극장배우인 란스까야와 만난다. 그 녀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작정 웨라를 데리고 위수사령관방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란스까야와 웨라에게 증오에 찬 눈길을 보냈지만 어쨌든 그 녀자덕분에 웨라는 거주등록을 빨리 끝내게 된다.

위수사령부를 나온 란스까야는 웨라를 자기의 숙소로 데리고 간다. 란스까야는 웨라에게 자기의 신세를 하소연한다. 란스까야는 시립극장 예술부총장을 하던 워로꾸노브의 꾀임에 넘어 시내에 떨어졌다고 한다. 란스까야는 파쑈놈들밑에서 부시장을 해먹는 워로꾸노브와 함께 놈들의 턱찌꺼기를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있었다. 웨라는 그의 넉두리가 역스러워 그 집을 나선다.

병원으로 돌아온 웨라는 위수사령부에서 있었던 일을 쑤호흘료브에게 이야기하고 군인환자들의 병력서들을 빈틈없이 꾸며놓는

다. 부상병들이 입을 사민옷도 공장사택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련된다.

그 다음날 정해진 날이 아닌데도 이른새벽부터 파쑈놈들이 병원에 나타난다. 이번에는 《가분수》와 《프루싸크》외에 새까만 군인외투에 번쩍이는 장화를 신은 다른 한놈이 또 있다. 《폰》이라고 부르는 그놈은 입원실과 환자들을 샅샅이 돌아보지만 벽장뒤에 붙인 쓰딸린의 초상화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자는 《가분수》를 호되게 닦아세우고나서 웨라에게 병원에 질서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하고는 병력서들을 걷어쥐고 돌아간다.

병원에는 새로운 위협이 닥쳐온다.

쑤호흘료브대좌는 병원의 무거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놀이를 발기한다. 무드리크가 욜까를 구해오며 아이들은 여러가지 색갈의 약병으로 그것을 장식한다. 환자들도 모두 흥성거린다. 전쟁전에 교예배우였던 간호원 안또니나는 특별프로를 준비하며 경리간호원 마리야아주머니는 모두에게 지하실에서 구운 깔깔한 빵에 살구쨤을 바른 《크림빵》과 월계수잎과 사카린을 넣고 끓인 《차》를 공급한다. 모두는 파쑈놈들의 멸망을 위하여 축배를 들며 그날밤만은 춤을 추면서 즐겁게 지낸다.

파쑈놈들도 그날밤 저들대로 크리스마스놀이를 벌려놓는다. 그러나 연회장안에 던져넣은 무드리크의 수류탄벼락에 수많은 에쓰에쓰장교놈들이 죽어너부러지고 일대 소동이 일어난다.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배우 란스까야도 파편에 부상을 입고 웨라의 병원으로 실려온다.

악에 받친 파쑈놈들은 사람잡이에 미쳐날뛴다.

나쎄뜨낀로인도 에쓰에쓰놈들에게 붙잡혀간다. 놈들은 나쎄뜨낀일가가 쏘베트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선거권을 박탈당하였던 일을 미끼로 로인을 저들의 의료담당 부시장으로 리용하려고 하다가 그의 랭담한 거절을 받은적이 있었다. 이번에 그 복수를 한것이다.

웨라는 직접 시위수사령관까지 찾아가 로인의 석방을 요구하나 놈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폰》은 오히려 병원의 환자들문제를 가지고 웨라를 심문한다.

놈들은 웨라의 병원에서 환자들이 지내 오래 입원해있다고 하면서 조사성원들을 파견하려고 한다.

놈들의 조사위원회가 나오면 모든것이 끌장일것이다. 부상자들의 상처자리는 거의다 아문 상태였던것이다.

(수술자리를 다시 헤쳐놓아야 한다!)

웨라는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줄곧 생각한다.

웨라는 쑤호흘료브대좌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환자들을 설복한다. 결사적인 시각에 군인들은 무조건 웨라를 믿는다.

초저녁부터 밤깊도록 웨라는 력사상 그 누구도 해본적이 없는 《모독적인 의료작업》을 진행한다. 붕대를 풀고 수술칼로 부상자들의 아문 상처를 살짝 찢어놓는다. 새살을 헤치고 봉합자리를 벌려놓은 다음 다시 본래의 실자리를 따라가면서 새로 봉합해놓는다. 모두 열여섯명의 부상자들에게 이런 수술을 해준다.

다음날 병원에 조사위원회가 도착한다.

《폰》의 명령으로 《가분수》는 여러 환자들의 붕대를 풀고 수술자리를 검열한다. 《폰》자신이 직접 나서서 환자의 석고까지 까본다. 《폰》의 행동은 《가분수》조차 부끄러워할 정도이다.

부상병들은 용케도 자신들을 억제한다. 그들의 부풀고 갈라터진 수술자리들을 들여다본 《폰》은 더럽다는듯이 병력서들을 내동댕이치고 돌아가버린다.

붉은군대가 가까이 온다. 강건너편에서 울려오는 포소리와 기관총소리를 병원에서도 들을수 있다. 쑤호흘료브대좌는 이제 한주일이면 붉은군대가 자기들을 해방시킬것이라고 확언한다.

파쑈놈들은 최후발악을 한다.

웨라의 시아버지 니끼찐로인이 놈들에게 체포된다. 그의 집에서 무전기가 발견된것이다.

놈들은 나쎄뜨낀의원과 니끼찐로인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대지 않은 어떤 사나이(그는 쑤호흘료브사단의 정치위원이였다.)를 공개적으로 사형한다. 놈들은 웨라에게도 사형장에 무조건 출두할것을 명령하고는 그를 파쑈놈들이 있는 귀빈석에 세워놓는다.

세명의 사형수들은 당당하게 교수대앞으로 걸어나간다.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니끼찐로인이 갑자기 놈들을 밀치고 결상을 들어 위수사령관이 있는 귀빈석을 향해 집어던져 놈들을 전률케 한다.

악에 받친 놈들은 그들을 총으로 쏘아죽인다.

니끼찐로인은 《손주녀석에게 제 하내비가…》하고는 말끝을 맺지 못한채 쓰러진다.

순간 놈들속으로 여러개의 수류탄들이 날아든다. 사형장은 수라장으로 변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려던 놈들의 계획은 파탄된다.

웨라는 눈물을 삼키면서 달린다. 병원가까이에 이르러서야 그는 마음을 진정한다. 이제는 시아버지가 어째서 시내에 남았는가를 알수 있었던것이다.

파쑈놈들은 늘어나는 제놈들의 부상병들을 위하여 병원의 침대들과 증기소독기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침대들을 날라가려고 왔던 《프루싸크》가 갑자기 기절초풍하면서 황급히 도망을 친다. 한 부상병의 몸에 돋은 두드러기를 보고 발진티브스로 착각한것이다. 놈들은 지하실의 입구를 봉쇄하고 그들을 격리시킨다.

드디여 도시해방을 위한 붉은군대의 공격이 시작된다.

○ 상 식 ○

##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일. 성탄제, 성탄절이라고도 한다.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전야, 25일은 크리스마스날이라고 하며 크리스마스전야～1월 1일 혹은 1월 6일까지를 《크리스

먼곳에서 들려오는 포소리를 들으며 모두는 붉은군대를 맞이할 차비를 한다. 웨라는 그동안의 치료문건들을 정리하고 새로 들어올 부상자들에 대한 수술준비도 갖추어놓는다.

파쑈놈들은 달아나면서 병원의 환자들을 모두 학살하려고 한다.

놈들은 든든한 방공호의 문을 마스지 못하게 되자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고 한다. 이 위급한 순간 무드리크가 수류탄으로 놈들을 소멸한다. 웨라가 부상당한 무드리크를 수술하는 사이에 붉은군대는 도시를 해방한다.

제일 선참으로 지하실에 뛰여든것은 두비니츠의사이다. 환자들을 후송할 자동차를 구하려고 갔던 그는 오는 도중에 적의 폭격을 당하여 한팔을 잃었다. 웨라는 흥분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그동안의 치료정형에 대하여 보고를 한다. 웨라는 약품과 식량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두세명의 사망자를 내놓고는 수십명의 부상자들을 모두 완쾌시키는 위훈을 세웠던것이다.

도시가 이미 해방되였는데도 환자들은 의연히 지하실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도시가 해방된 후에 웨라는 뜻밖에도 사람들에게서 랭대를 받게 된다. 시누이와 그로모바의사를 비롯하여 그와 가까왔던 사람들은 웨라가 놈들에게 복무하면서 애국자들을 사형하는 자리에까지

마스휴가》라고 부르고있다.

교회에서는 예수가 탄생한 날을 대경축날로 맞이하는데 사제는 이날에만 한밤중, 이른새벽, 오전 3번에 걸쳐 미사 (신에게 하는 제사) 를 한다.

그리스도교의 종파들중에는 청교도처럼 크리스마스행사와 풍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교회내의 의식은 거의 모든 종파들이 다하고있다.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다음날 아침 어떤 군관들이 검사의 수표가 있는 체포령장을 가지고와서 웨라를 체포해간다. 경찰, 신부 등 놈들의 주구노릇을 하던자들과 같이 차에 실려가는 웨라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다. 자기의 량심을 믿어주지 않는것이 야속했던것이다. 웨라는 배우 란스까야와 놈들의 밀정노릇을 한 녀자와 한감방에 갇힌다. 란스까야는 그가 놈들의 밀정으로 되였다는 워로꾸노브의 허위진술때문에 체포되였다.

두명의 예심원이 웨라의 사건을 취급한다. 그들은 웨라가 적들의 위수사령부에 드나든 사실을 거들면서 그가 게스타포의 간첩이 될것을 서약했다는것을 인정하라고 한다. 웨라가 아무리 자신의 청백함을 증명하려고 하였으나 모든것이 허사이다. 그들은 지어 전쟁전 도이췰란드간첩으로 재판을 받은 웨라의 남편일을 들추어내면서 남편이 간첩이니 너도 간첩이다는 식으로 그의 죄를 인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웨라는 자신의 죄를 완강히 부인한다. 그는 진실은 아무때건 밝혀질것이라고 믿는다.

어느날 웨라와 한감방에 갇혀있던 배우 란스까야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심원들은 그 녀자를 밀고한 부시장 워로꾸노브에 대한 심문을 다시 진행한다. 결과 란스까야와 웨라가 도이췰란드간첩이 될것을 서약했다는 워로꾸노브의 진술이 거짓이였다는것이 판명된다. 웨라에 대한 예심은 중지되고 그는 석방된다.

집에서 시누이와 아이들이 웨라를 반갑게 맞이한다.

그러나 웨라는 집에 더 있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병원에서 폐냐아주머니와 지나이다아주머니(죽은 와씰리크환자의 어머니)가 그를 맞이한다. 폐냐아주머니는 웨라가 잡혀간 사이에 환자들이 자기들의 웨라선생을 석방할것을 요구하여 어떻게 소동을 피웠는가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도시가 해방되던 날 웨라를 외면하던 그로모바의사도 그가 시련을 이겨낸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로모바는 웨라가 치료한 환자들을 직접 진찰한 전선총책임군의가 치료가 완전무결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웨라를 병원의 책임외과의사로 초청한다.

웨라는 쑤호흘료브대좌와도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완쾌된 쑤호흘료브는 또다시 사단을 맡는다. 쑤호흘료브사단의 군의소장은 웨라에게 군의가 될것을 요청한다. 그후 웨라는 전선으로 나가 사단군의소 책임외과의사가 되여 위훈도 세우고 화선입당도 하게 된다. 이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중편소설 《녀의사 웨라》에서 작가 보리스 뽈레보이는 지난 쏘도전쟁시기 쏘련인민이 지니였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 맡은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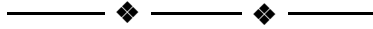
작품의 주인공 웨라는 쏘련의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다. 연약한 녀성이며 평범한 가정주부인 그가 파쑈가 살판치는 적후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수십명의 군인부상병들과 쏘베트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적으로 구원하는 위훈을 세울수 있은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당과 수령에 대한 믿음,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는 적들이 강점한 도시에서 벽장속 깊은 곳에 쓰딸린의 초상화를 모시고 언제나 거기에서 힘을 얻군 한다. 그러한 그였기에 파쑈의 탄압과 회유기만, 자기 사람들의 불신과 오해, 어려운 치료조건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량심적으로 수행해올수 있은것이다.

이러한 그의 형상은 자기 위업에 대한 신념이 없었던탓에 적의 주구로 전락되여 비참한 종말을 마치는 워로꾸노브와 란스까야의 형상과의 대조속에 더욱 뚜렷이 강조되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웨라와 함께 니끼찐로인과 나쎄뜨낀의원 등 평범한 쏘베트인간들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지닌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중편소설 《녀의사 웨라》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훌륭히 구현하여 평범한 사건속에서 전형적인 쏘베트인간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쏘베트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 ———— ❖ ————

그는 더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했고 들을수도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뜨레쉬니꼬바동무! 뜨레쉬니꼬바동무!》라는 말이 갖가지 가락으로 노래가 되여 울려퍼지는것 같았어요. 나는 마치 《동무》라는 그 귀중한 말을 두손에 받아쥐고 너무 고와서 어루만지고있는것 같았어요. …

그동안 나에 대한 얼마나 엄중한 죄행들이 기소되였고 어떤 증거들이 제출되였으며 어떻게 돼서 그것이 하나씩 해명되고 부정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예 알고싶지도 않았고 또 귀에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뜨레쉬니꼬바동무!》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오늘 나는 아이들을 만나보게 되고 태양도 보게 되고 신선한 공기도 마음껏 마시며 가고싶은대로 다 갈수 있게 되였단 말이예요.

군관은 계속 말을 하고있었어요. 그는 책상서랍을 열더니 나의 공민증을 꺼냈어요.

쎄뵨, 당신도 이제 앞으로 이런 순간을 체험하게 되겠으니 그때가서 당신의 웨라가 이 순간 어째서 갑자기 머저리처럼 되여버렸는지 리해하실거예요.

석줄박이 령장을 단 나이지긋한 이 사람은 내가 공민증을 손에 받아쥐자 그가 보는 앞에서 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엉엉 울어대는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우느라고 그가 내옆에 갖다놓은 물고뿌도 보지 못했어요.

중편소설 《녀의사 웨라》중에서

# 조야와 슈라

《조야와 슈라》는 쏘도전쟁시기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희생된 빨찌산영웅 조야와 그의 남동생 땅크병영웅 슈라에 대하여 어머니인 류보비 꼬스모제미얀스까야가 쓴 글이다.

1949년 4월 빠리에서 진행된 세계평화옹호자대회에 참가한 류보비 꼬스모제미얀스까야는 《나는 오늘 평화옹호를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하여보며 그 위대한 사업에 한몫 기여하기 위해 자기 자식들에 대한 글을 남길것을 결심한다. 행복과 기쁨과 평화적로동을 위하여 태여났고 자라났으며 로동과 행복, 자기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파시즘과의 투쟁에서 희생된 류보비 꼬스모제미얀스까야의 딸 조야와 아들 슈라,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였던가. …

땀보브주 북방에는 오씨노븨예 가이라는 마을이 있다. 《오씨노븨예 가이》는 《사시나무밭》이란 뜻이다. 바로 이 마을에서 조야와 슈라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살고있다.

사회주의10월혁명은 가난하기 그지없던 그들의 가정에도 새로운 생활을 가져다준다.

조야의 외삼촌인 쎄르게이는 행복한 쏘베트제도를 지켜 붉은군대에 입대하며 어머니인 류보비녀성도 촌학교 교원이 되여 인민들의 문화계몽사업에 헌신한다.

조야와 슈라의 아버지인 아나똘리 뻬뜨로비츠는 진실하고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유년시절에 조야는 거짓을 제일 싫어한다. 복잡한 당시 정세는 어린 조야로 하여금 일찍 철이 들게 한다.

《엄마!》하고 한번은 조야가 어머니에게 묻는다.

《왜 부르마낀네는 집도 크고 양도 말도 소도 많나? 왜 한사

람한테 그렇게 많나? 그리구 왜 루젠쪼브네는 애들두 많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도 오막살이집이고 소도 양도 없나?》

이것은 조야가 어머니와 처음으로 빈궁과 부유, 불공평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나눈 이야기이다.

1929년 꿀라크(부농)들이 7명의 농촌공산당원들을 학살한 사건은 조야에게 큰 충격을 준다.

《무엇때문에 저 사람들을 죽였나? 꿀라크란 누구나? 엄마도 공산당원이나? 아버지도? 엄마와 아버지는 죽이지 않나? 죽인 놈들을 붙들었나?》

조야는 희생된 공산당원들의 장례행렬을 오래동안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묻고 또 묻는다. 조야만이 아니라 어린 슈라도 같은것을 지꿎게 물어본다.

조야와 슈라는 노래를 사랑한다.

씨비리의 오랜 민요와 공민전쟁시기의 노래들, 그중에서도 그들은 한 노래를 특히 사랑한다.

밤은 지나 산들바람 불고
맑게 개인 봄날이 밝아오는데
해빛 따스한 아침에
빨찌산의 젊은이 숨거두었네

온 가족이 모스크바로 이사하여온 다음 조야와 슈라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두살차이인 그들은 한학급에서 공부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교육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아버지는 자식교양에서 언제나 엄격하며 무엇을 하나 가르쳐도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쳐준다.

1931년 11월 7일, 10월혁명기념일에 즈음하여 아버지는 조야와 슈라를 데리고 붉은광장으로 간다.

그들은 광장을 메우며 행진하는 시위대렬에 섞이여 붉은광장

을 지나간다.
오씨노븨예 가이의 한적한 마을에서 살면서 언제나 마음속으로 동경해오던 붉은광장!
8살난 조야와 6살난 슈라는 레닌의 신성한 이름이 새겨진 레닌묘앞을 지나며 주석단을 줄곧 바라본다.
《쓰딸린동지 만세!》
누군가가 웨치자 모두가 만세를 따라부른다.
쓰딸린은 미소를 띠우고 군중에게 손을 흔든다. 우렁찬 만세소리는 광장을 뒤흔든다.
조야와 슈라도 깡충깡충 뛰며 주석단을 향하여 작은 손들을 내흔든다. 이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풍선을 사준다.
그들이 날린 풍선은 조야와 슈라의 기쁨과 희망인듯 하늘높이 날아오른다.
다음해 2월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조야는 더욱 어른스러워진다.
그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위로하며 동생을 데리고 집안을 거두기도 한다.
조야는 학교생활에서도 남들보다 뛰여나게 앞선다. 그는 학급동무들의 잘못을 보면 참지 못하고 원칙적인 비판을 하며 뒤떨어진 동무들의 학습방조를 위해 자진하여 남군 한다. 그는 학습에서도 언제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푸는 이악한 습관을 키워나간다.
조야는 언제나 가장 모범적인 학생으로 평가를 받으며 학급동무들의 사랑을 받는다.
오랜 공산당원이며 레닌그라드주당비서인 끼로브에 대한 암살사건은 조야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는 어렸을 때 목격한 7명의 공산당원이 살해되였던 일에 대하여 상기한다.
그날밤 조야는 오래동안 잠들지 못하고 삐오네르입단청원서를 자기 손으로 쓴다.
며칠후 조야는 삐오네르에 입단한다.

이 시절에 조야가 가장 즐긴것은 독서이다. 책은 그의 생활의 길동무이고 선생이다.

처음 그가 읽은것은 아르까지 가이다르의 작품들이다. 그 소설들은 어린 그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가르쳐준다.

그는 점차 국내외의 이름난 작품들을 모조리 읽어나간다. 그는 책을 보면 그에 대한 소감을 짤막하게 적어놓군 하며 소설 《등에》를 읽을 때에는 밤새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혁명적인 책들은 그의 의식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 대표적인것은 《공민전쟁시기의 녀성들》이라는 책에 실린 실화 《따냐 쏠로마하》이다.

따냐는 어렸을 때 소설 《등에》를 읽고나서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바칠것을 맹세한다. 학교를 마친 그는 혁명전에 볼쉐비크지하조직에 참가하며 공민전쟁시기에는 붉은군대에 입대한다.

1918년 11월 백파놈들에게 체포된 따냐는 놈들의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싸운다.

《네놈들은 얼마든지 나를 죽일수 있지만 쏘베트는 죽일수 없다. 쏘베트는 반드시 돌아올것이다!》

따냐의 고상한 정신세계는 조야의 작은 가슴을 울린다. 따냐에 대한 실화에 뒤이어 읽은 빠벨 꼬르챠긴의 빛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하여 쓴 오스뜨롭스끼의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도 조야와 슈라의 심장속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1938년 가을 조야는 공청에 가맹한다. 공청원이 된 날 조야는 아주 딴사람이 된것 같다.

공청원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야는 학급 공청조직책임자로 선거된다.

그는 생각한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 우리를 공청원이라고 할것인가?

조야는 즉시 동무들의 희망과 소질들을 알아본데 기초하여 분공을 조직한다.

누구는 학습을 맡고 또 누구는 체조를, 누구는 벽보를… 조야는

자진하여 녀성들의 문맹퇴치를 맡아나선다.
조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맡은 녀성의 집을 찾아가 그의 학습을 방조한다.
조야와 슈라가 중학교 10학년이 되는 해인 1941년 6월 22일 파쑈도이췰란드는 쏘련을 침공한다. 모든 쏘련사람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조야와 슈라도 몹시 흥분된다.
그들의 이웃들과 친지들이 하나둘 전선으로 떠나간다. 조야는 전선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몹시 속이 상해진다. 군대엔 왜 처녀를 받지 않는가?
라지오로 그는 매일 쏘베트보도국의 보도를 듣는다. 전쟁초기 전선형편은 몹시 어려웠다. 이 보도를 들으면서 조야는 눈섭을 찌프리고 입술을 깨문다.
《과연 어떤 땅을 짓밟히운단 말인가!》 그는 저도모르게 고통스럽게 웨친다.
7월에 슈라가 집을 떠난다.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입을 열지 않는다.
《첫걸음부터 재잘대고서야 무슨 군인이 되겠어?》하고 그는 말한다. 시내의 여러 중학교들에서 선발된 남학생들이 그와 함께 떠나간다.
슈라를 비롯한 남학생들까지 떠나가자 조야는 더욱 괴로와한다.
어느날 조야는 어머니와 함께 라지오로 쓰딸린의 연설을 듣는다.
《나의 벗들이여! 나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들은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쓰딸린의 연설을 열심히 듣는다.
《…우리 나라는 극히 잔인하고 교활한 적인 도이췰란드파시즘과의 결사적인 싸움에 들어섰습니다. …》
쓰딸린은 연설에서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데 복종시킬것을 전체 쏘련인민에게 호소한다.
《모든 력량을 원쑤격멸에 돌리라!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쓰딸린의 연설은 끝났으나 그 호소는 조야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다.

그날부터 조야는 전쟁승리를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친다. 밤을 새워가면서 어머니와 함께 전선에 보낼 배낭과 목달개를 만든다. 후방의 로력전선에 갔던 슈라가 돌아오자 그와 함께 공장에 나가 선반을 돌린다.

가을에 상급생들이 후방로력전선에 파송되자 조야도 함께 떠난다. 그들은 쏩호즈농장들에서의 감자가을을 돕는다.

조야는 10월에야 집으로 돌아온다.

모스크바에 시련의 시기가 닥쳐온다. 파쑈놈들은 바로 모스크바의 입구에 다가오고있다.

도시는 모두 위장속에 숨어버리고 거리들로는 대렬을 지은 군인들과 땅크들이 지나간다.

어느날 거리를 지나가던 조야와 어머니는 어떤 건물벽에 붙인 선전화를 본다.

선전화에 그려진 붉은군대병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무엇으로 전선을 도왔는가?》라고 묻고있다. 조야는 그 선전화앞을 태연히 그냥 지나갈수 없어한다.

조야의 머리속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결심이 굳어져가고있다.

며칠후 조야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 난 전선에 나가게 됐어요. 적의 후방으로요.》

어머니는 울음이 콱 터질것만 같아 묻는다.

《그게 네 힘에 맞겠냐? 하필 네가 꼭 가야 하니?》

조야는 어머니의 두손을 꼭 잡고 말한다.

《어머닌 늘 나에게 생활에서 사람은 정직하고 용감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원쑤가 눈앞에 와있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어요? 놈들이 만약 여기까지 기여든다면 난 아무래도 살수 없을거예요. … 어머니도 잘 알지요! 전 달리는 할수 없어요.》

이틀후 조야는 떠나간다.

조야가 떠나간 후 어머니와 슈라의 생활은 기다림속에 흐른다.

슈라는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첫마디에 《편지 안왔나요?》하고 묻군 한다.

어느날 하루는 슈라가 극도로 흥분하여 돌아온다.

누나에게서 공작을 끝마친 후 인차 집에 한번 들리겠다는 편지를 받은것이다.

그러나 11월이 다 지나 12월이 되고 또 새해 1942년의 정월이 다 지나도록 조야는 집에 오지 않는다.

1월 중순 어느날 류보비녀성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날 《쁘라우다》지에 실린 기사에 대해 줄곧 이야기하는것을 듣게 된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류보비녀성은 슈라에게 신문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슈라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채 간신히 대답한다.

《따냐란 젊은 빨찌산처녀에 대해 썼더군요. 놈들이 그 처녀를 교살했대요.》

슈라는 웬일인지 라지오에서 그 기사를 랑독하기 시작하자 라지오를 꺼달라고 부탁한다.

2월 7일 구역공청에서 류보비녀성을 찾아온다.

《류보비 찌모페예브나, 〈쁘라우다〉에 실렸던 따냐에 대한 기사를 읽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따님이였습니다.》

류보비 찌모페예브나는 그만 걸상에 주저앉는다.

눈물도 안나오고 한숨도 막혀버린것 같다. 그저 혼자 남아있고싶은 생각뿐이고 머리속에서 《죽었구나.》하는 외마디소리만이 맴돌뿐이다.

슈라는 어머니를 침대에 옮겨눕히고 말한다.

《난 벌써 오래전에 알고있었어요. 그때 신문에는 사진도 났댔으니까요. 난 목에 올가미를 건 처녀가 누나라는것을 알았어요.》

슈라는 자기 수첩에서 그 신문기사를 꺼내보여준다.

《어머니, 조야가 왜 따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따냐 쏠로마하를 기억하세요?》

그제야 류보비녀성은 모든것을 리해하게 된다.

그후 어머니인 류보비녀성은 조야의 투쟁에 대하여 구체적인것을 알게 된다.

…그때 거리에서 선전화를 본 조야는 시공청위원회를 찾아갔다.

그는 공청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운 전투장으로 탄원해나섰다. 특수부대에  배치받은 조야는 이악한 성미그대로 모든 어려운 훈련과정안을 이겨냈으며 동무들은 그를 신임하고 사랑하였다.

11월 4일 조야네는 드디여 전선을 넘어 적후방으로 깊이 침투하였다. 그들은 떠나면서 서로 죽어도 영웅적으로 전사할것을 약속하였다.

적후에서 그들은 모스크바로 통하는 도로들에 지뢰를 매설하고 장애물들을 설치하였다.

그 나날에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으나 그들은 용감히 이겨내군하였다.

그후 조야가 속한 조는 적들의 병력이 집결되여있는 뻬뜨리쒜보촌으로 파견되였다. 조야는 지휘관에게 청원하여 단신으로 촌락으로 침투하였다. 말들이 있는 마구간과 놈들이 자고있는 농가에 불을 놓았다. 다음날 또다시 마을로 내려갔던 그는 놈들에게 붙잡히

○ 인물소개 ○

## 빨찌산영웅 조야

조야는 로씨야사람들이 지금도 잊지 못해하는 쏘도전쟁시기의 빨찌산처녀영웅이다.

조야 아나똘리예브나 꼬스모제미얀스까야(1923－1941)는 땀보브주 오씨노비예 가이마을 사무원가정에서 태여나 모스크바 201중학교에서 공부하였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적이였던 그는 1938년에 공청원의 영예를 지녔다.

쏘련이 파쑈도이췰란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당했을 때 졸업

였다. 놈들은 그에게 모진 고문을 들이댔으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악에 받친 놈들은 처녀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았다. …

1942년 3월 쏘련정부는 원쑤와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조야 꼬스모제미얀스까야에게 쏘련영웅칭호를 수여한다.

한달후 조야의 시신은 모스크바로 옮겨진다.

그의 묘비에는 조야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오스뜨롭스끼의 말이 새겨진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것은 생이다. 생은 인간에게 한번밖에 차례지지 않는다. 그 한생을 값없이 허비하여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도록, 죽으면서도 자기의 전생애와 모든 힘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업, 인류해방투쟁에 바쳤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살아야 한다.》

류보비 찌모페예브나의 집으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편지가 온다.

반학생이였던 조야는 쏘련군대입대를 탄원하였다.

적들이 모스크바근방에까지 침공해들어왔을 때 조야는 공청조직의 추천으로 특수부대에 입대하여 적극적인 적후파괴활동을 벌리였다. 1941년 11월말 조야는 모스크바주 웨레이구역 뻬뜨리쉐보마을에서 전투임무수행중 파쑈놈들에게 체포되였다. 조야를 체포한 도이췰란드 제197보병사단 제332보병련대의 야수들은 조야를 굴복시켜보려고 그의 얼굴을 지지는 등 상상할수 없는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끝끝내 조야의 입을 열지 못한 파쑈놈들은 1941년 11월 29일 조야를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하였다.

최후의 순간 조야는 마을사람들에게 웨쳤다.

《난 죽는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동무들, 자기 인민을 위해 죽는것은 행복입니다. 무서워말고 싸우세요. 쓰딸린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전호가의 전투원들도 공장의 선반공도 벌판의 꼴호즈원도 그에게 편지를 보내여온다.

그들은 따뜻한 말로 류보비의 슬픔을 위로하며 모두가 조야의 복수를 다짐해나선다.

모스크바의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공청회의에 조야의 어머니를 초청하여 연설을 해줄것을 부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작업반에 조야의 이름을 달고 군수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힘찬 투쟁에 떨쳐나선다.

류보비녀성은 조야의 어머니로서 그들의 회의들에서 연설하는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해 5월 슈라도 집을 떠난다.

《어머니, 남들까지도 〈조야의 원쑤를 갚겠습니다.〉하고 편지를 써보내는데 친동생인 내가 어떻게 집구석에 박혀있겠어요.》하고 슈라는 말한다.

슈라는 울리야놉스크의 땅크학교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계십니다.》

1942년 3월 쏘련정부는 파쑈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18살의 꽃나이청춘을 바친 그에게 쏘련영웅칭호를 수여하였으며 그의 시신은 명인들이 안장되여있는 모스크바의 노보제비치예묘지에 옮겨졌다.

빨찌산처녀영웅 조야의 영웅적위훈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쏘련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쏘베트군대와 인민은 모두가 조야의 복수를 다짐하고 원쑤격멸을 위한 투쟁에로 떨쳐나섰다. 장편소설 《청년근위대》의 원형인물인 크라스노돈지방의 청년 올레그 꼬쉐보이도 조야의 투쟁에서 충격을 받아 조직을 뭇고 원쑤와 용감히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였다.

조야를 학살한 도이췰란드 제197보병사단은 복수의 일념으로 불타는 쏘련군장병들에 의해 1943년 10월 완전히 격멸되였다.

땅크지휘관이 된다.
전선으로 달려나간 슈라는 누나의 원쑤를 복수하려는 일념으로 언제나 용감하게 싸운다.
슈라는 1944년 정월에 휴가를 받고 집에 온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동무들이 입원한 야전병원에 면회를 갔다와서는 몹시 흥분하여 당장 부대로 돌아간다. 누나의 복수뿐아니라 동무들의 복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것이다.
슈라는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해방하는 많은 전투들에 참가한다.
그의 땅크는 여러번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죽을 고비도 수많이 넘긴다. 그 과정에 그는 조국전쟁훈장 제1급과 적기훈장을 수여받는다.
슈라는 자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보낸다. 휴식참에는 물론 전투를 앞둔 시각에도 편지를 쓴다. 그는 편지마다에 자기의 전투성과와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담아보내군 한다.
그러던 어느날 류보비녀성은 슈라의 땅크부대지휘관이 보내온 편지를 받는다.
류보비 찌모페예브나는 봉투를 헤치고 첫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다.
숨을 돌리고 다시 읽으려고 하지만 좀처럼 읽어낼수 없다.
슈라의 지휘관은 슈라가 도이췰란드의 동부프로씨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서 세운 위훈에 대하여 썼다. 그다음 그는 슈라가 4월 13일 힐덴부르그공격전투에 참가하여 부대의 앞장에서 40여명의 적병과 4대의 반땅크포를 소멸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것을 알려왔다.
5월 5일에 슈라를 노보제비치예공동묘지에 있는 누이 조야의 무덤 맞은켠에 안장한다. 그들 오누이는 죽어서도 함께 있게 된다.
그것은 전승을 불과 나흘 앞둔 날이다.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는 1945년 6월 파시즘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세운 슈라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쏘련영웅칭호를 수여한다.
파시즘을 반대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애를 바쳤던가! 그들은 자기들의 위훈과 용감성과 죽음으로써 승리와 행복에로의 길을 열어놓은것이다.

조야와 슈라에 대한 어머니 류보비 꼬스모제미얀스까야의 글은 오늘에 있어 매 사람은 《나는 평화옹호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고 반드시 자문해야 하며 만약 진실로 매 사람마다 평화를 옹호한다면, 만약 모든 정직한 사람들이 굳게 단결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고수하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인민들의 행복을 쟁취할것이라는 힘있는 말로 끝난다.

《조야와 슈라》는 쏘련영웅들인 조야와 슈라의 성장과정과 그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주의하에서 새로 자라난 쏘베트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조야와 슈라》에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청년들의 혁명적성장과정에서 노는 교육교양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조야와 슈라는 어려서부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된다. 세심한 가정교육속에서 그들은 점차 계급적안목을 가지게 되고 자기 수령에 대한 흠모심을 키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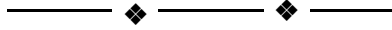
혁명적인 소설작품들은 그들의 계급적성장에서 큰 작용을 한다.

장편소설 《등에》,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공민전쟁시기의 녀성들》과 같은 책들은 그들의 계급의식, 혁명의식형성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

조야와 슈라는 삐오네르와 공청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키워나간다.

이러한 교육교양과정을 거쳐 그들은 새 세대 어엿한 쏘베트청년들로 성장하며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에는 서슴없이 자기의 청춘을 바칠수 있는것이다.

《조야와 슈라》는 어머니의 시점에서 영웅들의 혁명적성장과 그들의 조국애와 고상한 도덕품성소유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것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교육교양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 ❖ ———— ❖ ————

내가 딸의 죽음을 안 그때부터 밤이나 낮이나 나를 쉬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조야가 자기의 최후의 행로를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가 하는것이였다.

무엇을 느꼈을가? 무엇을 회상하였을가?… 끝없는 애수가 나를 휘여잡았다. 나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함께 있지 못하지 않았는가? 최후의 순간 그를 말로도 눈으로도 위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 사진들은 나에게 이렇게 웨치는것 같았다.

《보라! 얼마나 괴롭히웠는가! 이것을 보면서 딸의 죽음에 무언의 증인이 되여 다시금 자기 딸의 온갖 고초와 번민을 느끼라.》

사진에는 몸이 찢기울대로 찢기운 조야가 걷고있다. 그러나 그의 숙인 얼굴에는 얼마나 힘과 긍지가 어려있는가! 이 순간에 그는 주위를 에워싼 살인귀들이 있다는것도 잊어버렸을것이다.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죽음을 준비하는것일가? 혹은 자기의 짧고도 빛나는 생애를 회상하는것일가?…

나는 여기에 대하여 쓸수가 없다.… 차라리 독자들자신이 이 책을 읽으며 놈들이 촬영한 참혹스러운 사진속에서 조야의 얼굴을 보는편이 나을것이다. 독자들은 볼것이다. 조야는 승리자라는것을.

살인자들은 실로 그의 앞에 하등의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고상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모든 인간성과 인류의 모든 진실과 순결은 조야와 함께 있었다. 이것은 죽지도 않고 죽일수도 없는것이다.

놈들에게는 아무런 인간성도 없다. 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놈들은 파시스트이기때문이다. 놈들은 산송장이다. 오늘도 래일도 천년이 지나가도 놈들의 이름과 심지어 놈들의 무덤까지도 사람들에게 증오와 규탄을 불러일으킬것이다.

——— ❖ ———— ❖ ———

나는 또하나의 잊지 못할 행렬을 보았다. 그것은 조국을 위한 항쟁운동의 참가자들과 잔인무도한 히틀러도배들의 《죽음의 감방》에 갇혔던 사람들이였다. 눈부시게 맑게 개인 이날 가지가지 아름다운 봄꽃들의 물결속에서 그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될 그것을 기념코저 지금까지 고이 간수하여온 줄무늬수인복을 입고있었다. 그들은 소리높이 웨치는것 같았다.

《우리가 겪은 고초를 기억하라! 파시즘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치욕과 비렬과 참을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기억하라! 파시즘—이는 전쟁이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였다는것을 알라! 이것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

나는 다시금 생각을 더듬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 우리들이 겪은 고뇌를 기억하여야 하며 또 회억토록 해야 한다. …

나는 낡은 상처를 다시 건드려 고통을 느끼면서 이 책을 쓰기에 애썼던것이다.

송장이란 이미 무덤속에 들어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송장이란 실로 전쟁의 공포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하는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을수도 없으며 잊을 권리도 없다. 만약 인류가 파쑈의 류혈적지옥을 잊지 않는 한 인류는 다시는 그 지옥에 빠져들지 않을것이다. 만약 나의 조국이 아니라면 과연 어느 누가 인류에게 자기 사명을 기억토록 하겠는가! 만약 나의 인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과연 어느 누구의 목소리가 지구의 끝까지, 만사람의 심장까지 울리도록 웨칠것인가!

《조야와 슈라》중에서

# 결　　말

장편소설 《결말》은 이전 쏘련의 작가 뾰뜨르 쁘로스꾸린이 1967년에 창작발표한 작품이다.

소설은 1941년 가을부터 1943년 여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쏘도전쟁시기 적강점지역에서 손에 총을 잡고 도이췰란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쏘련인민들의 투쟁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소설에는 빨찌산부대장 뜨로피모브와 대원들인 스크보르쪼브, 빠블라, 로고브, 유르까, 슈라, 구역당비서 글루쇼브와 그의 딸 웨라 등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

소설은 1941년 9월 어느날 필립뽀브까라는 마을의 학교교원이며 농촌쏘베트 서기장인 스크보르쪼브가 학교소개사업을 마치고 마을에 그냥 떨어져있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정권은 정규부대가 후퇴해갈 때까지 남아있어야 한다.》

이런 지시에 따른것이다. 하지만 붉은군대는 미처 다 후퇴하지 못한채 놈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며 침략자들은 필립뽀브까마을을 강점한다.

놈들은 마을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며 집들을 불태운다.

필립뽀브까마을에서는 유독 세사람－스크보르쪼브와 애젊은 총각 유르까, 빠블라라는 녀인만이 살아남는다. 빠블라의 유일한 살붙이인 세살난 어린 아들 와샤뜨까도 침략자들에 의해 무참히 불타죽는다.

요행 목숨을 건진 스크보르쪼브와 유르까는 이웃마을청년인 로고브와 함께 뜨로피모브의 빨찌산부대를 찾아온다.

적의 포위를 뚫고나온 쏘련군장병들과 지방주민들로 조직된 빨찌산부대에는 이밖에도 구역당비서 미하일 글루쇼브와 그의 딸 웨

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한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무서운 복수심을 품은 빠블라는 깊은 밤마다 유령처럼 혼자 다니며 도이췰란드군초소로 접근해가서 놈들을 도끼로 무자비하게 까죽인다. 도이췰란드병사들속에 무서운 《검은 마귀》로 알려진 빠블라는 그후 놈들의 경계가 삼엄해지자 뜨로피모브의 빨찌산부대를 찾아온다.

웃음도 눈물도 영원히 잊은듯한 녀인, 말을 걸어도 안걸어도 그저 침묵뿐인 빠블라를 처음 만났을 때 뜨로피모브는 아무말이라도 해야 하겠기에 어색하게 묻는다.

《어머니, 년세는 얼마입니까?》

《스물세살이예요. …》

《그래요?》

부대장은 얼떨떨해서 말문이 막혀버린다. 부대에 녀자들이 필요없다고 하자 빠블라는 무뚝뚝하게 대답한다.

《지금까지는 녀자가 없었지만 이제부턴 있게 되는거지요.》

이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빨찌산부대에 1942년 새해가 온다. 뜨로피모브는 글루쇼브의 권고로 새해를 맞는 대원들앞에 나선다.

《동무들! 몇분후면 간고하고 험난했던 이해도 끝나게 됩니다. 새해라면 제일 좋은 때이고 술과 포도주를 놓고 맞이하는 법인데 우리에게는 그런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과 이제 전투에 나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한잔 들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나의 같은 목적이 우리모두를 묶어세우고있습니다. 나는 새해 1942년이 우리들의 승리로 시작되여 우리들의 승리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바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승리라도 이룩하자면 우리들도 자기의 몫을 하여야 합니다.》

새해에 들어서서 빨찌산부대는 맹렬한 활동을 벌린다. 렬차를 전복시키고 다리를 폭파하며 악질주구들을 처단한다.

그해 5월 어느날 적들속에 침투되여 활동하던 스크보르쪼브가 긴급한 통신쪽지를 빨찌산부대에 보낸다.

《지급! 지체하지 말고 뜨로피모브에게 전할것! 오늘 아침 졸징그가 〈토벌대〉를 이끌고 또마쉐브도로로 해서 빨찌산근거지로 쳐들어간다. 대다수의 아지트는 들장이 났다. 련락이 단절됐다. 속히 옛근거지로 떠나가라. 졸징그는 길안내자와 2 000명의 병사를 데리고간다. …》

쪽지를 넘겨받은 로고브가 급히 부대로 말을 몰아 달리지만 때를 놓치고만다. 결국 빨찌산부대는 놈들의 불의의 습격에 300명이나 되는 인원손실을 당한다.

살아남은 대원들과 함께 예비근거지로 들어온 뜨로피모브는 당원들앞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비판하며 부대의 지휘권을 내놓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글루쇼브를 비롯한 당원들은 당은 동무를 믿고있고 동무는 앞으로도 부대를 지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심각한 동지적충고와 힘을 준다.

빨찌산부대는 다시 일떠선다. 적후에 파견된 스크보르쪼브와 유르까 등의 활동으로 부대는 적들의 대규모연유창의 비밀을 알아내며 통쾌한 기습으로 그 로쏘쉬연유창을 하늘로 날려보낸다.

지하공작의 나날 스크보르쪼브는 함께 활동하던 처녀공작원 슈라와 사랑을 약속하며 동지들앞에서 결혼을 선포한다.

1942년 8월과 9월, 10월에 걸쳐 르잔스크의 빨찌산부대들은 지하주당위원회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린접된 두개 주의 철길과 도시들, 농촌마을들에 주둔하고있는 비교적 크지 않은 도이췰란드수비대들에 대한 섬멸적인 습격전투를 진행한다.

수십㎞구간의 철길레루들을 해체해서 진펄과 숲속, 계곡들에 가져다 내던진다. 중요간선철길들의 기차운행은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진다. 도이췰란드놈들은 하는수없이 휴식중에 있던 두개의 예비사단을 이 힘겨운 전투에 내몬다.

빠블라와 웨라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맡겨진다. 그들은 두보비짜마을의 악질촌장 이그나뜨 쥬크를 처단하고 미뜨로힌로인을 촌장자리에 앉힐 임무를 받았던것이다. 빠블라와 웨라를 만난 미뜨로힌은 뒤통수를 긁적거린다.

《임무란 말이지요. 쥬크놈은 어떻게 처단하고 그자리에 어떻게

들어앉는다? 골치거리가 생겼군. …》
하지만 빠블라와 웨라는 깊은 밤을 리용하여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그나뜨 쥬크를 생포하고 혁명의 이름으로 사형을 언도한다. 이그나뜨 쥬크는 처단되며 미뜨로힌로인은 두보비짜마을의 촌장이 된다.
한주일이 지난 어느날 밤 한 빨찌산부대가 활동하는 수림의 남쪽에 정체불명의 부대가 나타났다는 정보가 뜨로피모브빨찌산부대 본부에 입수된다.
무장이 잘된 그 부대는 대략적으로 추상해도 250～300명이나 된다. 이 정체불명의 부대와 린접빨찌산부대간에는 맹렬한 전투가 시작되였는데 량측부대의 지휘부들에서 서로 착오가 있었다는것이 확인되여 전투는 즉시 그치고말았지만 량측이 다 100명가량의 전사자와 많은 부상자를 냈다는것이다. 이 수수께끼같은 부대는 땅속으로 잦아든듯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만다. 한주일이 지나서 르쟌스크에서 15㎞ 떨어진 크지 않은 크랴끼노마을의 촌장으로부터 정보가 또 입수된다. 그 마을 촌장 아르쮸힌은 사흘전 깊은 밤에 200명이 잘되는 정체불명의 부대가 빨찌산이라고 하면서 그의 마을에서 숙영하고 갔는데 온밤 마을을 싸다니면서 아낙네들과 처녀들을 사냥하고 하루동안 더 묵어있다가 다음날 밤에 떠나갔다고 알려온것이다.
정체모를 부대는 바로 도이췰란드놈들이 만들어낸 가짜빨찌산부대였다.
뜨로피모브는 지휘관들과 작전계획을 세운다. 작전은 성공하여 부대는 크랴끼노마을에 또다시 찾아온 가짜빨찌산부대를 전멸시킨다.
이 추운 겨울날의 새벽 거의 같은 시각에 또하나의 작전이 뜨로피모브의 지휘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22세대의 빨찌산가족들을 탈환해낸것이다.
그런데 전투가 끝난 후 뜻밖의 일이 생긴다. 쏠로비요브라고 하는 한 대원이 어머니와 네 아이를 가진 한 가족을 몽땅 총살해치운것이다. 그 가족의 가장인 경찰이 쏠로비요브의 가족들을

고발한적이 있다는 리유에서였다.
그 소식을 가져온 글루쇼브가 《내가 쏠로비요브를 체포했소. 부대에 돌아가서 조사해봅시다.》라고 말하나 뜨로피모브는 그의 말허리를 꺾는다.
《정치위원동무, 일은 여기서 저질렀으니 여기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소. 이런 일은 묵여두면 안되오. 벌써 마을의 반은 알고있을것이고 래일이면 이 르쟌스크지방이 다 떠들어댈거요. 우리는 야수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란 말이요.》
쏠로비요브는 면사무소가 있는 앞광장에서 총살되며 시체는 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진 눈깔린 광장우에 그대로 버려진다.
뜨로피모브의 이 가혹한 명령이 지나친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는 돌아다보지도 않으며 걸으면서 단마디로 대답한다.
《그건 가혹성이 아니라 필요성이요.》
그후 뜨로피모브는 부대의 장병들에게 수여하는 훈장, 메달을 타려 급히 모스크바로 오라는 전보지시를 받게 된다.
모스크바에 온 그는 크레믈리의 탑을 보고 《저 탑을 보지. 그대로 꿋꿋이 서있구나! 서있어, 서있어. 제길할!》 하고 환희에 넘쳐 부르짖는다.
뜨로피모브는 모스크바에서 레닌훈장과 그외 16명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받아가지고 빨찌산부대로 돌아온다.
1943년 봄에 들어서면서 땅이 꾸둑꾸둑해지기 시작하자 도이췰란드놈들은 공중과 지상으로부터 르쟌스크수림에 대한 《토벌》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방대한 도이췰란드정규군무력이 《토벌》에 동원되였다는 불안한 소식들이 빨찌산부대본부로 날아든다. 뜨로피모브는 초소들에 감시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하달한다. 르쟌스크빨찌산부대와 다른 련합부대지휘관들이 참가하는 지하주당특별회의가 열리고 공동행동을 취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된다.
슈라와 한조가 되여 감시초소에 나갔던 스크보르쪼브는 난데없이 불쑥 나타나 한줄로 길게 늘어서서 천천히 걸어오는 30명

가량의 도이췰란드놈들을 발견하게 된다. 놈들과의 접전에서 슈라는 중상을 입는다. 슈라를 두팔로 안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추격에서 벗어난 스크보르쪼브는 부대로 돌아온다. 그후 인차 새로운 임무를 받고 적진으로 들어간 스크보르쪼브는 그만 다른 한 대원과 함께 놈들에게 체포된다.

놈들의 야만적인 고문에 함께 체포된 대원이 희생되자 스크보르쪼브는 비장한 결심을 품고 놈들에게 거짓변절을 한다.

《내가 당신들을 안내하겠소.》

도이췰란드놈들을 《안내》하는 길에 나선 스크보르쪼브는 빨찌산부대가 있는쪽으로가 아니라 지뢰원이 있는 곳으로 놈들을 이끌고간다.

승자의 쾌감에 젖어 스크보르쪼브를 뒤따르던 도이췰란드군 장교가 이상한 예감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이다. 키높이 자란 커다란 소나무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소리없이 놈을 향하여 넘어진다. 놈은 아연하여 우를 쳐다본다. 뒤이어 웅글은 소리를 내며 첫 폭음이 요란하게 울린다. 놈들은 멸살되고 스크보르쪼브는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저녁때가 되자 벌써 좁은 돌파구역에 집결된 빨찌산부대들은 파도식야간돌격을 한다.

그러나 놈들의 영구화점과 박격포들의 맹사격에 빨찌산부대의 돌파시도는 매번 좌절된다.

거듭되는 실패에 뜨로피모브의 생각은 착잡해진다.

(거의 400명이나 죽었다. 다문 1주야동안이라도 물러나 사람들을 보존해야 하지 않을가.)

그런데 이때 빠블라가 찾아온다. 뜨로피모브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그 무뚝뚝한 녀성은 무자비한 말을 총알같이 내뱉는다.

《물러서면 끝장이라는걸 모르세요? 남자답게 행동하세요. 오늘밤에 뚫고나가든가 아니면 끝장이 나든가 해요. 당신은 이걸 알고있어요. 정 결심을 못하겠다면 난 후에 당신을 보지 않기 위해 차라리 쏴죽이고말겠어요. 들었어요? 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 하나 떨지 않고 당신을 쏴죽이겠단 말이예요.》

리성을 되찾은 뜨로피모브는 빠블라가 자기뿐만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공산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

갓 떠오른 아침해빛에 옆모습을 비치며 정확한 간격을 두고 수림속으로부터 돌진해나오는 빨찌산대렬을 본 도이췰란드놈들은 죽음을 각오한 이들앞에서 한동안 당황해한다.

포위환을 뚫고 수림에서 빠져나온 빨찌산부대는 스쩨빠노브까마을을 점령한다. 여러대의 도이췰란드군 식료품자동차들과 자동차에 실려가는 12마리의 암소, 22마리의 돼지, 다섯대의 가마마차를 빼앗아낸 빨찌산부대가 이 마을에서 잠간 쉬고있을 때 사복차림을 한 머리가 흰 사람이 사과나무밑에 있는 뜨로피모브를 찾아온다.

불쑥 나타난 백발의 사나이가 누구인지 뜨로피모브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빠블라는 그놈이 르쟌스크위수사령관 졸징그라는것을 제꺽 알아본다. 사랑하는 아들 와쌰뜨까를 불태워죽이게 령을 내린 살인마를 빠블라가 어찌 몰라볼수 있었으랴.

졸징그는 자기들의 억센 포위환을 기적같이 뚫고나와 도이췰란드군을 패전에로 몰아가는 뜨로피모브를 제손으로 죽여버리려고 단말마적인 악심을 품었던것이다. 도이췰란드군 병사들속에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진 뜨로피모브를 직접 보고 죽임으로써 빨찌산부대의 기를 꺾고 사태를 역전시키려고 했던것이다. 위기일발의 순간 쏜살같이 달려온 빠블라가 뜨로피모브를 막아나선다. 빠블라는 가슴에 총을 맞고 눈을 크게 뜨고 비틀거리며 졸징그에게 다가간다. 그 순간 졸징그는 빠블라를 알아본다. 놈은 겁에 질려 한탄창을 몽땅 쏴갈긴다.

빨찌산대원들이 달려들었으나 졸징그는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블라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총알 여덟발이면 녀자정도가 아니라 황소도 쓰러질것이지만 놈은 빠블라의 넋, 쏘베트인간들의 정신만은 쓰러뜨릴수 없다는것을 자인한다. 이 전쟁의 결말이 너무도 명백한것임을 깨달은 졸징그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싶었으나 빨찌산대원들이 붙들고있어 그렇게 하지 못

한다.

한주일이 지나간다.

사령부의 명령을 집행하면서 서부지구를 부단히 선회하고있던 뜨로피모브의 빨찌산련합부대는 정확히 제정된 기일안으로 도이췰란드군의 뽀크롭스크 17호방어공사장을 점령하며 전략도로를 포함한 도로들을 모조리 차단한다.

아군땅크부대의 쐐기작전으로 끊어져나간 도이췰란드군전선은 드네쁘르와 끼예브쪽으로 물러난다. 수백만의 목숨을 바친 수백의 크고작은 전투와 전반적인 승리가운데는 도이췰란드군 후방에서 뽀크롭스크요새와 전략도로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도 포함되여있다.

쏘베트보도국은 르쟌스크빨찌산련합부대가 전선을 도와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는 소식을 보도한다.

이런 경우에 흔히 그러하듯이 보도내용에 개별적이름들은 언급되여있지 않았다는 글로 소설은 끝난다.

장편소설 《결말》에는 적의 포위를 뚫고나온 쏘련군장병들과 지방주민들로 조직된 빨찌산부대와 이들을 소멸하려고 발악적으로 달려드는 도이췰란드군 《토벌대》와의 치렬한 대결이 중심에 놓여있다.

소설에는 적들의 대규모연유창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통쾌한 기습전도 있고 수백명을 헤아리는 빨찌산부대가 불의의 습격을 받아 전멸되다싶이 하는 가슴아픈 실패도 있으며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꿈많은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특히 거짓변절을 하여 적들을 지뢰원안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빨찌산부대의 승리를 보장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스크보르쪼브와 적의 총탄을 자기의 몸으로 막아 부대장을 구원하고 희생되는 녀대원 빠블라의 모습은 조국을 사랑하는 인간들의 죽음을 초월한 행동으로서 매우 감동적이다.

소설에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와 희망도 다른 그들은 평화적시기에는 각이한 초소에서 창

조적로동으로 자기들의 아름다운 리상을 꽃피우며 조국에 복무해온 평범한 쏘베트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자 그들은 자기들의 희망과 리상에 앞서 조국을 생각하며 원쑤와 피흘려 싸운다. 바로 이것이 작가가 보여주려는 사상의 핵이다.

소설은 예술적인 면에서도 좋은 점들을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 나오는 개개의 인물들은 다 자기의 개성을 가진 산 인간으로 묘사되여있으며 조국에 바치는 그들의 헌신성과 희생성은 모두 이러한 성격적특징들을 바탕으로 하여 생동하게 나타난다.

소설은 또한 심리묘사가 짙고 철학적사색이 깊다. 작가는 단순한 사건전달로써가 아니라 매개 인물들의 심리적움직임을 깊이있게 추구해나가면서 여기에 철학적주정토로를 결합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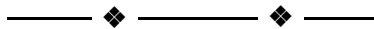
장편소설 《결말》은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쏘베트인간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감명깊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쏘련인민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후에 한달, 두달이 지나서 빠블라는 빨래도 하고 옷도 기워주고 부엌일도 하게 되였고 손도 낫고 옷도 보다 좋은것을 입어 매력도 있었지만 뜨로피모브는 이 녀자와 만나는것을 극력 피했었다.

그러면서도 뜨로피모브는 이 녀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었고 그 생각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뜨로피모브는 혼자 있을 때면 이 녀자에 대한 생각이 난데없이 불쑥 찾아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빠블라한테서는 한가지 괴이한 현상이 눈에 띄였는데 절대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려고 하지 않는것이였다. 그 일은 남자들이 저마다 말아서 해주었다. 빠블라는 남자들에 대해서 아무 차별도 두지 않았고 뜨로피모브를 포함해서 모두를 꼭같이 대해주었다.

빠블라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이 오랜 기간 나란히 함께 자면서 생활하느라면 습관이 되는것처럼 사람들은 이 녀자에게 습관되여가기 시작하였다. 빠블라는 토굴집들을 거두고 붕대법도 배웠으며 10명의 남자들보다 더 잘 살림을 꾸려나갔다. 이 녀자가 처치를 할 때면 부상자들은 덜 아파하였고 욕지거리도 적게 하였다. 빠블라의 손은 보배손이여서 날래면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빨찌산들은 조별로, 때로는 전체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떠나가군 하였는데 돌아올 때에는 부상자도 있고 전사자도 있었다. 빠블라는 그들이 떠날 때에도 말없이 바래주고 돌아올 때에도 말없이 맞아주었으며 장례때에는 말없이 구뎅이 옆에 서있군 하였다. 누구도 이 녀자가 눈물을 흘리는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빠블라는 부지불식간에 부대에서 빵과 같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되였다. 빨찌산들은 전투에서 성과를 올리고 돌아올 때면 모두가 눈으로 이 녀자를 찾았으며 이 녀자를 보며는 미소가 떠오르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것이였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뜨로피모브도 빠블라도 다른 어느 누구도 정확히 기억해낼수가 없었다.

빠블라가 말을 다 하였을 때 뜨로피모브는 등을 기대고 섰던 사시나무에서 떨어져나와 성한 손으로 권총을 꺼내들고 걸음마다 힘을 내면서 크지는 않으나 명백한 소리로 한마디 던지고 앞으로 전진해나갔다.

그 말은 멀리에까지 다 들리였다.

《공산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 빠블라 로뿌호바가 자동총을 받들어쥐고 그의 옆에 서서 같이 걸어갔다.

뜨로피모브는 어느 누구도 따라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적들의 자동총이나 기관총에 맞아죽을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나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뜨로피모브와 빠블라는 이삼십보가량 걸어나갔다. 그러나 그가 한 짧으면서도 침착한 말 《공산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는 지휘관들과 련락병들과 부상병들과 무전수들모두가 들었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것이 아니였으며 설명이 필요없었다.

정찰조장 꾸진이 따라나섰고 에지끄 쏘끌낀이 벌떡 일어나 군복저고리깃을 잡아당겨 여미고 해쓱한 젊은 얼굴로 가로멘 자동총을 틀어잡고 따라왔다.

목대가 굵은 그레보브도 붕대감은 목을 꼿꼿이 쳐들고 담배꽁초를 질근질근 씹으며 평상시 일터로 나가는듯한 농민들의 가벼운 걸음으로 따라나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련락병들에게 그 말을 되풀이했다.

《공산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은 이 말의 참뜻을 깨달았다.

움직일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일어나서 따라나섰다. 부상병들도 걸을수 있는 사람은 따라나섰고 간호원과 의사들도 따라나섰다.

그 평범한 말속에는 죽음이냐 아니면 승리냐 하는 뜻이 담겨져있었고 초근목피로 살아가는것이 이제는 싫증이 났으며 온갖 저주받을짓을 다한 도이췰란드놈들에게 앙갚음을 하고 짐승과 같은 굴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이젠 끝장을 보아야 했다. …

그리고 《공산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말은 또한 매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있었다. 이것은 나의 땅, 나의 운명, 나의 생활이였으며 여기서는 자신의 안전도 무력함도 모두 증오심앞에 뒤전으로 밀리였다.

척추가 상하고 다리가 부러져 걸을수 없는 사람들은 팔굽을 짚

고 일어나 앓음소리를 누르며 떠나가는 사람들을 불타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기들도 그들과 같이 가고있으며 성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죽고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장편소설 《결말》중에서

## 작가소개

# 뾰뜨르 쁘로스꾸린

뾰뜨르 쁘로스꾸린은 1928년 브랸스크에서 출생하여 군대생활을 거쳐 원동지방과 깜챠뜨까반도에서 류벌공, 벌목공, 자동차운전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문학수업을 하였다.

후에 그는 모스크바에서 문학대학을 졸업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심한 상처》(1960), 《폭풍에 드러난 뿌리》(1963), 《쓰거운 풀》(1964), 《결말》(1967), 《운명》(1973) 등 장편소설들과 그밖에 중편 및 단편소설들이 있다.

그의 작품들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영화와 무대물로도 각색되였다.

쏘련 및 로련국가상수상자이며 사회주의로력영웅인 뾰뜨르 쁘로스꾸린은 쏘련작가동맹 비서로도 사업하였다.

# 영원한 부름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은 이전 쏘련의 작가 아나똘리 스쩨빠노비츠 이와노브의 작품으로서 제1부는 1970년에, 제2부는 1976년에 창작되였다.

소설은 쏘도전쟁이 시작된 날부터 전쟁말까지의 시기를 기본으로 하고 서장과 종장, 회상장면들을 리용하여 10월혁명전부터 전쟁전시기까지와 전후시기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혁명투쟁의 간고성과 복잡성, 계급투쟁의 치렬성을 폭넓게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에는 안똔, 표도르, 이완 등 싸벨리예브형제와 그의 자식들, 구역당비서 크루쩰린과 꼴호즈위원장 나자로브, 체까일군 알레이니꼬브, 부농 까프따노브, 뜨로쯔끼분자이며 에쓰에쓰대좌인 라흐놉스끼, 변절자 뽈리뽀브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민전쟁시기에 백파도당에 의하여 피살된 노보씨비리스크주샤따르구역 미하일롭까마을의 빈농 씰란찌 싸벨리예브에게는 아들 3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비록 한아버지의 피줄을 타고난 친형제이지만 성격과 취미, 걸어온 인생행로는 서로 다르다.

맏이인 안똔 싸벨리예브는 10월혁명이전부터 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여러번 체포되여 갖은 고초를 겪은 오랜 혁명가이다. 혁명후 그는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리보브의 큰 기계공장에서 직장장으로 일하고있다.

한편 둘째인 표도르와 셋째인 이완은 고향 미하일롭까에서 살고있다.

리기주의와 물욕이 강한 표도르는 공민전쟁시기 빨찌산에 들어가 기병중대장으로 잘 싸운 좋은 경력으로 하여 한때는 신임을 받고 구역체신소 소장으로 있었으나 점차 본심이 드러나 그

자리를 유지 못하고 구역축산관리소 인수원을 거쳐 꼼바인운전수로까지 강직된다. 그는 부농 까프따노브의 재산을 바라고 그의 딸인 안나와 결혼을 하며 그후에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끼리얀의 안해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한다. 그는 안해인 안나가 한때 동생 이완을 좋아하였다는 리유로 그들을 몹시 증오한다.

셋째인 이완은 근면하고 량심적인 사람이나 일시적인 과오로 곡절많은 인생길을 걷는다. 그는 부농의 딸인 안나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 까프따노브에게 속아넘어가 공민전쟁시기 쏘베트주권을 반대하는 부농들의 비적단에 가담하는 죄를 짓는다. 그후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비적단 두목인 까프따노브를 처단하고 빨찌산을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죄로 하여 여러해동안 교화생활을 한다. 교화생활을 마친 후 그는 순박한 녀성인 아가따와 가정을 이루고 고향에서 자기 죄를 씻으라는 맏형의 권고대로 미하일롭까로 돌아온다. 구역당비서 크루쵤린과 꼴호즈위원장 나자로브의 방조로 꼴호즈에서 맡은 일을 잘해나가던 그는 둘째형 표도르에 의하여 국가의 말 두필을 훔쳐서 팔아먹었다는 억울한 루명을 쓰고 또다시 여러해동안 교화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전에야 집으로 돌아온다.

1941년 6월 22일 파쑈도이췰란드는 쏘련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의 파동은 머나먼 씨비리의 미하일롭까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서쪽으로부터 매일과 같이 수많은 피난민들을 태운 렬차들이 들이닥친다. 구역당비서 크루쵤린은 소개민들의 숙소를 해결하느라고 눈코뜰새도 없이 돌아친다. 그들의 생활이 겨우 안착되자 이번에는 큰 농기계공장이 이곳으로 소개되여온다. 국가에서는 고압선이 지나간 이곳에서 이 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환시켜 두주일내에 포탄을 생산할데 대하여 지시하였던것이다.

이 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구역이 들끓는다. 구역에서는 가을걷이가 박두하고 로력과 자재, 운반수단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과 생산건물을 일떠세우는 투쟁을

동시에 진공적으로 밀고나간다. 이 투쟁에는 구역안의 녀성들과 우마차들까지 총동원된다.

전쟁이 일어나는 날 뽈스까와 린접한 우크라이나의 국경도시에 출장갔던 맏형 안똔 싸벨리예브가 이 공장의 지배인으로 부임되여온다. 안똔은 공장을 조업하고 첫 포탄을 생산한 10월에 가서야 동생들과 뜻깊은 상봉을 한다.

싸벨리예브형제와 그들의 안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앉는다. 그자리에는 구역당비서 크루쵤린과 공장의 지도간부들도 함께 참석한다.

그러나 표도르는 이러한 자리에 와서까지 이완에 대한 적의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는다. 그에게 있어서 이완은 친동생이라기보다 《교화살이를 한 반동놈새끼》였던것이다.

그는 이완을 비호하는 형 안똔의 태도에도 침을 뱉고싶어한다.

표도르는 크루쵤린(그는 공민전쟁시기 이곳 빨찌산대장이였으며 표도르는 그밑에서 기병중대장을 하였다.)의 타이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형의 집에서 뛰쳐나가고만다.

한편 이 구역에서는 혁명의 배신자인 뾰뜨르 뽈리뽀브가 구역쏘베트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자리에 앉아있다. 뽈리뽀브는 10월혁명전에 안똔 싸벨리예브와 함께 혁명투쟁에 참가하였다가 변절한자이다.

큰 가게상점주인의 아들인 그는 일시적기분으로 혁명운동에 뛰여들었다가 헌병대에 체포되자 곧 변절하여 놈들에게 안똔을 비롯한 지하조직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넘겨주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있다. 혁명승리후 뽈리뽀브는 구역당비서로 있으면서 출세와 공명에 눈이 어두워 구역내의 인민생활을 령락시켰으며 그것으로 하여 구역당비서자리를 내놓게 되였다. 그는 어떻게 하나 자기의 자리에 앉은 크루쵤린을 실각시켜보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한다. 그는 구역에서 한창 벌어지고있는 전시국가량곡납부사업을 파탄시킴으로써 크루쵤린의 위신과 신망을 훼손시켜보려고 한다. 뽈리뽀브는 우정 식량수매사업이 전쟁행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꼴호즈들의 곡물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그들이 당면한 탈곡과 납부사업에만 힘을 집중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많은 꼴호즈들의 밭들에서는 가을하지 못한

밀들이 서리를 맞아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그는 크루칠린이 나자로브의 《크라스늬 꼴로스》꼴호즈에서 가을걷이와 낟가리쌓기를 앞세우고 다음해부터 호밀을 심는데 대하여 공감해나서자 비렬하게 그를 주당위원회에 신소하는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자로브가 위원장으로 사업하는 꼴호즈에서는 전시국가량곡납부사업과 가을걷이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 나자로브는 뾜리뽀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서리가 오기 전에 밀을 가을하여 낟가리를 쌓는데 모든 력량을 집중한다. 꼴호즈에서는 뜨락또르와 꼼바인을 만부하로 돌리는 한편 꼴호즈원모두가 손에 낫을 들고 떨쳐나 곡식들을 허실없이 말끔히 걷어들인다. 소년들까지 삐오네르량곡수송대를 뭇고 어른들의 일손을 도와나선다.

그리하여 구역내의 다른 꼴호즈들에서는 자기들의 량곡납부계획을 미달하지만 나자로브의 꼴호즈에서만은 자기의 수매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함으로써 전쟁승리에 기여한다.

나자로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해부터는 더 많은 면적에 수확성이 높고 안전한 호밀을 심을것을 결심하고 그 준비사업을 다그친다. 주당위원회에서는 비서 쑤보찐을 통하여 나자로브의 꼴호즈에서의 사업을 료해한데 기초하여 다음해부터 다른 꼴호즈들에서도 호밀심는 면적을 확대할것을 결정한다.

생활에서의 모순과 대립은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화된다.

표도르는 전쟁전부터 맺어오던 끼리야의 안해인 안피싸와의 부정한 관계를 전쟁시기에도 계속 유지한다. 이제는 그 관계를 더는 숨길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끼리야의 가족과 표도르의 가정은 파산에 직면한다. 마음이 약한탓으로 방종한 안해와 표도르의 놀음에 눈감아오던 끼리야은 끝내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결렬을 선언하고 전선으로 나간다.

군수공장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싸벨리예브일가의 3대자손 쎄묜(표도르의 맏아들)은 못된 애비와는 달리 새 세대로서 건전하게 자란다. 그는 구역타자수인 웨라(끼리야의 딸)와 약혼을 했다가 처녀가 지나치게 타산적이고 30살이나 우인 구역체까책임자 알례이니꼬브와 자기를 놓고 저울질하는것을 보고는 단호히 관계를 끊

어버린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소개해온 처녀 나따샤와 우연히 사귀고 그를 도와주는 과정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1942년 9월 군수공장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난다. 불충분한 목공직장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는 창고들을 위협하며 세차게 퍼져나간다. 이 위급한 순간 지배인인 안똔은 쎄묜을 밀어치우고 6천v의 고압이 흐르는 변전소에 뛰여들어 개폐기를 끄다가 전기에 감전되여 희생된다. 장례후 쎄묜은 아버지 표도르가 자기 친형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무관심하게 대하는데 더 참을수 없어 집을 뛰쳐나가 나따샤와 살림을 꾸린다.

한편 구역체까책임자인 알레이니꼬브(공민전쟁때 크루질린빨찌산의 정찰중대장)는 이즈음 고민에 빠진다. 그는 지난날 자기가 사람문제를 다루는데서 신중하지 못하고 상부에 대한 맹종맹동과 편견으로 하여 구역재정과장, 구역소비조합련맹 위원장, 이완 싸벨리예브와 같은 성실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두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던것이다. 심한 번민에 사로잡혀 자살할 생각까지 하던 그는 손에 직접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 전선으로 나간다.

조국이 위험에 처한 엄혹한 정세하에서 쎄묜과 그의 삼촌 이완 싸벨리예브, 유리(안똔의 아들) 등 수많은 로동자, 농민들이 전선으로 탄원해간다. 한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고립당한 뽈리뽀브와 표도르도 딴마음을 먹고 전선으로 떠나간다.

히틀러파쑈도배들을 반대하는 쏘련인민의 정의의 전쟁은 벌써 두해째 계속되고있다. 그 나날에 씨비리사람들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그 어디에서나 위훈의 창조자로 된다.

전쟁의 준엄한 현실은 오랜 체까일군인 알레이니꼬브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가 범죄자로, 인민의 원쑤로 치부하고 잡아가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싸움에서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것을 목격한것이다.

전선에 나온 이완은 조카 쎄묜과 한 자동포를 타고 용감히 싸운다.

어느날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적의 포중대를 짓뭉개버리고 도주하는 파쑈놈들의 한복판으로 질주하던 이완의 자동포는 놈들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불이 당긴다. 자동포에서 빠져나오던 쎄묜은 불이

당긴 포탄들이 폭발하는 바람에 심한 타박상을 입는다. 그렇지만 이완과 쎄묜은 고지에서 달려드는 적땅크와 힘겨운 싸움을 벌리고있는 포중대로 달려간다. 치렬한 싸움끝에 고지에는 포 한문과 이완과 쎄묜을 포함한 네명의 병사들만이 남는다. 그러나 그들은 남은 포와 기관총, 수류탄으로 달려드는 파쑈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다.

알레이니꼬브에 의해 교화살이를 한 이전 구역재정과장 꼬슈낀과 백파군 대좌의 아들인 주보브도 용감하게 싸운다. 그들이 속한 징벌중대(죄수들과 과오를 범한 군인들로 무어진 부대)는 사람이 다닐수 없는 진펄을 통과하여 마지막발악을 하면서 도주를 기도하는 파쑈놈들을 소멸하는 전투에 동원된다. 이 전투에서 꼬슈낀은 부상을 당한 몸으로 중대를 끝까지 지휘하며 주보브도 적의 박격포진지를 소멸함으로써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한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전선에 나갔던 표도르 싸벨리예브는 적들에게 포로당하자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조국을 배반하고 파쑈놈들의 앞잡이로 전락된다. 표도르는 에쓰에쓰대좌 라흐놉스

○ 인물소개 ○

## 뜨로쯔끼

엘. 데. 뜨로쯔끼(1879－1940)는 극좌적인 혁명적구호와 모험주의로선을 들고 레닌주의에 도전해나서면서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좌경기회주의조류(일명 《뜨로쯔끼주의》)의 우두머리이다.

뜨로쯔끼의 사상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와 로씨야사회주의 10월혁명이후시기 레닌주의의 위험한 적으로 되였다.

1924년 레닌이 서거하고 볼쉐비크당앞에 시련의 시기가 닥쳐오

끼의 밑에서 자기 동포들의 피로 손을 물들인다.

이들의 상반되는 행동을 직접 목격한 알레이니꼬브는 과거만을 보고 무턱대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린 자신의 과오를 뼈아프게 뉘우친다.

붉은군대 특수부에서는 림산마을인 쉐스또꼬보에 있는 도이췰란드정탐기관인 《아브웨르그루빠 101》을 소멸할데 대한 임무를 알레이니꼬브에게 준다.

쏘련의 전선과 후방에 대한 정탐 및 파괴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아브웨르그루빠 101》은 대좌 라흐놉스끼지휘하의 《인민해방군》이 지키고있었다.

라흐놉스끼는 혁명전부터 헌병대에 복무하면서 수많은 혁명가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선자이다. 이자는 뽈리뽀브를 전향시키고 안똔 싸벨리예브를 체포하여 직접 고문한자이다. 혁명승리후 자기의 정체를 숨긴 이자는 혁명의 배신자인 뜨로쯔끼에 대한 극단한 신봉자로 되여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파탄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 과정에 그자는 외국첩보기관의 간첩으로 전

자 뜨로쯔끼는 자기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레닌주의와 공산주의운동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섰다.

당시 당과 정부의 요직에 틀고앉았던 뜨로쯔끼는 《혁명적》언사를 부르짖으면서 극히 주관주의적이며 모험주의적인 길로 내달았다.

뜨로쯔끼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며 덮어놓고 세계혁명에로 나아갈데 대한 《영속혁명론》과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유럽나라들이 《유럽합중국》으로 련합될 때라야만 동시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릇된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공업화를 반년동안에 실시한다는 구실밑에 농민들을 《식민지적으로 수탈》하여 자금을 마련하며 로동자들에게 《나사

락되여 당과 국가의 많은 기밀을 파쑈놈들에게 넘겨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에쓰에쓰대좌로 되였다.

표도르는 바로 라흐놉스끼가 지휘하는 《인민해방군》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한다. 그에게는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다. 이제는 그에게 가정도 없고 조국도 없으며 래일도 없다. 그날그날 목숨만 부지해갈뿐이다.

알레이니꼬브의 공작조와 함께 이완도 전선을 넘어온다. 그는 그처럼 혁명과 투쟁에 대해 떠들면서 자기를 《반동》으로 멸시하던 표도르가 어떻게 적의 턱밑에서 살아가고있는가를 직접 보고싶었으며 그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고싶었다.

특수공작조는 그곳 빨찌산의 도움으로 라흐놉스끼부대에 대한 공격준비를 한다.

이러한 때 《아브웨르그루빠 101》의 책임자가 빨찌산들에 의해 처단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교활한 라흐놉스끼는 위험을 감촉하고 주둔지를 옮기며 밤낮으로 경비를 강화한다. 그러나 알레이니꼬브의 조는 령활한 유인전술로 놈들의 기본병력을 다른 곳으로 끌어낸 다음 놈들의 본

못을 조이듯》이 숨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초공업주의》와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부패와 변질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인민생활향상을 반대한 《평등화》리론을 들고나왔다. 특히 뜨로쯔끼도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면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치시켰으며 로농동맹을 허물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책동하였다.

뜨로쯔끼도당은 볼쉐비크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악랄한 종파분렬책동을 감행하였으며 지어 《제2보충혁명》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청년들을 반혁명적반란에 리용하려고 하였다.

뜨로쯔끼도당은 쓰딸린에 의하여 섬멸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로씨야에서 추방된 뜨로쯔끼는 1940년 8월 메히꼬에서 비참한 운명을 마치였다.

부를 습격한다. 이리하여 70살이 되도록 반혁명행위를 계속해온 간악한 원쑤 라흐놉스끼의 목숨은 끝장난다.

알레이니꼬브의 특수조는 계획대로 적의 간첩집단을 소탕하고 문건들을 탈취한다.

빨찌산의 습격을 받고 달아나던 표도르는 총탄에 다리를 상하고 숲속에 쓰러진다. 그에게로 이완이 다가온다. 이완은 표도르에게 준렬하게 선고한다.

《너는 이 땅을 거닐 권리가 없다. 너는 이 땅을 더럽혔다.》

표도르의 더러운 목숨은 친동생인 이완의 총에 맞아 끊어진다.

후방에서도구역당비서 크루쵤린의 지도밑에 군수공장로동자들이나 꼴호즈 농민들이나 모두가 조국을 위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며 헌신적으로 일한다. 특히 나자로브가 지도하는 미하일롭까마을의 농민들은 일을 잘하여 지난해에 구역적으로 가장 많은 량곡을 국가에 납부한데 이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다. 이 투쟁에는 이완의 안해인 아가따와 아들 월로쟈, 쎄묜의 안해인 나따샤와 어머니인 안나를 비롯하여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선다. 그들은 먹을것이 부족하고 극심한 가물로 곡식들이 말라죽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알의 낟알, 한방울의 우유라도 더 전선으로 보내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한다. 이 투쟁과정에 자기 남편을 속이고 표도르와 오래동안 2중생활을 해오던 끼리야의 안해 안피싸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 안피싸는 전투에서 두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여서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방랑하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핀다.

전쟁기간에 숱한 씨비리사람들이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아낌없이 바친다.

전선에서 삼촌과 함께 위훈을 세워 레닌훈장수훈자가 된 쎄묜 싸벨리예브는 격전과정에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포로가 된다. 그는 여러 포로수용소를 거쳐 노르웨이에까지 끌려갔으나 끝내 놈들에게서 탈출하여 노르웨이빨찌산에 들어가 용감무쌍하게 싸운다. 그는 비록 전사하지만 노르웨이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으며 전후에 그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진다.

이완도 전투과정에 한팔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는 전후시기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헌신함으로써 당원으로, 꼴호즈관리위원장으로, 나아가서 큰 쏩호즈의 지배인으로까지 자라난다.

후방에서도 좋은 씨비리사람들을 많이 잃는다. 레닌의 위업에 충실하였던 주당비서 쑤보찐, 군수공장지배인 네챠예브를 비롯한 오랜 혁명가들과 안똔의 안해 리자, 이완의 안해인 아가따와 같은 녀성들이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그들과는 반대로 전후시기에 와서도 너절하게 최후를 마치거나 산송장처럼 살아가는자들도 없지 않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했던 꼴호즈관리위원장 빤크라뜨 나자로브와는 달리 그의 아들 막씸 나자로브는 붉은군대 군관으로서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 쏘도전쟁초기 국경지대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된 막씸은 와씰리 크루쩔린(구역당비서의 아들)과 함께 도이췰란드로 끌려가 포로수용소생활을 한다. 그는 지옥같은 포로수용소생활속에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신의 길에 들어서며 파쑈놈들의 앞잡이가 되여 폭동을 일으킨 쏘련포로들을 사살하는 죄행을 저지른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전후 조국에 돌아와 오래동안 교화생활을 하고 1957년에야 고향마을로 돌아온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 빤크라뜨와 마을사람들은 그를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견디다못해 벽에 걸어놓은 아버지의 사냥총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 그 아들을 제손으로 파묻고나서 아버지 빤크라뜨 나자로브도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뽈리뽀브는 질기게도 목숨을 마지막까지 연명한다. 그는 전쟁시기 후방구분대 정치일군, 사단신문주필 등 안전한 자리들에만 머물러있다가 라흐놉스끼에게 랍치당하여 반쏘해독행위를 계속할 임무를 받고 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에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뽈리뽀브는 《혁명운동참가자》이며 《전쟁참가자》라는 경력으로 하여 구역쏘베트집행위원장, 구역당비서자리를 차지하며 늙은 다음에도 꼴호즈당비서를 한다. 하지만 그 어데서 무슨 일을 하든 그자는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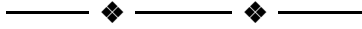
독하게 지내며 결국은 허울만 있는 산송장이 되고만다. 인간의 각이한 운명선을 파헤쳐보인 소설은 여기에서 종결된다.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에서 작가 이와노브는 인간의 참된 삶을 규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심오한 문제를 제기하고 등장인물들의 운명선을 통하여 여기에 예술적해명을 주고있다.

작품의 제목에서 제시된 《부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고향의 부름, 조국의 부름이다. 다시말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다. 작품에서는 자기 고향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지닐 때 인간으로서의 량심도 지닐수 있고 영원한 삶도 누릴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사상은 작품에 그려진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통하여 뚜렷이 밝혀지고있다. 작품에 그려진 인물들은 출신도 다양하고 걸어온 인생행로도 복잡하다. 그러나 향토애, 조국애를 어떻게 지니고있는가에 따라 그들은 고향과 조국의 영원한 부름을 받기도 하고 반역자의 비참한 종말을 고하기도 한다. 조국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을 지닌 크루쥘린과 안똔 싸벨리예브, 쎄묜과 나자로브 그리고 과거에는 조국앞에 죄를 지었으나 자기 고향을 무한히 사랑한 이완 싸벨리예브는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었고 영원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막씸 나자로브와 표도르 싸벨리예브와 같은자들은 자기 고향과 부모형제, 친우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조차 없는것으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량심도 지닐수 없었고 반역자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으며 뽈리뽀브와 같은자는 비록 목숨은 붙어있으나 아무런 삶의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산송장으로 되고만다.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은 작품의 흥미선을 삼각련애관계에 많이 의존하여 끌고나간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도 있으나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훌륭히 해명한것으로 하여 쏘련인민의 애국주의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오늘도 광범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되고있다.

——— ❖ ——— ❖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기 생활의 본질과 참뜻을 모르는데로부터 사람은 가끔 실수하여 잘못을 저지르며 자기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남기는것이요.》

크루췰린은 천천히 또박또박 석연하게 말하였다. 이완은 그 이야기가 다 자기와 관계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머리를 떨구었다. 상우에 놓인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였다. 이완은 급히 손을 상밑으로 넣어 무릎우에 얹었다. 그는 옆에 앉은 아가따의 축축하고 뜨거운 손이 자기의 손등우에 놓이는것을 느꼈다. 아가따의 손도 역시 가늘게 떨리였다.

표도르는 처음에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크루췰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얼마후 그 미소는 말끔히 사라지고 그의 젖은 코수염이 부르르 떨리였다. 눈에는 싸늘한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사람은 다행히도 리성을 가지고있소.》 하며 크루췰린은 표도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것이요. 인간은 조만간에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다른 인간들의 생활과 사회의 본질, 자기의 사업과 행동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는것이요. 이것은 거대한 힘으로 인간을 생활에로 불러주며 인간들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차지하게 하여주는것이요. 나는 인간이 어떤 과오를 범하였던지간에 그 순간부터 공민으로 될뿐아니라 장차로는 정의와 인간의 존엄과 기쁨을 지켜 싸우는 투사로도 될것이라고 생각하오. 자, 친구들! 그 영원하고 숭고한 부름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잔을 듭시다.》

이완은 아가따가 안심하고 자기 손을 어루만지는것을 느꼈다. 표도르는 또 마시지도 않고 커다란 손으로 술잔을 부셔버릴것처럼 꽉 잡은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있었다.

——— ❖ ———— ❖ ———

그렇다. 삶은 어렵고 가혹한것이다. 그러나 정의와 기쁨과 행복의 서광이 비낀 삶의 그 참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훌륭한 말이다. 나따샤도 그 말을 믿고있다. 믿고있지만 그 요인을 보지 못하고있다. 진정 사람은 무엇때문에 사는가? 하고 그는 대답도 없는 질문을 수없이 자신에게 던져보았다.

그런데 쑤보찐은 그의 생각을 알아맞히기라도 한것처럼 물었다.

《그 삶의 요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따샤는 몸을 흠칠 떨며 울타리를 더 꽉 잡았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거나 오래동안 리해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두뇌가 완성될때까지는 할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불행도 참극도 생기며 때로는 많은 슬픔도 생겨나는것입니다. …》

그의 말은 이름할수 없는 그 무엇으로써 나따샤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안똔 씰란찌예비츠, 사람들은 당신이 삶의 가치를 알고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단순한것이였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삶의 그 참된 요인을 자신에게서 볼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나따샤는 울타리옆에 좀더 서있다가 머리를 수그린채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가 우는거라고 생각하고 말없이 그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중에서

작가소개

# 아나똘리 이와노브

아나똘리 스쩨빠노비츠 이와노브는 1970년대에 널리 알려진 재능있는 쏘베트작가이다.

1928년 동부까자흐스딴주 우바강기슭 농촌마을 쉐모나이하의 로씨야이주민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소년시절에 간고한 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를 겪었으며 10년제중학교를 마친 후 1950년에 까자흐스딴종합대학 신문학부를 졸업하였다. 그후 신문기자생활을 하던 그는 3년동안 군사복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에 당원으로 자라났다. 제대후 그는 씨비리 노보씨비리스크주에서 기자, 편집원, 잡지 《씨비리스끼예 오그니(씨비리의 불길)》 부주필 등으로 사업하면서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첫 단편소설집 《알낀의 노래》(1956)와 장편소설 《둥근잎나팔꽃》(1958)을 내놓은데 이어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혁명분자들의 음모를 폭로한 장편소설 《그림자는 정오에 사라진다》(1963)를 발표하였다.

그는 1969년부터 쏘련공청중앙위원회 기관지 《몰로다야 그바르지야(청년근위대)》 부주필, 주필로 사업하면서 대표작인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제1부 1970, 제2부 1976)과 중편소설 《죄많은 땅에서의 생활》(1971), 《적의》(1979)를 비롯한 여러 소설, 영화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의 소설작품들중 여러편이 영화와 연극, 가극으로 각색되였다.

그는 쏘베트문학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하여 사회주의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사업하였다.

# 철조망속의 권투시합

장편소설 《철조망속의 권투시합》은 이전 쏘련의 작가 게오르기 스비리도브가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쏘도전쟁시기 죽음의 수용소인 도이췰란드의 부헨왈드에서 감행한 파쑈악당들의 살인만행과 그를 반대하여 목숨걸고 싸운 쏘련군포로병들을 비롯한 반파쑈투사들의 영웅적투쟁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인 안드레이 부르젠꼬와 이완 스미르노브, 니꼴라이 씨마꼬브를 비롯한 쏘련군포로병들과 여러 나라 반파쑈투사들, 부헨왈드집단수용소 위수사령관 칼 코흐와 위생연구소 소장 아돌프 고벤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세계의 사람들이여 잠간 서서
들으시라 들으시라!
부헨왈드 사방에서 울리는
저 종소리를…

머리글을 대신한 이 짧은 시로 시작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히틀러의 《유럽초토화》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나치스도당의 악명높은 《죽음의 수용소》들중의 하나인 부헨왈드집단수용소로는 매일과 같이 유럽의 각지에서 수많은 유태인들과 나치즘의 《적수》들이 끌려와 목숨을 잃는다.

파쑈교형리들은 총살과 구타, 가스실과 화장로, 생체실험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고안하여 수인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한다. 나치스의 교형리들은 화장로에서 수인들을 태운 재를 채로 쳐서 금과 귀중품들을 거두어들이는것도 모자라 사람의 가죽으로 가방

과 장갑, 전등갓, 책표지 같은것들을 만들어 나치스고위급관리들의 녀편네들에게 공급하는짓도 꺼리낌없이 감행한다.

바로 이러한 《죽음의 수용소》—부헨왈드로 안드레이 부르젠꼬가 속한 쏘련군포로대렬이 끌려온다.

여러날에 걸친 오랜 렬차호송끝에 이곳에 도착하여 그들이 처음으로 보게 된것은 수용소의 건물과 철조망에 걸려있는 글발이다.

《네가 옳건그르건 우리 국가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각자에게는 자기의 몫이》

이것들은 히틀러파쑈도당의 극단한 인종주의사상과 타민족멸살정책이 구현된 구호였다.

집단수용소에 새로 도착한 안드레이를 비롯한 쏘련군포로병들은 의례히 이곳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

파쑈놈들은 포로병들을 뜨거운 해빛이 사정없이 내려쪼이는 속에 맨머리바람으로 여러 시간동안 서있게 하고 그다음에는 넓은 수용소마당을 뛰게 한다. 오랜 호송도중에 병들고 굶주리고 지칠대로 지친 쏘련군포로병들은 련이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

놈들이 말하는 《자연도태》가 진행되고있는것이다. 놈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아직 숨이 붙어있는채로 곧장 화장터로 끌고간다.

전쟁전에 권투선수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안드레이는 이 고비를 겨우 넘길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도 포로들은 역한 소독액과 찬물과 뜨거운 물의 《세례》를 번갈아 받고서야 수인번호를 받는다.

안드레이는 부헨왈드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나치스도당의 몸서리치는 살륙만행을 직접 체험한다.

파쑈교형리들은 수인들을 하루 12～14시간이상 고된 로동에 내몰면서도 한쪼각의 건빵과 멀건 무우국밖에 공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인들이 하루 소비하는 카로리량의 10분의 1도 되나마나한것이다.

수인들은 영양실조와 병으로 련이어 쓰러진다.

놈들은 쓰러지는 사람들과 저들에게 반항하는 수인들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화장로에 집어넣는다.

부헨왈드에서는 에쓰에쓰대원들외에도 《푸른 수인》이라고 부르

는 도이췰란드형사범들이 날치고있다. 수인들사이에 서로 반목질시하고 싸우게 만들려는 위수사령관 칼 코흐의 모략에 따라 이자들은 수인들에게 공급되는 물자를 횡령하여 특수한 생활을 하면서 에쓰에쓰대원들의 첫째가는 보좌관으로 행세한다. 이자들은 에쓰에쓰대원들의 손발이 되여 수인들의 일거일동과 일하는 모습을 감독통제하고 정치범들을 마구 구타학살하며 유태인들을 사냥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뛴다. 수용소에는 또한 파쑈놈들의 개가 되여 포로들속에서 공산당원들과 정치위원들을 색출해내는데 앞장선 백파장령 꾸슈니르－꾸슈나레브와 같은 반역자들도 활개치고있다.

놈들의 이러한 탄압속에서도 수인들은 굴하지 않고 놈들의 책동에 집단적으로 맞서 투쟁을 벌린다.

도이췰란드공산당원 왈터 바르텔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반파쑈투사들은 수용소안에서 국제반파쑈지하조직을 뭇고 파쑈놈들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간다.

파쑈놈들과의 투쟁에서는 특히 쏘련군포로병들의 활동이 더 적극적이다.

쏘련군포로병들이 부헨왈드에 나타나기 시작한것은 1941년 가을부터였다. 렬차로 이곳으로 끌려온 쏘련군포로들은 처음부터 파쑈교형리들의 탄압을 반대하여 특히 《푸른 수인》들의 전횡을 반대하고 수인들의 권리를 위하여 집단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오래동안 제멋대로 날뛰면서 수용소의 수인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던 《푸른 수인》들도 함부로 날뛸수 없게 된다.

쏘련군포로들은 또한 쏘련지하군사조직을 조직하고 파쑈놈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린다.

그들은 수용소안에 있는 파쑈놈들의 군수공장들에 침투하여 파괴행위를 적극 벌린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면서 격발기를 몰래 염산에 담갔다가 꺼내군한다. 그러한 무기들은 검사에서는 통과되나 전선에 갔다가는 얼마 못가서 못쓰게 되여 되돌아오군 한다.

쏘련지하군사조직은 포로들속에서 적극적인 사상사업을 벌리는 한편 파쑈놈들을 반대하는 무장폭동준비를 은밀히 해나간다. 그들은 견

실하고 믿음직한 포로병들로 정연한 폭동부대를 조직하고 놈들이 모르게 군사강의와 전술상학도 조직진행한다. 그들은 자체로 칼과 수류탄을 만드는 동시에 파쑈놈들의 군수공장에서 무기를 빼내여 무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다. 생명을 내대여야만 하는 무기구입투쟁을 위하여 어떤 수인은 기대에 팔이 잘리우는 《소동》까지 벌린다. 이들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하군사조직은 수십정의 권총과 적지 않은 량의 탄약, 지어 기관총까지 갖추게 된다.

안드레이가 부헨왈드로 끌려온무렵에 수용소에서는 수인들의 권투시합이라는 괴상한 놀음이 벌어진다. 그것은 쏘련군포로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위축되여버린 《푸른 수인》들을 또다시 정치범탄압에로 내몰기 위하여 파쑈놈들이 고안해낸 놀음이였다. 놈들의 부추김을 받은 악당들, 황소처럼 혈기왕성한 《푸른 수인》들은 손에 파쑈놈들이 준 권투장갑을 끼고 병약한 정치범들에게 강제로 《시합》을 걸어 그들을 로골적으로, 《합법적으로》 구타하고 학살한다. 수용소안에는 또다시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가 떠돌기 시작한다.

수용소의 지하조직에서는 놈들의 음흉한 모략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그 적임자로 전쟁전 중앙아시아체육대회 권투경기에서 우승하여 선수권을 보유한 전적이 있는 안드레이 부르젠꼬가 지명된다.

수용소에 끌려온지 얼마 안있어 안드레이는 여러차례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사실이 탄로되여 가슴에 《빨간 표식》(이 표식을 단 수인은 임의의 순간에 예고없이 사형하는것이 허용되여있다.)을 달고 징벌대로 끌려가있었다. 그곳에서 안드레이는 파쑈놈들의 투박한 가죽구두를 신고 길들이는 고역을 치르어야 한다. 투박한 구두를 신고 하루종일 마당을 뛰고나면 발은 찌르는듯이 달아오르고 몸은 땅속에 잦아드는것만 같다. 많은 수인들이 이 고역을 견디여내지 못하여 땅바닥에 쓰러졌다가는 화장터로 실려간다.

어느날 안드레이는 수용소안에 있는 병원으로 호출된다. 병원에서 일하는 티만을 비롯한 정치범들은 권투시합적임자인 안드레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징벌대에서 빼내온것이다.

얼마동안의 입원생활로 몸을 회복한 안드레이는 동지들의 도움으로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신발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 얼마후 안드레이는 완전히 몸을 회복하게 된다.

어느날 안드레이는 호실에서 《푸른 수인》들이 벌리는 권투시합을 목격하게 된다. 여러명의 잡범들이 권투장갑을 끼고 한 정치범을 당구알 굴리듯 이리저리 몰아대면서 마구 매질하는것을 본 안드레이는 참지 못하고 놈들에게 달려들어 단숨에 꺼꾸러뜨린다.

그날 저녁 한때 프로권투를 했다고 으시대는 도이췰란드형사범이 안드레이에게 도전해나선다. 이놈은 악당들의 두목의 한놈으로서 수용소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체육복을 입고다니며 권투련습을 한 전문권투선수이다. 그러나 이자는 적개심에 불타는 안드레이를 꺼꾸러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수세에 빠져 갈팡질팡한다.

안드레이가 가장 사나운 《황소》패의 두목과 권투를 했다는 소식은 즉시에 모든 바라크들에 알려진다. 알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손을 잡아준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차례진 빵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삶은 감자를 가져온다.

수용소의 지하조직에서는 안드레이가 형사범들이 조직하는 권투시합에 참가할것을 지시한다.

《동무는 권투시합을 해야 하오. 그래서 쏘련사람의 힘을 보여주고 쏘베트권투술을 시위해야 하오. 쏘베트애국주의보다 더 강한것이 없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하오.》

안드레이는 이 과업을 병사의 임무로 받아들인다.

동지들은 안드레이를 위해 많은 관심을 돌린다. 안드레이는 제일 쉬운 일을 하며 바라크직일을 선다. 그에게는 매일 한몫의 빵과 한그릇의 무우국이 더 차례진다. 경기를 앞두고 동지들은 방수포로 만든 새 운동화와 운동빤쯔를 마련한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구하기 힘든 빠다와 사탕까지 얼마간 구하여 안드레이에게 보내여온다.

드디여 권투시합이 진행되는 일요일이 온다. 권투장소주변으로 부헨왈드의 수인들이 모여든다. 수천명의 쏘련포로들과 다른 민족의 수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도이췰란드형사범과의 대결에 나선 이름모를 쏘련용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다.

안드레이의 상대는 이전에 도이췰란드국내선수권을 보유하였다고 하는 형사범 죠르쥬이다. 이자는 수천명의 수인들앞에서 가장 우수한 아리아족의 힘을 보란듯이 시위하려고 한다. 죠르쥬는 자기의 육체와 기술을 믿고 안드레이를 단숨에 쓰러뜨리려고 미친듯이 달려든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방어하다가 적수가 해이된 틈을 리용하여 놈을 단매에 꺼꾸러뜨린다.

정치범들은 안드레이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낸다. 지치고 지쳤던 그들의 얼굴에 순간이나마 굶주림과 고통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주름살이 펴지며 눈은 기쁨으로 빛난다. 서로마다 안드레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악수한다. 안드레이는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뿌듯해진다.

수용소안의 국제반파쑈지하조직은 파쑈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화해나간다. 그들은 사회주의10월혁명기념일을 계기로 정치범들에 대한 대량적인 학살을 준비한 《푸른 수인》들의 계획을 파탄시키고 황금에 눈이 어두운 병원원장놈을 리용하여 극악한 반역자인 꾸슈니르—꾸슈나레브도 처단해버린다. 수용소안에서는 쏘련포로병들의 집단적인 탈주도 일어난다.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안드레이의 가슴속에는 그들처럼 적극적인 투쟁에 참가하지 못하고 《푸른 수인》들과 권투만 하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생겨난다.

어느날 쏘련지하군사조직 군사책임자인 스미르노브중좌가 안드레이를 부른다. 그는 안드레이에게 권투경기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권투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폭동부대의 상학이 진행되고있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경기시간을 더 끌것을 요구한다. 그제야 안드레이는 자기가 맡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적인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에쓰에쓰놈들이 《해골들의 국제시합》이라고 멸시하여 부른 권투시합은 하나의 오락으로부터 정치투쟁무대로 변한다. 수용소소장은 안드레이가 패하기 전에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형사범들과 자기 졸개들에게 지시한다. 아리아족의 우월성을 시위하려던 시도들이 파탄된데 약이 오른 놈들은 한다하는 권투선수들을 련이어 안

드레이와 맞세운다. 잘 먹지도 못하고 쇠약해진 몸으로 시간을 끌면서 경기를 하는것은 자살행위나 같은 모험이지만 안드레이는 지하조직의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간다.

안드레이가 링안에서 힘겨운 권투를 하고있을 때 수용소지하실과 바라크들에서는 보총과 권총들이 조립되고 산과 솜으로 수류탄이 만들어지고있다. 권투가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그곳에서 몇십m 떨어진 하수도속에서는 권총의 시험사격이 진행되고 폭동부대들의 상학과 자동총사격훈련이 진행되고있다. 안드레이가 링안에서 가까스로 권투시간을 연장하고있을 때 보이라실에서는 지하군사정치조직지도자들이 앞으로 있게 될 전투작전과 계획을 작성하며 비밀병리바라크에서는 국제반파쑈지하조직 중앙위원들의 회의가 진행된다.

히틀러의 나치스제국은 통채로 무너져 침몰되는 낡은 배처럼 산산이 부서져나가기 시작한다. 동쪽에서는 쏘베트군대가 승리적전진을 계속하고 서쪽에는 제2전선이 펼쳐진다. 도이췰란드에서는 또다시 총동원령이 내리고 부헨왈드를 지키던 에쓰에쓰 《백골》사단의 대부분 력량도 동부전선으로 떠나간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는데 겁을 먹은 파쑈교형리들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화장터로 보내려고 날뛴다.

파쑈교형리들은 부헨왈드집단수용소의 화장터앞마당에서 도이췰란드로동계급의 지도자인 에른스트 텔만을 야수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한다.

국제반파쑈지하조직에서는 전수용소적인 텔만추모회와 추도대회를 엄숙히 진행한다.

수용소의 수인들이 텔만추도대회를 가졌다는것을 안 나치스교형리들은 악에 받쳐 그 조직자들을 체포학살하는 한편 수많은 앞잡이들을 수인들속에 박아넣는다. 그러나 체포된 열성지하조직원들은 조직의 비밀을 목숨바쳐 지켜낸다.

《푸른 수인》들은 끝내 안드레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놈들은 범죄세계의 두목의 하나인 이전 프로권투선수 빌리를 내세운다. 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악당은 감방에서 정치범들의 팔다리를 꺾으

며 고문을 들이대고 나치스들의 쾌락을 위해 주먹으로 죄없는 사람들을 때려죽이군 한다. 이놈은 텔만을 야수적으로 학살하는데도 참가한 놈이다. 그러나 장대한 체구와 많은 경험을 가진 빌리도 증오심에 불타는 안드레이의 무쇠주먹앞에서는 무릎을 꿇고만다.

조직에서는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안드레이를 교형리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한다.

1945년 봄에 들어서면서 전선은 베를린으로 접근한다. 쏘련군의 노도와 같은 진격앞에 도이췰란드의 도시수비대들은 하나둘 항복한다.

파시스트들은 저들의 만행의 흔적을 없애려고 서두른다.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 오슈벵찜과 다하우 등 많은 수용소들에서 수만명의 수인들이 부헨왈드로 끌려온다. 부헨왈드에서는 《소탕기계》가 밤낮으로 돌아간다. 화장실에서 사람들의 시체를 미처 처리하지 못하여 화장터앞마당에는 시체들이 더미를 이룬다. 그런 속에서도 지치고 쇠약해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

○ 인물소개 ○

## 에른스트 텔만

에른스트 텔만은 도이췰란드로동운동의 지도자이며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였다.

1886년 4월 16일 함부르그에서 출생한 그는 청년시절부터 부두로동자로 일하면서 운수로조성원으로,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원으로 활동하였다. 1917년 사회민주당과 결별하고 도이췰란드 《독립사회민주당》에 들어갔다. 그후 이 당내의 우익지도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1920년에 이 당 함부르그조직의 대부분 성원들과 함께 도이췰란드공산당에 들어갔다. 1921년에 공산당중앙위

지하조직원들은 히물러가 비준한 비밀암호명령을 알아낸다.
암호문은 다음과 같다.
《부헨왈드집단수용소 위수사령관은 명령을 받은 즉시로 집단수용소 숙청을 할것. 살아남은 수인들을 모두 죽이고 바라크들을 불태울것. …》
쏘련지하군사정치조직에서는 대중적무장폭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계획을 서둘러 작성한다. 체스꼬슬로벤스꼬애국자들과 프랑스항쟁부대 지휘관들은 쏘련사람들의 폭동계획을 지지해나선다. 그러나 국제반파쑈지하조직중앙에 들어앉은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원들은 우유부단하면서 혁명적이고 공개적인 투쟁을 두려워한다.
중앙은 다수가결로 무장폭동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결정한다.
3월말 서부전선에서 진격해오는 미군이 부헨왈드에서 20㎞ 떨어진 곳까지 이른다.
나치스들은 몸서리치는 부헨왈드소탕계획을 미친듯이 준비한다.
먼저 놈들은 유태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놈들은 《소개》의

원회 위원으로 되였으며 도이췰란드공산당 대표로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에 참가하여 레닌과 만났다.
1925년 10월 도이췰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였다. 1925년과 1932년에 공산당립후보자로 대통령선거에 나섰다.
1928년부터 1943년까지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쑈독재수립의 위험이 조성되자 로동계급의 통일단결과 반파쑈인민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1933년 3월 3일 히틀러도당에게 체포되여 옥중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혁명적지조와 신념을 지켰으며 도이췰란드인민을 반파쑈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1944년 8월 18일 그는 10여년간의 옥중생활끝에 부헨왈드집단수용소에서 히틀러파쑈악당들에게 학살되였다.

명목으로 유태인들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파탄된다. 유태인들이 놈들의 명령을 듣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며 로씨야사람들을 비롯한 다른 민족의 수인들은 그들이 숨는것을 도와준다.

놈들은 끝끝내 3천명의 유태인들과 29명의 열성정치범들을 화장실 앞마당에서 총살한다.

국제반파쑈지하조직중앙은 밤새도록 모임을 가진다. 쏘련사람들은 무장투쟁을 즉시 개시할데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나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또다시 이 제의를 반대해나선다. 그들은 부헨왈드주변에 많은 도이췰란드군이 집결해있기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서 쏘련사람들을 《모험주의자》로 비난해나선다. 지어 그들은 자기 사람들로 온밤 수용소를 순찰하게 하며 만일 공산당원들이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면 에쓰에쓰대원들의 도움을 요청할수밖에 없다고 내놓고 말한다.

나치스들은 이틀동안에 겨우 6천명의 수인들을 수용소에서 끌어낸다. 베를린으로부터는 위협적인 무선전보가 날아온다. 히믈러는 《일을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한다.

병력을 증강한 에쓰에쓰놈들은 일부 로씨야포로들과 2천명의 유태인들에 대한 소개를 명령한다. 조직에서는 소개하는 도중에 폭동을 일으킬것을 결정하고 그들을 떠나보낸다.

첫 《성과》에 만족한 나치스들은 수용소안의 정당지도자들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한다.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닥쳐오자 어제까지도 쏘련사람들의 《조급성》과 《모험주의》를 비난하던 사회민주당원들과 기타 온건파들은 쏘련사람들의 계획을 지지해나선다.

쏘련지하군사정치조직은 놈들의 소탕작전이 4월 11일 17시에 개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폭동지휘부는 15시에 놈들보다 먼저 무장폭동을 개시할것을 결정한다.

정각 15시 정문에서의 폭발을 신호로 폭동군 려단들과 대대들은 일제히 놈들을 향해 돌진한다. 쏘련사람들의 뒤를 따라 마쟈르, 유고슬라비아(당시), 그리스, 노르웨이, 벨지끄, 뽈스까 등 기타 민족부대들이 에쓰에쓰놈들을 공격한다. 폭동부대들은 작렬하는 총

포탄속을 뚫고 철조망을 짓부셔버리고 감시탑과 엄페호, 에쓰에쓰거리로 육박한다. 그들은 놈들의 무기고를 점령하고 에쓰에쓰놈들을 몰아낸다. 부헨왈드의 하늘에는 붉은 기발이 휘날린다.

수인들은 다시 부헨왈드를 점령하려고 달려드는 에쓰에쓰놈들의 필사적인 공격을 저지시킨다. 수용소가 해방된지 몇시간후 길가에 미군의 장갑차대렬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 죽음의 수용소가 있는걸 모르기나 한듯 자기들을 맞이하려 떨쳐나선 사람들을 보지 못한것처럼 그들의 곁을 지나 도시로 향한다.

련합군은 나흘째 되는 날에야 부헨왈드에 나타난다.

미군이 도착한 이튿날 쏘련포로들은 쏘련군대를 맞이할 행군을 준비한다.

미군대좌가 쏘련포로들을 《특별지시》가 있을 때까지 수용소에 잡아두려고 하나 그들은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부헨왈드의 기본돌격대인 2천여명의 쏘련전투원들은 전투서렬을 짓고 척후대를 앞세우고 쏘련군정규부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진군해간다.

《동무들, 노래를 부릅시다!》

그처럼 마음속에 그리던 노래, 귀속말로만 부르던 노래, 간고하고 힘에 부친 투쟁에서 변함없는 길동무였던 노래가 대오속에서 울려나온다.

증오야 불타올라라
심장아 뛰여라
그렇다 인민의 싸움
정의의 싸움이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난다.

이전 쏘련작가 게오르기 스비리도브가 쓴 장편소설 《철조망속의 권투시합》은 파시스트들의 무시무시한 죽음의 수용소의 하나인 부헨왈드집단수용소에서 실재한 사실자료들을 소설화한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쓰고 이름있는 작가로 알려지게 되였으며 쏘

련국방성, 쏘련국가안전위원회, 전련맹직업동맹 중앙쏘베트, 쏘련작가동맹의 문학상수상자로, 쏘련공훈문화인으로 되였다.

소설은 쏘도전쟁시기 부헨왈드집단수용소에서 감행한 히틀러악당들의 비인간적인 살인만행과 그를 반대하여 목숨걸고 싸운 쏘련군포로병들과 여러 나라 반파쑈투사들의 영웅적투쟁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집단수용소위수사령관 칼 코흐와 위생연구소 소장 아돌프 고벤 등 나치스교형리들의 형상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나치스도당이 감행한 살인만행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극단한 나치즘사상과 타민족배타주의에 물젖은 이자들은 히틀러의 《유럽초토화》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집단수용소들을 만들어놓고 가스실과 화장로 등 현대적이며 공업적인 수단으로 포로병들뿐아니라 연약한 녀성들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무참히 학살한다. 지어 파쑈교형리들은 포로병들을 동물대신 생체실험대상으로 리용하며 사람의 가죽으로 가방과 책표지, 사진첩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귀축같은 만행도 서슴지 않고 감행한다. 작품에서는 이러한것들을 통하여 히틀러파쑈도당이야말로 인류의 극악한 원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의 무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놈들의 탄압과 야수적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반파쑈지하조직을 뭇고 무기를 구입하여 무장폭동을 일으켜 수용소를 해방하는 쏘련군포로병들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조국의 존엄을 지켜싸운 그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안드레이와 스미르노브중좌를 비롯한 쏘련군포로병들의 형상을 통하여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국의 존엄을 위하여 굴함없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이와 함께 포로병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포로의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철조망속의 권투시합》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내외에 널리 알려졌으며 쏘도전쟁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 ❖ ────── ❖ ─────

와씨꼼은 어른들의 행렬을 쭉 훑어보고나서 입술을 이죽거렸다.

《야 뻬뚜흐, 너 잘못봤어. 쏘련사람들은 저렇지 않아. … 그들이 포로로 잡힐게 뭐야?》

포로들은 말없이 걸었다. 누군가 뿌드득 이를 갈았고 또 누군가는 깊이 탄식하였다. 빠르호멘꼬는 머리를 수그리고 자기의 신발을 보았다. 안드레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가 막혀서.

그때 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떨면서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동요하고 퇴각하였던가. 그래서 적들이 우리 집, 우리 땅에 기여들어 녀성들과 아이들을 릉욕하고 욕되게 했으니…

해빛은 사정없이 내리쪼였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것이다.

그러나 안드레이 부르젠꼬는 더운줄 몰랐다. 가슴이 써늘하고 눈물겹도록 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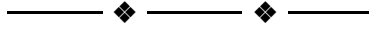
자신과 동지들앞에 창피스러웠다.

자기의 과거와 뼈아픈 치욕의 순간을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웠다.

얘들아, 너희들이 옳다. 우리들자신이 자기를 원망한다. 안드레이는 유년시절이 생각되였다. 내외의 온갖 원쑤들을 쳐물리치고 지구의 6분의 1에 달하는 넓은 땅에 자기의 쏘베트정권을 세운 공민전쟁영웅들을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던가.

먼지가 풀썩풀썩 이는 거리로 아이들과 함께 붉은군대대렬뒤를 따라갈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러던 그가 포로로 되였으니…에익, 힘겨운 가렬한 전투가 벌어지던 나날 중대와 련대, 사단의 동무들이 포로로 되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받게 되며 어떤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가를 알기만 하였더라면… 전선에서 아무리 상상할수 없는 곤난과 시련과 위험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오늘에 비하면 락이였고 행복이였어. …

——— ❖ ——— ❖ ———

갑자기 자지러지는 소리가 났다. 안드레이는 흠칠 놀랐다. 길 량옆에 군견들이 늘어섰다. 모두 말처럼 크고 훈련된 사나운 개들이였다.

에쓰에쓰놈들이 수십명의 수인들을 철조망속의 마당 한가운데 밀어넣었다.

그런데 금발머리청년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키다리 도이췰란드놈이 그에게 달려들어 권총손잡이로 머리를 쳤다. 청년은 풀썩 주저앉았다. 놈들은 그의 팔다리를 잡고 마당 한가운데 던져넣었다.

그 순간 키다리놈이 개들을 풀어놓았다.

개들은 불쌍한 수인들에게 달려들었다. 수인들은 절망적인 소리를 지르며 철조망속에서 모대기였다. 미쳐날뛰는 군견들은 대번에 희생물을 덮치고 넘어뜨려 물어뜯었다. 절망에 찬 울부짖음,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개소리,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한데 어울려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

대오에 선 사람들은 몸을 떨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끔찍한 참사를 본 일이 있었지만 이처럼 참혹한 일은 처음이였다. 안드레이는 치를 떨며 주먹을 으스러지게 쥐였다. 달랠길없는 증오심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뾜스까사람인 베니끄가 참지 못하고 《아이쿠.》하며 손으로 가슴을 쥐여뜯었다.

그것을 하사관 프리쯔가 보았다.

《대렬에서 나왓!》 놈은 뾜스까인에게 호령질을 했다.

베니끄는 나무창을 댄 신을 끌며 길가에 나섰다.

《개우리로 뛰여갓!》

베니끄는 머뭇거렸다.

파시스트놈은 권총을 빼들었다.

《뛰여갓! 손을 내밀어.》 교형리는 웨쳤다.

수인의 얼굴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쭈르륵 흘러내렸다.

《성모 마리아이시여.》 그는 피기없는 입술로 속삭이면서 천천히 왼손을 철조망너머로 내밀었다. 순간 털이 부시시한 두마리의 개가 달려들었다. 수인의 고함소리는 사람의 소리같지 않았다.

《이제는 가슴을 쥐여뜯지 못할게다.》 파쑈놈은 좋아라고 히히닥거렸다.

가슴을 서늘케 하는 놈의 웃음소리에 안드레이는 소름이 끼쳤다.

놈들은 그 더러운 일을 기계가 돌아가듯 자동적으로, 광신적으로 랭정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처럼 즐기고 좋아하는 놈들을 여직껏 본 일이 없었다. 이것은 그 무엇인가 비인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운것이였다.

뾸스까사람은 그냥 철조망곁에 서있었다. 공포와 아픔으로 굳어진 그의 눈에서 리성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갔다. 로드즈의 하늘처럼 파란 눈이 꺼지면서 정신착란의 뿌연 장막이 드리워졌다.

리발기로 갈라놓은 검은 머리칼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점점 희여져갔다. 그것은 마치도 가을서리를 맞아 은빛으로 되는듯싶었다.

프리쯔놈은 히히닥거리며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떠나갔다.

놈은 왼손으로 자전거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권총을 권총집에 넣으며 지껄였다.

《우리 게르만족은 인도주의적이야.》

장편소설 《철조망속의 권투시합》중에서

# 2차대전의 나날에

장편실화 《2차대전의 나날에》는 이전 쏘련의 작가 유. 꼬롤리꼬브가 1976∼1979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작품은 1930년대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파시즘과 전쟁을 반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 도이췰란드반파쑈항전투사들의 투쟁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작품에는 슐쩨－보이젠, 일자 슈토베, 라도, 하르나크, 쉘리아 등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실재한 인물들이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 유럽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다.

히틀러도당이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후 도이췰란드는 급속히 파쑈화의 길로 줄달음친다. 나치스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비법화되여 가혹한 탄압을 당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준비가 기본적으로 추진된다.

온 유럽땅에는 파시즘에 의한 새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쏘련정보기관의 눈길도 어쩔수없이 도이췰란드로 쏠리게 된다.

쏘련의 정보망들은 서서히 서유럽으로 그리고 파쑈의 아성인 베를린으로 뻗어나간다.

베를린에는 슐쩨－보이젠의 《붉은 관현악단》과 일자 슈토베의 《알타》가, 스위스에는 마쟈르의 지도학자 라도의 《도라》조직이 꾸려진다. 파시스트들과의 보이지 않는 비밀전쟁에 나선 이 사람들은 비록 민족과 출신, 직업은 각이하였으나 나치즘에 대한 증오와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공감이 그들로 하여금 치렬한 력

사의 대결속에서 쏘련의 편에 서도록 하였던것이다.

쏘련의 정보조직들은 파쑈도이췰란드의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며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자기의 활동을 개시한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체 무전련락이 엄금되며 입수된 정보는 제정된 련락선을 통해서만 본부에 전달된다.

1933년 2월에 베를린에서는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을 도발한 나치스도당은 이를 계기로 공산당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투옥한다. 벌가리아공산당의 지도자인 게오르기 지미뜨로브도 놈들의 마수에 걸려든다. 놈들은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의 책임을 지미뜨로브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씌우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악에 받친 놈들은 그들을 도이췰란드경내에서 추방할것을 결정한다. 이때 쏘련정부는 지미뜨로브와 그의 동지들에게 쏘련공민권을 준다고 선포한다. 나치스도당은 비밀경찰을 시켜 도중에 비행기사고를 조작하고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그 계획은 쏘련정탐일군들의 활동에 의하여 파탄되고만다.

그후에도 적후의 《감시초소》들은 오스트리아,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노르웨이, 단마르크, 네데를란드 등 유럽나라들에 대한 히틀러의 침략계획들과 에스빠냐에 대한 무장간섭의 중요한 정보들을 제때에 모스크바로 보낸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임무는 쏘련에 대한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계획을 알아내는것이다.

온 유럽땅을 집어삼킨 히틀러가 이번에는 어디로 눈길을 돌릴것인가. 영국인가, 쏘련인가.

쏘련과 도이췰란드사이에는 1939년 8월에 호상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

1940년 11월에는 외무인민위원 몰로또브가 이끄는 대규모의 쏘련국가대표단이 베를린을 방문하여 히틀러와 상봉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과 회담의 막뒤에서 쏘련에 대한 배신적인 침략전쟁준비가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1940년말에 히틀러는 쏘련에 대한 침공계획인 《바르바로스》작전을 비준하며 이에 따라 방대한 무력이 쏘련과의 접경지대에 집결된다.

나치스의 음모가들은 저들의 계획을 숨겨보려고 하나 《감시초소》들은 부단히 그에 대하여 모스크바에 예고한다.

1941년 2월말에 《알타》는 모스크바에 이렇게 전한다.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는 급속도로 진척되고있다. 나치스지도부는 여전히 쏘련과의 전쟁을 금년중으로 개시할것이라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륙군원수 폰 보크, 룬슈테트, 폰 레브들이 지휘하는 3개의 군집단이 편성되였다. 〈케니흐스베르그〉군집단은 레닌그라드방향으로, 〈와르샤와〉군집단은 모스크바방향으로 그리고 〈뽀즈난〉군집단은 끼예브방향으로 공격하게 된다. 공격날자는 5월 20일로 추정된다. 핀진펄지대에서 120여개의 도이췰란드사단들의 참가하에 대격전을 벌릴것을 예견하고있다. 쏘련철도규격에 맞는 장갑렬차들은 이미 준비되여있다.》

○ 인물소개 ○

## 지미뜨로브

게오르기 미하일로비츠 지미뜨로브(1882. 6. 18－1949. 7. 2) 는 벌가리아로동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였다. 뻬르니끄구역끄바쳅찌촌의 가난한 수공업자의 가정에서 태여나 12살때부터 식자공으로 일한 그는 1901년 쏘피아에서 인쇄로조비서로 선거되였다.

맑스주의서적, 벌가리아인민의 민족해방투쟁사 등에 대한 연구는 그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1902년 벌가리아사회민주로동당에 들어간 그는 이듬해 당이

도이췰란드군 최고사령부에서는 일정한 사정때문에 쏘련에 대한 공격날자를 한달후인 6월 22일로 미룬다.

침공이 개시되기 6일전인 6월 16일 《알타》는 모스크바에 암호문을 보낸다.

《도이췰란드군 최고사령부 참모부내에서는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이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6월 22일부터 25일사이에 일어날것이라는 소문이 돌고있다.》

베를린뿐아니라 암스테르담과 스위스의 《감시초소》들에서도 놈들의 침략계획에 대하여 모스크바에 통보한다. 그들은 끝끝내 파쑈도배들의 정확한 침공날자까지 알아낸다.

1941년 6월 22일 드디여 히틀러파쑈도이췰란드는 쏘련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 수천대의 땅크와 비행기를 앞세운 100여개의 도이췰란드정예사단들은 불의에 쏘련국경선을 넘어선다. 쏘베트로씨야앞에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온다.

전쟁이 일어난 날 밤 처음으로 무전기들이 모스크바로 전파를 날

분렬된 후 혁명적인 벌가리아사회민주로동당(《쩨스냐크》)에 합류하였으며 1909년부터 중앙위원회 위원, 1919년부터는 개칭된 벌가리아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였다.

1921년 벌가리아공산당대표로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에 참가한 그는 레닌과 만났다.

1923년 9월 벌가리아인민의 반파쑈무장폭동을 지도한 그는 폭동실패후 외국에 망명하였으며 망명지에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1933년 그는 도이췰란드에서 파쑈악당들에게 체포되여 《의사당방화죄》로 기소되였다. 라이프찌히공판에서 그는 파시스트들의 비렬한 음모를 발가놓고 인민들을 파시즘과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세계 진보적인민의 항의에 히틀러도당은 그

린다.

《이 력사적인 시각에 우리는 변함없는 충실성과 열백배의 열정을 지니고 전초선을 지켜나설것이다.》

쏘련의 지하조직들의 단파무전기들은 매일과 같이 모스크바에 무전을 날린다. 정찰조의 보고는 하루에도 수십건 지어는 백건을 넘을 때도 있다.

정찰조들의 활발한 무전활동은 아브웨르의 주목을 끌게 된다. 함부르그근방에 자리잡은 아브웨르의 무전감시대들에서는 단파무전기들의 호출신호를 포착하며 그것들의 교신파장과 위치를 알아낸다.

아브웨르통신국에서는 경보신호가 울린다. 암호해득부서에는 송신된 무전문들을 해득할데 대한 명령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 어떤 암호문이나 비밀송신체계도 해득한다고 뽐내던 명수들도 수자묶음들을 도저히 해득하지 못한다.

이 사실은 곧 상부에 보고된다. 그러나 아브웨르의 책임자인 카

를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이듬해 2월에 쏘련으로 갔다. 1935년 그는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총비서로 선거되여 1943년 국제당이 해산될 때까지 이 직책에서 사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그는 파쑈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을 조직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렸다. 그의 발기에 따라 1942년 벌가리아에 조국전선이 창건되고 강령이 작성되였다.

벌가리아에 인민정권이 수립된 후인 1945년 11월 그는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11월 그는 내각수상으로, 1948년말에 벌가리아공산당 총비서로 되였으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적 개혁을 수행하였다. 지미뜨로브는 벌가리아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국제로동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다.

나리스해군대장은 그 보고에 별로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카나리스 역시 다른 나치스우두머리들처럼 쏘베트로씨야와의 전쟁이 한달후엔 끝날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정말로 적의 무전기가 동작하고있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은 로씨야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 도이췰란드집단군 부대들은 두주일간의 전투행동과정에 리가, 쁘스꼬브, 민스크를 점령하고 베레지나강을 도하하여 드네쁘르에 진출하였다. 모스크바까지의 절반길을 지나온셈이다. …)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선의 정세는 나치스우두머리들의 계획과 정반대로 발전한다. 쏘련군대들의 저항은 점점 더 강화되며 파쑈군대는 치명적인 손실을 당한다.

베를린 한복판에서 동작하는 비밀무전기들은 파쑈우두머리들의 부아를 돋군다. 성이 독같이 오른 히틀러는 히믈러에게 숨어있는 적을 잡아내지 못하는자는 대갈통을 박살내겠다고 위협한다.

게스타포안에 경험있는 수사전문가들, 무선방향탐지기와 암호해득기술을 아는 전문가들이 망라된 특수그루빠가 조직되며 새로운 정밀한 방향탐지기를 설계할데 대한 과업이 해당 기관에 떨어진다. 주민들에게는 일체 비밀을 루설하면 총살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처벌을 당하게 된다는 포고가 내려진다. 게스타포의 무전감시차들은 비밀무전기들을 찾아 매일 온 도시를 샅샅이 뒤진다.

일부 무전기들이 놈들에게 발각되여 피해를 입는다.

그러한 속에서도 지하의 《피아니스트》(비밀무전기)들은 파쑈군 총사령부의 작전계획들과 부대들의 이동정형, 군수생산정형과 무장장비, 파쑈상층내부의 알륵과 모순에 대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모스크바에 전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쏘련군의 군사작전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41년말 모스크바부근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히틀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쓰딸린그라드와 깝까즈지역에 대한 공격을 은밀히 준비한다.

《블라우》라고 명명한 이 하기공세를 위하여 쏘련의 남부지역에 8개의 집단군의 90개 사단에 달하는 방대한 파쑈군무력이 집결되며

게스타포와 아브웨르는 그 비밀보존을 위하여 총력을 다한다.

그러나 적들이 비밀리에 준비한 하기공세는 《감시초소》들의 부단한 감시속에 있다. 《감시초소》들은 작전이 개시되기 벌써 몇달전에 그에 대하여 모스크바에 알리며 점차 구체적인 공격계획과 날자, 부대들의 명칭들도 알아낸다.

《블랴우》작전이 진행될 때 게스타포의 수사조에서는 한 《비밀무전기》를 습격한다. 그런데 그들이 탈취한 무전문에는 깝까즈와 쓰딸린그라드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나치스우두머리들은 아연해진다.

이 보고를 받은 히틀러는 노발대발하면서 후방에서의 로씨야

○상 식○

## 도이췰란드국회의사당을 방화한 진범인

1941년 11월부터 1946년 10월사이에 뉘른베르그에서 진행된 국제군사재판법정에 나치스도이췰란드의 전범자로 기소된 바르다는 공판정에서 1933년 도이췰란드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른 진범인이 다름아닌 《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한 게링그자신이였다는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1942년 총통의 생일오찬때에 있은 일입니다.

총통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는 국회의사당과 그 예술적가치에 대하여 론의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이야기에 끼여든 게링그가 큰소리로 〈국회의사당을 정말로 잘 알고있는것은 나 혼자이다. 내가 거기에 불을 질렀으니까.〉라고 한것을 나는 똑똑히 내 귀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정갱이를 치고있었습니다.》

정탐들에 대한 작전을 군사작전수행정형과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직접 보고할것을 명령한다. 히틀러는 이 작전의 총지휘를 위하여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는 특별참모부를 내오도록 한다. 특별참모부 성원으로는 나치스도이췰란드의 한다하는 음모가들인 아브웨르 책임자 카나리스, 아브웨르의 반탐책임자 폰 벤치웨니, 아브웨르의 암호해득부서책임자 칠레, 게스타포책임자 뮬러 그리고 제국안전총국의 대외첩보국장인 쉘렌베르그 등이 선발된다. 특별참모부의 활동범위는 도이췰란드는 물론 유럽의 점령지역들과 동맹국들, 지어는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포함한 넓은 지역이다. 명령수행정형에 대한 검열과 감시,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부총통 히믈러에게 위임된다.

아브웨르의 암호해득부서에서는 수십명의 전문가들과 수학자들, 어학자들이 무전문해득사업에 달라붙는다. 암호의 체계를 수십년동안이나 연구해온 아브웨르의 암호전문가들은 점차적으로 목표에 접근해간다. 주소와 이름들을 암시한 일부 무전문들을 어렴풋이 해득한다. 이에 기초하여 게스타포는 끈질긴 미행을 조직한다. 결과 공군성의 슐쩨－보이젠, 경제성의 상급참사 하르나크, 외무성의 폰 쉘리아, 일자 슈토베를 비롯한 베를린지하조직의 거의 모든 성원들이 체포된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히틀러는 그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들이댈것을 명령한다. 게스타포의 교형리들은 중세기적인 고문과 현대과학기술을 도용한 고문으로 그들을 굴복시켜보려고 하나 그누구도 진술하기를 거절한다. 일부 사람들은 놈들의 야수적인 고문에 시달리기보다 죽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붉은 관현악단》성원들에 대한 예심은 여러달동안 진행된다.

히틀러는 그들모두를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전부 사형에 처할것을 명령한다.

베를린의 지하조직을 소멸한데 이어 게스타포는 암스테르담의 지하조직을 적발하는데 모든 힘을 돌린다.

체포된 암스테르담의 지하조직성원들도 마지막까지 놈들과 용감

하게 싸운다.

그들은 목숨으로 조직의 비밀을 지켜낼뿐아니라 놈들의 내부 알륵을 리용하여 놈들자신이 수많은 나치스고위장령들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한다.

게스타포의 탄압이 살벌한 속에서도 《감시초소》들의 보이지 않는 활동은 계속된다.

1943년말 나치스첩보기관은 뛰르끼예주재 영국대사의 하인으로 있는 첩자로부터 테헤란에서 소집될 쏘, 미, 영 3국수뇌자회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 쉘렌베르그는 이 기회에 3국의 수뇌들을 제거할것을 계획하고 이 작전을 악명높은 파괴암해분자인 스코르쩨니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놈들의 음모는 쏘베트정찰병들의 눈길을 피하지 못한다.

쏘베트정보원들은 테헤란과 관련된 나치스음모가들의 행동을 모스크바에 통보한다.

결과 놈들의 락하산륙전대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소멸되고 작전은 물거품이 되고만다.

한편 중립국인 스위스에서는 라도의 《도라》망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다.

그들은 게스타포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석대의 무전기로 수많은 자료들을 모스크바로 보낸다.

그들이 보내는 정보들은 쏘도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

1942년 11월초 라도는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적들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쓰딸린그라드 동남쪽의 깔믜쯔크초원방향을 경시하면서 그곳에 전투력이 약한 로므니아군대를 배치하였다는 정보를 모스크바에 보낸다.

그후에는 쓰딸린그라드주변의 적들의 배치정형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보낸다.

그 자료에 기초하여 쏘련군 최고사령부는 최종결심을 내려 쓰딸린그라드부근의 도이췰란드군을 포위하기 위한 주타격방향을 정

한다.

11월 19일 쏘련군부대들은 인적없는 깔믜쯔크초원방향으로부터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4일만에 쓰딸린그라드부근의 도이췰란드집단군에 대한 포위를 실현한다. 이 작전에서 파쑈도이췰란드는 30여만의 병력을 살상포로당하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모스크바와 쓰딸린그라드, 깝까즈의 산지대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후에도 히틀러는 쏘련을 집어삼키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는다.

1943년 여름 히틀러는 부대들을 재편성하여 꾸르스크지역에서 쏘련군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격을 시도한다. 히틀러는 원형진 꾸르스크돌출부의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공격을 하면 적어도 두개의 쏘련전선군을 포위격파하여 거대한 전과를 거두며 나아가서 전략적으로 광활한 지대로 나아감으로써 모스크바까지 진격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한다. 히틀러는 전쟁에서 이길수 있는 이 마지막기회를 잃지 않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한다.

동부전선에 집결된 도이췰란드땅크의 3분의 2, 보병의 3분의 1인 70개 사단이 이 지역에 모여든다. 도이췰란드군사령부는 이 작전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였다. 적후의 《감시초소》들은 이 작전의 규모와 날자를 알아낸다. 쏘련군사령부는 적들의 기도에 대처하여 종심 300㎞에 이르는 강력한 방어를 형성한다.

1943년 7월 5일 새벽 2시 20분, 도이췰란드군의 공격개시 40분전에 쏘련측의 모든 포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한다. 이 전투에는 쌍방이 합하여 수천대의 땅크와 비행기, 포가 참가한다. 50일간 중단없이 계속된 전투에서 도이췰란드는 자기의 기술장비의 대부분과 50만이상의 병력을 잃는다.

이로써 위대한 조국전쟁의 국면은 쏘련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된다. 그러나 전선에서 쏘련군대가 련속적인 승리를 거두고있던 이때 적후의 《감시초소》들에는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다.

스위스에서 라도소조의 적극적인 활동은 도이췰란드반탐을 점점 더 불안하게 한다. 해득된 그들의 무전문들은 도이췰란드반탐지도자들을 질겁케 한다.

그리하여 스위스의 라도소조를 없애는데 파쑈반탐우두머리인 쉘렌베르그가 직접 발을 벗고 나서게 된다.

쉘렌베르그는 스위스국경의 도이췰란드군대가 마치 스위스를 공격하려는듯이 출발진지를 차지하도록 하는 한편 스위스비밀경찰책임자 마쏜을 만나 쏘련정탐들을 없애버리라고 강박한다.

라도의 소조는 게스타포와 함께 스위스반탐의 공격을 받게 된다.

정체불명의 이상한자들이 공작원들에게로 접근해온다. 그들에게서는 직업적인 밀정의 체취가 풍긴다.

모스크바에서는 라도소조에 경각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무전송신도 중단할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스위스의 무전기는 오래동안 입을 다물고있을수 없었다.

○ 상 식 ○

## 꾸르스크전투

1943년 7월 5일～8월 23일에 쏘련군대가 파쑈도이췰란드군대와 진행한 전투이다.

쓰딸린그라드전투와 동기공격작전에서 녹아난 파쑈도이췰란드군지휘부는 전략적주도권을 되찾기 위하여 꾸르스크돌출부를 새로운 공격대상으로 정하였다.

파쑈군진지에 깊숙이 파고들어간 꾸르스크돌출부는 쏘련군측으로 볼 때 드네쁘르방향에서 공격하기 위한 거점으로 되였다.

수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지체되여 가치를 상실하고있었던것이다.

스위스의 무전기들은 또다시 동작하기 시작한다.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도이췰란드반탐은 《붉은3인조》(도라)에 망라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지하무전기의 위치들을 알아낸다. 그들은 이 자료들을 스위스비밀경찰에 넘겨준다.

스위스의 경찰은 로자와 함멜부부를 비롯한 라도소조의 무전수들을 습격하여 체포한다.

라도소조주위의 포위환은 점점 더 좁혀든다. 매일 라도의 집앞에는 정복을 입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다사라졌다 한다. 그러나 《감시초소》는 물러서지 않고 자기 사업을 계속한다. 마지막무전기 한대가 세몫을 담당한다. 그것은 포탄에 온통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으면서도 계속 적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군함을 련상시킨다.

드디여 마지막무전기도 자기 사명을 마친다.

도이췰란드군측에서는 원형진 꾸르스크의 북쪽과 남쪽으로 공격하면 적어도 두개의 쏘련전선군을 격파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을수 있었다.

도이췰란드는 이 지역에 《중앙군》집단의 제9집단군, 제2집단군, 《남부군》집단의 제4땅크집단군 및 《켐프》작전집단군에 속한 50개 사단 (16개 땅크 및 모터찌클사단 포함), 2개 땅크려단, 3개 땅크독립대대 및 공격용무기를 갖춘 8개 대대 등 모두 약 90만명의 병력을 투입하였다.

쏘련군측은 적의 타격을 격파하고 꾸르스크부근에서뿐아니라 다른 전선지역에서도 공격에로 넘어갈수 있도록 적의 력량을 최대한 약화시킬 목적으로 300㎞ 깊이의 종심방어를 조직하고 적의 신형땅크들을 격파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처음 파쑈군대는 일시적으로 쏘련군의 방어를 10～12㎞ 뚫고들

라도는 지하로 들어갔다가 프랑스가 해방되자 믿음직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어간다.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스위스에서 지하소조들이 습격당한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전쟁 말기에도 이 보이지 않는 전선의 투사들은 쏘련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나치스도당의 《세기작전》과 미국과 파쑈도이췰란드사이의 단독비밀회담을 파탄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작품의 내용은 이상과 같다.

장편실화 《2차대전의 나날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전쟁전부터 쏘베트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적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정탐활동을 벌려 파쑈도당의 음모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린 반파쑈항전투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폭넓고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흔히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름난 전투나 군

어갔다.

그러나 1주일후인 7월 12일 1 500대의 땅크와 자동포, 수많은 공군무력이 참가한 쁘로호로브까전투에서 350대이상의 땅크와 1만명이상의 인원손실을 내고 파쑈도이췰란드군의 공격은 좌절되였다.

반공격으로 넘어간 쏘련군은 적의 반항을 분쇄하면서 7월 29일에 월호브, 8월 5일에 벨고로드와 오룔, 8월 23일에는 하리꼬브를 해방하였다.

50일간에 걸친 꾸르스크전투에서 쏘련군은 파쑈도이췰란드군 30개 사단(그중 7개는 땅크사단)을 격멸하였으며 50만명이상의 적을 소멸하였다.

쏘련군대는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략적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사장비, 영웅적위훈을 세운 군사가나 병사에 대하여 많이 말한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정탐일군들의 역할은 자못 큰것이다.

작품에서는 그러한 반파쑈정탐일군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을 제2차 세계대전행정속에서 자료적으로 실감있게 일반화하였다.

파쑈의 위협이 유럽땅에 드리우기 시작한 때부터 반파쑈정탐일군들은 놈들의 음모를 걸음걸음 주시한다. 특히 히틀러도당이 쏘련에 대한 침략을 기정사실로 하고 은밀히 전쟁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자 그들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쏘련에 알린다. 전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나치스도당이 피눈이 되여 비밀무전기들을 찾아 돌아치는 속에서도 희생을 무릅쓰고 활동을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모스크바전투와 쓰딸린그라드전투, 꾸르스크전투를 비롯한 중요한 싸움마다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수뇌부를 해치려는 놈들의 음모와 후방에 대한 파괴행위들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린다.

작품에 그려진 슐쩨—보이젠, 하르나크, 일자 슈토베, 라도 등은 모두 쏘련사람이 아니며 더우기 전문정탐일군도 아니였다.

그러나 파시즘에 대한 증오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위험한 비밀전쟁의 마당에 뛰여들게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작품은 파시즘은 인류공동의 원쑤이며 반드시 멸망하고야만다는 력사의 진리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어둠속을 헤치는듯한 어려운 적후정탐활동과 수시로 뒤따르는 비밀경찰의 감시와 습격과의 위험한 대결과정을 보여준 작품은 독자들에게 정보활동과 비밀엄수에 대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주고있다.

작가의 허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재한 력사적사실자료에 철저히 립각하여 쓴 장편실화 《2차대전의 나날에》는 흥미를 끄는 이야기구성과 자료의 신빙성으로 하여 더우기 작품에서 울려나오는 반파쑈사상으로 하여 국내외독자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 ❖ —————— ❖ ———

쿠르트는 관광안내서에서 읽은것을 일자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일자자신이 《이 모든것이 얼마나 끔찍해요.》하고 말하는것이였다.

《하지만 현재의 도이췰란드가 점점 더 깊이 중세기 암흑속에 빠져들어가고있는것이 무엇보다 무서운것이라고 봐요. …》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그만둡시다. … 그만둬야겠소. …》

쿠르트는 일자를 침울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썼다. 그렇게 된것 같기도 했다. 일자는 해빛을 보자 다시 명랑해졌다.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고있었다. 태양은 고르롭고 부드러운 빛으로 지평선 저쪽에 사라진 산발들과 앞에 열려진 계곡과 저 멀리 랑만에 넘쳐있는 헨리흐의 성지를 어루만져주었다. … 대기에는 가벼운 운무가 서려 기이하리만큼 부드럽게 광선을 산포시켜주었다. 그들은 산경사지를 따라 암석이 깔린 오솔길로 더 높이 우로 올라갔다. 억센 전나무들이 오솔길에 바투 접근하여있었는데 그 뿌리들이 뱀처럼 구불구불 탈려서 기묘하게 바위돌에 감기기도 하고 바위틈에서 삐여져나오기도 했다. 때로는 지평선에 펼쳐진 수림의 독특한 푸른 색갈이, 때로는 밝은 해빛을 받아 록색으로 변한 전나무들이, 때로는 세기를 두고 바위돌과 1대 1로 격투를 벌리다가 굳어진듯한 기묘하게 구부러진 전나무뿌리들이 일자와 쿠르트의 눈길을 끌었다.

《어쨌든 난 바위돌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는 그 어떤 자기 생각에 대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뿌리가 되는것이 더 좋지요. 바위돌은 수세기를 두고 한곳에 박혀있으면서 오랜 세월 편안히 그리고 무심하게 살아가지만 뿌리는 그보다 일찌기 죽어도 투쟁을 하고 생을 주지 않나요. …》

《거참 놀라운 일이요!》 쿠르트는 흥분하여 소리쳤다.

《나도 바로 그걸 생각했댔소.》

——— ❖ ——— ❖ ———

지나간 싸움에 참가한 사람들의 심장의 기억 역시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하지 못하며 회상을 안은채 세상을 떠나간다. 얼마나 많은 무명전사묘지들이 싸움터에 남아있는가. 무명전사들의 묘지에서 타오르는 영원한 불길은 전사한 사람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하건만 인민들의 슬픔의 불길, 전사의 영광의 불길은 병사들의 위훈을 세세히 밝혀줄수는 없는것이다.

시인은 무명전사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땅속에 묻힌 그
그저 보통병사였더라
벗들이여 그 병사는 이름도 훈장도 없는
보통병사였더라
허나 그에 대한 추억은
억만년 영원하리니
은하수는 은색먼지마냥
묘지주위에 빛을 뿌리리

이것은 무명전사의 묘비에 새겨진 비문이였다!

다만 력사가나 작가들이 쓴 책들과 목격자들의 회상록들만이 과거사를, 공헌한 사람들을 세세하게 헤쳐보이고 그들의 강인한 기질과 놀랄만한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해줄수 있다. 이것은 력사가와 작가들이 우리 다음세대에 살게 될 사람들, 떠나간 영웅들의 투쟁과 공적을 평화와 자유사상을 위한 자기희생성의 위대한 본보기로 삼아야 할 바로 그 사람들앞에 지닌 의무이다.

장편실화 《2차대전의 나날에》 중에서

# 승　　리

장편소설 《승리》는 이전 쏘련의 작가 알렉싼드르 보리쏘비츠 챠꼽스끼가 1978～1981년에 창작한 정치소설(사회정치적문제들을 직접 다루고 형상한 소설)이다. 소설은 1945년 7～8월에 진행된 포츠담회담과정에 있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진보와 반동사이의 첨예한 대결에서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승리의 필연성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소설에는 쓰딸린, 트루맨, 쳐칠, 몰로또브, 번즈, 애틀리 등 당시의 력사적인물들과 쏘련기자 워로노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소설은 1975년 7월 헬싱키에서 진행된 《유럽의 안전과 협조에 관한 국제회의》에 취재기자로 온 쏘련잡지 《대외정치》의 론설원 미하일 워로노브가 30년전에 있은 포츠담회담의 력사적나날들에 대하여 회상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쏘도전쟁이 끝난지 얼마후인 1945년 7월 중단되였던 대학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던 종군기자인 소좌 워로노브는 쏘베트보도국의 지시로 도이췰란드의 포츠담으로 출장을 떠난다. 그러나 출장의 목적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

베를린에 도착해서야 그는 자기가 련합국 《3거두회담》을 취재하기 위하여 파견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전후 국제문제처리를 위한 이 수뇌자회담은 쏘련측의 주장에 의하여 포츠담에서 열리게 된다. 쏘련이 회담을 포츠담에서 열자고 한것은 단지 그곳의 경치가 좋아서만이 아니였다. 쏘련군점령지역인 포츠담은 많은 피와 생명의 대가로 얻어진 고귀한 승리를 상징하는 곳이였다.

바로 그 포츠담으로 쏘련의 쓰딸린, 미국의 트루맨, 영국의 쳐칠이 모여든다. 이들은 비록 지난날 함께 련합하여 파시즘과 싸웠고 또 한자리에 웃으며 모여앉게 되였으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품고있다.

오랜 귀족가문출신인 영국수상 윈스톤 쳐칠은 수십년동안 국가무대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제1인자로 되려는 욕망을 안고사는 인간이다.

강의한 의지와 용감성, 여러가지 재능을 지니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이고도 모순적인 인물로 된다.

비극은 쳐칠이 인민대중을 극도로 경멸한데 있다. 맑스와 레닌의 사상이 수백만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반동적인 랑만주의에 사로잡혀있다. 쳐칠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동력으로 본적이 없으며 기껏해야 자기들, 영웅－령수들의 초인간적의사에 공손히 복종하는 거대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로밖에는 보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필사적으로 력사의 법칙을 거슬러나간다. 그는 계급투쟁의 객관적법칙과 자본주의를 매장시킬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며 그런것으로 하여 갓 태여난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간섭을 감행하다가 패배한다.

그가 력사의 공정한 흐름에 발을 맞춘적이 한번 있다. 그것은 히틀러도이췰란드에 도전하던 때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력사의 법칙을 인식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넋을 송두리채 바치는 영국옥좌때문이다. 그는 뽈스까를 강점한 히틀러가 바로 영국의 래일을 위협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파쑈도이췰란드를 증오하나 결코 쏘련이 전쟁에서 이기는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들이 서로 《물고 뜯을것》을 원한다. 그때문에 그는 파쑈땅크들이 모스크바문앞까지 기여들었을 때에도 제2전선의 전개를 막기 위해 할수 있는것을 다하며 제2전선형성후에도 실제적으로 서부전선에서 전투행동을 중단함으로써 히틀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동부에서 전투를 계속할 가능성을 준다.

그는 유럽의 볼쉐비크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전후 유럽의 체제를 꾸리는데서 쏘련을 제외시키려고 노력하며 전쟁전의 《방

역선》(쏘련에 대한 포위환)을 되살리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만을 거듭한다.

포츠담회담은 쏘련으로부터 승리의 열매를 빼앗아낼수 있는 마지막기회이다.

쳐칠이 영국귀족층을 대표한다면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부르죠아계급의 대표자이다.

미주리주의 소농장주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선천적으로 체질이 몹시 약하고 심한 근시였으나 자기가 살고있는 세계를 지배하고있는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있다. 그는 고상한 도덕의 탈을 쓴 위선이 돈에 못지 않게 가치있고 든든한 자본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있으며 많은 가면가운데서 인간의 량심이라는 가면을 골라잡은 놈이다.

미국사회의 주인들은 그러한 트루맨을 마음에 들어하며 그리하여 그는 평범한 판매원으로부터 지구판사, 상원의원을 거쳐 부대통령으로까지 된다.

깐깐한 일솜씨를 타고난 그는 재정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청렴한 사람》이라는 평판까지 얻게 된다. 그러나 그가 밝혀내는 부정사건들은 널리 알려지지 않기가 일쑤이며 처벌받는자도 없다.

트루맨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변들에 대하여 한가지 관점 즉 그것이 미국의 대재벌들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히틀러가 이기는것을 보면 로씨야를 도와야 하고 로씨야가 이기는것을 보면 히틀러를 도와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될수록 많이 죽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쏘도전쟁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1945년 4월 12일 대통령이였던 루즈벨트가 병으로 갑자기 죽자 트루맨은 하루아침에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게 된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 저녁 트루맨은 국방장관 스팀손으로부터 국가최대의 비밀인 원자탄연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상상도 할수 없는 막대한 힘의 폭발물…

이 말은 그의 마음을 깡그리 사로잡는다. 그후 트루맨은 《3거두회담》을 준비하면서도 줄곧 원자탄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의 모든 뒤엉킨 매듭을 모조리 잘라버릴수 있는 장수의 검을 쥐여준것처럼 생각한다.

(루즈벨트가 쓰딸린에게 양보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전쟁과 평화의 모든 문제들이 미국의 말 한마디에 결정될것이다!…)

그러나 트루맨은 아직 그 위력한 주패장을 손에 쥐지 못한채 포츠담으로 향한다.

한편 쓰딸린이 탄 특별렬차는 이른아침 모스크바교외에서 조용히 출발한다.

전쟁의 흔적은 쓰딸린이 타고가는 렬차를 집요하게 뒤따른다. 쓰딸린의 눈앞에는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기우고 짓밟힌 조국땅의 모습이 펼쳐진다.

평화시기에 쏘련인민이 창조하였던 거의 모든것이 파괴되고 쓰러지고 침수되였다.

인민생활은 령락되고 정거장마다에서는 수많은 고아들이 먹을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있다. 이 모든것을 목격하는 쓰딸린의 생각은 깊어진다.

포츠담으로 가는 쓰딸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쏘련의 서부국경문제이다.

실지로 혁명의 첫 나날부터 서부국경은 적대적인 나라들과 잇닿아있었다.

발뜨해연안에서는 유제니츠도당이 뻬뜨로그라드로 들이밀 부대들을 편성했고 뽈스까는 오래동안 반쏘음모를 꾸미는 소굴로, 쏘련에 간첩들과 파괴암해분자들을 들이미는 기지로 되여왔다.

(쏘련사람들이 히틀러강도배들의 기반에서 자기 조국을 수호하고 유럽땅을 해방하면서 흘린 피가 과연 헛된것인가? 평화가 다시 왔는데도 쏘련과 국경을 같이한 나라들이 다시금 반쏘적인 정부와 왕, 독재자들의 통치밑에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쏘련인민이 또다시 항구적인 위협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쓰딸린은 자주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본다.

포츠담회담은 7월 17일부터 시작된다.

회담은 첫시작부터 각국의 서로 다른 리해관계로 하여 진통을 겪는다.

7월 20일에 발표될 수상선거결과를 앞두고있는 쳐칠은 어떻게 해서라도 선거결과발표전에 쏘련에 대한 국제적포위환을 형성하도록 회담을 결속지으려고 덤벼친다.

그러나 그는 대영제국이 이미 로쇠하였다는것을 알고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새로 렬강으로 등장한 미국과 야합하는 길로 나선다.

한편 회담에 림하는 트루맨의 립장은 매우 애매하다. 물론 그도 회담이 유럽의 볼쉐비크화를 막고 모든것이 미국에 유리해지도록 진행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원자탄에 대한 말을 들은 그로서는 당장 회담을 파하고 앞으로의 대일전쟁에서 쏘련을 배제하고싶으나 아직 원자탄의 성공여부를 알지 못한것으로 하여 똑똑한 립장을 취할수 없다.

쓰딸린은 회담의 시작부터 미국과 영국이 이미 합의된 얄따협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꾀한다는것을 간파하고 미국과 영국사이의 알륵을 리용하여 주동적으로 회담이 얄따협정리행문제를 다루도록 이끌어간다.

그리하여 따로 진행된 외무상들의 회의에서는 도이췰란드의 재정처리문제와 뽈스까문제, 이전 히틀러도이췰란드추종국가들과의 강화조약체결문제를 회담의 기본의제로 정하게 된다.

대립은 회담의 첫 의제인 이전 도이췰란드추종국가들과의 강화조약체결문제에서부터 표면화된다.

이 문제는 이전 히틀러도이췰란드의 추종국가들이였던 이딸리아, 로므니아, 벌가리아, 마쟈르, 핀란드 등의 나라들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문제 즉 그 나라들에 세워진 정부들을 인정하는 문제이다.

미국과 영국이 점령한 이딸리아에는 이미 부르죠아정권이 수립되고 쏘련에 의하여 해방된 동유럽나라들에는 인민민주주의적인

정권들이 수립되여있다.

동유럽나라들에 세워진 정권들은 미국과 영국의 마음에 들수 없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의제를 토의하면서 우정 이딸리아를 동유럽나라들과 한계렬에 놓으면서 파쑈도이췰란드의 가장 적극적인 동맹자였던 이딸리아의 강화조건을 완화시켜줄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쓰딸린이 그것을 반대할 경우 동유럽나라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그런 가혹성을 보여줄수 있으리라고 타산한것이다.

그런데 쓰딸린은 그들의 주장에 선뜻 동감을 표시함으로써 그들을 당황케 한다.

쓰딸린은 미국과 영국이 이미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는 이딸리아와 쏘련이 외교관계를 맺는 대신에 미영도 쏘련이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동유럽나라들의 정권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습을 들이댄것이다.

서방의 모략가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격이 되고만다.

바빠난 트루맨은 태도를 일변하여 소리지른다.

《나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을 준비가 아직 되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정부들이 자유선거에 기초하여 개조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그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재개할것입니다.》

트루맨의 이 말은 벌써 로골적인 공갈이다.

그러자 쓰딸린은 비타협적인 어조로 말한다.

《그렇다면 이딸리아와 기타 나라들에 관한 문제토의는 연기할수밖에 없습니다.》

쓰딸린의 목소리는 높지 않으나 그것이 트루맨과 쳐칠에게는 쾅하고 닫아버린 대문소리처럼 들린다.

회담의 두번째 안건인 뽈스까의 서부국경확대문제에서 대립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미 있은 얄따회담에서는 뽈스까의 동부국경은 제1차 세계대전후에 설정된 이른바 《케르존선》을 따라 통과하되 일부 지역에서

는 뽈스까에 리롭게 5~8㎞ 양도하며 뽈스까는 서부 및 북부국경에서 《령토의 본질적인 증대》를 받기로 결정되였었다. 이 《증대》의 실제적인 규모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선거되는 새 뽈스까정부와 협상하기로 되여있었다.

처칠은 뽈스까의 령토확장에 대하여서는 타협하지만 크게 확대되는것은 극력 반대해나선다. 그는 영국에 완전히 예속되여있으면서도 여전히 쏘련에 항시적인 위협을 줄수 있는 그러한 도이췰란드를 꿈꾸고있다. 그는 도이췰란드에서 많은 령토를 뽈스까에 떼주게 되면 그 힘이 필요이상으로 약화될것이라고 타산한것이다.

그는 또한 뽈스까사람들이 쏘련을 자기들의 령토를 확대시켜주고 보호해주는 렬강으로 보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뽈스까가 여전히 반쏘적인 국가로, 《방역선》의 한 구성부분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고있다.

그리하여 그는 트루맨과 함께 쓰딸린이 꾸준히 세우려는 전후 평화건물의 기초를 파헤치고 무너뜨리려고 애쓴다.

처칠과 트루맨은 뽈스까의 새 국경을 서부나이쎄강이 흘러드는 곳까지로 정하는것을 극력 반대하고 오데르강의 동부로 정할것을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쉐틴과 브레슬라우(뽈스까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도시들을 자기들의것으로 여기면서 《슈체찐》, 《볼레쓰와 베쯔》라고 불렀다.)는 도이췰란드령토안에 그냥 남아있게 되며 도이췰란드의 공업력, 군사력은 그만큼 강화될수 있었던것이다.

바로 이 점을 꿰뚫어보고있는 쓰딸린도 서부나이쎄강을 국경으로 정하는데는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쏘련의 이웃에 우호적인 강력한 뽈스까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 도이췰란드를 강화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것이다.

처칠과 트루맨은 우정 영국에 있는 뽈스까망명정부의 귀국문제, 뽈스까에서의 선거문제, 앞으로 뽈스까에 넘어갈 땅에서 살고있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의 처리문제 등 부차적이고 얼토당토않은 문제들을 렬거하면서 뽈스까 서부국경확정사업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

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최악의 경우 회담에서 뽈스까국경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형식적으로는 앞으로 소집될 강화회의까지 밀어버리려고 획책한다.

쏘련을 반대하는 미국과 영국의 적대적행동은 회담장밖에서도 우심하게 감행된다.

쏘도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련합국인 쏘련도 모르게 파시스트장군들과 독점재벌들과 결탁해오던 미영은 전후에도 그자들을 사촉하여 도이췰란드를 분렬시키고 자기들의 비위에 맞는 정권을 세우려고 책동한다.

쳐칠은 질서유지의 명목하에 수백만명의 도이췰란드군대를 해산시키지 않고 그 조직체계를 그대로 보존하며 그들을 훈련시켜 앞으로 있게 될 쏘련과의 전쟁에 써먹으려고 한다.

베를린시내에서는 쏘련군대와 도이췰란드주민들사이에 리간을 조성하려는 사건들이 련이어 벌어진다.

이에 발맞추어 서방의 출판물들은 쏘련군대와 행정기관들이 도이췰란드의 평화적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외곡하고 쏘련이 도이췰란드를 분렬시키려 한다는 날조된 기사들로 쏘련의 국제적영상을 훼손시키려 한다.

제국주의사환군인 영국기자 슈트어트는 쏘련에 대해 앙심을 품고있는 도이췰란드처녀를 뽈스까처녀로, 와르샤와폭동의 피눈물나는 피해자로 둔갑시켜 기자회견에 내세우는 추태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의 비렬한 행위들에 격분한 워로노브는 앞뒤를 가릴새없이 미영의 적대행위들을 면전에서 까밝혀놓는다.

쏘련측은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회담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7월 21일 트루맨은 그처럼 고대하던 원자탄시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는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

1945년 7월 16일 5시 30분 알라모호드의 항공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원자탄의 첫 폭발이 실현되였다. 력사상 첫 폭발이다.

…

셋째, 폭발시험의 성과는 모든 상상을 초월하였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폭발시에 방출된 에네르기는 티엔티 1만 5 000～2만t으로 평가할수 있다. …》

보고를 듣는 트루맨의 모습은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것 같다. 그의 눈앞에는 눈부신 섬광과 하늘로 타래쳐오르는 버섯구름, 뿌리채 뽑아던져지는 건물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얼마 지나서 트루맨은 거만하게 몸을 일으키며 말한다.

《이제는 다른 시대가 도래하였소. 미국의 시대란 말이요!》

트루맨은 자기의 군사고문들에게 일본과의 전쟁에서 원자탄의 사용과 쏘련군대의 대일전쟁참가배제가능성의 탐구에 대하여 명령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가들은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여 단기간

○상 식○

## 제2전선

제2차 세계대전시기 미국과 영국이 유럽지역에 형성한 전선이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쏘련과의 국제협약에 의하여 1942년에 유럽에 제2전선을 형성하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쏘련의 약화를 바라던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그

에 《일 대 일》로 일본을 격멸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할수 없다.》고 명백히 대답하며 쏘련과의 군사적협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만일 원자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본섬에 상륙하자면 수십만의 희생을 각오해야 하며 그래도 1946년전에는 전쟁을 끝낼수 없다고 한다.

정책보좌관들은 쏘련을 군사적대결이 아니라 경제적방법으로 예속시킬것을 주장한다.

뽈스까의 국경문제는 의연히 회담의 주요문제로 되고있다. 쓰딸린은 쳐칠과 트루맨의 성격적약점을 리용하여 이 문제를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간다.

뽈스까의 국경확정문제에서 미국과 영국이 쏘련측의 주장을 완강하게 반대해나서자 쓰딸린은 이 문제를 뒤로 미루자고 선언한다.

바빠난것은 쳐칠이다. 그는 뽈스까국경문제를 회담에서 배제하면 앞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고있는 쏘련이 자기 마음대로 국경을 확정할것이라고 타산한다. 더우기 며칠후 선거결과때문에 귀

의무리행을 고의적으로 태공해오다가 쏘련군대에 의한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등 파쑈국가들의 패배가 명백해진 1944년 6월에야 비로소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제2전선을 폈다. 그후에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제2전선에서의 군사적공세를 적극화하지 않음으로써 히틀러가 자기의 기본무력을 줄곧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돌릴수 있도록 하였다.

전후 유럽에서의 저들의 정치경제적영향력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제2전선은 실지에 있어서 반파쑈전쟁행정에 그 어떤 본질적인 영향도 주지 못하였다.

국해야 하는 그로서는 회담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가는것이 두려웠던것이다.

그리하여 쳐칠은 뽈스까국경문제를 회담에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쓰딸린은 쳐칠의 조급성을 리용하여 회담에 뽈스까의 민족통일정부를 초청하도록 하는데 성공한다.

그리하여 뽈스까정부대표단이 베를린으로 날아온다. 대표단은 오랜 혁명가이며 항쟁투사인 수상 베루트를 단장으로 하여 구성되여 있다.

대표단에는 영국망명정부출신이며 농민당인 《스뜨로니쯔뜨보 류도베》당수인 부수상 미꼴라이치크도 들어있다.

대표단은 3개국 외무상회의에서 뽈스까정부의 의견을 제출한다.

미국무장관 번즈와 영국외무상 이든은 그들의 의견에 아무런 의의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쏘련외무인민위원 몰로또브와 베루트의 사리정연한 론리와 완강한 주장앞에서 궁지에 빠진다.

번즈와 이든은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다는격으로 저들의 주구인 미꼴라이치크가 반대의견을 제기할것을 바라지만

○상 식○

## 랭 전

랭전이란 불과 불이 오가는 《열전》에 대비하여 쓰는 말로서 직접 무력을 쓰지는 않으나 적대적대립이 극도에 이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시말하여 《간접적인 경제군사적압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미꼴라이치크도 뽈스까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바람에 그만 아연실색한다. 앞으로 뽈스까에서의 선거를 치르어야 하는 미꼴라이치크는 자기만이 뽈스까인민의 리익을 배반했다는 인민들의 여론이 두려워 할수없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뽈스까정부의 요구는 만장일치로 본회담에 제기된다.

쳐칠과 트루맨은 뽈스까의 주장을 변경시켜보려고 위협도 해보고 얼려도 본다. 그러나 결과는 없다.

트루맨은 자기의 마지막주패장인 원자탄으로 쏘련에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하나 쓰딸린은 그에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다.

당시 쏘련은 미국의 원자탄제작에 대해 알고있었으며 자체의 원자탄개발을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치고있었던것이다.

쳐칠의 귀국으로 하여 회담은 일시 중단된다.

여러날에 걸친 회담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는 트루맨은 당장이라도 회담을 걷어치우고 돌아가고싶은 마음이다.

미국내에서는 전쟁으로 팽창된 경제가 상품판로가 없어 아우성을 치고 사람들은 대통령이 하는일없이 유럽땅에서 어물거린다고 비난한다.

더우기 뽈스까문제로 광활한 쏘련의 시장과 미국내 뽈스까인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투쟁이 치렬해지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쟁직전의 상태를 조성하였다.

이전 쏘련의 해체와 함께 미국과 쏘련사이에 존재하던 랭전은 종식되였으나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는 새로운 《랭전》들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들의 지지를 잃을것을 두려워한 트루맨은 미국의 기본리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 영국동료의 리익은 안중에 없이 쏘련과 타협하는 길로 나가기로 한다.

한편 그는 세계 특히 쏘련에 자기들의 위력을 보여줄 심산으로 8월초에 일본에 두개의 원자탄을 투하할것을 군부에 명령한다.

7월 28일 새로 구성된 영국대표단이 포츠담으로 온다.

단장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새로 수상으로 된 레이버당 당수인 애틀리이고 외무상은 로동조합지도자이며 의회의원인 베윈이다.

음모적인 방법으로 영국로동운동의 지배적지위를 차지한 그들은 진정한 로동계급의 지도자들이 아니며 항상 사회주의쏘련을 적대시하여온자들이다.

그들은 포츠담에 오자마자 로골적으로 쏘련의 주장을 전면부정해나선다.

쓰딸린은 신축성있는 외교전술로 트루맨을 끌어당겨 끝내 이전 파쑈도이췰란드추종국가들과의 강화조약문제를 성사시킨다.

○상 식○

## 얄따회담과 얄따협정

일명 《크림회담》이라고도 하는 얄따회담은 1945년 2월 4일부터 12일까지 이전 쏘련의 크림반도에 있는 얄따에서 진행된 쏘, 미, 영 3개국 수뇌자들의 비밀회담을 말한다. 회담에는 쓰딸린, 쳐칠, 루즈벨트가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여 유럽에서의 사회주의진영출현의 기초가 마련된다.

회담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는 여전히 뽈스까국경문제이다.

트루맨은 뽈스까대표단을 매수하려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마지막수단으로 쓰딸린에게 최후통첩을 들이댄다.

7월 29일 트루맨은 《소백악관》을 찾아온 몰로또브에게 선언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쓰딸린씨가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절하든가 하는것뿐이요. …》

이것은 쏘련이 미국의 제안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 회담은 파탄되리라는 로골적인 위협이다.

이때 쓰딸린은 병으로 앓고있다.

깊은 밤 쓰딸린의 집무실에서는 오래도록 심각한 토론이 벌어진다.

미국이 정말로 회담을 파탄시키려고 하는가.

실지로 서방기자들은 로씨야사람들의 잘못으로 회담이 파탄되고 쓰딸린이 본국으로 돌아갈 차비를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

얄따협정은 이 회담에서 채택된 협정을 말한다. 회담에서는 히틀러도이췰란드를 최종적으로 격멸할데 대한 계획들이 토의되였고 전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도이췰란드를 관리하며 전후 유럽과 세계의 평화를 확립할데 대한 기본원칙들이 규정되였으며 국제련합기구(유엔)창설문제, 이전 유고슬라비아문제, 뽈스까문제, 도이췰란드멸망후 2～3개월내에 쏘련의 대일전쟁참전문제등이 토의결정되였다.

전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얄따협정의 원칙들과 기타 많은 조항들을 공공연하게 위반하였다.

한다.
쏘련지도부는 뽈스까대표단을 부른다.
쓰딸린은 베루트에게 조성된 정황을 이야기해준다.
《동무들, 나는 동무들을 진정한 벗으로 여기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회담이 파탄되는 경우 평화로운 새 유럽을 건설하려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말것입니다. …
나는 동무들과 뽈스까 서부국경문제를 될수 있는대로 양보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보자는것입니다.》
오데르-서부나이쎄국경을 견지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해온 쓰딸린의 어조는 매우 침통하다.
베루트는 자기의 대표단성원들과 협의하기 위해 돌아간다.
다시 돌아온 베루트는 쓰딸린에게 흥분하여 대답을 준다.
《우리 대표단의 전체 성원들과 협의해보았습니다. 쓰딸린동지, 우리는 오데르-서부나이쎄국경을 여전히 주장합니다!》
방안에는 침묵이 깃든다.
얼마후 쓰딸린은 매 마디마디 그루를 박아 말한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뽈스까의 새 국경을 고수하겠습니다. 오데르-서부나이쎄국경을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말입니다.》
회담은 그 다음날인 7월 30일에도 열리지 못한다.
쏘련측 서기국은 쓰딸린이 몸이 불편하여 회담에 참가할수 없다고 통지한다.
쓰딸린에게 최후통첩을 들이대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던 트루맨과 번즈는 다급해난다. 이제 며칠후이면 일본에서 첫 원자탄이 폭발할것이고 그때에는 그들이 군함을 타고 대양을 항행해야 하였던것이다.
쏘련측에서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안 미국은 영국과의 토의도 없이 쏘련에 자기들이 쏘련의 제의를 접수한다고 통보한다.
그리하여 회담에서 기본걸림돌이였던 뽈스까의 서북국경문제는 쏘련의 주장대로 해결된다. 도이췰란드의 배상금문제, 함대

분할문제, 전범자처벌문제 등에서 쓰딸린은 신축성을 보여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합의보게 된다.

8월 2일 밤 1시에 력사적인 포츠담회담은 드디여 막을 내린다.

워로노브의 회상은 여기에서 끝난다. 포츠담회담이 있은지 수십년세월이 흐른 때이다.

그사이 동유럽에는 사회주의국가들이 탄생한다.

미국은 자기들이 이룩한 합의를 어기고 끝끝내 도이췰란드를 분렬시키며 서부지역에 자본주의를 부활시킨다.

미국은 새로운 《랭전》을 선포하고 자기의 추종세력들을 추동하여 쏘련과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 및 경제적대결소동을 벌린다.

쏘련을 비롯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랭전》을 종식시키고 긴장완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1975년 7월 《유럽의 안전과 협조에 관한 국제회의》가 마련되며 회의에서는 군비축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경제적 및 상업적련계의 강화, 인권옹호에 대한 최종문건이 채택되게 된다.

이것은 새 전쟁도발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한 세계평화애호력량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였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소설은 끝난다.

장편소설 《승리》는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로써 제국주의자들의 변할수 없는 침략적 및 략탈적본성을 낱낱이 까밝히고있다.

작품에서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우두머리들인 트루맨과 쳐칠의 형상을 통하여 지구상에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한 첫날부터 그를 압살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온 제국주의자들의 죄행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계반동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의 침략자, 평화의 파괴자로서의 정체를 폭로하고있다. 전쟁

시기에는 음으로양으로 쏘련에 대한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파시즘의 멸망후에는 저들의 핵독점과 딸라주머니를 흔들며 전세계에 자본주의체제를 확립하려고 미쳐날뛰였으며 헬싱키회담의 마당에서까지 군사장비들을 팔아먹어 세계평화를 유린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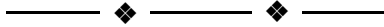
작품에서는 이러한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정치군사적대결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허장성세와 온갖 위협, 권모술수가 쓰딸린과 베루트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강한 혁명적원칙성앞에서 어떻게 파산을 면치 못하는가 하는 장면들을 통하여 잘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혁명적원칙과 함께 령활한 전략전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강조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비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야망의 공통성으로 하여 련합하고있지만 자기들의 리기적목적을 위해서는 서로 물고뜯는 승냥이무리들이다.

쓰딸린은 제국주의자들의 이 약점을 리용하여 신축성있는 외교전술과 배짱으로 적들사이의 알륵을 조성하고 치렬한 대결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다.

장편소설 《승리》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 세계 진보적력량과의 치렬한 정치군사적대결력사를 실감있게 묘사한 정치소설로서 오늘날에도 많은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고있다.

——— ❖ ——— ❖ ———

…그때로부터 30년이상이 지나간 오늘 내가 과연 현대의 사변을 두고 헬싱키에 와서 그 당시 나를 사로잡았던 사색들을 정확히 재현해낼수 있겠는지? 그때 나는 젊은이였고 나의 귀전에는 4년간 계속 울리던 전쟁의 메아리가 채 잦아들지 않고있었다. 나는 그때 우연히도 정치적활화산가까이에 가있었건만 그 분화구속은 들여다볼수 없었다. 그때 정말 수백만 사람들이 어제날의 화선병사였으며 스물일곱살밖에 안된 기자였던 나처럼 우리의 위대한 승리에 도취되여있었던가? 그들은 정말 전세계가 자기의 구원자를 알고있다고 확신하고있었던가?

지금 나는 랭전시대를 겪어오면서 얼음덩이들이 어떻게 얼어붙고 그것들을 녹이는데 얼마나 거대한 노력이 깃들었는가를 직접 제 눈으로 본 중년의 사람으로서 헤겔이 말한것과 같이 저물녘에 날아가버린 미르네바부엉이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에 대한 슬픔 비슷한 애수와 그리움을 안고 해빛이 비치는 바벨스베르그의 거리에 서있던 젊은이를 돌이켜보았다. 그 젊은이는 인류가 쟁취한 평화로운 생활의 행복한 분위기속에서 그처럼 야만적인것으로 생각되는 현상들이 발로되는것을 보면서 의문에 잠긴채 서있었다.

장편소설 《승리》 중에서

# 난 로

단편소설 《난로》는 이전 쏘련의 작가 와쯜라브 미할스끼가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쏘도전쟁시기 전선에 나가 영웅적으로 희생된 남편을 언제나 잊지 않는 한 녀인과 그 어떤 말을 해도 아버지의 희생을 믿지 않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나어린 한 소년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조국을 위해 한몸바친 영웅들의 삶은 그가 남긴 귀중한 유산과 함께 조국의 추억속에 영생한다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나어린 소년 안드류샤와 어머니 따냐 그리고 아버지 안드레이가 나온다.

해빛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비쳐주지만 우리 집 난로는 어머니와 나만을 따뜻하게 하여주며 해는 어디서 생겨난것인지 모르지만 난로는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와 리별을 하던 그 전날밤에 가져온것이라는 어린 소년 안드류샤의 말로 시작되는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쟁전 큰 비행기공장에 소속되여있는 공장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된 따냐는 공장의 우수한 선반공이며 야간대학 4학년생인 안드레이와 사귀게 된다.

안드레이는 미남자일뿐아니라 대학에서 다른 동무들보다 공부를 잘하며 전련맹적인 생산혁신자들의 경쟁에서 1등을 하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혁신자대회에도 참가한다.

그들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며 인차 가정을 이룬다. 따냐도 그러하지만 안드레이의 사랑은 더 뜨겁다. 그는 생산에서 언제나 혁신을 일으키면서도 안해에게 다심하고 따뜻한 정을 쏟아붓는다.

결혼한지 1년도 채 못되여 따냐는 아들을 낳는다. 안드레이는 안해와 갓 태여난 아들을 위해 바쁜 속에서도 요람을 만들고 석유곤로로나마 방을 따뜻이 덥혀놓으며 갖가지 식료품도 한아름 무둑히 사온다.

무한한 행복에 젖어있던 따냐는 안드레이가 다음날 전선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안드레이… 그게 무슨 말이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아, 맙시사!》

그는 이제 안드레이가 그것을 꾸며낸 말이라고, 벌써 다섯달동안 날마다 들어온 그 전쟁의 불행이 오늘의 이 행복한 생활에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인정시켜주기를 안타까이 바란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그러지 않는다.

하는수없이 따냐는 굳건한 평화와 래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뿐 모든것이 다 있는, 그들의 살림으로는 지내 호화롭게 차린 상에 마주앉는다.

《당신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안드레이.》

《전쟁이 끝나구 내가 돌아오게 되오.》

《그러나 끝나지 않으면…》

《끝난다구 내 말하지 않소.》

다음날 이른새벽, 날이 밝기 전에 안드레이는 따냐와 아들을 위해 부탁해놓은 난로를 가지러 간다.

한참후에 주철로 만든 《부르쥬이까》(난로이름)와 함석연통을 혼자서 둘러메고 온 안드레이는 땀을 들일새없이 난로를 설치하고 불을 지핀다.

방이 훈훈해지자 안드레이는 얼굴의 땀을 닦으며 말한다.

《자, 이젠 마음이 놓이누만. 당신과 이와누쉬까(안드레이는 아들이름을 이완이라고 지은것이다.)가 얼지 않게 됐소. 뜨뜻한데서 날 기다리고있소.》

오후 3시에 안드레이는 떠나게 된다.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따냐는 안드레이에게 아들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자

고 말한다. 이완이란 이름은 전쟁이 끝난 다음 두번째 아이에게 달아주자고 한다.

안드레이는 웃으며 동의한다.

헤여지기 전에 안드레이는 어린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나서 손가락을 들어 위협하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여길 봐라.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해!》

이것이 아버지 안드레이가 어린 아들 안드류샤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였다. 안드류샤가 유년시절, 소년시절에 꼭 지키라고 해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란 안드류샤는 아버지를 언제나 그리워하며 그 언제든지 아버지가 꼭 돌아오리라고 믿는다.

둘째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완이라고 짓자고 아버지와 약속했다는 어머니의 말을 우연히 엿들은 유년시절의 안드류샤는 그때로부터 아버지의 난로앞에 앉으면 동생에 대한 생각을 하군 한다.

이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꼬마병사들을 가지고 놀면서 가끔 적들한테 일시적으로 조금씩 지기도 하였었는데 그때부터는 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숲속너머에 언제나 와네치까의 련대들이 매복하고있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기가 부르면 즉시 그가 전투마당으로 부대를 보내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안드류샤형제는 매번 도이췰란드놈들을 이기군 한다.

1학년에서 글자를 겨우 배우자마자 안드류샤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안녕히 계십시오. 1948년.》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어제 선생님은 우리에게 문자 〈ㅃ〉로 시작되는 단어를 생각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뻬뚜흐(수닭)와 빠로보즈

(기관차)를 생각해냈어요. 나는 제일먼저 소리쳤어요. 〈빠빠〉(아버지) 그리고 〈뻬치까〉(난로) 하고 소리쳤어요. 선생님은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릐쥐는 나더러 네게 무슨 아버지가 있는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는가고 말하겠지요. 나는 그자식을 혼내주었어요. …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어쨌든 아버지가 꼭 전쟁에서 돌아와 우리를 사랑해줄것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아들 안드레이 올림 1948년.》

어느 여름날 아침에 안드류샤는 고미다락에 올라가 여러가지 페물속에서 낡은 세계지도첩을 발견한다. 그때부터 그는 지리학을 몹시 사랑하며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주소에 외국에 있는 도시들을 쓰기 시작한다.

《로마

아. 이. 또볼낀에게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어제 나는 위찌까와 함께 정찰병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우리들은 큰 망나니패와 만났어요. 그자식들은 우리에게 제자리뛰기를 시켰어요. 위찌까는 뛰여올랐지만 나는 시키는대로 하지 않았어요. …

아들 안드레이 올림 1949년.》

《리오데쟈네이로

아. 이. 또볼낀에게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로빈손 크루소우〉를 읽었습니다. 로빈손대신에 지금 만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섬에 있다면!… 나의 아버지, 참말 아버지는 오지 못하나요? 가끔 자면서 아버지를 보아요. 그렇지만 꿈을 깨고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아버지가 무척 보고싶습니다.

아들 안드레이 올림 1951년.》

《빠리
아. 이. 또볼낀에게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지금 나는 계단을 따라 고미다락으로, 나의 본부로 올라가 노을을 보고있어요. 나의 앞쪽 하늘은 온통 붉게 타오르고있어요.
나는 그냥 계단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생각하였어요. 아버지는 서쪽에서, 전혀 다른쪽에서부터 이 노을을 보고계시겠지. 나는 아버지와 이 노을을 울타리처럼 사이에 두고있구나. 그리고 나는 노을이 너무도 아름다와 눈물이 나왔어요. 나는 그것을 말로 한번 묘사해보고싶었어요. 아버지에게 보여드리자구 한건 아니구(아버지는 그것을 다른쪽에서 보셨을테니까요.) 그저 그 모습을 남겨두고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을 생각해냈어요. 〈노을이 불탄다!〉
내가 좋은 표현을 생각해냈는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리라는걸 나는 곧 알았어요. 만일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들 부르는 그런 노래를 지어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안드레이 올림 1953년.》

안드류샤는 이 편지들을 양철통에 넣어 전쟁직전에 아버지가 심은 어린 호두나무밑 비밀장소에 감추어둔다.
7학년때의 어느날 수업시간에 안드류샤는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 교실문을 열고 자기를 부르는 착각까지 일으킨다.
그날 어머니는 안드류샤에게 솔직히 말해준다.
《아버진 벨라야 쩨르끄비부근에서 전사하셨다. 기관총탄에 맞아 그렇게 되는걸 라브리넨꼬가 보았다.… 난 네게 그 얘기를 하고싶지 않았다. 네가 언제나 그렇게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러나 안드류샤는 그 라브리넨꼬라는 사람이 뜻밖에 잘못 알고있는것이라면? 하고 생각하며 또 여러날동안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주시하고 문기척소리가 나면 흠칫 몸을 떤군한다.

아버지가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것을 깨달았을 때 안드류샤는 편지쓰기를 그만둔다. 호두나무밑 비밀장소에 둔 그것들은 양철통속에 굳게 봉해진채로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아버지가 심은 호두나무의 뿌리들은 그 편지통을 든든히 그리고 부드러이 껴안을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그 어느때에도 그것을 내놓지 않을것이라고 안드류샤는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머니에 대하여서도 생각한다.

…세월이 지나 아들인 나는 어느날 《위대한 조국전쟁사》 한권을 펼쳐놓고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읽어줄것이다.

《〈…전선의 매 메터당 길이에는 분당 다섯발의 총탄이 떨어졌다.〉》

어머니는 나를 낯이 선 사람처럼 유심히 보고나서 이렇게 말할것이다.

《아유, 네가 벌써 아버지보다 여섯살이나 더 먹었구나.》

…

안드류샤가 생각에서 깨여나보니 어머니는 난로를 피우고 있다.

난로, 아버지의 난로는 생활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을 구원해주고있었던것이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난다.

단편소설 《난로》는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해와 아들의 그리움의 세계를 통하여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참된 인간들의 영생문제를 제기하고 생활적으로 비교적 잘 해명하고 있다.

소설은 얼핏 생각하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의 애절한 심리를 그리고있는듯 하나 파고들면 거기에 깊은 뜻이 심어져있음을 알수 있다.

어린 안드류샤가 언제나 그리워하는 아버지—안드레이의 형상은 어떤 사람이 조국과 인민의 추억에 남으며 어떤 사람이 남지 않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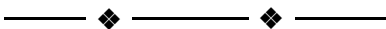
전쟁전에 이름난 로력혁신자이면서도 언제나 자기를 내세울줄 모르는 안드레이, 그는 공장야간대학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며 짬만 있으면 다른 동무들의 학습도 열심히 도와준다. 사회사업에만 몰두하는것이 아니라 안드레이는 안해와 갓 태여난 아들도 극진히 사랑한다.

언제나 다정하면서도 원칙적인 말로 나약하고 아직은 신념이 부족한 안해를 타이르며 전선으로 떠날 때 우는 애기를 안고 정신없이 소리쳐부르며 따라오는 안해의 목소리를 듣고도 조국을 위한 길에서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는다.

난로, 바로 거기에는 가정에 대한, 안해와 아들에 대한 안드레이의 진실한 사랑이 집약되여있으며 그 사랑은 나아가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잇닿아있다. 가정에 영원히 남아 따뜻한 온기를 부어주는 난로, 그 난로를 보면서 따냐와 어린 안드류샤가 언제나 아버지를 생각했듯이 조국도 자기가 태를 묻고 자란 땅에 땀을 바치고 심장을 바친 인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는 안드류샤의 심리를 너무 애상적인데로 치우쳐 그린것, 따냐가 다른 남자에게 재가하였다가 어린 아들의 지꿎은 성미때문에 다시 갈라지게 한것 등 일련의 결함들도 있다.

그러나 소설은 의의있는 문제설정과 오랜 기간의 생활을 특색있는 구성수법으로 함축하여 보여준것 특히 안드류샤의 일기를 련속 보여줌으로써 생활을 집약화한것과 같은 일정한 형상수준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 ❖ ———— ❖ ———

그들은 많았고 노래를 훌륭히 불렀다.

그러나 모두 나에게 아버지가 될수는 없었다. 손우의 형들, 그렇다. 다만 형벌이 될것이다. 그리고 억센 어깨에 푸른 군복저고리는 아직 색이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전쟁에서가 아니라 자기네 평화로운 병영에서 이웃거리에 있는 목욕탕으로 가는것이였다.

나는 붉은 기발을 든 병사가 길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다. 그다음 나는 별안간 발이 가벼워짐을 느끼며 뛰여갔다. 나는 길을 가리지 않고 마구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자기 열쇠로 우리 집 문의 자물쇠를 열었다. 숨을 죽이고 두 방을 다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남겨둔 그의 긴 갈색외투가 아직 여전히 걸려있는 옷장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의 사진앞으로 다가갔다. 흑갈색벗나무액틀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머리색이 검고 눈이 크고 엄격해보이는 턱에 보조개가 난 아버지는 나를 보자 웃는것 같았다.

아니다. 그것은 해빛이 그 얼굴에 비쳤기때문이였다. 마지막 어리석은 희망으로 나는 오래전에 불을 피우지 않은 난로의 문을 열었다.

마치도 거기에 아버지가 자리잡고있기라도 한것처럼! 싸늘한 재와 그 어떤 알수 없는 허망한것의 냄새가 나의 얼굴에 부딪쳤다.

나는 언제나 죽은 아버지를 생각할수 없었다. 부상당한것으로 상상하면서 항상 어째선지 땅에 얼어붙은 그가 피물고인 웅뎅이에 누워있고 그를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것은 장작이 욱—욱— 소리를 내며 타고있고 철판에 푸른 차관을 올려놓은 우리 난로인것으로 생각되여왔었다.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을 하고있었다.

단편소설 《난로》중에서

# 아버지의 모습

단편소설 《아버지의 모습》은 이전 쏘련의 작가 친기즈 아이뜨마또브가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중앙아시아의 어느 한 마을에서 있은 자그마한 이야기를 통하여 쏘도전쟁시기 영웅들의 넋을 작은 가슴에 소중히 새겨안고 어른으로 성장하고있는 새 세대들의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5살난 어린 소년 아왈 베크와 그의 어머니 지젠 굴리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나온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왈 베크가 아버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것은 좀 류다르게 영화화면에서이다. 지금도 그는 자기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새겨준 뜻깊은 그 영화의 줄거리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것은 아왈 베크가 겨우 5살나던 해, 해마다 양털깎기를 하는 흰벽체의 큰 로천양우리에서 있은 일이다.

어린 아왈은 쏩호즈체신분소에서 교환수로 일하는 어머니 지젠 굴리가 휴가를 받게 되면 늘 이곳 로천양우리에서 지내군 한다.

전선에서 남편을 잃고 오직 제힘으로만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나가야 하였던 그의 어머니 지젠 굴리에게 있어서 일전 한푼은 말그대로 금싸래기와 같다. 그리하여 아왈의 어머니는 양털깎기가 시작되면 인차 휴가를 받고 겨울나이석탄과 먹을것, 입을것, 신을것들을 장만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한동안 여기서 일하군 하였던것이다.

그날도 어린 아왈은 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와서 해종일 장난

치다가 방금 도착한 이동영사대가 가지고온 새 영화를 보게 되는 행운을 지니게 된다.

그는 영화기술원아저씨가 가르쳐준대로 집집의 창문을 두드리며 새 영화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영화가 왔어요. 양우리에서 새로 나온 영화를 돌리겠대요.》

마을사람들은 여느때보다 일찌기 저녁식사를 끝마치고 어둠이 깃들자 삼삼오오 떼를 지어 로천양우리로 모여든다. 잠간사이에 드넓은 로천양우리는 어른들과 아이들로 꽉 들어찬다. 아왈은 어머니와 나란히 맨 뒤줄에 자리잡고 앉는다.

아왈은 제또래들이 몰켜앉아 재잘거리는 앞자리에 가고싶어하나 어머니가 못가게 한다.

《가만 앉아있지 못할가? 너는 한나절이나 뛰여다니고서도 아직 성차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 시간만은 나와 함께 있자.》

영화가 시작된다.

적땅크가 붉은군대들이 엎드려있는 곳으로 달려들자 아왈의 어머니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짓는가 하면 어떤 장면에서는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기까지 한다.

하지만 아왈은 영화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도이칠란드놈들이 쓰러질 때면 통쾌하여 발을 구르고 《쏘련》이 쓰러지면 어째서인지 그들이 다시 살아날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을 조이군 한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던 붉은군대 포병들이 새로 나타난다. 그들은 모두 7명인데 그가운데 한사람만은 로씨야사람이 아닌 중앙아시아사람이다.

그 포병을 본 순간 마을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고장 사람이다!》라고 탄성을 터친다. 아왈은 어른들의 웅성거리는 말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끌려 그 포병의 남달리 새까만 머리카락과 눈동자이며 곱게 구부러진 코등이며 입술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한편 지젠 굴리는 어쩐지 그 포병이 전사한 남편의 모습과 방불하여 아들한테 저도모르게 불쑥 이런 말을 속삭여버린다.

《얘야! 좀 똑똑히 봐두어라. 저이가 너의 아버지이시다.》
사실 아왈의 아버지 똑또순 베크는 영화의 그 포병처럼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둥근 얼굴과 검은 눈동자를 가진 새파란 젊은이였고 역시 포병이였다.
어머니의 유별난 속삭임을 들은 아왈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모른다. 더구나 영화는 그 포병, 아니 그토록 보고싶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 저기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가 도이췰란드놈의 땅크를 막 쏴갈기려 해요.》
지젠 굴리는 놀라와하며 묻는다.
《뭐라구? 너 지금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있니?》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저이가 너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이예요.》
아왈의 이 말은 마치나 흰눈우에 찍혀진 발자욱처럼 또릿또릿하게 울린다.
그제서야 지젠 굴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 어지간히 당황해하다가 드디여 머리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럼, 너의 아버지이시구말구! 그런데 우리 남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영화를 좀 조용히 보자꾸나.》
아왈은 어머니한테서 바라던 대답을 듣자 의기양양하여 어두운 장내를 한바퀴 빙 둘러본다.
화면에 나타나는 《아버지》를 보는 아왈의 까만 눈동자엔 시종 자랑과 긍지가 어려있다.
(아버진 저 도이췰란드놈의 땅크를 납작하게 만드실게야. 지금 아버진 내가 자기를 보고있다는것을 아실가?!)
영화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적아간의 전투가 더욱 치렬해지고 량편이 다 큰 희생을 치른다.
이렇게 되자 아왈은 아버지가 죽을것만 같아 안절부절하면서 어머니의 무르팍을 련속 쥐여뜯는다.
(아버지, 빨리빨리! 도이췰란드놈의 땅크가 거의 다가왔어요. 왜 꾸물거리나요?)

붉은군대 포병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인제는 아왈의 《아버지》와 한명의 포병만 남는다. 그들은 련이어 두발의 포탄을 날리지만 그 저주받을 도이췰란드놈의 땅크를 끝내 맞히지 못한다.

그놈이 쏜 포탄이 또 날아와 터진다. 고지는 온통 불길과 포연으로 뒤덮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가?) 아왈은 제정신이 아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일어나 벽력같이 소리친다.

《이놈들아! 복수의 수류탄을 받아라! 이곳으로는 단 한놈도 통과하지 못한다!》

아왈은 아버지가 죽을것만 같아 더는 참지 못하고 새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선다.

순간 《아버지》도 도이췰란드놈의 땅크도 무서운 폭음과 함께 세찬 불길에 휩싸이고만다.

영화가 끝나자 아왈은 소리친다.

《애들아! 파쑈놈의 땅크를 까부신건 우리 아버지야! 그놈들이 우리 아버질 죽였어. 그래서 아버진 여기 안계신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하여 아무 대답도 못한다.

그러자 아왈은 어머니가 미처 붙잡을사이도 없이 영사막쪽으로 달려나간다.

《다 보았지요? 우리 아버지를 말이예요.》

하지만 어른들도 별난 표정을 하고 덤덤히 바라만 본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조용한 장내에는 아왈의 흐느낌소리만 높아간다. 한 목동이 눈물젖은 목소리로 말한다.

《얘야! 그 포병은 너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똑또순 베크도 그처럼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셨단다.》

그때에야 아이들이 한마디씩 수군거린다.

《글쎄, 그렇단 말이야. 그건 영화라니까!》

《그 포병아저씬 영화배우야!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영화에 나올수 있니?》

아왈은 너무 애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지젠 굴리는 타이를 말이 떠오르지 않아 안타까와한다.

어른들은 육탄이 되여 적땅크를 까부신 포병을 아버지로 믿는 아왈의 그 순진하고 순결한 마음에 그늘을 지어주게 될가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영화기술원만 바라본다. 그러나 영화기술원도 머리를 수그리고 서있을뿐이다.

아왈은 모두에게 도전하듯 격렬하게 웨친다.

《아니야, 영화의 그 아저씬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는 도이췰란드놈의 땅크를 이렇게 불태웠단 말이야!》

아왈은 이 말과 함께 별안간 《아버지》의 시늉을 해보이며 땅바닥에 몸을 던진다.

그러자 아이들은 왁자그르 웃음을 터치고 어른들은 슬며시 고개를 돌려버린다.

아왈은 일어설념을 안하고 쓰러진채로 서럽게 흐느낀다.

목동이 다급히 아왈을 부둥켜안아일으키며 목갈린 소리를 한다.

《지젠 굴리아주머니! 어서 아이를 진정시키시우. 그저 그 도이췰란드놈의 자식들을 몽땅…》

일이 이렇게 되자 아이들은 웃음을 싹 거두고 게면쩍게 아왈한테 다가가서 한마디씩 중얼거린다.

《아왈 베크야! 다시는 성나게 하지 않을게 한번만 용서해줘.》

《나도 그럴테야!》

《정말 그렇게 하겠어!》

지젠 굴리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으며 또박또박 힘주어 말한다.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영화에 나오는 그 아저씬 너의 아버지가 옳다! 아버지는 너와 나를 지키려고, 마을사람들을 지키려고 귀중한 목숨을 나라에 바치셨단다. 너의 아버진 우는 아이들을 제일 싫어하셨단다. 그러니 너도 눈물을 거두렴.》

아왈은 대뜸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의 부드럽고 강의한 얼굴을 미덥게 쳐다본다.

(그 포병아저씬 우리 아버지이시다!)
아왈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이름할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오면서 아왈은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모두다 우리 아버지처럼 장한 사람들일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다.
소설은 그로부터 세월이 퍼그나 흘러 아왈 베크가 어느덧 어른이 되였지만 지금도 그의 심장속에는 전사한 아버지의 모습이 영생불멸할 모습으로 깊이 아로새겨져있다는 글로 끝난다.

단편소설 《아버지의 모습》에서 작가는 조국을 위해 한목숨바친 영웅전사들의 모습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가장 숭고한 모습으로 새겨지며 새 세대들은 그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혁명의 계승자로 성장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 뜻깊은 사상을 의도적으로 주입시키려 하지 않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짤막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고있다.
5살난 아왈 베크는 영화를 보다가 어머니가 부지불식간에 한마디 속삭여버린 말을 그대로 믿고 영화에 나오는 포병을 진짜 아버지로 여긴다.
이것은 그 나이 어린이들의 심리로서 능히 그럴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때문에 독자들은 저절로 이야기에 끌려들어가게 되며 작가가 말하고저 하는 사상을 생동한 화폭속에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단편소설 《아버지의 모습》은 비록 길지 않은 작품이지만 의의있는 문제의 제기와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 ❖ ——— ❖ ———

아왈은 지금까지 그 누가 너의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고 물으면 단마디로 《똑또순 베크!》라는 아버지의 이름만 곱씹을뿐 다른 대답을 찾지 못하군 하였다. 게다가 철없는 아이들은 그러한 아왈한테 아버지없는 아이라고 쩍하면 놀려댔다.

그런데 오늘저녁 온 마을사람들이 장한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았으니 인젠 그 누구도 자기를 놀려대지 못할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였고 또 모든 사람들앞에서 자랑하고싶었던것이다.

난생처음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손톱만한 증명사진으로써가 아니라 살아숨쉬는 생동한 모습으로 본 아왈의 기쁨은 이토록 환희에 넘친것이였다. 언제인가 양을 방목하던 한 목동은 아왈한테 심심풀이로 이런 말을 시킨적이 있었다.

《여—꼬마! 네 이름이 뭐지?》

《아왈 베크예요!》

《그럼 너의 아버지이름은?》

《똑또순 베크!》

《가만, 너야 교환수 지젠 굴리아주머니 아들이 아니냐? 응, 그렇지?》

아왈은 발칵 성을 내며 대들었다.

《아니예요. 지젠 굴리는 날 키워주시는 엄마이구 똑또순 베크는 우리 아버지… 아저씬 나쁜 사람이예요.》

목동은 울상이 된 아왈을 보고서야 자기가 본의아니게 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있다는것을 깨닫고 황급히 사과겸 칭찬겸 긍정하여나섰다.

《오—옳다! 네 말이 맞는다. 넌 똑또순 베크의 아들이다! 암, 그렇구말구…》

그때 목동은 아왈을 힘껏 껴안고 사람좋게 그의 아버지를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단편소설 《아버지의 모습》중에서

# 계 승

희곡 《계승》은 이전 쏘련의 작가 아. 쏘프로노브가 1969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희곡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의 3대에 속하는 각이한 세대들의 형상을 통하여 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유산은 그 어떤 재부나 향락보다 귀중한것이며 그들의 넋과 투쟁정신이 새 세대 청년들에 의해 억세게 계승될 때 조국은 더욱 위대해진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총 3막으로 구성된 희곡에는 전쟁로병인 퇴역장령 네도쎄낀과 그의 안해 류보비 뻬뜨로브나, 딸 와랴와 사위 슈모브, 손자 싸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희곡은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의 날인 뜻깊은 명절날에 전쟁로병 네도쎄낀과 그의 안해가 집에서 딸과 사위, 손자의 앞날을 두고 걱정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명절이란 말이요. 당신과 나만 집에 있고 와랴는 자기 동무네 집들만 찾아다니지, 사위라는건 또 출장을 갔지. 그런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명절때면 늘 출장을 간다, 고기잡이를 간다한단 말이야.》

네도쎄낀과 그의 안해는 딸과 사위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게다가 16살난 손자 싸샤까지도 제 아버지의 말투를 닮아가고있다.

때마침 집에 들어온 싸샤가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안왔댔는가고 묻는다. 네도쎄낀이 안왔댔다고 하자 싸샤는 대뜸 《개자식들!》하고 욕을 한다. 네도쎄낀이 타이르자 싸샤는 이렇게 대꾸한다.

《할아버지도 그전에 전선에서 싸울 땐 말이 거칠었다고 하지 않

았어요.》
싸샤가 다시 나가려는데 어머니 와랴가 들어온다. 점심을 먹고 나가라고 하는 와랴에게 싸샤는 말한다.
《어머니, 내 행복을 가로막지 말아요. 마샤, 다샤, 클라샤가 나를 기다리고있어서 그래요.》
새 세대 청년인 싸샤, 그의 행복이란 과연 어떤것인지. 그가 할아버지에게서 본받을것이란 전쟁판에서의 거친 말본새밖에 정녕 없었는지…
네도쎄낀과 류보비 뻬뜨로브나는 걱정에 잠긴다. 초인종이 울리더니 와랴의 동무 떼레자가 들어선다. 리혼한 독신녀성인 떼레자는 부정한 남녀관계에 대한 추문을 들고다니기를 꽤나 좋아하는 녀자이다.
와랴의 남편이 다른 한 젊은 녀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났다는것까지 다 알고있는 떼레자는 슈모브가 출장간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그냥 있으며 《아르바트》식당에서 어떤 알지 못할 처녀들과 식사를 하고있더라는 소식을 전해준다.
떼레자가 돌아가자 와랴는 싸샤때문에 남편의 부정한 행실을 용서해주며 참고 살아온 자신을 후회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리혼할 결심을 이야기한다.
류보비 뻬뜨로브나는 우리 녀자들의 팔자란 다 용서해주는거라고,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네도쎄낀은 단호한 립장을 취한다.
《너 결심을 바로해라. 이젠 더는 참을수 없게 됐다. 그 사람은 우리를 업신여기고있다. 다시말해서 우리의 정권, 우리의 군대를 알길 우습게 알고있다. 우리가 그한테 무슨 죄라도 지은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지난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 너절한것들은 우리를 알길 우습게 알거든.》
이러한 때 그들의 집으로 퇴역장령 스똘레또브와 퇴역대좌 까르뚜조브가 명절을 함께 즐기자고 찾아온다.
식탁에 빙 둘러앉은 그들은 잔들에 술을 붓는다.
《벗들, 우리의 전투적위업을 위해 잔을 듭시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 우리가 한 그 모든것을 위해 마십시다! 우리자신을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녀성들을 위해 마십시다!》

네도쎄낀의 축사가 끝나자 스똘레또브가 일어서서 시를 읊는다. 쏘도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노래한 시이다.

그들이 잔을 서로 쩽을 때 초인종이 울리더니 와랴의 남편 슈모브가 자기 동무들인 에두아르드, 와씰리와 함께 들어온다.

슈모브는 몹시 기분이 좋아서 자기 동무들을 식탁에 안내한다.

《이들은 나의 동무들입니다. 전투적인 현대의 청년들이지요. 이분들은 한마을에서 사는 친애하는 내 장인의 벗들이요. 이쪽은 관료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내놓고는 누구와도 싸워보지 못한 세대들이고 저쪽은 전쟁에서 무한한 용감성과 위훈을 떨친 군관과 장령들이지요. 아버님, 당신의 벗들을 위해서 잔을 들겠습니다.》

《관료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내놓고는 누구와도 싸워보지 못한 전투적인 현대의 청년》들은 전쟁로병들을 현대와 동떨어진 옛날사람들로 치부해버리며 에두아르드는 기타를 둥당거리면서 그 내용이 저속하기 그지없는 《초현대적인 노래》까지 서슴지 않고 부른다.

와랴가 듣다못해 비난해나서자 슈모브는 이건 케케묵은 도식적인 노래에 항거하여 지은 현대의 로맨스라고 대답하며 에두아르드는 《조국을 위해 앞으로》하는 이런 노래들은 이젠 싫증이 났다고 하면서 침까지 뱉는다.

네도쎄낀을 비롯한 전쟁로병들이 격분을 금치 못해하자 에두아르드는 이렇게 씨벌거린다.

《슈모브, 자넨 우리를 어디로 끌고왔나? 저분들은 년금을 받아먹고 괜찮게 살아가는 년로보장자들 같구만. 나는 200루블을 벌자면 한달동안 모지름을 써야 하는데… 이 늙은 동지들은 어떤가? 300루블을 받거든! 왜 그렇게 되는가? 저분들은 삽살개를 데리고 산보하고싶으면 산보하고 앵무새를 기르고싶으면 앵무새를 기르고! 〈고급창녀의 환희와 빈궁〉(발자크소설의 제목)이거든!》

그리고는 슈모브에게 《저분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게나.》하고 말한다.

네도쎄낀이 너희들이나 썩 사라지라고 소리지르자 에두아르드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만 지껄임을 그만두지 않는다.

《내가 무슨 말을 좀 한것 같은데 당신들의 마음에 안든단 말이지요? 그러니 당신들은 속에 품고있는 말을 하는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군요? 그럼 당신들은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슈모브의 동무들이 물러가자 전쟁로병들도 인차 자리를 뜬다.

슈모브와 단 둘이 남자 와랴는 자기의 리혼결심을 이야기한다. 슈모브는 자기의 부정한 행실이 하나하나 까밝혀지자 리혼에 동의하지만 싸샤만은 데려가겠다고 우긴다.

《당신의 아버지는 엄격한 군사규률속에서 자란 로병사란 말이요. 그는 우리의 아들을 틀안의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려 하고 있소.》

이때 싸샤가 방으로 뛰여들어온다.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 안기는 싸샤에게 슈모브는 말한다.

《우린 어머니와 더는 같이 살지 않게 됐다. 알겠냐? 어머니는 우리와 같이 살고싶지 않다는구나.》

와랴가 어쩔바를 몰라 눈물을 흘리자 싸샤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다시는 합치지 못하게 된다고, 부모님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운다. 장차 싸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지…

싸샤는 집을 나간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먼저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디도록 이야기할테야. 녀자들의 마음이 더 어져야 해.》

어느날 싸샤는 집에 놀러 온 동무들인 뻬쨔와 슬라바에게 이렇게 말한다.

끄냐크를 한잔 마신 슬라바가 영원한 사랑이란 원래 없다고, 사

람은 살고싶은대로 마음껏 살고 생활이 주는건 다 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삐쨔가 군대에 나갈 결심을 이야기하자 슬라바는 그를 생활의 락오자라고 비웃으며 싸샤가 자기 할아버지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자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의무때문에 구속을 받지 말아야 하며 사회적부는 누가 창조하든말든 자기들은 소비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삐쨔가 그의 말을 강하게 반박하지만 아버지의 일로 고민이 큰 싸샤는 슬라바를 별로 탓하지 않는다.

《나는 할아버지를 존경해. 할아버지는 베를린함락전투에 참가했어.… 그런데도 어쩐지 아버지가 더 가깝게 생각되거든. 쾌활하고… 아버지는 나를 자주 고기잡이와 자기 친구들한테 데리고 다녀. 기타도 잘 타고… 라지오로 내보내지 않는 노래도 잘 부르고… 아버지는 말재간도 있어.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재간을 잘 부리거든.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런걸 좋아하지 않아.》

싸샤가 이렇게 말하자 슬라바는 《너의 할아버진 락후한 사람이야.》라고 비난한다.

《내가 싸샤라면 그런 말을 한 대가로 너를 한대 갈겼을게다.》

삐쨔가 말한다. 슬라바와 삐쨔가 서로 맞붙으려는 순간 네도쎄낀이 나타난다.

네도쎄낀은 싸샤와 그의 동무들에게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유산, 믿음과 진리, 희망에 대하여 간곡히 이야기해준다.

싸샤가 동무들과 함께 나갈 때 네도쎄낀은 삐쨔를 불러 부탁한다.

《싸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갈라지게 됐다. 싸샤는 물론 속이 아플테지. 그러니 언제나 그애곁에 있어주렴. 그애는 지금 괴로울거다. 지금은 그애의 생활에서 힘든 고비일게다.》

손자에 대한 기대가 큰 네도쎄낀은 싸샤만이라도 자기가 걸던 길

을 걸었으면 한다.
슈모브가 에두아르드와 함께 싸샤를 데려갈 목적으로 찾아온다.
딸의 일로 심란해있는 류보비 뻬뜨로브나에게 와랴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호통치는 슈모브를 보다못해 네도쎄낀이 한마디 한다.
《자네 아낙네들하고 으르렁거리지 말고 차라리 그럴바엔 원쑤들하고 싸우게나.》
《아버님이 이미 다 싸워이겼기때문에 우리가 싸울 몫은 없습니다.》
말수단군인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네도쎄낀부부를 빼돌리고 싸샤를 꼬드기기 시작한다.
《너 떼레자란 녀자를 알지? 떼레자는 나를 헐뜯고 비방중상하고… 너의 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 듣고 우리가 갈라져야 한다고 제기했단다. 그저께 나두 에두아르드아저씨하고 극장에 가서 연극 〈아버지와 아들〉을 구경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그만 기절할번 했다. 에두아르드아저씨가 아니였다면…》
에두아르드도 맞장구를 친다.
《싸샤야, 글쎄 극장에서 너의 어머니가 웬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아주 다정하게 굴지 않겠니. 내 생각엔 너의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재가하려는것 같더라.》
끝내 꼬임에 넘어간 싸샤는 아버지를 따라나서며 그때 방에 들어선 어머니를 랭혹하게 타매한다.
《이건 어머니가 우리모두에게 저질러놓은 후과예요. 아버지한테도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도 말이예요. 우리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누구한테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싸샤를 모든 생활의 유일한 기둥으로 삼고 모든걸 그에게만 바치겠다던 아버지, 너에게 다른 어머니란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던 슈모브는 그후 인차 젊은 녀자와 결혼을 한다.
불행한 싸샤!…

몇해가 지나간다.

어느날 네도쎄낀의 집에 슈모브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싸샤가 집에 오지 않았는가고 묻는다. 국경경비대 대표들이 원동에서 왔다고 한다.(그새 중학교를 졸업한 싸샤는 군대에 입대하여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하고있었던것이다.)

네도쎄낀은 경비대에 전화를 걸어본다.

싸샤가 모스크바에 왔다는것은 사실이다. 바로 그날 수훈식이 있다고 한다.

《우리의 혈통이라는것이 느껴지거든. 건달을 부렸다면 훈장을 받을리가 있겠소?》

네도쎄낀과 류보비 뻬뜨로브나는 기뻐서 어쩔줄 모르다가 부랴부랴 상점으로 달려간다. 뒤미처 소식을 들은 와랴도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다.

떼레자가 와랴를 찾아온다.

한주일전에 슈모브의 젊은 안해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주고난 떼레자는 생활이란 고등수학이라느니 모든것이 다 역겨워졌다느니 하다가 갑자기 흐느껴울며 와랴에게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자기한테 소개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할 사람이 나질지도 모른다는것이다.

네도쎄낀이 돌아와 와랴에게 어머니가 상점에서 기다린다고 말해서야 떼레자는 나간다.

싸샤에게서 전화가 온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난 싸샤는 뻬쨔하고 같이 집에 오겠다고 한다.

네도쎄낀은 스뚤레또브에게 전화로 싸샤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까르뚜조브와 함께 군인례복을 차려입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한다.

전쟁로병들인 스뚤레또브와 까르뚜조브가 먼저 도착하고 뒤이어 기다리던 싸샤가 뻬쨔와 함께 들어서자 온 집안에 기쁨이 넘친다.

20살의 름름한 국경경비대원 싸샤가 가슴에 붉은별훈장을 번

쩍이며 씩씩하게 도착보고를 한다.

네도쎄낀부부가 싸샤를 얼싸안는다. 싸샤는 어머니를 뜨겁게 포옹한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 좀 보세요. …다 제대로 됐어요. 어머닌 그대로야요. …여전히 아름다와요. …》

모두 식탁에 둘러앉을 때 싸샤는 어머니곁에 앉는다.

네도쎄낀이 자리에서 일어나 첫 연설을 하겠다고 한다. 그의 목소리는 저으기 갈려있다.

《생활에는 이런 일들이 있단다. …뻬쨔야, 나무람을 하지 말아다오. … 내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싸샤에 대해서부터 하겠다. … 우리두 속을 좀 썩였다. … 몹시 슬펐다. 싸샤는 우리한테서 나가고… 어머니의 가슴을 허비여놓았었다. … 싸샤야, 싸샤야, 내 말을 듣거라. 이런 말은 일생에 한번밖에 더 듣지 못할수도 있다. 싸샤야, 내 귀여운 손자야.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친근한 내 아이들아, 너희들은 장하다. 너희들은 처음으로 자각적인 생활의 계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훈장을 달고 영웅이 되여 우리들앞에 나타났다. 내 젊은 친구들, 너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는 너희들의 용감성과 우리의 후손들인 너희들자신들을 위해서 마시겠다. 모두 일어나서 선채로 끝까지 다 마실것을 명령한다!》 모두 일어나서 쟁그랑소리를 내며 잔을 찧는다. 싸샤와 뻬쨔가 돌아가면서 모두에게 입을 맞춘다. 초인종이 길게 울리더니 슈모브가 들어선다.

싸샤가 반겨맞지만 슈모브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차겁게 말한다.

난 네가 우리 집으로 올줄 알았다느니, 너는 나를 배반했다느니, 사람들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보려고 왔다느니…

싸샤는 아버지를 더는 만류하지 않고 정식으로 말한다.

《군대에 복무하는동안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깨달았어요. 어머니, 내가 선참으로 찾아온것은 어머니가 아니예요. 아버지도 그래요. 노여웁게 생각지들 마십시오. 난 할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할아버지한테말입니다!》

싸샤는 계속하여 대학입학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의 고통과 군

대에 초모되여 인적없는 국경연선에 가게 되였을 때의 슬픔, 그다음부터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조국애와 병사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래서 싸샤는 할아버지를 찾아왔던것이다. 할아버지는 싸웠던것이다. 귀중한 조국강토를 지켜 싸웠던것이다.

슈모브는 끝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가고만다. 싸샤는 단호히 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하며 새 세대의 가슴에 진정한 넋을 심어준 할아버지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싸샤와 뻬쨔는 국경에서 자기들이 부르던 노래, 싸샤가 가사를 쓰고 뻬쨔가 곡을 지은 노래를 부른다.

아 국경선 국경선 국경선
세발자국앞에서 우리는 그대를 지켜섰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기발
우리의 머리우에서 펄럭이네

네도쎄낀이 감동되여 말한다.

《난 문학적인것은 잘 모른다. 하지만 정치와 군사문제에선 좀 안다. 장하다! 바로 그렇다.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기발〉은 영원히 지켜내고 휘날려야 한다.》

피아노쪽으로 다가간 네도쎄낀은 노래를 불러본다. 《국경선, 국경선, 국경선…》

모두 다가와서 싸샤와 뻬쨔를 둘러싸고 조용히 노래를 부른다. 노래의 선률이 반복되여 흐르는 가운데 막이 서서히 내리며 희곡은 끝난다.

희곡 《계승》은 사회가 발전하고 세대는 바뀌여도 혁명의 전 세대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은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한다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그와 같은 의의있는 문제를 작품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의 인간들의 각이한 관점과 립장을 통하여 해명하고있는데 바로 이것으로 하여 희곡이 양상에서는 가정

극같으면서도 그 성격에서는 사회극으로 되게 하였다는데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

희곡은 네도쎄낀과 슈모브, 싸샤의 성격형상에서 전형화, 개성화를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이밖에도 뻬쨔와 슬라바, 에두아르드, 떼레자 등의 성격도 자기의 몫이 뚜렷하게, 생활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과 함께 희곡은 스똘레또브가 읊는 시와 에두아르드의 저속한 노래, 싸샤와 뻬쨔가 부르는 노래들의 대조수법과 한 장소에서의 전쟁로병들의 명절축배장면, 국경경비대원 싸샤와 뻬쨔를 축하하는 축배장면의 반복수법 등을 통하여 선렬들의 고귀한 넋과 투쟁정신이 새 세대 청년들에 의해 억세게 계승될 때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기발》은 영원히 높이 휘날리게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희곡에서는 물론 일련의 부족점들도 찾아볼수 있다.

3막으로 구성된 작품의 무대를 세번 다 주인공의 응접실로 설정하고있는 이 작품은 많은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을 억지로 무대에 얽어매는것과 같은 무리를 산생시키고있다.

그와 같은것은 혁명의 후계자들이 조국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문제를 담당한 주요인물인 싸샤가 아무런 생활적인 해명도 없이 그저 국경경비대에 가있다는것과 국가표창을 받았다는 무대뒤의 생활을 대화로 소개하는것과 같은데서 표현되고있다.

그러나 작품은 의의있는 문제의 제기와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관중들의 찬양을 받았으며 같은 제목의 예술영화로 재현되여 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 ❖ ——— ❖ ———

네도쎄낀 : 너희들도 이제 크면 력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겠지만… 중학교 학생식으로가 아니라 어른들이 아는것처럼 말이다. 우리 인민이 전인류의 력사에서 어떤 역할을 놀았는지 알게 될게다. 그리고 우리자신을 위해서도 무엇을 했다는것을 알게 될게다. … 내가 어떤 사람이였겠니? 공부도 못한 촌아이였다. 누가 나를 공부시켜주었겠니? 누가 나를 생활에로 내세워주었겠니? 그래서 나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백번도 더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거다. 나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수백만명이다.

싸샤 : 할아버지, 근심말라요.

네도쎄낀 : 싸샤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수 있겠니. 우리가 일본사무라이들과 도이췰란드 파시스트놈들의 총탄속을 뚫고나간것은 목적없이 한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다. … 그래서 피로써 쟁취한 유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희망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니? 그 유산은 나무쪼각이나 헌 누데기가 아니다. 너희들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 손자인 싸샤 너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다싶이 우리의 공민증을 가지고있고 빵에 빠다를 발라먹으면서도 눈에 보이는것에 대해서는 모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 너희들도 모스크바교외로 야영을 가보았겠지만… 거기서 봇나무숲이 설레이는것을 보았을거다. … 그 봇나무숲은 그때 전쟁때에도 설레였었다. 너희들과 동갑별이 되는 그들은 그때 살아남지 못

했다. 그 봊나무밑에 다 묻혀버렸다.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 그들은 거기서 희생되였다. 그러니 과연 너희들이 그들을 잊을수 있단 말이냐?!

——— ❖ ——— ❖ ———

싸샤: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무엇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똑똑히 리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 이 조국강토는 우리의것이다. 나는 모든것을 책임져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은 단번에 하게 된것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것을 섭섭히 생각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갈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뻬쨔? 그래서 난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왜 할아버지를 찾아왔겠습니까? 할아버진 싸웠거든요. 우리의 조국강토를 지켜싸웠습니다.

슈모브: 말은 잘하는데 지내 일반적이다. 그리고 현대감도 적고…

스똘레또브: 그 말이야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것이니까 일반적일수밖에 없지요.

슈모브: 그런 말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지요.

싸샤: 아버진 공연히 내 말을 꺾누만요. 마음속에는 있어도 말을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나는 많은것을 깨달았고 군대생활은 나에게 많은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말속에는 깊은 뜻이 있고 무거운 책임이 깃들어있습니다. 인민과 … 조국과 정의입니다.

슈모브: 정치선동은 그만해라. 내가 이 집에 온것이 실수였나부다. 나를 만나고싶거들랑 우리 집엘 오너라. 넌 우리 집

주소를 알고있을것이다.

류보비: 이 사람아, 임자 왜 그러나? 그만하라구! 이런 날에 그러면 쓰나!

와랴: 무슨짓을 그렇게 해요? 정신을 차리세요!

싸샤: 할머니, 어머니! 놔두십시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것을 보니 매우 섭섭하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도쎄낀: 싸샤야, 지나친감이 있지 않니?

싸샤: 아니예요. 할아버지, 한때 나는 아버지면 그만인줄 알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키웠어요. 좋든 나쁘든 키웠어요. 하지만 나에게 신성한 넋을 심어준것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왜 우십니까? 나는 그대로 말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그 넋을 심어주었어요. 나를 위해 모든것을 해준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려요. 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마시겠어요. 모두가 우리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곡 《계승》중에서

# 세계문학작품해설집(2)

(재판)

집　필　리상혁, 손형호
심　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왕섭, 하천홍
편　집　리남혁　　장　정　한명신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옥경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1판발행　주체96(2007)년 9월 5일
2판인쇄　주체100(2011)년 2월 1일
2판발행　주체100(2011)년 2월 5일

ㄱ－06608ㄴ　　　　　　값 250원